

2014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 구 기 간 : 2014. 2. 11 ~ 2015. 2. 10

주관연구책임자 : 이도형 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장하리 연구원
이자람 연구원

요 약 문

제 I 장 서론

-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시장의 통합은 물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대응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음
 - 선진국의 저출산·노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야기
 - 또한 경제 성장의 둔화 및 로봇 등 자동화, IT와 융복합, 초연결사회 등으로 인한 기술 혁신의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간의 격차가 확대,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 등으로 야기되는 산업 구조의 변화 요구 등
 - 산업적 수요와 교육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미스매치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비롯한 실업과 고용간의 불균형, 새로운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
 - '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적 노력은 새로운 신사업,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경쟁력강화법(A COMPETES Act, '07, '10)',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09)',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UAI, '11)'에 따른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AUP, '11)', '첨단제조업파트너십(AMP, '11)', 'JOBS법('11)',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NNMI, '13)' 등에 노력 중이며, 영국의 경우, 디지털 경제 및 창조산업 육성 노력, 독일의 경우, 제조업 4.0(Industry 4.0), 하이테크전략 2020, 유럽위원회(EC)는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발표 등
- 또한 최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생기업 및 성장 기업으로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이 성공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는 '생태계' 조성에 주목하고 있음

-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자국 내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독일 베를린의 실리콘알레, 미국 뉴욕의 실리콘 앨리,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실리콘와디 등
 - 우리나라도 '13년도 신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의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중 하나

- 본 연구는 지역 창업 및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지역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 하나 지역 창조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운영 체계의 적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임

제 II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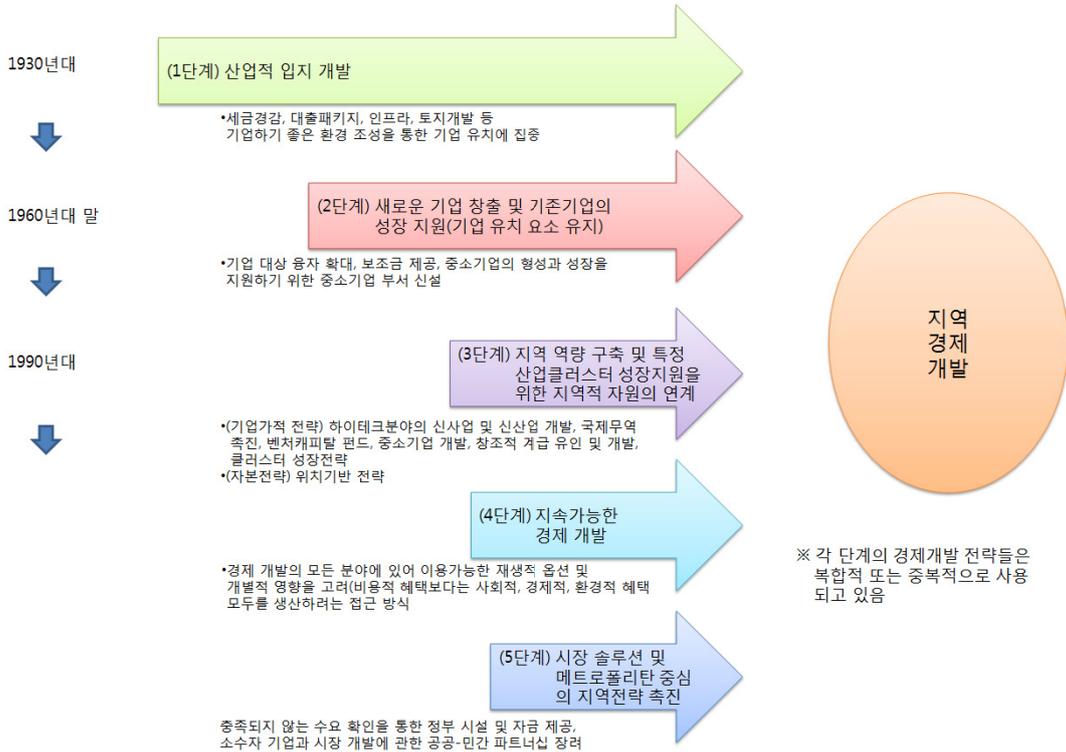
1) 경제 개발과 지역 경제 개발

- 오랫동안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에 대한 정의가 전통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은 부의 창출(wealth creation)이라 할 수 있음
 - 경제 개발이 부의 창출이라는 정의는 국제 개발 이론에 의한 지역 및 커뮤니티 개발의 관점과 기업 행동 이론에서 파생된 산업적 로케이션 관점, 그리고 기업가적 전략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경제 개발은 세금 기반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Fitzgerald & Leigh, 2002; Malizia & Feser, 1999).
 - 이 같은 정의는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을 경제 성장(economic growth)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경제적 성장의 맹목적 추구는 경제 개발의 기반을 파괴할 수 있음
 - Malizia & Feser(1999)는 경제 이론들에서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성장과 개발을 구분하고 있음
 - 성장 이론들은 경제 기반 이론과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과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지역 경제의 단기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개발 이론들은 스테이플과 기업가정신 이론에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제의 진화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장기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있는 것으로 분류
- Leigh & Blakely(2013)는 경제 개발을 논의하는데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구분
 - 첫 번째는 경제 계획과 관련된 과거 전통을 예로 들고 국가 전반의 산업 부흥(reindustrialization)을 주창하는 것임
 - 국가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영역에서 국가 경제를 리빌딩하기 위한 경제 개발 프로그램에 다시 집중(Cohen & Zysman, 1987).
 - 두 번째는 전용 세금(dedicated taxes)과 인센티브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free market)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은 경제개발과 산업에 있어 정부 개입을 더 확대하기보다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일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국가에서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탈규제화를 확대하고 최저 임금을 폐지하거나 통화량에 따라 유동화시켜야 한다고 주장(Leigh & Blakely, 2013).

- 세 번째는 기업 확대가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와 산업적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임
 - (1) 기업 투자 정책 전반에 커뮤니티의 통제가 증대하는 국가적 정책, (2) 커뮤니티의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커뮤니티에 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국가적 정책, (3) 근로자들의 생계 수단에 대한 명확성과 증가되는 통제를 제공하는 국가적 정책을 필요로 하며,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수단에는 비생산적인 투자에 관한 세금 탕감(write-offs)을 제한하는 국가적 정책, 지역 경제개발계획에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적 정책은 물론, 커뮤니티 수준에서 산업적 공간의 개발 및 소유권 모두를 획득하기 위한 대출(loans), 더 이동성이 높은 은퇴 및 혜택(benefits)과 마찬가지로 교육적 인센티브 및 근로자 재훈련 크레딧을 제공하는 국가적 정책을 포함(Leigh & Blakely, 2013).

-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성장에 대해 정의된 목표보다 희망하는 최종 상태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개발에 관하여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한 인적 및 물리적 개발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삶의 표준이 유지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음(Leigh & Blakely, 2013)
- Leigh & Blakely(2013)의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3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 개발은 모두에 관한 삶의 최소한 표준을 구축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표준을 증대시키는 것임
 - 둘째, 경제개발은 불평등성을 감소시키는 것임
 - 셋째, 경제개발은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과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임
- Leigh & Blakely(2013)는 지역 및 지방 경제 개발(regional & local economic development)의 특정 목표로 1) 미활용된 인적 또는 천연자원의 잠재력이나 다른 것이든 간에 개발되는 지역 내의 로컬리티와 지역의 경쟁적 지위 강화, 2)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한 기회의 인식을 통한 본래의 경제적 성장에 관한 기회의 실현, 3)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기적 직업 선택과 고용 수준의 개선, 4) 지역 경제에 있어 소수자 그룹과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의 참여 확대, 5) 거주자의 삶의 질 강화 및 비즈니스 개발 환경 개선의 필수 요소로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

- Leigh & Blakely(2013)가 주장한 미국의 역사적 지역 경제 개발의 5단계에서 각 단계들은 모두 역사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의 출현은 특정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각각과 관련된 지배적인 사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에 주의를 요하고 다른 단계들과 관련된 전략들의 실천에 있어 유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 지역경제개발 5단계

2) 지역 혁신생태계의 분석적 접근 방법

- 기업의 생태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은 자본(Capital), 스타트업배양기관, 지원문화 등의 규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혁신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앞서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지역의 혁신생태계가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결과 창출에 연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카우프만 재단에서는 2013년, Arch Grants 보조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업들 간의 관계, 스타트업지원기관과 기업들 간의 관계, 스타트업지원기관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사업의 발전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음

제Ⅲ장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과제

1)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적 배경

- 현재 박근혜정부(2013~2017년)는 지역 산업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현재까지의 방향으로 본다면 지역 간 협력 기반의 지역산업정책 및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기라 할 수 있음



[그림 2]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전개과정

자료: '지역산업정책 백서 1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재수정

-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작된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13.6.5)'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지역으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과 인식하에 '14년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계획하고 있음
 -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지역 혁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혁신 주체간 연계·협력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활용을 통해 지역 주도로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현장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에 있어 핵심은 지역 인재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모델을 확립하고 빠르게 지역 현장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고루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임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 추진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는 테크노파크·디자인센터(산업부),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미래부), 콘텐츠코리아 랩(문화부), 지식재산권 센터(특허청) 등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간 연계부족으로 정책효과가 분산되고, 서울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창업 환경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벤처업계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창업자나 투자자 등이 서로 교류·협업할 수 있는 협업 공간(co-working place)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의 건의가 있었음

2)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성과와 과제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15년 2월 4일 현재 6개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고, 아직 미개소된 지역이 11개나 되며, 기 개소된 지역의 경우에도 개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기반 구축기로 볼 수 있음
- 실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점과 정책적으로도 계획이 수립되고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논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추진 과정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될 지역 사회의 관심은 물론 전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점
 -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대기업의 참여로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업가적 활동 및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펀드 조성, 미활용 보유 특허의 제공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 번째는 정부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은행 등의 협력적 태도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정부 및 경제단체, 금융권의 참여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네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로 특화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으로 지역의 특화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의 수립은 물론 아울러 대전과 광주의 경우 지역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확대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적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부족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에 있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창조경제 구현은 빈약한 혁신생태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 부분임
 - 특히,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가 창출 및 유지하려는 정책의 방향이나 지역의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분위기, 커뮤니티 형성에는 특히 오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현재 정부가 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이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보장을 최우선으로 지원 필요
 -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혁신 거점 및 창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센터 직원과 참여 대기업의 지원 인력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많이 부족
 - 둘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교류·협업 공간의 성공적 정착에 우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허브 기능 수행의 핵심적 교류·협업 공간이 구축된 대전, 대구, 전북, 경북, 광주, 충북 센터를 비롯해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적 이벤트를 확대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의적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자유롭게 교류·소통·협업할 수 있는 지원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제Ⅳ장 지역 혁신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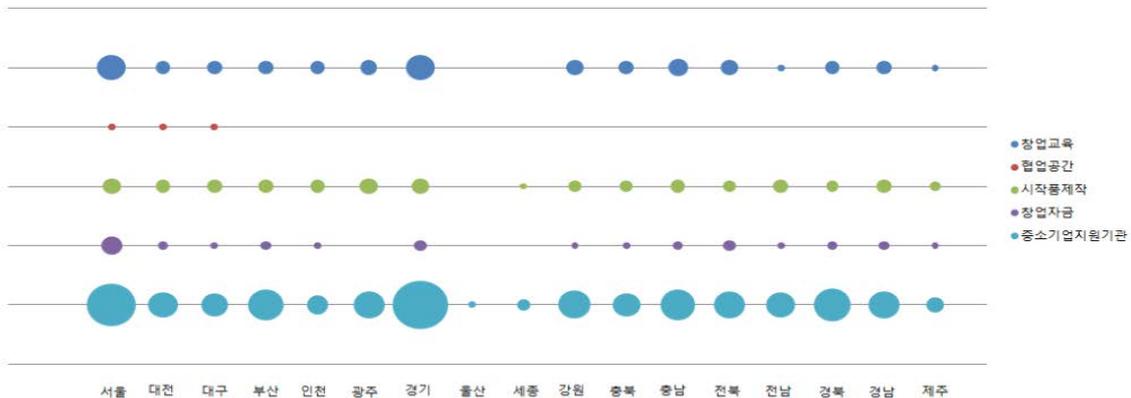
1) 지역별 혁신 역량

- 현재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혁신관련 조직 중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7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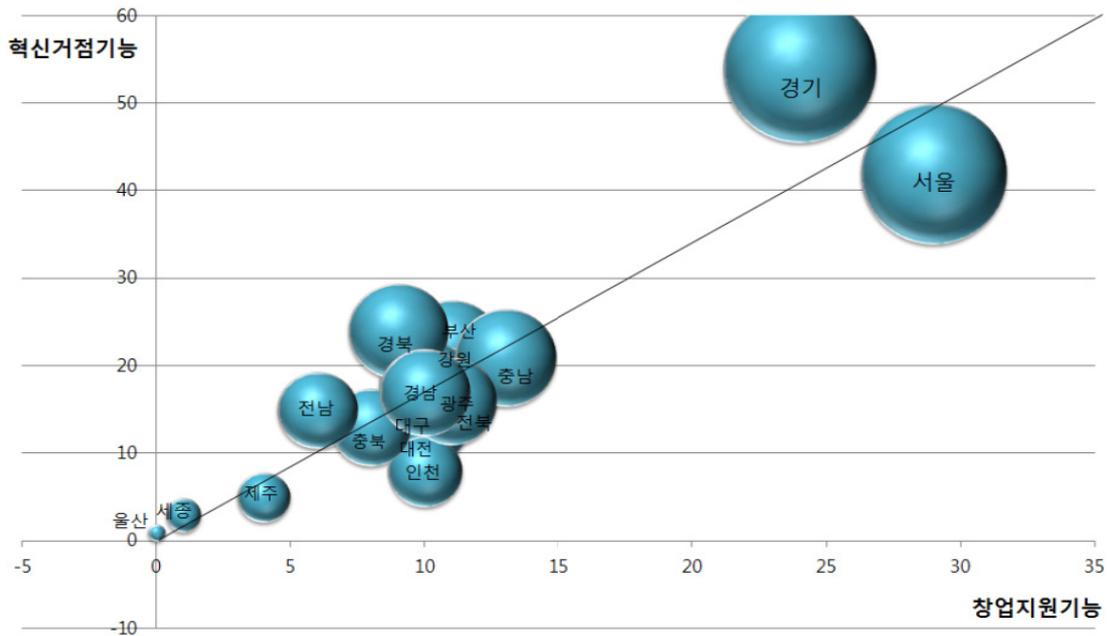
[그림 3]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 주요기관 현황

- 지역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 내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관련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창업교육, 시작품제작, 창업자금, 협업 공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7개 지역 모두 지자체 산하 BI시설과 창업보육센터 등이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되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류·협업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 주요기관 현황

- 이와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인 혁신거점 기능과 창업지원 기능이 모두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 충남, 전북, 충북, 제주 지역은 혁신거점기능과 창업지원기능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북, 강원, 전남, 세종, 울산 지역은 혁신거점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지원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17개 시·도 지역의 보유 혁신역량 및 자원의 분포

2) 지역별 혁신생태계의 연결성

-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공동연구 등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결과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17개 시·도 대부분 연결성의 대상이 되는 혁신 주체들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을 보이거나, 또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상호 협약을 통한 연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참여 주체들이 업무협약(MOU)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아울러 연계된 내용 측면에서는 기술개발, 공동연구, 인력 및 장비 교류 등을 진행하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17개 시·도 대부분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내 전체적인 연결성을 보이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한정되거나 일대일 연결성을 보이고 있어 전체 혁신생태계의 네트워크 내 분절적인 연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형태로 인해 창업교육에서 실제 스타트지원 및 성장까지의 기업가적 과정과 성장 지원에 있어 연결성이 낮은 기능적 분절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시·도별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금융기관, 민간단체 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서울 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민간단체인 벤처기업협회를 주축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선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자금조달지원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연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이 낮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 강원, 세종, 제주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 및 스타트업 지원 조직이 적으며,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17개 시·도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17개 시·도 대부분이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보이고 있음
- 17개 시·도의 혁신 및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면,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혁신 생태계 내 혁신주체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 리더들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협의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계기로 개선된 대전, 대구 지역의 사례처럼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창업교육은 물론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준비과정과 기업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가적 활동 주기 전반의 기능적 연계·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적 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태계 연결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의 스타트업 및 혁신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커뮤니티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은 자생적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

제 V 장 해외 주요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성공사례

- 미국의 실리콘밸리, 실리콘앨리, 세인트루이스 지역을 비롯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테크시티, 독일의 실리콘알레,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 등 해외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조성 성공사례를 조사·하였음
- 해외 주요국의 도시기반 지역 창업 생태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 해외 모범 창업생태계의 특징

사례	영국 Tech City	독일 Silicon Allee	미국 Silicon Alley	미국 Silicon Valley	이스라엘 Silicon Wadi	미국 Saint Lois	네덜란드 아인트호반
지역	런던	Mitte	맨해튼	실리콘밸리	텔아비브	세인트루이스	아인트호벤
산업 분야	디지털 ICT	디지털	뉴미디어 결합 콘텐츠	하이테크	하이테크	-	하이테크
지원 기관	TCIO (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	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Bay Area Council	지자체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TN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발전 과정	기업가, 예술가 밀집지역 > 디지털허브 > 레저기반 지역	기업가, 예술가 밀집지역 > 디지털허브	금융산업의 중심지 > 패션, 디자인, 정보기술인재를 통한 뉴미디어 결합 > 콘텐츠 창업허브	지난 60년간 혁신센터의 역할을 이끔	기업가들의 이주지역 > 글로벌 창업허브	-	기업 밀집지역 > 기술 분야 창업허브
파트너쉽	공공, 교육, 국제, 기업, 단체, 대학과의 파트너쉽	공공, 교육	공공, 교육, 국제, 기업, 단체, 대학과의 파트너쉽	공공, 교육, 국제, 기업, 단체, 대학과의 파트너쉽	공공, 교육, 국제, 공동작업공간	교육, 지원조직	기술기업, 공공, 민간연구기관, 대학
Active Player	정부, 대학, 글로벌 기업	대학 및 정부	글로벌 기업 및 커뮤니티 (New York Tech Meetup)	연구중심 대학 및 연구기관, 스타트업 배양기관, 글로벌 기술기업	지역 정부	지원조직 및 커뮤니티	기술기업, 비영리 조직
강점	유수대학을 통한 인재보유와 글로벌기업의 지원,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많은 공동작업공간의 보유	뉴욕도시의 환경적 여건, 글로벌기업의 이주, 글로벌 로펌, 금융기업 등을 보유	기술분야 연구중심 유수대학을 통한 인재보유와 글로벌 기술기업의 지원	글로벌 인재 및 기업보유 젊은 도시지역 인구	비교적 저렴한 임지조건	기술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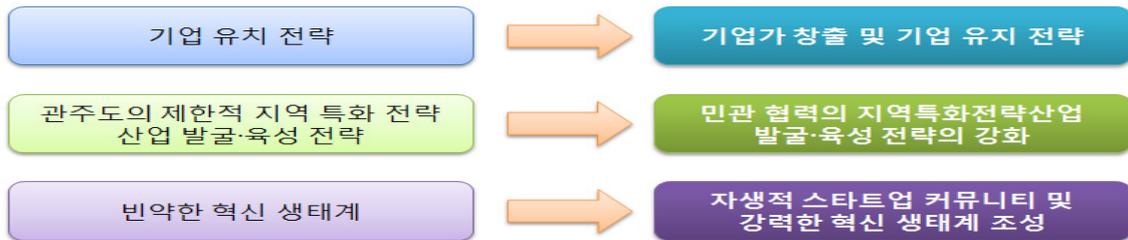
- 이들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있어 혁신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성공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첫째, 혁신지역으로의 최초 계기는 지역의 경제적 위기와 이에 따른 지역 내 고급두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지도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에서 출발하고 있음
 - 둘째, 우수사례의 이면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연구중심대학, 기업체,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와 상호학습 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
 - 셋째, 우수사례의 성공배경에는 지역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문화 구조와 지역번영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기업가적 리더십과 행위주체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있음
 - 넷째, 혁신지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수 있는 혁신기술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지역 내 앵커기업(anchor company) 또는 종자 기업(seeding company)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 다섯째, 혁신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성공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제Ⅵ장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 개선 방안

1) 지역 창조경제협의체 운영·강화 방안

□ 지역창조경제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 설정

- 첫째, 기업가 창출 및 기업 유지 전략임
 -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기업가 창출 및 기업가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지역 인재를 기업가로 유인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
- 둘째, 민관 협력의 지역 특화전략산업 발굴·육성 전략의 강화임
 - 특히 박근혜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의 특화전략산업 발굴·육성에 있어 민관 협력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와 결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생적 스타트업 커뮤니티 및 강력한 혁신 생태계의 조성임
 - 해외 주요 선진 도시기반 창업 생태계처럼 강력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 아울러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관심과 결심, 준비 과정을 돕는데 있어,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가적 문화 형성과 기업가와의 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조성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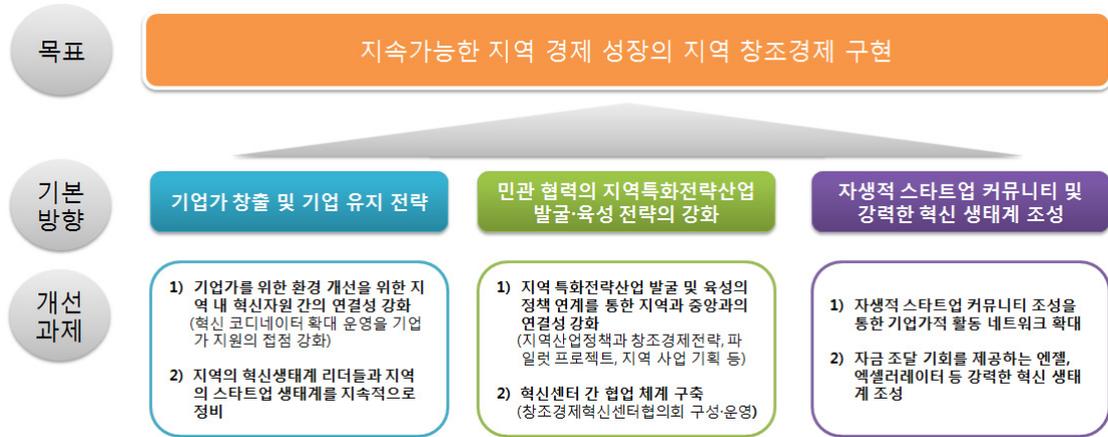


[그림 6]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기본 방향

□ 지역 창조경제협의체 운영 모델의 개선 방안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 및 지역 혁신거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구축된 혁신 인프라 등 지역의 자원 및 조직 등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지역의 산학연 리더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 바탕에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충돌을 방지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그림 기 지역 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모델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첫째, 기업가 창출 및 기업가 유지에 있어 지역의 지원조직간 연결성을 강화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내 혁신 코디네이터를 지역의 혁신조직간 모두 확대할 수 있는 형태의 혁신코디네이터라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포함 기업가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음
 -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산학연관 리더들과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둘째, 지역의 특화 전략 산업 발굴에 있어 논의와 지역 자원과 중앙, 민간, 지역 간의 연결성 확대가 필요
 - 지역 자원과 중앙간의 연결성 확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관련 시·도 자체 또는 국가계획의 시·도 부문 계획 수립 등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며, 기존 사업의 개선 또는 신규 지역 창조경제사업 관련 발굴·기획은 물론 지역별 맞춤형 미래 먹거리 및 주력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등의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특히 산업부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지역의 주요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요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는 지역 혁신개발 계획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의 발굴까지 제안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추진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체계를 활용하여 지역과 민간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화전략산업을 발굴·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 있음
- 아울러 지역 내 민간과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혁신 커뮤니티 조성은 물론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출하는 기업 및 지역의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에 있어서도 연계·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간 연계·협력을 지원할 창조경제혁신센터협업체 형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위킹 그룹 운영도 지역별 특화전략산업의 특성 및 범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확대 필요
- 셋째, 지역의 자생적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및 강력한 혁신 생태계의 조성임
 -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 기업 연구원 등 기술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과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혁신조직 리더들과 기업이 협력할 경우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스타트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가적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해 볼 수도 있으며, 기업가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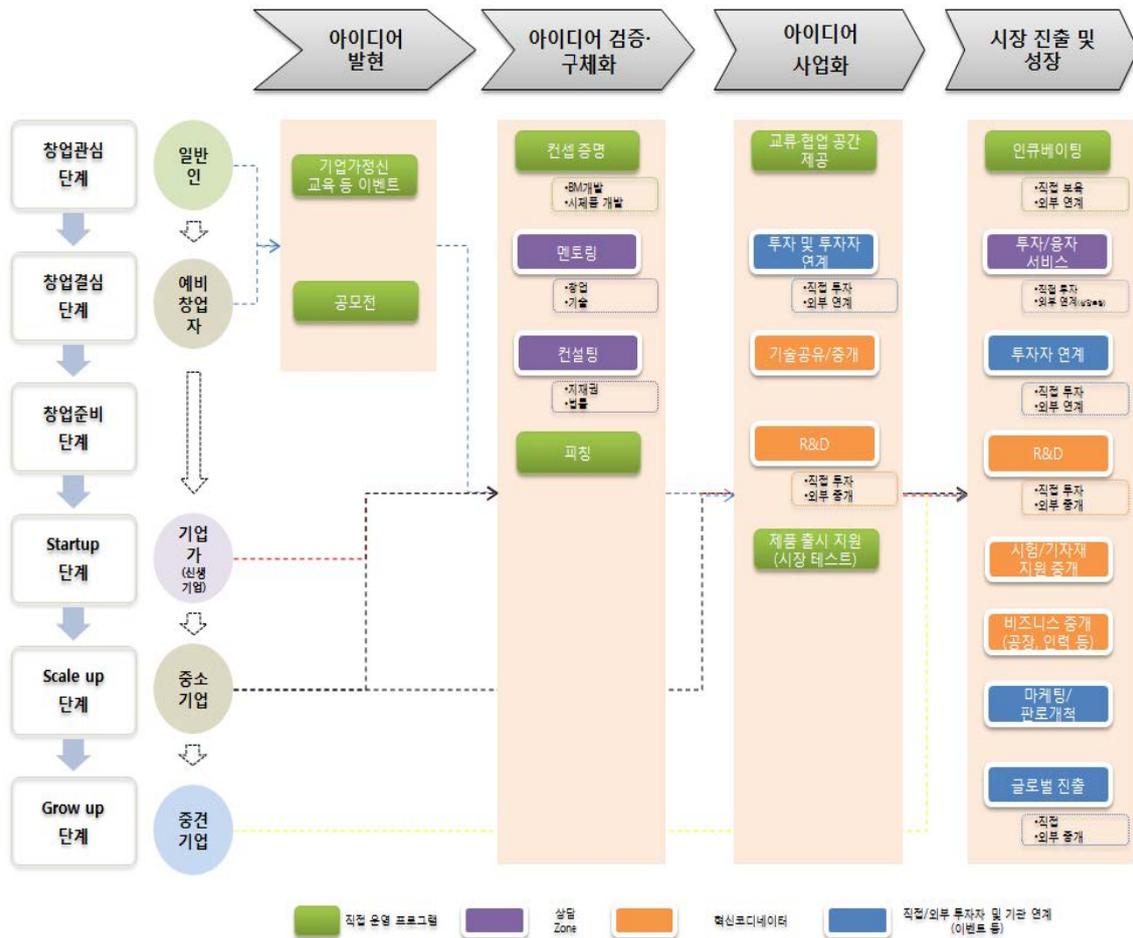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개선 방향과 실천 과제



[그림 8]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목표 및 개선 방향

□ 혁신센터 기업가적 활동 서비스의 강화

- 광범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다양한 기능과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발현에서 사업화까지는 물론 시장 진출과 성장 과정을 도와주는데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지역의 기업가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고객은 물론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지로서 지역민의 지지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혁신센터의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기본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 개소된 혁신센터는 물론 새롭게 개소할 혁신센터를 포함하여 혁신센터 모두의 공통적 서비스 모델로서 지역의 기업가적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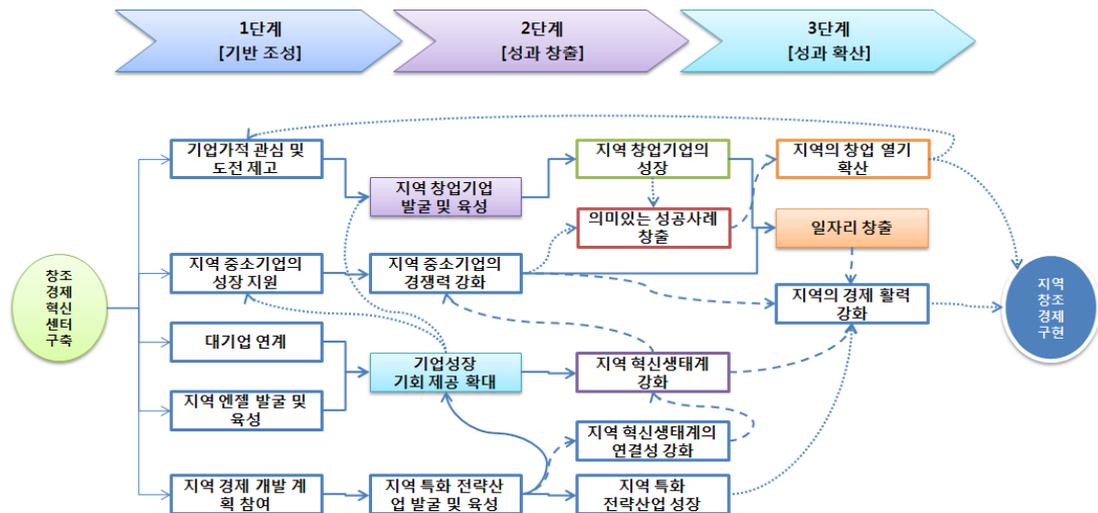
[그림 9]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서비스 공통 모델 개념도

□ 혁신센터의 협업의 강화

-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기관간의 연결이 중요
 - 혁신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에서부터 특허 등 기술 중개, 산학연 협력 중개, 시제품제작 등 시험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투자자 연계 등의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의 인재와 기업가의 측면에서도 지역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혁신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간 경쟁과 협력에도 노력할 필요
 - 지역적으로 특화된 분야로 인한 협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공통의 운영 모델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기업가적 촉매적 이벤트 개최, 멘토 및 전문가풀의 구축 및 활용 등에 있어 연계·협력이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혁신센터간 협력을 이끌고 조정해 줄 조정 협의체의 신설이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또는 미래부가 그 조정자 역할이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관리의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성과와 그 의미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책적 지지는 물론 기업가적 문화 형성과 참여자는 물론 지지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림 10]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성과 논리모형 개념도

- 전주기적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지역 센터별 특성·대기업 역량 등을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과 함께 혁신센터별 특화된 프로그램 및 운영 내용을 고려한 성과관리 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요구됨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새로운 신산업·신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핵심적 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기업가 창출 및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두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지역 개발 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지역적 차원에 있어서도 지역 경제 개발 및 성장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구축하면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지역 경제 개발의 단계와 전략에 있어 정책적 초점은 기업가의 창출 및 기업의 유지·성장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방향도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가의 창출 및 기존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비즈니스 개발 수단과 비교할 때 단순한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교류협업 공간(co-working, networking place)이나 중소기업 지원 센터와 같은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의 혁신센터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물론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등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의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지향하는 지역 경제성장의 정책적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요한 고려요인이 기업가와 연관성을 갖는 요소로 연결성(connectivity)을 두고 있음
 - 지원조직간의 관계는 조직들간의 융합활동을 통한 관계형성과 기업가들과 주요조직들과의 관계는 기업의 지원 유형에 따른 유형과 다양한 지원요소들간의 연결성으로 나타남
 - 지역창조경제협의회라는 지역 혁신생태계 내 혁신 조직 및 자원 간 연결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운영 방안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음

-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방안 마련
- 둘째, 지역혁신자원과 혁신센터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셋째,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관리 강화 방안 마련

□ 본 연구를 통해 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 추진에 있어 고려될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향하는 지역 창조경제 구현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자원은 물론 중앙과 민간의 강력한 혁신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
- 둘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원 및 예산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나 지자체, 전담 기업은 물론 장기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셋째, 창조경제혁신센터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 전반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지역의 기업가 창출과 재창출을 활발히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기업벤처링(CVC)의 확대 및 유인에 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기대효과.....	5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6
제1절 경제 개발과 지역 경제 개발.....	6
1. 경제개발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접근 방식.....	6
2. 지역 경제개발의 정의와 지역경제개발 단계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9
1) 신고전 경제 이론(Neoclassical Economic Theory).....	20
2) 경제 기반 이론(Economic Base Theory).....	21
3) 제품 주기 이론(Product Cycle Theory).....	23
4) 로케이션 이론(Location Theory).....	24
5)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	27
6) 유인 모델(Attraction Models).....	28
7) 신 시장 모델(New Markets Model).....	29
8)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이론.....	30
3. 지역 경제개발계획에 있어 실제적 적용 이론, 모델, 유형.....	33
제2절 지역 혁신시스템과 창업지원 생태계.....	42
1. 지역혁신체제와 혁신 클러스터 모델.....	42
1) 지역혁신체제.....	42
2) 혁신 클러스터 모델.....	43
2. 창업 생태계(startup echo-system).....	45
제3절 창조경제와 지역창조경제.....	47
1. 지역창조경제의 개념적 필요성.....	48
2. 지역창조경제의 개념적 모형.....	50
제4절 지역 혁신생태계의 분석적 접근 방법.....	53
제3장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과제	57
제1절 지역 경제개발 정책의 변화 과정.....	57
제2절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역 혁신정책 모델.....	62
제3절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추진 개요.....	64
1.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추진 개요 및 동향.....	64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	67

1) 초기 운영 모델.....	67
2) 현재의 운영 모델.....	70
3.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성과와 과제.....	76
제4장 지역 혁신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87
제1절 지역별 혁신 역량.....	87
1. 지역별 혁신 역량.....	87
1) 서울.....	87
2) 경기.....	92
3) 대전.....	96
4) 대구.....	100
5) 인천.....	103
6) 광주.....	106
7) 울산.....	110
8) 부산.....	113
9) 세종.....	116
10) 충남.....	118
11) 충북.....	122
12) 강원.....	125
13) 경북.....	128
14) 경남.....	132
15) 전남.....	136
16) 전북.....	139
17) 제주.....	142
2. 지역별 혁신 역량 시사점.....	146
제2절 지역별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 및 개선과제.....	150
1. 지역별 혁신생태계 연결성.....	150
1) 서울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50
2) 경기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58
3) 대전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65
4) 대구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71
5) 인천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77
6) 광주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83
7) 울산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88
8) 부산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92
9) 세종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98
10) 충남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00
11) 충북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05
12) 강원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11
13) 경북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16

14) 경남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21
15) 전남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26
16) 전북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31
17) 제주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36
2. 시사점 및 과제	241
제5장 해외 주요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성공사례	246
제1절 해외 주요 도시기반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현황	246
1. 미국의 Silicon Valley(Bay Area)	246
2. 미국 뉴욕시의 Silicon Alley	251
3. 영국 런던의 Tech City	256
4. 독일 베를린의 Silicon Allee	259
5.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Silicon Wadi	262
6.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Saint Louis	264
7.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반	265
제2절 해외 주요 도시기반 창업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268
1. 미국 샌프란시스코 Bay Area와 Silicon Valley	268
1)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결	271
2) 연구기관들과의 연결	275
3) 기업연구소 및 그 외 민간연구소들과의 연결	278
4)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연결	279
2. 미국 뉴욕시의 Silicon Alley	282
1) 스타트업 지원조직과의 연결	287
2) 자금 지원조직들과의 연결	289
3)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공동작업 공간과의 연결	293
4) 커뮤니티들과의 연결	295
3. 영국 런던의 Tech City	297
1)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300
2)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결	300
3) 아이디어 이벤트를 통한 연결	302
4. 독일 베를린의 Silicon Allee	303
1) 지역 대학과의 연결	305
2) 공동작업 공간과의 연결	306
5.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Silicon Wadi	311
1) 이니셔티브 파트너십과의 연결	314
6.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St. Louis Region	317
1) 지원조직들과의 연결	319
2) 커뮤니티 및 행사를 통한 연결	320
7.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322
1) 기업과의 연결	325

2) 비영리 조직과의 연결.....	328
3) 교육기관 및 스타트업 배양기관과의 연결.....	328
제3절 해외 주요 도시기반 창업지원 생태계의 주요 중심 조직.....	330
1. Bay Area의 Bay Area Council.....	330
2. Bay Area의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334
3. 뉴욕의 NYCEDC.....	337
4. Tech City의 TCIO.....	339
1) 투자활성을 위한 지원.....	339
2) 외부자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	341
3) 기업 활동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342
5. 베를린의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	343
1) 아이디어 이벤트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343
2) 자금 접근성의 확대.....	344
3) 도시홍보 조직 구성을 통한 지역개발.....	347
6. 이스라엘 Tel Aviv의 Tel Aviv - Yafo municipality.....	349
7. Saint Louis의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351
8. 아인트호반의 TNO(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353
1) 정부의 이니셔티브.....	353
2) TNO(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354
제4절 시사점.....	357
제6장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모델 개선 방안.....	363
제1절 지역 창조경제협의체 운영· 강화 방안.....	363
1. 지역 창조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63
2.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모델의 개선 방안.....	366
제2절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개선 방향과 실천 과제.....	375
1. 혁신센터 기업가적 활동 서비스 강화	375
2. 혁신센터의 협업 강화	377
3.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관리 강화.....	379
제3절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제안 사례	382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94
참고문헌.....	398

I 표목차

<표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 지역경제개발의 5단계 요약.....	16
<표 2> 경제 개발 이론들의 요약.....	19
<표 3> 기업의 입지적 기원.....	24
<표 4> 지역 경제 개발의 구성요인에 대한 재형성.....	35
<표 5> 지역 경제 개발 계획에 실제적 적용 이론, 모형, 유형들.....	40
<표 6> 비즈니스 개발 수단 및 목표의 매칭.....	41
<표 7> 산업단지와 클러스터의 비교.....	44
<표 8> 지역창조경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52
<표 9> 시·도별 협력산업 선정결과(16개).....	61
<표 10> 시·도별 주력산업 선정결과(63개).....	61
<표 11>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경과.....	66
<표 12>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존 비즈니스 개발 수단 및 목표의 매칭.....	69
<표 13>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연계 현황.....	71
<표 14>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참여 이후 성과.....	78
<표 15> 창조경제 교류·협업 공간 운영 지원 실적.....	79
<표 16> 대전창조경제협의회 안건 주요 내용 요약.....	84
<표 17> 산업부 지역 주력산업 육성 계획과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연계 내용 비교.....	86
<표 18> 서울지역의 산업구조현황.....	87
<표 19> 서울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88
<표 20> 서울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89
<표 21> 서울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90
<표 22> 경기지역의 산업구조현황.....	92
<표 23> 경기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93
<표 24> 경기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94
<표 25> 경기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95
<표 26> 대전지역의 산업구조현황.....	96
<표 27> 대전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97
<표 28> 대전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98
<표 29> 대전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99
<표 30> 대구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00
<표 31> 대구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00
<표 32> 대구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01
<표 33> 대구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02
<표 34> 인천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03
<표 35> 인천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04
<표 36> 인천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05
<표 37> 인천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06

<표 38> 광주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07
<표 39> 광주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07
<표 40> 광주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08
<표 41> 광주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09
<표 42> 울산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10
<표 43> 울산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11
<표 44> 울산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11
<표 45> 울산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12
<표 46> 부산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13
<표 47> 부산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14
<표 48> 부산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15
<표 49> 부산지역의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16
<표 50> 세종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17
<표 51> 세종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17
<표 52> 세종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18
<표 53> 충남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18
<표 54> 충남지역의 청년 인구 및 보유 대학 현황.....	119
<표 55> 충남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20
<표 56> 충남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21
<표 57> 충북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22
<표 58> 충북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23
<표 59> 충북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23
<표 60> 충북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24
<표 61> 강원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25
<표 62> 강원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26
<표 63> 강원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27
<표 64> 강원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28
<표 65> 경북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29
<표 66> 경북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29
<표 67> 경북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30
<표 68> 경북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31
<표 69> 경남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32
<표 70> 경남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33
<표 71> 경남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34
<표 72> 경남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35
<표 73> 전남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36
<표 74> 전남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37
<표 75> 전남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37
<표 76> 전남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38
<표 77> 전북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39
<표 78> 전북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40

<표 79> 전북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41
<표 80> 전북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42
<표 81> 제주지역의 산업구조현황.....	143
<표 82> 제주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143
<표 83> 제주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144
<표 84> 제주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145
<표 85>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 주요기관의 기능별 분포 현황.....	146
<표 86> 서울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50
<표 87> 경기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58
<표 88> 대전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65
<표 89> 대구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71
<표 90> 인천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77
<표 91> 광주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83
<표 92> 울산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88
<표 93> 부산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192
<표 94> 세종지역의 혁신 조직.....	198
<표 95> 충남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200
<표 96> 충북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205
<표 97> 강원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211
<표 98> 경북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216
<표 99> 경남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221
<표 100> 전남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226
<표 101> 전북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231
<표 102> 제주지역의 혁신 조직.....	236
<표 103> 베이지역의 주요 혁신지원 조직.....	268
<표 104> 베이지역 대학 현황.....	271
<표 105> 베이지역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 주요 조직.....	273
<표 106> CITRIS의 이니셔티브.....	277
<표 107> 베이지역의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주요 스폰서 유형.....	280
<표 108> 뉴욕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	284
<표 109> 뉴욕 지역 성장계획 이니셔티브 ‘Start-Up NY’.....	291
<표 110> 테크시티의 파트너쉽 현황.....	297
<표 111> 테크시티의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	298
<표 112> 2012년도 테크시티지역의 투자유치 현황.....	301
<표 113> Smart Award의 내용.....	302
<표 114> 베를린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	303
<표 115> 텔아비브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조직.....	312
<표 116> 세인트루이스지역의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	317
<표 117> 주요 지원조직별 기능 유형.....	320
<표 118> 세인트루이스의 기업가 행사.....	321
<표 119> 아인트호벤의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	322

<표 120> 아인트호벤의 인프라.....	326
<표 121>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의 업적.....	331
<표 122> TCIO의 성과.....	340
<표 123> Exceptional Talent visa	341
<표 124> 운영을 위한 각 파트너들의 투자지분율.....	343
<표 125> ProjectFuture의 지난경연대회 개요.....	344
<표 126> CrowdFundingBerlin의 펀딩/투자 파트너 플랫폼.....	345
<표 127> IBB의 활동 내용.....	346
<표 128> Yafo municipality의 프로젝트.....	349
<표 129> Winners of the Intelligent Community Award.....	353
<표 130> TNO의 미션 및 전략.....	355
<표 131> 해외 모범 창업생태계의 특징.....	357
<표 132> 해외 모범 창업지원 조직 및 기관의 특징.....	361
<표 133> 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365
<표 134> Boulder의 주요 스타트업 커뮤니티.....	373
<표 135> SUAP의 기업 분류 현황 및 지원 대상.....	380
<표 136>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재투자비용.....	392
<표 137> 수요 10억원당 경제적 과급효과.....	393

I 그림목차

[그림 1] 복합적이고 상호적으로 연결된 사회 및 경제적 주요 문제들.....	1
[그림 2]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 지역경제개발 5단계.....	15
[그림 3] 프로세스 플랫폼 주변에 기반을 둔 벤처 이해관계자.....	45
[그림 4] 지역창조경제의 개념적 모형.....	51
[그림 5] Arch Grants의 스타트업들 간의 관계.....	54
[그림 6]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전개과정	57
[그림 7]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58
[그림 8]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전 및 추진 전략.....	64
[그림 9] 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세스	67
[그림 10]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68
[그림 11]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69
[그림 12] 대기업 참여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전 및 목표, 주요 기능.....	72
[그림 13] 지역 창조경제 조성 방향.....	73
[그림 14]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및 운영 지원 체계.....	74
[그림 15]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의 진화 및 발전.....	76
[그림 16]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계획.....	81
[그림 17]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 주요기관 현황.....	146
[그림 18]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기관의 기능별 분포 현황	147
[그림 19] 17개 시·도 지역의 보유 혁신역량 및 자원의 분포.....	148
[그림 20] 서울지역의 혁신 생태계.....	151
[그림 21] 서울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54
[그림 22] 서울지역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55
[그림 23] 서울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	157
[그림 24] 경기지역의 혁신 생태계.....	159
[그림 25] 경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62
[그림 26] 경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63
[그림 27] 경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64
[그림 28] 대전지역의 혁신 생태계.....	166
[그림 29] 대전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68
[그림 30] 대전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169
[그림 31] 대전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	170
[그림 32] 대구지역의 혁신 생태계.....	172
[그림 33] 대구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74
[그림 34] 대구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75
[그림 35] 대구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76
[그림 36] 인천지역의 혁신 생태계.....	177
[그림 37] 인천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80
[그림 38] 인천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81

[그림 39] 인천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82
[그림 40] 광주지역의 혁신 생태계	183
[그림 41] 광주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85
[그림 42] 광주지역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86
[그림 43] 광주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87
[그림 44] 울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188
[그림 45] 울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90
[그림 46] 울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91
[그림 47] 울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91
[그림 48] 부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192
[그림 49] 부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95
[그림 50] 부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96
[그림 51] 부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97
[그림 52] 세종지역의 혁신 생태계	198
[그림 53] 세종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99
[그림 54] 충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200
[그림 55] 충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02
[그림 56] 충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03
[그림 57] 충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04
[그림 58] 충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205
[그림 59] 충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08
[그림 60] 충북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209
[그림 61] 충북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10
[그림 62] 강원지역의 혁신 생태계	211
[그림 63] 강원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13
[그림 64] 강원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214
[그림 65] 강원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15
[그림 66] 경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217
[그림 67] 경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18
[그림 68]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19
[그림 69]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20
[그림 70] 경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221
[그림 71] 경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23
[그림 72] 경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24
[그림 73] 경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25
[그림 74] 전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226
[그림 75] 전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28
[그림 76] 전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29
[그림 77] 전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30
[그림 78] 전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231
[그림 79] 전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34
[그림 80] 전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34

[그림 81] 전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35
[그림 82] 제주지역의 혁신 조직	236
[그림 83] 제주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238
[그림 84] 제주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239
[그림 85] 제주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40
[그림 86]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전후 혁신 생태계 연결성	244
[그림 87]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전후 혁신 생태계 연결성	245
[그림 88] Flow of Assets in the Prosperity Cycle	247
[그림 89] 기술 혁신 가치사슬	247
[그림 90] Silicon Valley의 주요기업	249
[그림 91] Silicon Valley기업에 대한 투자건수 및 규모	250
[그림 92] Silicon Valley Deal Share vs. Major Tech Hubs (Q2'10-Q2'13)	251
[그림 93] Silicon Valley Funding Share vs. Major Tech Hubs (Q2'10-Q2'13)	252
[그림 94] 뉴욕주 정보기술분야 스타트업 VC투자	253
[그림 95] 뉴욕주 정보기술분야 Exits	253
[그림 96] Digital Economy Employment Share '97-'10	257
[그림 97] 테크시티지역 산업별 일자리 분포도	257
[그림 98]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259
[그림 99]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경제 현황	263
[그림 100] 아인트호벤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267
[그림 101] Bay Area를 중심으로 본 Silicon Valley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270
[그림 102] Bay Area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270
[그림 103] 캘리포니아 공립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272
[그림 104] 캘리포니아 대학별 발명 및 특허출현 현황	272
[그림 105] QB3 스타트업 분야별 일자리 창출 성과	276
[그림 106] New York Dominated by Information-Centric Industries	282
[그림 107] 뉴욕의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환경적 조건	283
[그림 108] 뉴욕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286
[그림 109] 뉴욕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287
[그림 110] 뉴욕 기술 분야 스타트업 설립자의 졸업 대학 순위	288
[그림 111] 뉴욕의 자금지원 조직들과의 연결	290
[그림 112] 뉴욕주의 10개 세금면제 지역	291
[그림 113] Start-Up NY의 tax-free community 정보제공	292
[그림 114] General Assembly	294
[그림 115] Made in NYC의 온라인 플랫폼	296
[그림 116] Tech city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299
[그림 117] 테크시티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299
[그림 118] 글로벌 기업의 참여와 지원조직들과의 연결	301
[그림 119] 베를린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304
[그림 120] 베를린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305
[그림 121] Berlin Partner의 파트너	310
[그림 122] 텔아비브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313

[그림 123]	텔아비브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314
[그림 124]	공공 및 민간부분의 참여	315
[그림 125]	St. Louis Region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318
[그림 126]	세인트루이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318
[그림 127]	세인트루이스 지역 지원조직들 간의 연결	319
[그림 128]	Eindhoven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323
[그림 129]	아인트호벤의 스타트업 생태계	324
[그림 130]	아인트호벤의 R&D Hot Spot과 네덜란드 Top10 R&D기업	325
[그림 131]	High Tech Campus Eindhoven	327
[그림 132]	아인트호벤의 스타트업 배양기관	329
[그림 133]	Bay Area Council의 조직도	330
[그림 134]	기관별 주요 이슈 및 관계	331
[그림 135]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의 조직도	332
[그림 136]	Bay Area Science & Innovation Consortium의 조직도	333
[그림 137]	SEEDZ Project & Elements	335
[그림 138]	온라인을 통한 Digital.NYC의 정보제공	338
[그림 139]	베를린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성과	343
[그림 140]	CrowdFundBerlin 운영방식	345
[그림 141]	Berlin Partner의 마케팅 캠페인	347
[그림 142]	Organizational Structure Behind Berlin Partner	348
[그림 143]	Be Berlin 캠페인	348
[그림 144]	TNO의 조직도	355
[그림 145]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 기업 육성 추진 체계	363
[그림 146]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별 혁신 커뮤니티 체계(안)	366
[그림 147]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기본 방향	367
[그림 148]	지역 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모델의 개선 방향과 과제	368
[그림 149]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연결성 강화 개념도	369
[그림 150]	지역산업 발전 협의체와의 관계 설정 개념도	370
[그림 15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버넌스와 혁신센터간 연계 강화 개념도	371
[그림 152]	볼더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	374
[그림 15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목표 및 개선 방향	375
[그림 154]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서비스 공통 모델 개념도	376
[그림 155]	SUAP 가입 회원 현황	380
[그림 156]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성과 논리모형 개념도	381
[그림 157]	경기도 동남부 권역의 지리적 현황	383
[그림 158]	경기도 공공부문 개발 정책 현황	384
[그림 159]	디자인 혁신 프로세스	387
[그림 160]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388
[그림 161]	대학을 통한 지역혁신	389
[그림 162]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 개념	390
[그림 163]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 발전 단계	39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시장의 통합은 물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식기반 사회(knowledge based society)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대응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의 저출산·노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의 둔화 및 로봇 등 자동화, IT와 융복합,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등으로 인한 기술 혁신의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간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 등으로 야기되는 산업 구조의 변화 요구는 물론 산업적 수요와 교육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미스매치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 양산 등을 비롯한 실업과 고용간의 불균형, 새로운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거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사회적 이슈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chicken & egg problem)'와 같이 국가나 지역, 기업, 개인 차원의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문제들로서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복합적이고 상호적으로 연결된 사회 및 경제적 주요 문제들

‘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적 노력은 새로운 신사업,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경쟁력 강화법(A COMPETES Act, ‘07, ‘10),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09),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UAI, ‘11)에 따른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AUP, ‘11), 첨단제조업파트너십(AMP, ‘11), JOBS법(‘11),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NNMI, ‘13) 등에 노력 중이며, 영국의 경우, 디지털 경제 및 창조산업 육성 노력, 독일의 경우, 제조업 4.0(Industry 4.0), 하이테크전략 2020, 유럽위원회(EC)는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발표 등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투자 확대는 물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책적 수단과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경제발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신생기업 및 성장 기업으로부터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고 나타내고 있다.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지원 조직 및 기관들 간의 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킹이 새로운 기업이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자국 내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독일 베를린의 실리콘알레, 미국 뉴욕의 실리콘앨리,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실리콘와디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3년도 신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의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4년 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하겠다는 신년 구상¹⁾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발표 이후 2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이후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구축 방안(‘14.3.7)’을 발표하였다. 미래부의 이 계획에 의하면 ‘14년 상반기 중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모델을 정립하여 우선 개소·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타 시·도로 확산하는

1)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계획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간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효과가 분산되고, 서울에 비해 지역의 창업 환경이 열악하여 기업가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벤처업계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창업자나 투자자 등이 서로 교류·협업할 수 있는 협업 공간(co-working place)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의 건의가 있었다.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3월에는 대전, 4월에는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지역 창업 및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지역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 하나인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운영 체계의 적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창업 및 혁신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어야 하므로 번성해야 한다. 지역 생태계가 번성하고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생태계내의 혁신 주체들은 물론 정부,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과 협력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해 9월부터는 그동안 지역 혁신 생태계에 부족했던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설득이 필요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되는 과제들이며, 세계 주요 경쟁국들이 경쟁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붉은 여왕의 효과(red queen effect)²⁾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시카고 대학의 진화학자 리 반 베일런(Leigh Van Valen, 1935~2010)이 생태계의 편형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붉은 여왕 효과'라고 부르면서 통용되기 시작한 말로 어떤 대상이 변화하게 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경쟁 대상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현상을 의미한다.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 1832~1898)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자신이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달려야 겨우 앞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2장에서는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미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지역혁신시스템과 지역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정리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혁신 역량과 혁신생태계 조성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으며, 지역별 혁신 자원의 연결성을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해외의 우수 도시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사례와 스타트업 자원의 연결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들 생태계의 혁신 거점 조직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주도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지역 경제 개발이라는 이론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통해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한 구성 요인과 접근 방향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 연구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진 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 구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터넷 서치 등 공개된 자료조사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의 혁신 자원을 조사하였으며, 혁신 자원 간 연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건강한 혁신 생태계는 생태계 내 혁신 자원 간 연결성(connectivity)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원간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업무협약, 공동 연구,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 혁신 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있어 연결성을 중요한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한정된 조사 기간 및 정보적 접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문헌 연구, 인터넷 등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우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각 생태계의 연결성을 조사하였으며, 해당 생태계의 거점 기관에 대한 자료 조사를 추가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및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역협의체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해외 주요국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 조성 현황과 운영 조직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 실리콘앨리, 영국의 테크시티, 독일의 실리콘알레, 이스라엘 실리콘와디 등 우수한 창업 생태계 조성 현황과 연결성에 대한 조사 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조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으로 운영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지역경제개발의 이론적 검토 결과는 지역 경제 개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혁신 역량의 현황과 연결성은 향후 지역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된 정책은 물론 지역 경제 개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경제 개발과 지역 경제 개발

1. 경제개발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접근 방식

오랫동안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에 대한 정의가 전통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은 부의 창출(wealth creation)이라 할 수 있다. 경제 개발이 부의 창출이라는 정의는 국제 개발 이론에 의한 지역 및 커뮤니티 개발의 관점과 기업 행동 이론에서 파생된 산업적 로케이션 관점, 그리고 기업가적 전략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 개발은 세금 기반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Fitzgerald & Leigh, 2002; Malizia & Feser, 1999). 이 같은 정의는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이 경제 성장(economic growth)과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는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 Leigh & Blakely (2013)는 경제적 성장의 맹목적 추구는 경제 개발의 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의 성장이 고갈시킬 수 있는 천연 자원 공급에 기초하고 있다면, 경제 성장은 언젠가 결과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 이론들이 실제로 성장(growth) 또는 개발(development)에 관한 관점을 두고 있든 간에 대부분 단순하게 기술하는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alizia & Feser(1999)는 경제 이론들에서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성장과 개발을 구분하고 있다. 성장 이론들은 경제 기반 이론과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에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지역 경제의 단기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개발 이론들은 스테이플과 기업가정신 이론에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제의 진화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장기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글로벌화로 촉발된 신경제(The New Economy)는 국가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1990년 이후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 지배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접근 방식에 있어, Leigh & Blakely(2013)는 경제 개발을 논의하는데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구분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경제 계획과 관련된 과거 전통을 예로 들고 국가 전반의 산업부흥(reindustrialization)을 주창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영역에서 국가 경제를 리빌딩하기 위한 경제 개발 프로그램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다(Cohen & Zysman, 1987). 목표하는 새로운 조세 인센티브와 국가의 재정이나 자금 조달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가적 산업 스톡(stock)을 재구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ich(1991)는 이러한 접근법은 구 산업 및 상업적 활동에서 신산업 및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은 신성장 분야에서와 같이 가능한 한 빨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들을 확인하려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가속화하려고 하고 적절한 투자와 세금 인센티브로 장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이 방식에서는 산업적 계획을 형성하기 위해 주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노동의 규제완화(deregulation of labor)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의 저임금 지역으로의 기업 아웃소싱과 국제적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서는 2008년 대경기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부 중 하나로 새로운 제조 기술, 공정, 제품을 발명하고 확산하기 위해 산·학·관의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the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³⁾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용 세금(dedicated taxes)과 인센티브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free market)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개발과 산업에 있어 정부 개입을 더 확대하기보다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수많은 개입자 그룹을 위한 특별한 지원시스템, 일관성 없는 산업정책으로 인해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를 규제의 희생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Leigh & Blakely, 2013). 일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국가에서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탈규제화를 확대하고 최저 임금을 폐지하거나 통화량에 따라 유동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미국의 경우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책과 반대되는 이 같은 정책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였

3) 클린 에너지 제조업, 재생가능한 에너지 수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조 제품 및 서비스, 폐기물 절감 분야에서 에서 미국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수출 전략(th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Export Initiative)을 수립하고 미국의 전체 수출에 있어 두배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으며, 게다가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요 세금 감면을 선호하였다. 반대자들은 세금 감면은 부자와 빈자간의 갭(Gap)을 왜곡하고 세금 부담의 더 커진 공유를 지불하기 위해 중산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적자는 치솟게 될 것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또 다른 제3의 경제학자들은 기업에만 초점을 둔 자유시장과 규제된 산업정책의 관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Leigh & Blakely(2013)는 그 배경에는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정책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기업에게 좋은 것은 커뮤니티와 근로자에게 좋은 것(what is good for business is good for communities & workers)'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히, 산업집중화로 인해 집중화되거나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는 산업 영역에서 기업들은 거대해짐에 따라, 만일 이들이 실패한다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민간 영역으로의 정부 개입에 대한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 개발을 논의하는데 있어, 기업 확대가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와 산업적 정책은 지역 차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Leigh and Blakely(2013)는 (1) 기업 투자 정책 전반에 커뮤니티의 통제가 증대하는 국가적 정책, (2) 커뮤니티의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커뮤니티에 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국가적 정책, (3) 근로자들의 생계 수단에 대한 명확성과 증가되는 통제를 제공하는 국가적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에는 비생산적인 투자에 관한 세금 탕감(write-offs)을 제한하는 국가적 정책, 지역 경제개발계획에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적 정책은 물론, 커뮤니티 수준에서 산업적 공간의 개발 및 소유권 모두를 획득하기 위한 대출(loans), 더 이동성이 높은 은퇴 및 혜택(benefits)과 마찬가지로의 교육적 인센티브 및 근로자 재훈련 크레딧을 제공하는 국가적 정책을 포함한다(Leigh & Blakely, 2013).

경제의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지역 개발에 관한 효과적인 국가적 지원은 지자체 행정구역 전반에 더욱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원에 집중해야만 한다.

2. 지역 경제개발의 정의와 지역경제개발 단계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개발(Local Economic Development)의 정의와 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Leigh & Blakely(2013)가 답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Leigh & Blakely(2013)는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성장에 대해 정의된 목표보다 희망하는 최종 상태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개발에 관하여 지역 경제 개발(Local Economic Development)은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한 인적 및 물리적 개발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삶의 표준이 유지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eigh & Blakely(2013)의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3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개발은 모두에 관한 삶의 최소한 표준을 구축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표준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경제 개발에 있어 삶의 최소한 기준에 대한 니즈의 인식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둘째, 경제개발은 불평등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으로서의 경제 개발' 접근 방식이 더 많은 부와 자산이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부가된 가치가 경제적으로 모든 이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개발은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과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만일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 있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불평등성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가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재정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Leigh & Blakely(2013)는 지역 경제개발이 국가적 경제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또는 지방의 고용 요구와 경제적 영역별 조정의 2가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적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본적 일자리 형성에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정책이 적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인구 그룹 또는 지역성을 다루기보다 전체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디자인되고 있다. 실제 고용 결과를 가지는 국가적 정책들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역량 증가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의 역량을 개선해야만 한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연방 정부는 지역 경제 정책, 네이버후드 재활력화, 커뮤니티 개발 은행과 같은 수단을 포함하는 지역적 및 지방적 경제 개발 전략을 더욱 수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Leigh & Blakely(2013)는 지역 및 지방 경제 개발(regional & local economic development)의 특정 목표로 1) 미활용된 인적 또는 천연자원의 잠재력이나 다른 요소들 간에 개발되는 지역 내의 로컬리티와 지역의 경쟁적 지위 강화, 2)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한 기회의 인식을 통한 본래의 경제적 성장에 관한 기회의 실현, 3)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기적 직업 선택과 고용 수준의 개선, 4) 지역 경제에 있어 소수자 그룹과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의 참여 확대, 5) 거주자의 삶의 질 강화 및 비즈니스 개발 환경 개선의 필수 요소로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역량있는 지역 기관의 구축 및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개발 이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였거나, 정책의 결과로 이론화되었던 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개발을 살펴보면 경제 개발 단계(Phases of Economic Development)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 개발 촉진에 관한 주 정책 및 프로그램 수단의 정교화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에 의해 제공된 다수의 유인책들과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의 이론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수단의 진화는 미국의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경제 개발 사례의 5가지 웨이브로서 보여 질 수 있는 패턴을 따르고 있다(Fitzgerald & Leigh, 2002). 또한 비즈니스 유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관한 폭넓은 관점에서의 전환은 이들 단계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주제(thema)이다(Bradshaw & Blakely, 1999; Fitzgerald & Leigh, 2002).

첫 번째 단계는 1930년대에 시작된 산업적 입지 개발이다. 산업적 리쿠르트(industrial recruitment)의 경제 개발을 위한 수단들이 세금 경감(tax abatements), 대출패키지, 인프라스트럭처, 토지 개발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되어졌다. 이 단계의 이론적 배경에는 국제적 개발 이론(international development theory)에 관한 지역적 및 커뮤니티 개발 관점과 기업 행동 이론(firm behavior theory)으로부터의 나온 산업적 로케이션 관점의 2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 2가지 관점들은 지역 성장과 개발의 원인과 지역적 노력이 이 경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경제 개발 잠재력은 로컬 지역의 수출 기반에 관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민간 영역의 기업에게 공공 펀드의 직접적 지원은 “기업 복지(corporate welfare)”라는 라벨을 부쳐지게 된 것의 시작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략은 “굴뚝형 산업을 쫓는 것(smokestack chasing)”이었다(Leigh & Blakely, 2013). 시민 리더들은 모든 커뮤니티에 대한 성장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장기적 파도를 통해 산업적 유치 컨셉과 방법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다른 로컬리티 간에 존재하는 활발한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관점은 합리적인 응찰자간에게 적절하도록 동적으로 충분한 경제였다(Leigh & Blakely, 2013)는 평가이다. 이 당시 상황은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그리고 대부분의 주(state)가 기업 유치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장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기업들은 더 비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뽑아내기 위해 또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전미 주지사 협회(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는 많은 주(state)들이 이 무모한 활동으로부터 적은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고 돈을 잃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게 되었으며, 기존 기업들은 오랜 과거의 경쟁자들이 받게 되는 기존의 더 오래되고 충성심이 있는 지역 기업들이 신규 이주자와 비교할 때 명백한 불이익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Leigh & Blakely, 2013).

두 번째 단계는 1960년 대 말에 시작된 지역 경제 개발 사례의 정치적 평론에 의해 특성화되어 졌으며, 도시 개발 노력의 실패와 제조업 쇠락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박차를 받게 되어졌는데, 새로운 기업을 보육하고 기존 기업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추가된 전략들을 제외하고 기업 유치의 요소를 유지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같이, 지역적 또는 글로벌로 확대하게 될 새로운 시장을 가진 기업에 대한 확대 용자와 보조금을 제공하였으며,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들 첨단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형성과 성장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경제 개발 분석은 경제 개발 과정에 있어 참여자와 그들의 동기를 확인하려는 다양한 테크닉과 전략들의 실행으로부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정치 경제학자 Molitch의 고전 논문(1976)인 “성장 엔진으로서의 도시(The City as a Growth Machine)”에서 경제 개발 활동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엘리트 지주에 의해 이끌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Leigh & Blakely, 2013). Molitch(1976)는 지역 경제 개발 사례의 주요 타당한 이유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 경제 개발 실천가의 활동에 의해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일자리는 로케이션 간에 드물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Leigh & Blakely, 2013). 1970년 대 말까지 침체된 세계 경제와 더불어 증가하는 글로벌 경쟁이 약속된 일자리와 부의 창출이 제공되지 않는 엄매이지 않는 산업의 굴뚝산업을 쫓는 기업 유치 노력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도시와 주(state)는 입지적 측면에 대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는데, 도시와 주는 고용과 세금 기반의 안정성 측면을 보는 반면, 기업은 최저 비용 또는 최고 수익의 장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동성 측면을 바라보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의 2개 전통적 전략이 실패로 인한 반작용으로서 기업가적 전략(entrepreneurial strategy)과 자본 전략(the equity strategy)와 같은 2개 이상의 전략이 도입되어지게 되었다. 전자인 기업가적 전략(entrepreneurial strategy)이 특히, 하이테크로 인지되는 분야에서 공급자 측면의 산업적 유치 전략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동을 보여주었으며, 또 다른 기업가적 전략들은 국제적 무역 촉진, 벤처 캐피탈 펀드,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Eisinger, 1995). 게다가 최근에는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 유인과 개발 체계(Florida, 2002)는 기업가적 전략의 확장으로 보여 진다. 후자인 자본 전략(the equity strategy)은 불균형(inequality)의 이슈가 커짐에 따른 대응으로 1970년 대 말과 1980년대 초반에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본과 재분배에 관한 이슈에 초점을 둔 장소 기반 전략(place-based strategies)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 개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써 네이버후드 조직, 시민 그룹, 노동조합을 포함시키려는 생각을 확대하였고, 오래된 문제들(예를 들어, 인종 및 성별 문제)을 조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출현한 세 번째 단계의 프로그램들은 지역 노동력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지역 역량을 구축하는 것에 관해 새롭게 주안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의 특정 산업 클러스터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글로벌 경쟁적 이점을 기업들에 연계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 인적 자원, 자본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들은 노동력의 기술(skill)이 경쟁하는데 있어 신경제 기업들의 역량에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특별한 인증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는 것으로 산업계와 학교 및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적 협회, 협력적인 제품 시험 시설 등과 같은 것에 지역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기업에 대한 선물 또는 직접적인 투자를 적게 제안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 비용 대출 또는 크레딧에 대한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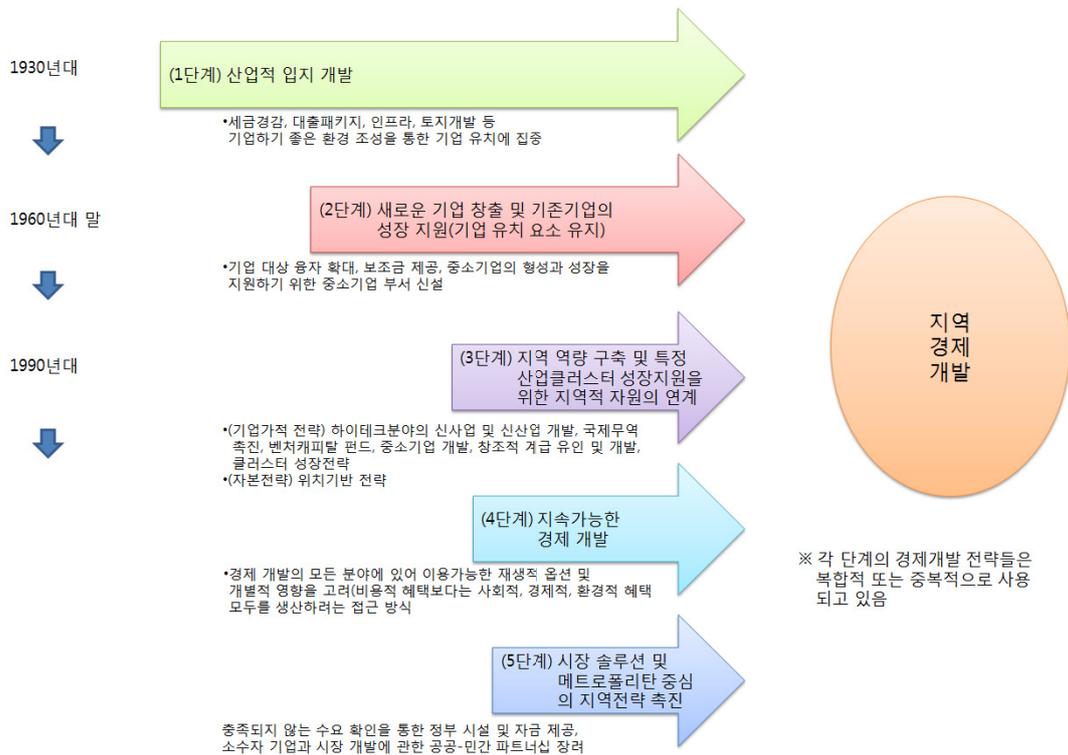
근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금 옵션(funding options)에 의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고 확장 자금 조달에 있어 기업을 돕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로 인한 미국의 지역 경제 개발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Bradshaw & Blakely(1999)는 워싱턴, 네바다, 플로리다와 같은 가장 진취적인 주들이 비영리조직, 커뮤니티 그룹, 기업을 포함하는 주의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포함시킨 잘 고려된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Leigh & Blakely, 2013). 이처럼 경제 개발 정책이 민간 영역에 대한 로컬 정부를 넘어 주 정부로 이동하게 되면서, 주 공무원들은 학교, 교회와 같은 중요한 주체가 새로운 기업과 기존 기업을 유인하려는 시민 아젠다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Leigh & Blakely, 2013).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전략과 같은 주 전략들은 조인트 벤처 실리콘밸리(the joint venture Silicon Valley)와 같은 성공적인 공공-민간 협력에 기초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90년대 이후의 미국의 지역 경제 개발 전략들은 커뮤니티들이 개별 기업 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순히 추정하기보다 현재 프로그램들은 지역적 장점과 산업적 기반이 지역의 장점에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문맥을 창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Leigh & Blakely, 2013). 아울러, 경제적 개발에 들어갈 자본 계획의 도입은 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특히 개발 과정에 있어 지불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초점을 둔 질문들의 다른 세트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Fitzgerald & Leigh(2002)는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확대하는 것에 부가하여, 자본 계획은 경제 개발 전략들과 프로그램들의 인종과 성별 함의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오래된 문제들을 조사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본 계획자가 여전히 경제 개발 사례에 있어 소수자 목소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오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네 번째 단계는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로 특징될 수 있다. Leigh & Blakely(2013)는 경제 개발이 세 번째 단계의 자본 기준에 대한 책임성과 환경적으로 민감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수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Campbell(1996)은 경제 개발 계획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 성장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 과정에서 생태계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Jepson & Haines(2003)는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수출 기반 경제를 넘어서는 자급자족과 성장을 넘어서는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다. Newby(1999)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

SLED)은 삶의 질에 지속가능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Newby는 '경제에 좋은 것'이 자동적으로 '사회에 좋은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너무 자주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실행된 경제 개발이 얼마나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심대하게 주고 있는지를 목격하였는데, 그 결과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의 사례는 경제 개발의 전 범위와 이용 가능한 재생 옵션을 고려하고 그들의 개별적 영향을 살피고, "또 다른 비용에서 하나의 혜택 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혜택 모두를 생산하려는 이들 접근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1990년대에 시작된 다음의 2가지 접근방식에 의해 근본적으로 특징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는 시장 솔루션(market solutions)에 기반하고 있고 두 번째는 메트로폴리탄 또는 지역적 전략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이론은 Porter(1998)의 '경쟁 이점(competitive advantage)'이다. 경제 개발자들은 충족되지 않는 수요를 확인하고, 정부 시설 및 자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자 기업과 시장 개발에 관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 확장의 부정적 결과의 재인식은 지역 경제에 관한 교통 혼잡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경제 개발자와 다른 개발 공무원들은 쓸모가 없거나 실적을 못내는 지역을 활력을 재생하기 위한 단계를 취해오게 되었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주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추구된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모든 규모의 미국 지역 경제의 높은 자동차 및 트럭 의존성으로 전역으로 스며든 결과로 인해 소규모 메트로 지역과 소규모 타운에 까지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주장하였다. 이 단계의 시장 주안점은 Newby(1999) 논평에서 인용된 "경제에 좋은 것이 사회에 좋은 것"이라는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더 커지는 지속가능성 원리에 관한 분명한 공약 없이, 이 단계는 높은 수입의 거주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새롭게 활력을 갖게 된 다운타운으로 도시인의 삶을 즐기려고 되돌아오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그들에게 필요한 공공 교통수단과 필요한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침체된 교외로 쫓겨나게 되는, 새로운 주택 고급화 경향과 같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이 단계의 공간적 초점은 지역적(regional) 또는 지방(local)에 있는 반면에, 주정부는 그것의 실행을 장려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eigh & Blakely(2013)가 주장한 미국의 역사적 지역 경제 개발의 5단계에서 각 단계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의 출현은 특정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각각과 관련된 지배적인 사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아울러, 주 및 지방 경제개발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각 단계에 하나 이상의 사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단계들과 관련된 전략들의 실천에 있어서 그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 지역경제개발 5단계

<표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 지역경제개발의 5단계 요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경제 개발 특성	산업적 모집 (industrial recruitment)	새로운 기업 보육 및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 새로운 기업과 산업개발	지역 역량 구축 및 특정 산업 클러스터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적 자원의 연계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경쟁 이점에 기반한 경제 개발
출현 시기	1930년대	1960년대 말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1990년 대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 경제 개발 수단	세금 완화, 대출 패키지, 인프라, 토지 개발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용자 및 보조금 제공,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 요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연계를 통한 노동력 훈련 및 교육 • 산업협회, 협력적 제품 시험 시설 참여 • 저비용 대출 또는 크레딧 등의 펀딩 옵션(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최소화) 	경제개발의 모든 범위와 이용가능한 재생 옵션 고려	충족되지 않은 수요 확인 정부 시설 및 자금 제공 소수자와 시장 개발에 관한 공공 파트너십 구축
지역 경제 개발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하기 좋은 환경(로컬 지역의 수출 기반) • 국제적 개발 이론(지역 및 커뮤니티 개발 관점) • 기업행동이론 (산업입지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엔진으로서의 도시 개발 • 중소기업 형성 및 성장 지원 조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적 전략(특히 하이테크 분야) : 국제무역 촉진, 벤처캐피탈 펀드, 중소기업 개발 등 / 창조적 계급 유인과 개발 • 자본 전략 : 불균형에 대한 대응 •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의 상호작용 • 계획 수립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 모두를 생산하는 방식 • '경제에 좋은 것이 사회에 좋은 것 (Newby, 1999)' 	지역적 또는 지방 중심의 공간적 초점을 둔 메트로 폴리탄 또는 지역적 전략 촉진 시장 솔루션 (정부는 시장 장려)

Malizia & Feser(1999)가 “이론은 우리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와 커져가는 불평등성이 계획에 요구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경제 개발에

관한 우리의 이론들이 그것들을 다루는데 있어 원리들과 이들 문제들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Malizia & Feser(1999)이 주장한 아래 <표 2>에 있는 5가지의 이론들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제 개발 이론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2000년 이후 몇 가지 개발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Leigh & Blakely(2013)는 지역 경제 개발의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앞서의 이론들의 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eigh & Blakely(2013)는 지방 및 지역 개발은 해당 지역의 역량(C)×자원(R)이다(Local & Regional development=C×R) 라고 주장하였다. Leigh & Blakely(2013) 주장한 함수에서 C는 해당 지역의 역량(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역량)이며, R은 그 지역의 자원(천연 자원의 이용가능성, 입지, 노동력, 자본 투자, 기업가적 기후, 교통, 통신, 산업적 구성, 기술, 규모, 수출 시장, 국제적인 경제 지위, 국가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c값(value) 커뮤니티의 자원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추가하지 않는 중립적 역량은 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c값이 자원들로 승수화되는 경우에 이들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역량을 1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내며, 지역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들은 자원들을 승수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c값이 정실 인사, 부패, 사리사욕, 분열 또는 기량 부족에 기인하거나 개발을 방해하고 그들을 감소시키는 자원들에 적용될 때 커뮤니티 역량(낮은 기능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조직적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낸다. Leigh & Blakely(2013)는 자원 역량은 많은 방법들로 측정되어지며, 다른 이론들은 원재료, 인프라, 정부 지출 및 시장, 시장의 규모, 자본에 대한 접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다른 자원들에 탁월성을 준다고 하였다. 경제 개발의 이론들은 c부분을 무시하고 전통적으로 주로 방정식의 r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로케이션 이론들은 시장과 근접성으로부터 나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심 도시들은 시장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리적 장점을 이점으로 취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며, 다른 이론들은 빌딩, 산업파크, 도로, 공항, 야구장 또는 통신 허브와 같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에 관한 투자에 대한 수요와 인프라에 관해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원들은, 그들이 이용하기 위해 완전히 개발된 프로그램의 부재 속에서는, 커뮤니티

니티 역량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실패해 온 수천 개의 시골 산업 파크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지역 경제 개발의 어떤 이론도 자원과 역량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커뮤니티 역량은 지역 경제 개발에 있어 제한된 자원들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도 한다. 아울러, 자원들의 다양성과 양에 있어 부족한 지역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사용하는데 열중해야만 한다.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한 대부분의 분명한 혜택은 철광석, 석탄, 목재, 물, 농업 토지와 같은 천연 자원이다. 게다가 천연 자원들은 강력한 경제에 충분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불완전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유인해 온, 종종 과도하게 1차 처리과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강력한 경제들은 천연 자원들 보다는 다른 것에 특징되는 그들의 장점을 찾고 있으며, 노동력, 자본, 인프라,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무역에 대한 접근, 연방 정부 재정 지출, 그리고 다른 요소들은 경제적 활동에 더 유리한 촉진제와 같고 이들 자원들에 대한 풍부하고 용이한 접근을 가지는 로컬 지역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어쨌든, 개발 관점으로부터 자원들은 종종 충분히 이용되지 않으며, 지역은 지역적 역량이 나오는 곳이다. 지역 커뮤니티가 가진 더 다양한 형태의 역량은 개발 기회라 할 수 있으며, 이 자원들을 전환시키는데 있어 자신의 역량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강화하고 뒤쳐진 경제에 관한 문제와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경제 개발 조직이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협회, 상공회의소, 경제개발회사, 또는 경제 개발에 관한 정부 조직 등이 있다.

Malizia & Feser(1999)의 주장에서 정리, 제시한 경제 개발 이론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경제 개발 이론들의 요약

이론	기본 카테고리	개발의 정의	핵심적 다이내믹	강점 및 약점	응용
경제적 기반 이론 (economic base theory)	수출 또는 기반 그리고 비기반적, 지역 또는 거주 지역	산출, 소득 또는 고용에 있어 성장의 증가율	수요에 있어 외부적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적 기초한 승수 효과	미국에 있어 경제 개발의 가장 대중적인 이해와 단기 예측에 대한 간단한 도구 장기 개발을 이해하기에는 부적절한 이론	수출 확대 및 다각화에 대한 촉진 및 산업적 요구, 기존 산업 확대, 기반 및 비기반적 산업들간의 강화된 연계에 의한 수입 대체,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개발
주력상품 이론 (staple theory)	수출 산업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세계 시장에서 주력 상품(staple) 수출의 성공적인 생산과 마케팅 주력 상품을 수출하는 수요에 있어 외부적 투자	경제 개발에 관한 역사적 관점 적용에 어려운 서술적(descriptive) 이론	수출 전문화에 관한 구축주는 경쟁적 이점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시행 경제적 기반의 특성은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상부구조(superstructure)
영역 이론 (sector theory)	제1차, 제2차 그리고 제3차 영역	영역적 다양성의 확대 및 인당 생산성의 제고	1차, 2차 영역에서 노동 생산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실증적 분석은 가능 영역은 너무 일반적임	영역적 이동을 촉진 소득 탄력성 제품의 생산자를 유인하고 유지
성장 기동 (growth pole)	산업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추진체적 산업 성장	추진체적 산업이 성장 기동임	지배 효과(domination effect)에 기초한 개발의 확산 및 발화의 일반적 이론	성장 센터 전략
지역 집중 및 확산 이론 (regional concentration and diffusion theories)	공산품 및 요소(Myrdal) 또는 산업(Hirschman)	1인당 소득 증가	확산 및 역류 효과(Myrdal) or 낙수(trickle-down) 및 양극화(polarization) 효과(Hirschman)	개발의 다이내믹스를 다룸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역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Myrdal) 공공 투자의 위치는 개발을 촉진시킴(Hirschman)
신성장 이론 (neo classical growth theory)	누적(거시적) 또는 2영역 지역적 경제	1인당 경제 성장의 증가율	자본 형성과 투자를 지원하는 저축율	공급자적 모델	정부는 자유 무역과 경제적 통합을 촉진해야만 하고 사회적 불균형과 공간적 이원성을 용인해야만 함
지역간 거래 이론 (interregional trade theory)	공산품 및 요소의 가격 및 양	더 큰 소비자 복지를 이끄는 경제 성장	거래 조건의 균형으로 인한 가격 조정; 가격-양 효과	특성이 소비자 복지 및 가격 효과에 기초하여 강조됨 개발의 다이내믹스를 무시	정부 개입은 자유 무역을 촉진시켜야만 함 인프라 개발, 효율적인 지방 정부
제품 주기 이론 (product cycle theory)	제품; 새로운, 성숙, 또는 표준화	신제품의 지속적인 창조 및 확산	신제품 개발; 혁신	연구자간 개발을 이해하는데 대중적인 기초	개발 전략은 제품 혁신과 후속적 확산을 촉진
기업가정신 이론들 (entrepreneurship theories)	기업가 또는 기업가적 기능	회복력과 다양성	혁신 과정; 새로운 조합	매개된 이론	산업적 환경 또는 개발에 관한 생태계를 지원
유연한 특화 이론 (flexible specialization theories)	제품 제도, 산업적 조직	신속한 생산, 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수요에 있어 변화는 생산자간 유연성을 요구	기업/산업 조직의 상세화된 분석; 누적 아웃풋과 관계는 특정되기 어려움	첨단 기술의 도입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유연성을 강화

자료 : From Malizia and Feser, "Understand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1999.(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1) 신고전 경제 이론(Neoclassical Economic Theory)

신고전주의 이론은 지역과 지방 개발에 관해 자본의 이동성(mobility of capital)과 경제 시스템의 균형(equilibrium of economic system)이라는 2가지 주요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인 자본의 이동성은 만일 자본이 제한 없이 흐를 수 있다면, 모든 경제적 시스템들이 자연적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자본의 이동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자본은 높은 임금/비용 지역으로부터 저임금/비용 지역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이다. 지역개발 조건에 있어 빈민가(ghettos)는 때때로 노동력이 전체 시장보다 낮고 재산 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본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인 경제 시스템의 균형은 만일 이 모델이 완벽하게 작동하게 된다면, 모든 지역은 점진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있어 균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합리성의 많은 부분은 은행, 공항, 유틸리티와 유사 서비스의 탈규제화의 최근 흐름에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모든 지역은 탈규제화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 Milton Friedman 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로 기업의 이동에 관해 정부 또는 커뮤니티의 어떠한 형태의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한 지역에 위치하는데 마이너리티 또는 지역적 자본 참여에 대한 요구와 같은 기업의 이점에 덜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규제는 보통의 그리고 필요한 자본의 이동을 방해하고 실패하도록 운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들은 죽어가거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들은 그런 곳을 개발하기 위해 더 자극하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들 이론들은 미국과 해외 모두 테스트를 받아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IMF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에 국제적 긴급 대출을 감독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통화 통제, 시장을 축소하거나 자산의 통제를 스스로 처분하도록 해당 국가 정부에 요구해오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외환위기와 멕시코의 사례처럼 IMF의 경제들에 관한 즉각적인 영향은 매우 가혹하다는 평가가 있다. 멕시코의 경우와 같이 많은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국가경제는 다시 회생되었으며, 현재 거대한 걸음걸이를 내딛고 있다. IMF 정책을 폼하하는 예를 들면, 탈규제화된 경제를 가진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 있어

공평 정대하지 않다는 주장과 일부 정부 통제와 개입은 불공평하게 다루는데 핵심이라는 주장이 있다. 많은 지역 및 지방 경제 개발 지지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유래된 신고전주의 이론들과 정책들을 거부하고 있다. Blair (1995)는 예를 들어 “다른 것 보다 더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특정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이들 이론들에 의해 촉진된 개발을 지적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신고전주의 프레임워크는 그들의 경제적 유틸리티를 넘어 존재의 이유(a raison d'être)를 가진 장소로서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고전적 모델은 특정 지역이 다른 것들이 실패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경쟁적인가에 대한 실제 이유에 대해 아주 적은 부분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 경제이론들로부터 유래된 몇 가지 유용한 컨셉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사회에 관한 것으로 모든 커뮤니티들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자원들을 그들이 사용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인위적인 장애들, 낮은 기능적 정부의 관료화 해제, 열악한 기업 환경은 경제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들 또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이웃들은 주변 지역과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을 돕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시도해야만 하거나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노동력의 가치를 강화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만큼 지역 정부 대출 및 보조금을 통해 상업적 재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들 측정도구는 더 번영하는 장소를 가지고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이너 시티(inner city) 이웃의 가치를 균형 잡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 기반 이론(Economic Base Theory)

경제적 기반 이론은 커뮤니티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 경제적 경계 밖의 지역으로부터 자신의 재화, 서비스, 제품에 대한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서든 수출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 자원(노동력과 재료를 포함)들을 활용하는 산업의 성장은 지역의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으로부터 나온 지역적 경제 개발 전략들은 지역적 서비스 또는 비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시장을 가지는 기업의 채용과 이에 관한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모델의 실행은 세금 경감과 통신시설, 수송시설에 대한 보조금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같은 것으로 한 지역에서 수출 기반 기업의 설립에 대한 장애를 줄이는 수단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

부분의 기업가적 그리고 하이테크놀로지 전략들은 경제적 기반 모델에 입각하여 그려진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거나 유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의 타당성은 비수출 기업 또는 지역적 서비스 공급 기업들이 수출기업 또는 그들로부터 일할 사람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출 산업들이 지역 서비스 기업들보다 더 높은 일자리 승수 효과(job multipliers)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출 기업에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는 산업 영역에 따라 의존성이 높지만 경제 모든 부문에 몇몇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요 핵심적 초점인 수출 영역 및 경제적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오직 경제적 기반 이론은 단기적 운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력 상품(staple theory)이론은 장기적 관점을 가진 수출 기반 이론의 확장인데, 수출 특성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기반한 지역 경제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경제의 주요 기반은 성장하는 시장의 장점을 갖기 위해 시도하는 해외 산업을 유치하고 공급 산업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반을 처리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제조활동을 발생시키는 국제적으로 시장성을 보유한 상품(천연자원 또는 농업적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Malizia & Feser, 1999).

경제 기반 모델의 핵심적 약점은 내부적 수요보다 외부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역 경제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수입대체에 관한 기회를 무시하고 있으며, 수입 구매로 인한 경제 외부로 수입이 새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경제 기반 모델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외부, 글로벌 또는 국가 시장력에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어쨌든 지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거나 외부 세계에 파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외부적 수요로 인한 변화로 쇠퇴하는 지에 관한 이해에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경제 성장, 개발 및 안정성을 달성하고, 목표로 설정한 산업 영역을 육성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3) 제품 주기 이론(Product Cycle Theory)

Raymond Vernon(1966)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제품주기 이론은 혁신과 확산 과정을 통해 지역과 지점의 운명을 설명하는 산업 제품 주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기반 이론 중 하나이다. Vernon은 제품 개발이 어떻게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지역 시장에 의해 지원되는 신제품 개발과 투자의 과정에 투자하는 자본과 더 커진 부를 가지고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전자 제품은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첫 번째 시장을 찾으려고 하고, 이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하는데 비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수입이 열악한 지역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제품은 표준화되어지고 그것은 대량생산과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생산과정에는 더 이상 특별한 노동력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루틴하게 되며,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지역은 임금과 기술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은 기업이 가격에 기초하기보다 유니크한 제품에 기초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 개발된 경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Malizia & Feser(1999)는 이 이론을 경제 개발은 신제품의 창출과 표준화된 제품의 확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발은 더 개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무역과 투자를 통해 덜 개발된 지역으로 수출되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덜 개발된 지역에서 신산업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간 균형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취적인 힘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직 제품 주기 이론은 지역적 수익의 전환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개발 과정은 전환되거나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들의 전망은 모두 제품 주기에 기반을 두고 이들 장소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산업들은 신제품들이 빠르게 도입되는 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 주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첨단 기술을 가진 전자 산업들은 하나의 제품에 대해 값싼 생산이 일어나는 이후 또 하나의 제품 확산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산업들은 그들의 중심적 위치를 견고하게 쌓게 될 것이며 제품 혁신은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 은행에 있어 예를 들면 각 결정은 표준화에 대한 적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매우 특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로케이션 이론(Location Theory)

입지 이론들은 기업이 그들의 입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게다가 지역 경제 성장(또는 쇠퇴)에 관해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기업은 시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제품의 생산과 수송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초기 입지 이론은 기업이 만든 제품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에서 투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최종 제품의 수송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잃게 되는 지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있었다. 투입보다 덜 가중되는 수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제품을 가진 기업은 시장으로 최종 제품을 운송하고 투입 원료에 위치시키려고 하였다. 그런 기업들은 표준화된 경제에서 기원된 투입 또는 <표 3>에 리스트된 것과 같이 가중치를 매기고 있다.

<표 3> 기업의 입지적 기원

기원	관련 특성	예
운송비용 기반(transport-cost oriented)	운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투입 기반(input oriented)	투입이 산출보다 더 비중이 있음 투입이 산출보다 더 부피가 크고 투입이 산출보다 더 상함	광석은 철로 제련 채소 캔
시장 기반(market oriented)	산출이 투입보다 더 비중이 있음 산출이 투입보다 더 부피가 크고 산출이 투입보다 더 상함	보틀링 아우토 에셈블리 베이킹
생산비용 기반(production-cost oriented)	지역적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에너지(energy)	에너지 집약적 생산	알루미늄
노동력(labor)	노동 집약적 생산	섬유
중간 투입(intermediate inputs)		
특화된 투입(specialized inputs)	규모의 지역기반 경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s)	규모의 도시기반 경제	기업 본부
어메니티(amenity)	날씨, 리크리에이션, 세금 등	R&D, 관광

자료 : Bogart, William Thomas, "Economics of Cities and Surburbs", 1st Edition, 1998

만일 기업에 의해 생산된 최종 제품이 투입보다 더 가중치가 있다면, 생산에 요구되는 원료를 수송하는 곳보다 기업은 시장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기반하거나 가중치를 두고 있다.

입지 이론은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운송비 외에 다른 요인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30년 간 트럭, 해운 및 항공 수송에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보를 가져왔는데, 기업의 입지 선택에 있어 운송비의 영향은 의미있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단순 운송비 보다는 물류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상기 <표 3>에서 지방화(localization)와 도시화(urbanization) 규모의 경제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2가지 개념은 공간적 근접성으로부터 나오는 비용 절감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경제(복합체 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 개념의 변수들이다. 다른 말로는 지방 및 지역 경제는 만일 기업이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다면 기업은 실현되지 않는 특별한 생산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규모의 지방화 경제는 기업들이 동일한 유형의 노동력 또는 투입을 사용하거나 경쟁자, 공급자, 신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 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다른 기업들 가까이에 위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규모의 도시화 경제는 기업에게 더 커진 생산비용 절감과 다른 혜택, 더 큰 지방(local) 경제(도시보다 큰 개념)를 의미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면 산업적 디자이너, 광고업자, 벤처캐피탈 리스트와 같은 더욱 더 전문화된 서비스 또는 더욱 더 커진 경제에서 하나의 산업 영역과 또 다른 산업 영역간 지식과 기술의 이전에 대한 것이다.

경제적 공간 전체에 있어 기업들의 위치는 경제적 개발자에 대한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Malizia & Feser, 1999). '성장 기둥(growth poles)'을 설명하는 François Perroux(1983), '누적적 인과관계(cumulative causation)'에 대한 이론을 만든 Gunnar Myrdal(1957), 핵심-주변(core-periphery) 모델을 제안한 Friedmann & Weaver(1979) 등을 포함한 일부 초기 이론가들은 1950년대의 입지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Perroux(1983)의 성장 기둥(growth pole)은 성장이 첨단 산업, 기업 또는 해당 분야에서 지배자인 다른 주체들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Perroux는 성장이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으로 흐른다는 고전주의적 이론가의 주장을 논박하고자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첨단 산업, 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성장 산업(propulsive industries)'으로부터 자주 발생하였다. Perroux는 이들 성장 기둥은 다른 성장 기둥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러나 중심 성장 노드의 주변부 지역에서는 필연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근처에 있으면서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오클랜드 또는 이스트 팔

로 알토 지역처럼 왜 실리콘 벨리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가 그렇지 않는 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yrdal(1957)의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은 특정 지역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왜 다른 곳은 불균형적으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본질적인 시장의 힘(Market forces)은 특정 지역으로 자본, 기술(skill), 전문가를 유인한다. 이들 지역은 시스템의 나머지 부로 전체를 넘는 거대 규모의 경쟁 이점을 누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이웃의 부패(쇠퇴)에 대한 우연적 목적은 누적적 인과관계의 기본적 컨셉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힘의 상호작용은 지역간에 불균형을 감소시키기보다 증대시키며, 그로 인해 지역적 소득에 있어 차이는 예측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Myrdal은 누적적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우연적 변화가 있고 이것이 사건들의 흐름에 있어 즉각적으로 상쇄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면 인구의 많은 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 불타버렸고 경제적으로 재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역성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즉각적인 효과는 비즈니스가 없어지게 되고 그 근로자들은 실업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소득과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그 결과 감소한 수요는 기존 기업과 근로자가 일하거나 팔던 해당 커뮤니티에 모든 다른 비즈니스 부문에 대해 더 낮은 소득과 실업을 야기하게 된다. 만일 외부적 변화가 없다면, 해당 커뮤니티는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외부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유인이 덜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멘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커뮤니티에 설정된 기업과 근로자들은 더 나은 시장이 존재하는 곳을 찾기 위해 이주하려는 이유를 점차적으로 찾게 될 것이며, 이것은 소득과 수요를 다시 잃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첨단 기술과 통신은 초기 입지 이론이 설명하는 재화의 생산과 보급에 대해 의미있는 특정 입지를 대체시켜오고 있다. 정보기술과 운송비의 감소는 입지 선택에 있어 거리의 의미를 감소시켜 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는 특정 기업과 산업들에 대해 거대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 커뮤니티 삶의 질, 문화와 자연적 어메니티, 합리적인 생활비와 같은 유형성이 덜한 변수들은 최근 기업에 의해 요구되는 근로자 또는 기업가의 선호에 기반한 기업의 입지 결정에 있어 보다 더 큰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지역 경제개발론자들은 장려하는 기업 입지에 관한 입지 본래의 특성 또는 자연적 속성에 의해 제한되는 것보다 많은 기업들에게서 최소화되는 운송비 또는 시장과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해 그 중요도를 증가하는 입지 선택에 있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5)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

중심지 이론은 소매 활동에 가장 적용이 가능한 입지 이론의 변형이다.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각 도시 센터(urban center)는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중심지로 자원(산업 또는 원재료)을 공급하는, 연속된 보다 작은 규모의 입지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Leigh & Blakely, 2013). 이들 소규모의 장소는 더 큰 장소에 관한 시장이 있고 공급하는 훨씬 작은 장소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도시 센터는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화된 소매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변호사, 투자은행, 심장외과의사와 같은 전문가, 비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본부라 할 수 있다. 매우 작은 장소의 주민은 전문화된 생산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중심지로 가야만 하며, 이들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는 보다 범용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야만 한다. Leigh & Blakely(2013)는 든 예로는, 작은 장소의 거주자가 식료품 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는 중심 도시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며, 세계 수준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동네를 떠나야만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시골 지역에 관한 지역 개발 모델은 중심지 개발이 전 지역의 경제적 웰빙을 개선할 것이라는 가정에 관한 자원 할당을 유도하는 중심지 이론에 매우 의존해 오고 있다. 중심지 이론의 적용은 테네시밸리 오소리티(TVA), 시골전력화, 경제개발청(EDA)과 같은 시골 서비스 관료조직에 의해 목격되어 질 수 있는데, 이들 조직은 각기 개발에 관한 지역적 노드으로써 부상하거나 설계된 하나 또는 두 개의 커뮤니티와 지역 경제 계획을 개발하였다(Leigh & Blakely, 2013). Bradshaw & Blakely(1999)는 첨단 산업 사회에 시골 커뮤니티들은 도시 지역에 제한되어진 전문화된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30년간 관찰하였다. 다른 전문가에 대한 근접성 같은 도시 셋팅에 이용가능한 일부분의 장점이 부족한 반면에, 시골 커뮤니티들은 사람들이 시골 환경을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곳에 위치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적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첨단 제조업, 전문적 서비스, 정교화된 통신,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경쟁해오고 있다. 인터넷과 메가 몰은 중심지와 주변부의 상업적 관계를 크게 바꾸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예로서 최근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기존 소매업자와 새로운 '전자상거래업자(e-trailer)' 모두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소비자 지출이 있음을 들고 있다.

중심지 이론은 도시와 시골 지방 경제 개발 모두에 적절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독자 생존이 가능한 센터로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웃 지역의 기

능 차별화가 필요하다. 일부 지역은 전체 지역을 맡는 지역적 핵심 도시가 될 것이며, 다른 곳은 지방 거주자 커뮤니티만 맡는 소규모 마을(빌리지) 또는 타운이 될 것이다. 지역 경제 개발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적 장소 체계 및 전자적 체계에 관한 기능적 역할을 개발하는데 이웃과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심지 이론은 왜 주요 시장 지역 내에, 개별 이웃들이 소매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 및 소수자 이웃에 있는 사례로, '신 시장(new markets)' 전략의 개발을 이끌고 있는 1990년대 말부터, 경제 개발의 초점에 주목에 받아오고 있다.

6) 유인 모델(Attraction Models)

커뮤니티 유인 모델들은 입지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전반의 커뮤니티들은 투자자, 기업, 새로운 이민자, 기업가,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그들의 지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한 자원 기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한 경쟁적 이점을 얻고자 하고 있다. 유인 모델의 기본 가정은 커뮤니티가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주(기업가)와 커뮤니티의 시장 지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활동이 초기의 공공과 민간 보조금을 대체하기 위한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고, 세금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보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노력의 비용이, 사실 혜택이 토지 소유자와 기업에게 더 많은 반면에, 커뮤니티의 근로자와 납세자에게 지불된 것이라는 점이다(Bluestone, Harrison & Baker, 1981).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증가될 수 있다.

유인 모델에서 새로운 접근법은 커뮤니티 또는 지역에 있어 특히, 특정 사회 경제적 그룹,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부터 기업가적 인구를 유인하는 것으로의 주안점에 있어 변화이다. 지역에 새로운 중산층 젊은 은퇴자는 고용주를 유인하기 위한 역량과 구력을 모두 가지고 오고 있고 게다가 최근 이민자들은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커뮤니티는 기업 유인 노력을 재평가하고 있고 '사람(people)' 유인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특히 새로운 이민자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수출 기업과 내부 수요 모두에 대응하는 것으로 경제적 성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끄는 '삶의 질' 요인이 새로운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시골지역에 효과적이었던다는 평가가 있다. 게다가, 이것은 특정 지역성이

첨단 기술기업 또는 발명가를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그들이 특정 스타일 또는 소속감(esprit de corps)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기업가적 센터이다. 예를 들자면, 플로리다의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메사추세츠주의 Route 128, 실리콘밸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트라이앵글은 혁신센터로서 명성을 얻어 오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유인 모델에서 커뮤니티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포장된(packaged)'것 이어야만 하고, 적절히 전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패키징의 목표적 증거는 다른 커뮤니티 보다 특정 지역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잡지, 신문 광고에서 목격되어 질 수 있어야만 한다. 입증되지 않는 증거는 커뮤니티 촉진 작품으로 제안되어야만 하며, 정치적 책임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실패를 하게 된다. 어떤 도시 또는 이웃도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under bushell basket)'는 식의 자신의 두드러진 장점을 감추려하지 않는다. 마케팅의 특수한 형태가 필요하지만 과거에 항상 정당화된 도구가 항상 가지고 있지 않는 개발 계획에 대해 이 모드를 수행하는데 있어 희망하는 결과가 중요한 만큼 타당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들은 또한 과거로부터 배워 왔고, 그 숫자도 그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 또는 추가하는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만일 기업이 커뮤니티에 투자를 초과하거나 충족시키는 세금과 임금을 창출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면, 공공 투자를 만들어 되찾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 내포된 의미는 또한 기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가고 생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신 시장 모델(New Markets Model)

인터넷은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많은 시골 지역에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Michael Porter(1995)에 의하면, 도심지역(inner cities)는 신경제의 전면에 그것들을 유치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집중화된 활동을 가진 거대한 다운타운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매에 관한 최고의 시장을 만들어 주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경쟁 클러스터에 대한 근접성(proximity)을 가지고 있다.

도심 지역 경제 개발의 미래에 관해 가장 흥미로운 전망은 지역적 클러스터 근처에서 자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 조차 경쟁력 있는 관련 기업과 근접한 지역적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스턴의 도심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금융 서비스와 헬스 케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으며, LA 중남부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와 거대한 물류 서비스 도매 복합단지과 인접해 있다.

신 시장 모델에서 빈민가와 쇠락하는 시골 지역은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은 경제적 기회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James Carr(1999)에 의하면 이들 지역의 경제 개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1) 커뮤니티 자산 가치의 이해, 2) 이들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수단의 창출 또는 매칭, 3) 이들 자원들이 커뮤니티 내에 더 많은 새로운 경제 활동을 자극시킬 수 있음으로써, 새로운 기업과 주택에서 사회 및 커뮤니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커뮤니티 내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부를 선순환시키는 '가치 재포획 메카니즘(value-recapture mechanisms)'의 설계, 4) 발생한 부가 커뮤니티 구성원의 폭넓은 범위에 의해 공유되어질 수 있는 방법의 결정, 5) 이들 투자의 장기적 혜택을 평가하는 방법의 개발이다.

이들 컨셉들이 도심 지역과 저 임금 지역에 신규 투자와 재투자의 기회를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울러 시작하는데 특정 형태의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개발 파이낸스 기관(CDFI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들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금융은 저소득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채무 금융과 자산 모두를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새로운 금융 수단의 창출은 융자 보증에 26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새로운 투입 자본과 결합되고, 저소득 지역에 대기업이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들 도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깡과 스타벅스와 같은 저명한 기업에 있어서도 더 큰 자극제임에도 불구하고 1차 소매업 대비 새로운 소비자를 찾는 것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이전의 저소득 이민자의 유입, 이전 흑인 이웃들은 이들 커뮤니티에서 소매업자로서의 시장 기회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신 시장 모델은 새로운 경제에 있어 구시장 경제의 창조적 실현이라 할 수 있다.

8)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이론

Joseph Alois Schumpeter(1934)가 비즈니스 성공에 관한 토대로써 기업가와 혁신의 중요성을 옹호하면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정의한 이래 혁신의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드러커(Drucker, 1986)는 혁신을 비즈니스 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기회로서 변화를 개발하는 기업가에 의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모델의 결합한 새로운 방법은 슈페터(Schumpeter)가 말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Drucker, 1986; Schumpeter, J.A, 2002). 이처럼 혁신(innovation)은 기업가에 의해 사용되는 특별한 도구이다(Ziemer & Long, 2009). 반면에 기업가정신의 경우에는 80년대부터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Hofer, 1991). 기업가정신에 관한 단일 이론은 없으며,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생산의 한 요인으로서의 기업가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기업에 관한 이윤극대화 측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험을 무릅쓰는 속성을 가진 자본의 소유주로서 개별기업가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며, 기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계급구조 내에서 기업가의 지위, 가치, 다른 계급집단과의 관계로서 접근하고 있는데, 슈페터는 새로운 경제적 발전의 담당자로서의 기업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 Peter Drucker(1985)는 새로운 부의 창출 능력을 가진 기존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 혁신의 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많은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 요약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은 문제 해결 및 기회 탐색을 통한 과정과 행위로 귀결할 수 있다.

또한 슈페터가 기업가와 혁신의 중요성을 옹호한 바와 같이 슈페터는 경제개발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 생산공정, 조직적 기술을 출시하는 기업가정신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Jacobson, 1992).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상당한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의 효과에 기인한(Henry et al., 2003) 경제의 중요한 펀드멘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Bruyat & Julien, 2000). 기업가정신 그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탄생을 제공,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의 창조, 그리고 경제에 양분을 공급하는데 핵심적이 되도록 유지되어 진다(Hisrich & O'Kinneide, 1985). 또한 기업가정신과 경제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⁴⁾에 있어 기업가정신과 경제 성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와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국가 중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정신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Kantis, Hugo et al (2002),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ew Firm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aree, Martin et al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Ownership Revisited",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Vol.19, pp. 281~291

혁신을 찾고 있는 거대 조직이나 개발하려는 커뮤니티든 간에 기업가정신을 갖게 되기 전에 반드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잠재력이 있어야만 한다(Krueger, Jr. & Brazeal, 1994). Stangler(2009)는 혁신적인 기업가는 장기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모방적 기업가는 경제적 실패 기간 동안 일자리와 성장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사회는 경제의 미래 번영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혁신적 돌파구를 생산할 수 있는 모험적 벤처를 수행하는 기업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경제 개발에 있어 지역의 기업가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적 활동을 고취하고 지원하는 전략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3. 지역 경제개발계획에 있어 실제적 적용 이론, 모델, 유형

앞서 경제 개발 계획을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 경제 개발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의미 있는 이론 5가지를 살펴보았다. 경제 개발 이론들은 결과적으로 이들 원리 중 어느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개발 전문가들이 실행에 있어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David L. Birch(1979)는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실제 엔진이고 혁신의 실제 원천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이것은 1969년과 1979년에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100명 이하의 기업에 의해 창출되었고, 20인 이하 기업의 거의 2/3에 이른다는 Dun & Bradstreet 데이터의 분석으로 나온 시사점에 기초하고 있다. 게다가 Birch의 방법론은 나중에 오류가 있었다(White & Osterman, 1991).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거대 기업 조직은 일자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높은 임금과 혜택을 주며, 기업 네트워크 간에 생산 조정을 지배하며, 자금의 통제와 신기술의 도입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Harrison, 1994)'. 이 시기에, 어쨌든, 국가 전역의 지역성은 이미 '중소기업 밴드웨건(small business bandwagon) 효과'에 있었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센터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나쁜 경제 개발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1980년대와 그 이후 미국 제조업의 리스트럭처링과 고용 창구로써 가져다 준 경제 개발 문제들의 만병통치약(panacea)도 아니다 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경제 개발 전문가들은 제조업 공장, 그들의 커뮤니티에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다른 대기업에 관한 지원과 초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 개발에 많은 주목을 모으고 있는 2가지 최신 이론이며 대중적인 이론이 있다. Kim & Mauborgue(2004)의 블루오션 이론(Blue Ocean theory)와 Richard Florida(2002)의 창조적 계급(the Creative Class)에 관한 컨셉이다. 블루오션은 그들이 위치한 곳의 지역성에 순차적으로 상대한 경제적 개발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창조적 계급 이론은 경제 개발의 동인으로서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컨셉은 상당히 주목을 모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계획들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각각은 독창성, 해당 논문에서 증명을 위해 사용한 분석, 그 이론들의 유효성(타당성)의 요구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Jamie Peck(2005)가 말한 창조적 계급에 관하면, 도시 성쇠가 경제적 개발의 핵심적 동인이 되고 있는 축적된 노력을 소유한 이동성과 까다로운 "창조적" 계급을 유치하고, 유지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그 역량을 점차적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다. Florida의 강연료가 5개의 손가락 범위 내에 오르는데 후속적인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 간의 경쟁, 전세계 시민 리더들에게 상당히 유혹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오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런던, 더블린에서 오크랜드, 멤피스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실제로 RI의 Providence와 WI의 그린베이까지, 플로리다의 템파베이와 같이 동경하는 또는 텍사스의 오스틴과 같이 구축된 창조적 자본의 '최신 유행을 쫓는 전략(hipsterization strategies)'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창조적 근로자를 유인하고 육성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든 방식으로 도시들은 창의성의 새로운 신조(the new credo of creativity)에 관해 듣기 위해 후하게 지불해오고 있다.

시민 리더들은 플로리다(Florida)가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의 3T로 부르는 것의 적용 분야에 관해서가 아니라, 단순 오랜 세금 우대조치(Tax brakes)와 재개발 체제를 가지지 않고 경쟁하는데 필요로 하는 논쟁을 붙잡고 있다(Shea, 2004). 증가하는 도시 개발 스크립트들을 보면, '인간의 창조성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의 그림은 공급자 측면의 개입의 케케묵은 형태를 요구하고, 도시들이 지금 '인재 전쟁(war for talent)'이라는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쿨한 도시 환경(Florida, 2003)의 창조적인 것들로 평가되는 '사람 환경(people climate)'의 형태를 개발하는 것으로 오직 쟁취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 전문가(guru)로써 다방면에서 존경받거나, 신 경제의 강매자로서 다른 이들 사이에서 공격을 받는 Florida는 도시 경제 개발 정책의 염류의 벽지에서 실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성장과 개발에 있어 Leigh & Blakely(2013)의 차이점으로 돌아가서, 창조적 계급 논문은 예방 전략에 대해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불평등성, 고급 주택화(gentrification), 빈곤 노동자(working poor)에 관한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경제 개발의 조력자로서 좁은 개념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 성장을 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Malanga, 2004)에 대한 전제조차도 소위 창조적 계급 도시들은 전통적 기업 및 근로자 계급 도시보다 실적이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된 데이터를 내놓고 있다. 창조적 계급 개발 전략들의 전부를 수용하는 것은 불평등성에 관한 경제 개발 문제를 견디는 것과 가난한 자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을 악화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 개발 열풍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 개발자들은 그것의 추구하는데 상당한 커뮤니티 자원을 쏟아 붓기 전에 창조적 계급 논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역 경제 개발 계획에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경제 개발 이론들은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개발 이론들은 변화하는 경제 구조에 영향을 받아 진화해야만 하며, 또한 지역 경제 개발 활동의 타당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Leigh & Blakely(2013)는 아래 <표 4>와 지역 경제 개발에 관한 새로운 기초를 만들기 위해 지역성, 비즈니스 및 경제적 기반, 고용 자원, 커뮤니티 자원의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 강조된 컨셉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표 4> 지역 경제 개발의 구성요인에 대한 재형성

구성요소	구 개념	신 개념
지역성 (locality)	물리적 위치(거의 천연자원, 수송, 시장)가 경제적 옵션을 강화	질적 환경과 강력한 커뮤니티 역량은 경제 성장의 자연적 장점을 배가 시켜 줌
비즈니스 및 경제 기반 (business & economic base)	수출 기반 산업들과 기업들은 일 자리를 창출하고 증가된 지역 비즈니스를 촉진	모든 유형의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경쟁적인 산업들의 클러스터들은 신성장과 소득을 창출함
고용 자원 (employment resources)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대부분이 최소 임금일 지라도	포괄적인 기술(skill) 개발과 기술적 혁신은 질적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으로 이끌어 줄 것임
커뮤니티 자원 (community resources)	단일 목적의 조직들은 커뮤니티에서 경제적 기회를 강화할 수 있음	많은 커뮤니티 그룹들의 협력적 파트너십들은 경쟁적인 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됨

자료 : Leigh & Blakely('Plann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 2013)

Leigh & Blakely(2013)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경제개발의 재구성요인 중 첫 번째로 지역성(Locality)을 살펴보면, 기술은 개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전통적 관점의 물리적 입지를 분산시켜오고 있고, 기업들은 거대 규모의 제조업조차도 그들이 사용해 온 특정 입지에 얽매이지 않고, 특히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그들의 핵심적 투입 요소로 지식의 이동 자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얽매이지 않게 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 기업들조차도 세계화된 정보와 생산 네트워크 때문에 점차적으로 첨단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역량을 가지도록 내몰리고 있다. 앞서 입지이론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생활과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이고 사회적 또는 조직적 요인들이 협력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가치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게다가 수송의 이용 가능성과 시장 시스템이 커뮤니티의 경제적 생존능력을 결정한다는 전통적 관점은 구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입지 논리는 시골 경제 개발에 관

한 변화되고 있는 기회에서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데, 시골 커뮤니티들은 이전에 도로, 산업단지, 제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된 인프라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에 그들의 에너지 대부분을 지출한 반면에 그들은 이제 이 전략들이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얼마이지 않는 기업들은 물류의 첨단화로 인해 시장으로 비싸지 않게 운용할 수 있게 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지구촌 전역에 걸쳐, 멕시코,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장소로 재배치시킬 때,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도 시골 지역이 매력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적다는 점을 알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그 실제의 예로서 시골 지역에서 성장은 레크레이션과 환경(ambiance)과 관련 오염되지 않는 자연 환경과, 시민조직, 문화적 기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우수한 사회 인프라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일부 시골 지역은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없이도 성장을 하고 있다(Leigh & Blakely, 2013). 이것은 시골 커뮤니티가 계획된 인구 성장 센터이거나 산업개발 또는 자원개발을 증대시키는 목표 지역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시골 지역의 경제적 기회는 천연 자원의 개발 보다는 이용가능한 인적 자원 기반과 보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입지(location)에 대하여, 입지 그 자체는 더 이상 "유인(pull)" 요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 경제 개발 모델은 입지적 개발 유도 요인(locational development-inducing factors)이다. 이들 요인들은 거대 규모의 지리적 고려요인보다 지역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질이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커뮤니티의 레크레이션, 주택 그리고 사회적 조직의 개발은 경제적 생존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 커뮤니티가 사회적 및 제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때, 거기에 위치시키거나 개발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초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만일 그 구조가 적절하게 조직되어진다면, 경제적 활동을 보장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추구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Leigh & Blakely(2013)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경제개발의 재구성요인 중 두 번째는 비즈니스 및 경제적 기반(Business & the Economic Base)인데, 경제 기반 모델은 경제 개발에 대한 영역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에서 시스템의 불균형과 실패 보다 경제적 시스템 내에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 접근법은 지역경제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 내부적 조직(institutional)간 연결성을 극대화시켜야만 한다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지역 경제 개발 이론은 제도적 기반은 지역 경제에서

문제를 찾는 것과 제도적 재조정을 바꾸는 것 모두 주요 구성요소로 형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 개발의 새로운 실체를 만드는 것으로 커뮤니티는 그들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결합할 수 있거나 한다면 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폐쇄된 정치적 과정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다이내스티를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위에서 지역적 시민들이 위치하는 개방적인 곳이어야만 한다.

신 경제에서 기업은 경제 개발 아젠다에 있어 중요하게 남아 있으나, 그 초점은 개별기업에서 인적, 자연적, 그리고 기술적 연계 장점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독립적인 기업들의 클러스터 또는 기업의 네트워크로 이동하였다. 경제 개발은 개별 기업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 그들이 각기 다른 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을 탐색하기 위해 브로커링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투입 요소로서 다른 기업의 낭비에 사용되는 기업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제품과 공정을 창출하는데 돕고, 환경적으로 양성인 그들에게로 기업 실무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Leigh & Blakely(2013)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경제개발의 재구성요인 중 세 번째는 고용 자원(Employment Resources)이다. 지역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 참여하기 위한 커뮤니티에 관련 단지 합리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주요한 이슈를 가지기도 한다. 신고전주의 모델에서는 낮은 임금률과 값싼 비용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충분하였다. 이 모델은 게다가 저비용 노동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혜택이 있는 지역을 제안하면, 때때로 낮은 세금과 제한된 교육과 훈련 기회에 연계되었다. 기업은 지불하는 임금 또는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에 기초하여 채용 요구를 받고 있다. 너무 자주 기업들은 빈곤한 지역 커뮤니티의 거주자들이 떠나는 지역에 최소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저임금을 찾는 지역으로 진입하는데, 이것은 커뮤니티의 삶의 표준을 올리지 못하며, 불평등성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 경제에서 기업은 고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그것에 맞는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은 기업과 커뮤니티가 고숙련 노동력을 보장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무수한 일자리 훈련 및 일자리 개발 제도는 기존 노동력을 기존 및 새로운 고용주를 위한 더 생산적인 자원들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성을 나타내는 증거이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지역의 인적 자원 기반의 질이 모든 산업들에게 있어 주요한 유인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지역의 인적 자원이 상당하다면, 새로운 기업들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창조하게 될 것이며 또한 기존 기업들도 그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Leigh & Blakely, 2013). 따라서 커뮤니티들은 단지 기존 대중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역량을 확대시키는 조직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Leigh & Blakely, 2013). Leigh & Blakely(2013)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시골 커뮤니티와 도심 지역 이웃들은 좀처럼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예를 들었다. 실제로 시골 커뮤니티와 도시의 이웃들은 교육 기능 또는 커뮤니티 문제 해결 요구 이상의 그런 자원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Leigh & Blakely, 2013).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 모두 지역 경제 개발은 고등 교육 및 연구관련 조직의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역량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수천명의 고용이 있을 새로운 공장을 유인하기보다, 커뮤니티는 지역 전체의 안정성과 일자리를 우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연구소와 관련된 극소수를 유지하고 유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경제 개발의 목표는 사람과 장소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것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커뮤니티는 기존 자원과 제도적 자원 기반을 활용하거나 극대화시키고 인적 자원을 '적합화'시킬 경제적 기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수요 측면(기업)에서의 방정식에서 노동 및 천연 자원의 공급자 측면으로 주안점을 이동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eigh & Blakely(2013)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경제개발의 재구성요인 중 네 번째는 커뮤니티 자원(Community Resources)이다. 고전적 모델에서 경제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반 조직에 의해 개발 되어 졌다. 신 경제에서 커뮤니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오직 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경제 개발이 가능한 데, 예를 들면, 정부, 상공회의소 같은 기업 조직, 노동력 개발 조직, 커뮤니티 기반 조직들은 경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으로 일해야만 한다. 또한 경제 개발을 전달하는 책임있는 주체들은 더 이상 1개의 조직이 아니며, 특정 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조직으로 만든 가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완수될 때, 해체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조직의 다른 네트워크에 의해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Leigh & Blakely(2013)가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을 도출하기 위해 주장한 이론과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지역 경제 개발은 시장만큼 '공간적으로 자유로운(spatially free)' 것은 아니며, 기업 확대와 일자리에만 초점을 둔 구시대적 노력은 경제적으로 지역의 웰빙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경제에서, 특정 지역은 특정 사람들로만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 경제 개발에서 Leigh & Blakely(2013)는 사람과 장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경제 개발은 자본과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기초한 커뮤니티의 삶의 기준을 증대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천연 자원 및 기존 인적 자원의 완전한 활용을 강조하는 과정이다.

또한 기존의 이론들이 경제개발의 정의와 필수적으로 호환되지는 않는다. 이 정의는 이들 이론에 기초한 전략들의 무비판적 수용의 영향에 상당한 주의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하는 기술적 시대에서, 고용 창출에 관한 오래된 주안점은 실제로 그 장점이 증가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는 것과 이들 노동 시장에서 적절하게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skill) 개발과 더ダイナミック한 노동 시장에 대해 그들 커뮤니티와 근로자들을 준비시키는데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 개발 이론은 커뮤니티가 삶의 기준을 높이는 반면에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커지는 불평등서에 있어 동향을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기초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전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은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전략들을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함께 노력해야만 하며, 정부는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반면, 경제 및 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권한과 자원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을 약화시키기보다 증대시키는 강력한 비즈니스 영역을 촉진시키는데 사용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 경제 개발은 요소들 간에 있어 기존 규제와 프로그램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 시장(new markets)'과 마찬가지로 기존 전략들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지역 경제 개발 계획에 실제적 적용 이론, 모형, 유형들

이론	기본 카테고리	개발의 정의	핵심적 다이내믹	강점 및 약점	응용
Neo classical theory	자본의 이동성, 경제 시스템의 균형	자본 유치를 통한 성장	탈규제화로 자본의 이동성 보장, 자본의 유인을 위한 지역 자원 강화 등의 유인책 사용을 통한 균형 도달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 시장의 자원 배분에 있어 불공정, 불공평성 존재, 정부 통제와 개입의 필요성 논란	자본 유치를 위한 자본의 사용성 보장, 인위적 장애 제거, 관료화 해체, 우수한 기업 환경 조성, 노동력 가치 강화 프로그램 및 훈련 제공 등
Neo classical growth theory	기술진보, 노동인구의 성장	1인당 자본량, 1인당 생산성 증가	국가간 성장률의 격차의 지속성은 외생적인 기술 진보율의 지속적 격차를 가정	국가간 1인당 소득격차의 완화에 대한 해답을 미제시	기술혁신
Economic Base theory	재화, 서비스, 제품에 대한 수요	수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활용	지역적 서비스 및 비수출기업, 국제적 시장을 가진 기업의 채용과 지원	단기적 운용에 활용될 수 있으나 수출 영역 및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미흡, 내부적 수요 보다는 외부적 수요 충족에 의존, 외부 경제에 의존함에 따라 왜곡된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음	세금 감감, 통신시설, 수송시설에 대한 보조금 또는 자유무역지대 등 수출기반기업 설립을 지원, 현재는 기업가적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전략으로 활용
Product Cycle theory	신제품에 대한 가격과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과정 및 시장 진입	미개발된 지역의 신산업 구축과 지역간 산업 균형성	신제품 개발의 지불 가격과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시장 진입에 따른 임금과 기술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이동을 설명하는 제품의 혁신과 확산 과정 및 투자 과정	혁신과 확산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나, 개발 과정은 전환되거나 분리될 수 있어, 지역적 수익의 전환을 예측할 수 없음	산업 제품 주기에 따른 지역과 지점의 운명을 설명
Location theory	산업의 입지 선택에 있어 투입 및 산출 비용, 운송비용 등 공간적 근접성에 따른 비용절감	산업 및 시장간의 공간적 근접성에 따른 비용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지의 개발을 통한 규모의 지역 경제	기업의 입지 선택이 지역 경제 성장에 영향 관계	첨단기술과 통신 등 재화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특정 입지의 대체	성장 기동, 누적적 인과관계, 핵심-주변 모델 등과 관련된 지방화, 도시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영역간의 지식과 기술의 이전
Central Place theory	재화의 도달범위와 비용	중심지 개발이 지역 전체의 경제적 웰빙을 개선	주변 지역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중심지의 분포와 계층 구조에 관한 공간적 규칙성	도시 및 시골 지방 경제 개발 모두에 적용이 가능, 주요 시장 내 또 개별 이웃에 재화 및 용역의 부족성을 설명하지 못함	신시장 개발 전략에 활용
Attraction Model	커뮤니티가 제품	경제적 부의 증대와 세금 창출을 위한 인재 유인을 위한 커뮤니티의 개발	커뮤니티가 인센티브,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한 기업가적 인구 유인 등 인재 유인 효과	지식 네트워크 조성, 입증되지 않는 증거로 인한 공공투자 유인 의도	혁신센터, 클러스터 개발
New Markets Model	신경제 활동, 도심지역	클러스터화된 시장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	커뮤니티 자산 가치, 자산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 창출 및 매칭, 가치 재포획 메커니즘,	지역적 클러스터에 인접한 자본화되고 있어 도심지역 경제 개발에 적용이 가능, 불균형을 초래	클러스터 개발
Blue Ocean theory	미개척 시장	신시장 개발을 창출하는 기업의 성공	경제적 개발을 가져다 줄 미개척 신시장의 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	증거 분석 및 타당성에 대한 비판 존재	신시장 개발하는 기업 및 기업가적 유인
The Creative Class	창조적 인재	신시장 개발을 창출하는 기업의 성공	창조적 인재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	증거 분석 및 타당성에 대한 비판 존재, 경제적 불평등성 확대	신시장 개발하는 기업 및 기업가적 유인
Sustainable Growth theory	질적 환경과 강력한 커뮤니티 역량,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경쟁력있는 산업 클러스터, 포괄적인 기술 개발과 기술적 혁신, 커뮤니티의 협력적 파트너십	천연 자원 및 기존 인적 자원의 완전한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	자본과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기초한 커뮤니티 살의 기준 제고 및 유지	천연자원의 보호 및 강력한 비즈니스 영역을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수준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개발 전략 도출

또한 지역 경제 개발 전략에 있어 이를 추진할 수단의 선택이 중요한데, Leigh & Blakely(2013)는 비즈니스 개발 전략은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촉진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새로운 기업을 유인하거나, 지역의 기존 기업을 유지 또는 확대하거나, 커뮤니티 내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4가지 측면 중 하나 이상의 목표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나 기존 기업의 유지를 촉진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다음 <표 6>과 같이 12개의 수단이 있는데 이들 수단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혼합하거나 통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표 6> 비즈니스 개발 수단 및 목표의 매칭

수단	목표			
	비즈니스 스타트업	비즈니스 유인	비즈니스 확대/유지	혁신 및 기업가정신 육성
원스톱 센터	○	○	○	
스타트업 및 벤처 파이낸싱 기업	○	○	○	
중소기업 지원 센터	○		○	○
그룹 마케팅 시스템	○		○	○
촉진 및 관광 프로그램	○	○	○	
연구개발(R&D)				○
인큐베이션 센터	○			○
기술 및 비즈니스 파크	○	○	○	
기업 지대	○	○	○	
기업가정신 개발 활동	○			○
여성 기업	○			○
마이크로 기업	○		○	○

자료 : Leigh & Blakely('Plann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 2013)

제2절 지역 혁신시스템과 창업지원 생태계⁵⁾

1. 지역혁신체제와 혁신 클러스터 모델

1) 지역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198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논의하면서 혁신의 창출은 국가가 아닌 지역수준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발견에서 구축된 이론이다(조유리 외, 2013). OECD(1999)는 지역혁신체제를 지식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생산, 과학기술, 기업지원으로 구성되는 내부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 정보통신, 금융 등 거시 경제체제의 상호연계관계를 형성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Cooke(2003)은 혁신의 과정이 선형이 아니라 상호연관(interactive) 구조로 바뀌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혁신모델도 네트워크 구조가 되어야 하며 중앙집권보다 지방 분권화 시스템을 장려하였다(조유리 외, 2013).

지역혁신체제를 개념화한 일련의 연구들은 지역의 인프라나 문화를 부수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보다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축이 된 혁신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두었다(정준호 외, 2004; 이민형, 2009).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사고와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논의는 제도적 시스템에 뿌리를 내린 구체적인 학습 궤적(trajectories)의 결과로 혁신능력이 발산된다는 것이다. 학습의 중요성 이외에도 기술적, 조직적 능력과 수행력간의 끊임없는 불균형의 역할, 경로 의존성의 역할, 국가, 지역, 기업의 구체적인 정황적 조건 등이 강조된다. 혁신체제론적 관점은 제도적 관점을 포용하면서 학습과정에 개입된 개인과 조직의 네트워크와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보다 넓은 제도적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혁신의 사회적 기원을 풀어낸다.

지역혁신체제적 접근은 산업 집적지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 지식의 창출과 혁신에 관한 이론을 결합함으로써 혁신과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일보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 집적지에 대한 지난 세월 동안의 논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의 지역적 기초와 잠재적인 집합적 문제에

5) 지역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11

대한 일반적 해결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제공되었다. 지역혁신체제론에서는 기업의 학습 및 혁신능력에 산업의 집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제도적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공간적 환경에 있어서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보다 발전된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역적 상황성을 고려해서 일련의 구체적인 제도들과 조직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의사소통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함으로써, 경제적 수행력과 다이내믹스의 공간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이 제공되었다.

2) 혁신 클러스터 모델

효율적인 산업발전 모델 중 가장 적합한 것이 클러스터 개념이다. 혁신 클러스터의 개념은 앞에서 Michael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과 지역혁신체제 논의를 발전적으로 수용한 개념이다. 클러스터 개념의 장점인 기업의 경영전략과 생산체인의 개념을 지역혁신체제의 장점인 제도적 관점과 결합한 것이다. OECD(1999)에 따르면 혁신클러스터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식집약사업 서비스회사, 중계기관(컨설팅, 브로커), 고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가치사슬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산업클러스터는 1990년대 초반 Michael Porter가 그 중요성을 역설한 이래, OECD에서 ‘Cluster Focus Group’을 조직, 각국의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면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Michael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은 공간적 집적이란 개념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중의 하나이다. 클러스터가 특정 국가들이 특정 산업에서 성공하게 되는 원인이 경제변화를 숨페터적 관점에서 개관한다는 측면에서는 혁신환경론과 맥을 같이 하지만, 사회적 합리성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클러스터 접근에서는 먼저 시장구조와 경영전략과 같은 경쟁적 유인정책(incentives)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과 전략적 경영과 시장구조, 그리고 사업이 운영되는 환경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모델인 다이아몬드 모형을 구성하였다.

산업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에 상호 연관성이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실리콘 벨리, 허리우드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개별 기업들은 유사한 산업부문에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상호 협조하며, 동일한 인프라와 동일한 숙련 인력 풀(pool)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연관성이란 함은 동일 업종내의 경쟁기업이나 전후 생산 공정상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을 말한다.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산업집적)는 수평적·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특정분야의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한 지역으로, 산업집적지는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과 지역군집(regional cluster)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단순히 기업들이 특정지역에 군집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산업단지'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개별 기업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협업을 기반으로 전체 기업 집단의 효율성 및 혁신능력을 제고시키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강하고자 하는 공동 비전을 추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표 7> 산업단지와 클러스터의 비교

구분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공동비전 및 목표	• 없음	• 있음
입주기업 연관성	• 낮음 • 경쟁 혹은 무관심	• 높음 • 경쟁과 협력
입주요인	• 낮은 지가/입주혜택 • 유형의 인프라 공유	• 신지식 창출/사업기회 • 무형의 지식공유(네트워크 참여)
운영관리자 관심	• 분양/임대 • 하드 인프라 관리	• 네트워킹 지원 • 기업지원서비스
조성기관	• 단기(부지조성후 분양)	• 장기(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
사례	• 울산공업단지 • 마산수출자유지역 • 외국인 전용단지	• 실리콘 벨리 •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 •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등

클러스터 접근에서 산업공간 진화의 핵심은 기존의 경제적 자산(assets)보다는 변화의 유인정책(incentives)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중요한 것은 경쟁적 환경이며, 이런 환경 하에서는 관성(inertia)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압력이 생긴다. 공간적 근접성과 기업들의 본거지(home base)에 정착하는 것은 고도의 지역화(localized) 과정을 통해서 경쟁우위가 창출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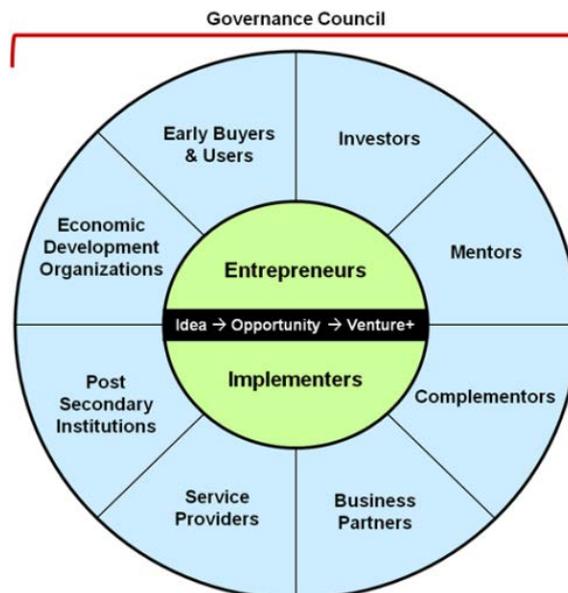
현재 클러스터 접근의 발전경향을 보면 점차 네트워크와 산업지구에 대한 사회학적, 지리학적 연구와 비슷해지고 있다. 클러스터 접근의 이론적 기반으로 Porter식의 경쟁, 산업지구론과 같은 전문화된 기업 간의 제휴, 그리고, 대기업을 겨냥한 공급사슬이 제시된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공급사슬 개념은 다국적 기업이 유인되면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Enright가 제시한 클러스터 유형 구분에는 허브기업으로부터 유래된 산업의 집적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집중된 산업 클러스터로 정의할 수 있는 지역 클러스터가 포함된다. 지역 클러스터는 다

양한 산업지구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Porter(1998)의 클러스터 정의에서 생산 가치사슬을 강조한 산업집적과는 구분되며, 혁신주체의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등 지식연계조직과 산업 등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초고도화된 사회에서 상상력 및 창의성을 가지고 혁신적 기술과 문화적 콘텐츠를 결합하는 창조적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각 국에서는 과거 IT기반의 지식기반산업단지를 넘어 산업-생활-문화가 융·복합되는 다양한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시작되었다. 문화적 콘텐츠와 혁신적 산업 R&D기능을 보유한 대학을 주축으로 기업, 연구소 등이 혁신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창업 생태계(startup echo-system)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는 벤처 창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생태계 멤버들간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플랫폼(process platform) 주변에 단단한 기반을 두게 된다. [그림 3]은 Bailetti & Bot(2013)이 정의한 벤처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회 단계를 거쳐 6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벤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설립자를 돕는 벤처 창조를 위한 과정을 보여 준 바 있다.



[그림 3] 프로세스 플랫폼 주변에 기반을 둔 벤처 이해관계자

자료 : Bailetti & Bot(2013)

아울러, 벤처 과정을 지원하는 벤처 이해관계자들은 1) 기업가 및 실행가(리더를 의미), 2) 기업가를 지원하는 이해관계자(공급자를 의미), 3) 지배구조 위원회 멤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기업가(Entrepreneur)와 실행자(Implementers)로 기업가(Entrepreneur)가 벤처 창조를 이끌며, 이때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며, 스타트업 설립자, 피고용인, 임원, 자문가, 컨설턴트 등이 포함되는 실행자는 벤처의 제안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간다. 두 번째는 멘토(mentor)로 멘토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 또는 관리 전문성을 기업가에게 제공하며, 주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학(university & colleges)인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s)으로 고등교육기관은 상업적 이익에 관한 개발을 준비하는 연구, 실험실 접근, 실행가, 기업가, 기회 평가를 위한 평가자, 기업가적 지식과 자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네 번째는 서비스 공급자(service providers)로 서비스 공급자는 벤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주로 회계사, 변호사, 인적 자원 공급자 등이 있다.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 파트너(business partners)로 비즈니스 파트너는 비즈니스 운영 수준에서 새로운 벤처를 형성하는데 연합 형태의 상업적 객체(조직)로 유통 채널 파트너, 공급망 파트너, 제조 파트너 등이 있다. 여섯 번째는 보완자(complementor)로 보완자는 상호적 고객에게 가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신생 벤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비즈니스(단독 객체로 운영되는)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취된 가치는 각각의 보완자에게 가치를 증대시킨다. 일곱 번째는 경제개발 조직(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s)으로 경제개발조직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도움을 제공하는 공공 및 비영리 그룹,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여덟 번째는 초기 구매자 및 사용자(early buyers & users)로 이들은 혁신의 확산 주기(diffusion-of-innovations timeline)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시도하는 고려되고 있는 시장의 소수 그룹을 말한다. 아홉 번째는 투자자(investor)로 투자자는 엔젤 투자자 또는 엔젤 투자 그룹, 전략적 투자자와 같은 벤처를 성장시키는데 미약한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3절 창조경제와 지역창조경제

“창조경제”의 개념은 1998년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가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통해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다. 창조경제론의 대표적 학자인 John Howkins는 “The Creative Economy”라는 저서를 통해 창조경제의 정의를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로 제시한 바 있다. 영국, 호주, UN 등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창조산업으로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추진하고 있다. 존 호킨스 교수는 저작권산업(copyright industries), 특허산업(patent industries), 상표 및 디자인(trademark & design industries) 등의 지적재산권을 핵심자산으로 하는 산업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창조경제라고 칭하였다(Howkins, 2001). 영화, 출판, 공연예술, 연구개발, 디자인, 콘텐츠 등이 그 범주에 해당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확장한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역시 창조산업을 “창조성, 문화, 경제, 기술의 접점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동시에 사회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간 개발을 촉진시키며 지적자산을 창조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정의했다(이민화, 차두원, 2013).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ICT가 결합하여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전략’이라는 정책적 개념(미래창조과학부, 2013)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해, 3대 목표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을 제시하였다. 기존 창조경제 개념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문화·예술산업 관점이 아닌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및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2013년 4월 지정한 14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실천과제로 선정한 것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창조경제의 개념적 필요성

지역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다양성과 아이디어의 결합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는 Jacobs(1984)의 선도적인 연구에서 시작한다. 지역이 가진 다양성이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성원의 다양성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어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며,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여러 형태의 조직이 활동한다. 이러한 구성원의 다양성은 지역이 가진 포용력과도 관련이 있어서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지역의 창의성 자산이 된다(Florida, 2002).

둘째, 산업의 다양성이다. 여러 산업은 여러 직군의 인력을 배출하여 지역 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기술기반을 넓힌다.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서비스업, 지식기반 전문가그룹 등의 각종산업이 지역 내에 존재한다면, 이들 간의 융합에 의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합 혁신을 제이콥스 외부효과(Jacobs externalities)라고 부르며, 이것이 복합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가 라스베이거스처럼 특정 서비스산업이 번성하는 지역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셋째, 구성원 간 네트워크의 다양성이다. 경제 주체 간의 네트워크는 시장 거래, 제휴, 협력 등의 공식적인 형태와 직종, 취미,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공식 관계를 갖는 소그룹 형태가 있다. 활발한 공식, 비공식 관계에서 끊임없이 접촉이 일어나고 정보가 공유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감각 그리고 지식이 생성될 수 있다(고정민, 2013).

마지막으로, 지역 전체의 집단적 자원에서 사업화 프로세스의 결과와 경험을 학습하여 다시 지역의 지적 자산으로 내재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부연구는 성공사례보다 오히려 실패사례가 더 유용한 경험자산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며(Sitkin, 1992), 경험을 축적하고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그 지역 내 경제주체들의 능력과 조직문화에 달려있다(Cannon & Edmonson, 2005). 어떠한 형태의 결과라도 학습하려는 노력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Kanter, 2006). 실리콘벨리의 꾸준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연쇄창업가(serial entrepreneurs)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다(Issak, 2009). 개별 기업가와 벤처기업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지역 내에서 축적하고 공유할 경우 지역 전체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지역 전체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유리 외(2013)는 지역 차원의 창조경제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로는 창조경제에 있어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성 측면에서 지역별 접근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국가 수준보다 적은 규모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이유의 근거는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지식의 공유와 확산, 경제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신뢰 구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조유리 외, 2013). 혁신활동이나 고도 지식의 활용은 형식지(Codified knowledge)보다 암묵지(Tacit knowledge)에 더 많이 근거하고 있으며, 암묵지는 대면접촉이나 빈번한 상호관계에 의해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Jaffe, 1986; Adams & Jaffe, 1996) 물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암묵지의 확산정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이나 지적 자원에 의존하는 산업일수록 물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Audrech & Feldman, 1996). 또한, 참여자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나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감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신뢰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참여자들이 시장에서의 거래 관계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대면접촉과 이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Bouttellier et al., 1998); McDonough III et al., 2001; Pinto et al., 1993). 평판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주체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협동상태에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자제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성공확률이 낮은 벤처캐피털이 자신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행태를 보이는데(Chen et al., 2010), 이 또한 생태계 조성에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한 변화 환경에서 암묵지의 국지적 확산과 참여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를 지역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의 근거로 창조경제는 자본이나 설비의 투자로 거대 전략 산업을 육성한 다기보다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구체화하여 사업화하는 데에 요점이 있으므로, 풀뿌리 창조경제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가보다 지역수준에서의 창조경제의 구현이 더 적절할 수 있다(조유리 외, 2013). 같은 맥락에서 이민화, 차두원(2013, p.51)은 창조경제의 구성요소로 창조계급, 창조기업, 창조산업과 함께 창조도시, 창조클러스터를 꼽은 영국, 호주, 국제연합 등의 창조경제 이

론들을 소개하며, 창조경제에 있어서 참여자 간에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강조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창조경제가 주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하드웨어적 지역발전에서 탈피하여 창조성과 아이디어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지역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이 가진 자원의 종류나 규모가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규모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역 창조경제 전략을 접근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내에서 구체적 실행의 규모나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창조경제 본연의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창조경제의 개념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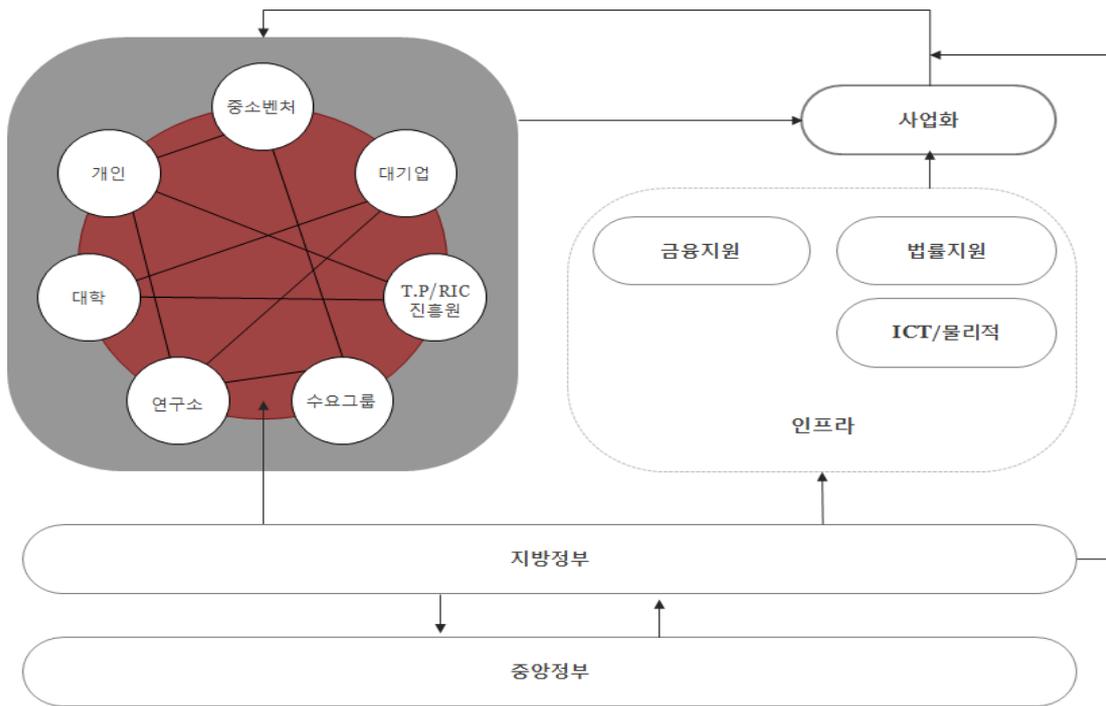
지역창조경제는 “개인,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지역 내 경제적, 비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하며, 일련의 경험을 학습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 전반의 경제적 자생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말할 수 있다(조유리 외, 2013). 즉,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창의성으로 발현하고 이를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의 창조능력의 함양이 지역 창조경제의 요체이다(조유리 외, 2013).

조유리 외(2013)가 제시한 지역 창조경제의 개념적 모형에서는 지역창조경제에서는 제일 먼저,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수요그룹, 테크노파크(TP)/지역혁신센터(RIC) 등의 민간 경제 주체가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의 경제발전은 부분적으로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이기 때문에, 지역 고유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역정책의 구상과 추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조유리 외, 2013). 지역이 가진 자원은 비단 문화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인력도 중요한 자원이 된다.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제주체가 활동하고 있는가도 지역적 특색의 일환인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학이 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큰 경우, 중소기업과 기업가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주도적인 경제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태도 다르다.

하지만, 지역의 자원과 경제 주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사업화하지는 못한다(조유리 외, 2013).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조유리 외, 2013). 경제성장에서 창조계급의 역할

을 강요했던 리처드 플로리다는 모든 개인은 창의적이며 이러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Florida, 2005). 비록 개인과 개개의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은 협소하더라도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간에 융합이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아이디어의 발현에서 사업화까지 과정에는 벤처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아이디어의 검증, 구체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혁신 중개자 등 혁신참여주체들 간의 의견 조정할 수 있는 혁신참여자 간 자발적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적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지역의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창조경제에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은 혁신을 창출하고 사업으로 구현하는 기술적, 문화적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비용을 낮춰준다(이민화, 차두원, 2013).



[그림 4] 지역창조경제의 개념적 모형

자료: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조유리 외(2013)는 또한 지역창조경제는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창출단계는 지역 내의 독특한 경제적, 비경제적 자산을 활용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로 지역 내 주체들 간의 협력과 공유의 장을 형성하고 금융, 법

를, ICT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위험부담을 줄인다. 이 사업화 단계가 쉬울수록 창조경제플랫폼이 잘 구축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화의 성과를 지역 내에서 학습하여 지적 자산으로 축적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반복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혁신체제가 과학기술, 생산기술,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 등 혁신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역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개념의 혁신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창조경제가 하나의 산업 내에서 혁신을 창출하는 단계를 넘어서 산업 간의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합을 강조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지역 창조경제는 지역혁신체제보다 상위 개념이지만, 지역 혁신체제를 통해 효과적인 혁신의 기제가 작동한다면 이 역시 혁신클러스터와 같은 개념으로 지역 창조경제를 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려했던 점은 지역 창조경제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혁신주체인 대학, 테크노파크 등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추진하였는데, 지역 창조경제에서는 금융, 법률, ICT, 아이디어 공간 등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조유리 외, 2013). 또한 혁신의 과정을 내재화하여 지역혁신체제를 학습의 기제로 활용하려 했던 것도, 사업화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지역 창조경제와 유사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론과 지역혁신체제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부보다 민간이 주체적으로 활동해야하며, 정부의 경우에도 자율성이 확보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했다는 점이다(조유리 외, 2013).

<표 8> 지역창조경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구분	지역 창조경제	지역혁신체제
차이점	여러 산업분야를 다루며, 산업 간 융합을 강조	과학기술 등 혁신 분야에 집중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집중	혁신활동과 그 성과에 집중
유사점	혁신 플랫폼의 구축	
	구성원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조	
	혁신과정의 학습 강조	
	지역의 자율성 확보	

자료: 지역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11

제4절 지역 혁신생태계의 분석적 접근 방법

본 연구는 지역 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과제는 물론 이를 추진할 조직체계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태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은 자본(Capital), 스타트업배양기관, 지원문화 등의 규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역생태계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지 자원의 규모만이 아닌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 보아야만 한다. 지역이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지역의 혁신생태계가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결과 창출에 연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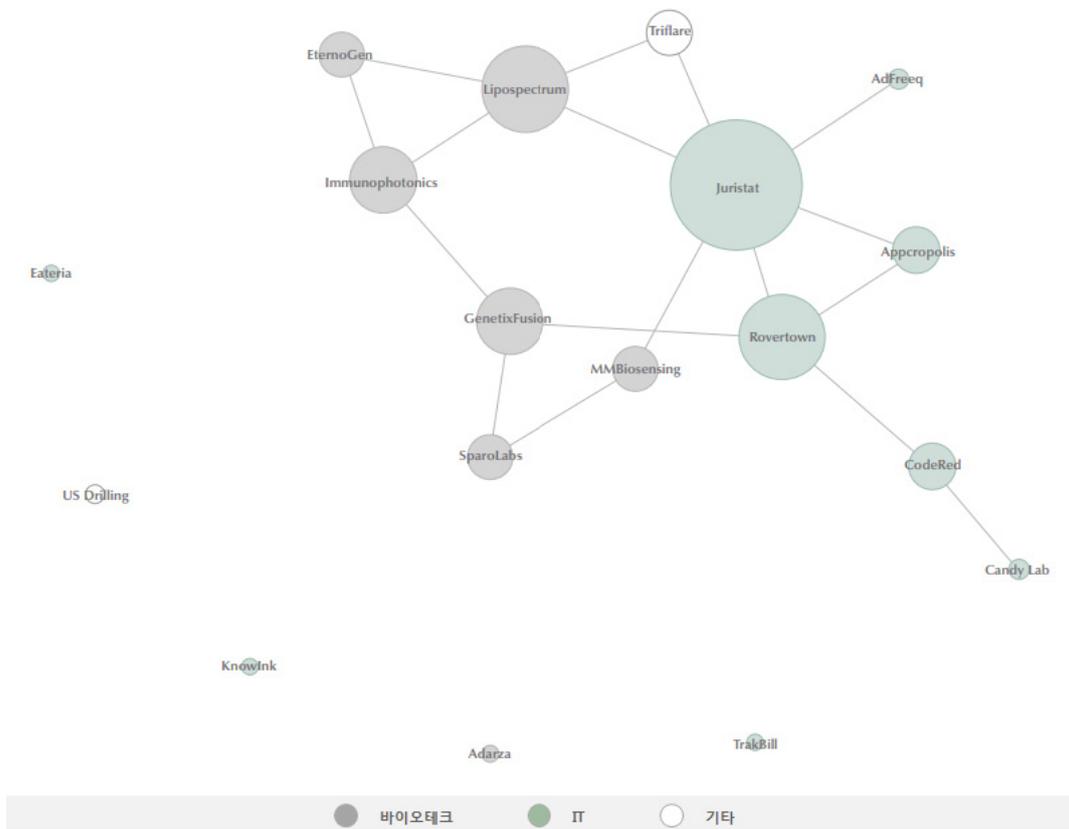
미국 카우프만 재단에서는 2013년, Arch Grants 보조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업들 간의 관계, 스타트업지원기관과 기업들 간의 관계, 스타트업지원기관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사업의 발전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카우프만 재단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Arch Grants 보조금을 받은 스타트업들 중 20개 기업들 중 16개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고 그 중 12개 기업이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2/3의 스타트업들이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의 사업의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가 하는 역할과 같다.

Arch Grants 보조금을 지원 받은 A기업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는 [다른 아치 보조금을 받은 회사의 설립자] 좋은 사람이고 그는 정말 지적이다. 그는 나에게 조언을 많이 제공하고 나 또한 그의 사업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우리 모두는 사교 클럽이나 여학생 클럽의 동료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인 B는 “나는 C의 비즈니스 프레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고 그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서로의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대화

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오테크 분야 기업의 경우 다른 바이오테크 분야 기업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내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정 원했던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로인해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타인으로 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Arch Grants는 특정 산업을 규정하지 않고 여러 산업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카우프만 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들은 주로 다른 기업가 그리고 경험이 많은 멘토로부터 배움을 얻음에 따라 위와 같은 기업가들 간의 상호작용은 특정 산업 내에서의 연결을 넘어 동일 산업내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기업가들은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스타트업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특정 산업에 치우쳐지거나 동일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카우프만, 2014).



[그림 5] Arch Grants의 스타트업들 간의 관계

출처: 'Examini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T. Louis', 카우프만재단, 2014

이에 따라 지역생태계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태계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시간에 따른 지원기관의 개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생태계 내에서의 플레이어들 간의 연결성을 살펴보아야한다.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은 기업, 지원조직, 주기적인 기업가정신 지향 이벤트 등의 지원 사업 및 이니셔티브를 말하며 이와 같은 플레이어들은 이전부터 기업가와 연관성을 갖는 요소들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자금지원 출처 및 인터뷰 진행을 위한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해외 모범사례의 도시기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까지 지원조직 및 기관들 간의 업무협약, 파트너십, 스폰서십 등을 살펴봄으로써 창업생태계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몇 가지 연결성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카우트만재단(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생태계 내 연결성 분석은 다음의 3가지 활용 되었다.

첫째, 지원조직들 사이의 관계는 조직들 간의 융합활동을 통한 관계형성을 말하며, 주로 위원회 임원이 다른 조직에서 활동을 함으로서 조직의 인적자원을 공유하거나 조직의 전략 및 기능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지원조직들은 다양한 연결성을 갖게 되는데, 다른 조직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등의 행사를 위한 활동을 통한 연결, 특정 기업에 서로 다른 지원조직이 중복 지원함으로써 형성되는 기업을 통한 연결이 있다. 생태계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지원조직들이 형성되고 또 사라지며 지원조직 내 지속적인 인사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누락됐던 요소”들이 주입되고 그로 인해 건강한 생태계가 생성된다.

둘째, 기업가들과 주요 조직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지원 조직들을 기업에 지원해주는 유형에 따라 분류되는데, 비즈니스모델 자문, 피칭연습, 스타트업 배양과 같은 멘토링과 연결(Connecting), 자금과 기능유형이 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구성원들과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멘토링으로 주로 지원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및 특성을 나타낸다. 연구중심 대학은 기업가에게 있어 학생 혹은 Post-doctoral 연구원들을 통해 자원의 기능을 하는데,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에서는 약학 혹은 생명공학 분야 기업에서 대학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 외의 다양한 지원요소들 간의 연결성이다. 기업가들은 여러 행사들을 참석한 경험이 있으며 그 행사들을 통해 다양한 가치들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행사들은 주로 지원조직에서 개최했던 행사들로 데모데이,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도 있지만 가볍게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런치데이, 네트워킹데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행사도 포함된다. 기업가들은 그러한 만남의 장을 통해 다른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우프만재단의 분석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17개 시·도와 해외 주요 도시의 혁신 및 창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3장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과제

제1절 지역 경제개발 정책의 변화 과정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개발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지역산업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전 시기는 지역산업정책이 태동하기 전이었으므로 국가산업정책이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형태였다면, 이후의 시기는 지역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그림 6]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전개과정

자료: '지역산업정책 백서 1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채수정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1960~1970년대는 공업화 기반 조성기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의 물적 기반이 황폐해져 원조물자 가공에 편중된 3백(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출산업화 전략을 통한 산업합리화를 추진하여 '공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기본기조하에 거시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에 공간적 개념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공업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우리경제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산업에 막대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화학공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중화학공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와 부실화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켰고, 시장개방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1980년대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산업의 분산 및 재배치를 추진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와 부실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대 수도권외의 공간적 범위를 높이고 지역별로 차등적인 규시책을 제안하여 지역개발을 하려했으나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방분산 정책의 기반이 구축된 시기로 정부는 입지관련 법률의 통폐합과 첨단산업단지의 개발,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의 개편,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지방분산 정책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후발개발도상국들의 추격으로 위협받기 시작하자 광주, 대구, 춘천, 대전, 청주, 전주, 진주 등지에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과거의 입지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체계적인 공업배치를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며 지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또한 지역간 혁신인프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2003년, 테크노파크에 지역전략산업 계획 수립 및 육성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권한과 관리권한이 각각 건설부와 상공부로 이원화됨으로써 산업입지정책의 부조화가 지속되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적 정책구도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대적 한계를 보였다.

	1999~2002	2003~2007	2008~2012	2013	2014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선도육성사업		산업협력권사업(시범)
13개 광역사도	4개 지역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개 지역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Post 4+9)	산업협력권사업 (사·도 연계)	신 특화사업
		9개 지역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주력산업지원사업 (사·도)	
232개 시군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IC, RIS, RRI)	지역전통산업육성사업	지역전통사업(시범)	

[그림 7]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자료: ‘지역산업정책 백서 1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채수정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내생적 지역발전의 필요성이 부각된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기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로 지식·정보 능력이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고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창업활성화 시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활발히 추진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차원에서 4개 지역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산업육성정책중심에서 벗어나 분권적 상향식 지역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도별 2~3개의 전략산업을 지원, 이후 ‘지역육성정책’을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확대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능력을 강화하여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있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클러스터 전략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나 창업활성화 시책에서는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의(2003~2007년) 시기는 지역산업정책의 확산기로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자립형 지방화’를 지역정책의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이와 조화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해외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시·도 간 연계협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향후 핵심 개선과제로 남았다.

지역산업정책 측면에서 이명박정부(2008~2012년) 시기는 광역경제권 기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추진기로 광역경제권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및 추진체계를 재·개편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육성,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발전거점 및 사회간접자본, 문화관광 육성 등 부문별 정책을 체계화하였다.⁶⁾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2013~2017년)는 지역 산업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방향으로 본다면 지역간 협력 기반의 지역산업정책 및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은 ‘13년 7월 발표한 ‘HOPE 프로젝트’에서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인위적 행정단위인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실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

6) ‘지역산업정책 백서 1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4.1월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4년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이후 3월 말에 산업부는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하여 '2014년 지역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새롭게 지원될 시·도 협력산업과 주력산업도 확정·발표되었다. 산업부는 그 후속조치로 광역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사업을 '15년부터 ① 산업협력권사업(시·도 연계), ② 주력산업지원사업(시·도), ③ 지역전통(연고)산업육성사업(시·군·구, 행복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협력산업육성을 위한 시·도의 협력산업 선정은 시·도의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타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16개 협력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는데, 13년 11월부터 시·도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하여 협력산업과 주력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14년도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산업부는 산업협력권시범사업 240억원을 비롯하여 시·도 특화사업 2,403억원 등 14개 시·도에서 시행될 7개 세부사업*에 국비 5,572억원, 지방비 985억원 등 총 6,557억원을 투입하는 「'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확정한 바 있다. 시·도별 협력산업 선정결과는 다음 <표 9>와 같으며, 주력산업 선정결과는 <표 10>과 같다.

'14년도에는 부산·경남·울산·전남의 해양플랜트산업, 강원·충북의 의료기기 등 7개 협력산업에 대해 240억원(국비 168억원 지방비 72억원)을 우선 지원하여 조선해양플랜트,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부품, 광전자융합,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친환경자동차 등 총 7개 협력산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5년도부터 16개 협력산업에 대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협력산업육성은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협력권별 협의를 통해 주관 시·도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그간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없고, 주관 시·도가 없어 지역의 참여가 적고, 시·도 간 나눠먹기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다.

7) 산업부, 2014.3.31, 산업부와 14개 시·도, 2014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6,557억원 투입

<표 9> 시·도별 협력산업 선정결과(16개)

협력산업	협력권		협력산업	협력권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경남 부산	전남 울산	④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② 화장품	충북	제주	⑤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③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⑥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⑧ 로하스헬스케어	제주	강원	⑦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⑬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⑩ 기능성화합소재	대전	충남	⑭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⑪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⑮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⑫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⑯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 굵은글씨(① ~ ⑦번) : '14년 시범사업 추진대상

또한 주력산업육성을 위해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시·도별 5개 이내)을 자율로 선정하였으며, '15년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주력산업은 시·도 간 협력산업을 새로이 선정·지원함에 따라, 특화산업, 광역선도산업 등 기존의 지원 대상 산업을 시·도 단위에서 중추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재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10> 시·도별 주력산업 선정결과(63개)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디지털콘텐츠 ,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광주	스마트가전, 디자인 , 초정밀공작기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전북	건강기능식품 ,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전	무선통신융합 ,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 에너지설비 ,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경북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향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전기차서비스

* 굵은글씨 : 시·도별 특화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산업 등으로 중점 지원 대상

아울러, 산업부의 발표에 의하면,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중에서 확정된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시·도가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2절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역 혁신정책 모델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작된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13.6.5)’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9월 말에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픈하며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창업 관련 정책⁸⁾ 발표 및 민간의 참여는⁹⁾ 창업의 기반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진 했으나 중앙에 편중되는 성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과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및 현장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4년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계획하게 되었다. 창조경제의 확산과 실현은 지역 인재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모델을 확립하여 지역 현장에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고루 확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인데 산업부의 테크노파크,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중기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연), 미래부의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등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지역 혁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혁신 주체간 연계·협력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활용을 통해 지역 주도로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현장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에 있어 핵심은 지역 인재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모델을 확립하고 빠르게 지역 현장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고루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¹⁰⁾. 그 추진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는 테크노파크·디자인센터(산업부),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미래부), 콘텐츠코리아 랩(문화부), 지식재산권 센터(특허청) 등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8) ‘글로벌 K-스타트업 2013’(13.5월),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13.7월) 등

9) 청년기업가정신재단, D-camp(은행연합회), K-스타트업(구글 코리아), 패스트트랙아시아(티몬), 스파크랩(개인), 포스코 벤처파트너스, C랩(삼성전자), SK팹랩 등

10) 박근혜 대통령은 ‘14년 1월 6일 ‘VIP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전국 17개 광역사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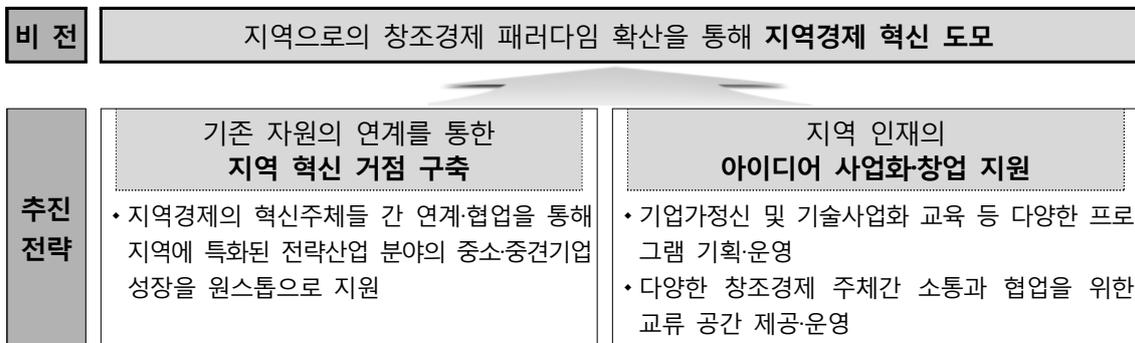
있으나 프로그램간 연계부족으로 정책효과가 분산되고, 서울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창업환경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벤처업계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창업자나 투자자 등이 서로 교류·협업할 수 있는 협업 공간(co-working place)도 찾아보기 어렵다¹¹⁾는 애로사항이 건의가 있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들이 연계된 많은 혁신적인 산업 중심의 지식기반클러스터가 조성하거나 되어 있고, 최근에는 창조적 산업의 클러스터들이 그 파급효과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 정부가 이러한 시대적 지역경제개발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2013년 4월, 140대 국정과제 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첫 번째 과제로 지정하였고 국가의 창조경제 달성을 지역경제발전과 연계하기 위하여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실천 과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창조경제 달성을 지역경제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4년 초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어서도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과제로 반영되어 있다.

11) 벤처·창업 민관 연석회의시 업계 애로사항(14.1월, 기재부 1차관 주제)

제3절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추진 개요

1.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추진 개요 및 동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14.1.6)이후 중앙정부는 2014년 1월 17개 시·도 간담회에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등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전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3월에 미래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14.3.7)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허브의 기능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하는 지역 혁신 거점의 기능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역할인 창업 허브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예비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소통·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지역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중앙·해외 엑셀러레이터와의 교류·협력(성공 노하우·사례 공유, 공동 투자 등) 등을 지원하는 등 중앙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 지원에 두고 있다. 두 번째 역할인 혁신거점의 경우는 지역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선 사항 등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의 발굴 및 추진,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사다리 확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주도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프로그램 등을 연계·총괄을 통한 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8]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전 및 추진 전략

출처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구축 방안', 2014.3.7

미래부는 '14년 3월 말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17개 광역시·도에 1개소씩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과 함께 시범 운영을 통한 모델 정립을 위해 지난 3월 26일 대전, 4월 28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후 9월 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결정되어 지고 나서부터, 그 구축에 속도감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월 말 삼성이 대구 센터에 참여하면서 대구 센터는 확대 개소를 했고, 10월 10일에는 SK가 대전 센터에 참여하면서 대전 센터가 확대 개소하였고, 11월 24일에는 전주에 효성이 참여하는 전북센터, 12월 17일에 구미에 삼성이 참여하는 경북센터가 개소되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 포스코가 포항시와 자율로 운영하는 민간 자율형의 포항센터가 개소되는 성과가 나오는 등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나타나고 있다. '15년도 들어서는 지난 1월 26일에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센터의 개소, 2월 4일 오송에 LG가 참여하는 충북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 기타 나머지 시·도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각 시도가 미래부 등과 협력하여 '15년도 상반기 까지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11>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경과

(15년 2월 현재)

날짜	추진경과
'14.1.6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구상 발표(VIP 신년 구상 및 기자간담회)
'14.3.07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방안 발표
'14.3.10	1차 대전창조경제협의회 개최
'14.3.17	1차 대구창조경제협의회 개최
'14.3.26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4.4.28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4.5.8	2차 대전 창조경제협의회 개최
'14.6.17~7.14	'14년도 하반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위한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계획' 조사
'14.7	하반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선 개소지역 선정을 위한 지자체 구축 계획 검토
'14.8	'14년도 하반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지역 선정 검토
'14.9.2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 연계 1:1 전담지원 체계 구축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 연계 1:1 전담지원 매칭 참여 발표('14.9.2 국무회의)
'14.9.12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자체 합동 간담회
'14.9.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개소
'14.10.10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개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 및 지역 중소기업 성장 및 창업지원을 위한 대전혁신센터-SKT- 대전시 MOU 체결
'14.10.30	1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 및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발표 등
'14.11.24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4.12.17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4.12.26	2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연계지원 방안(산업부)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 발표 등
'15.1.26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5.2.4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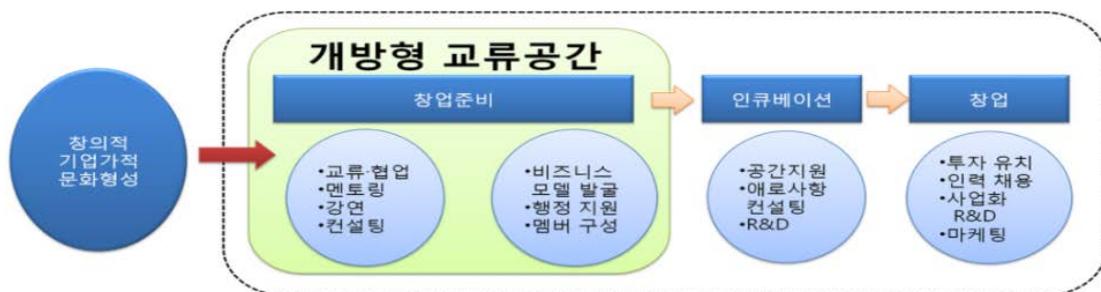
주: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

1) 초기 운영 모델

가. 역할 및 기능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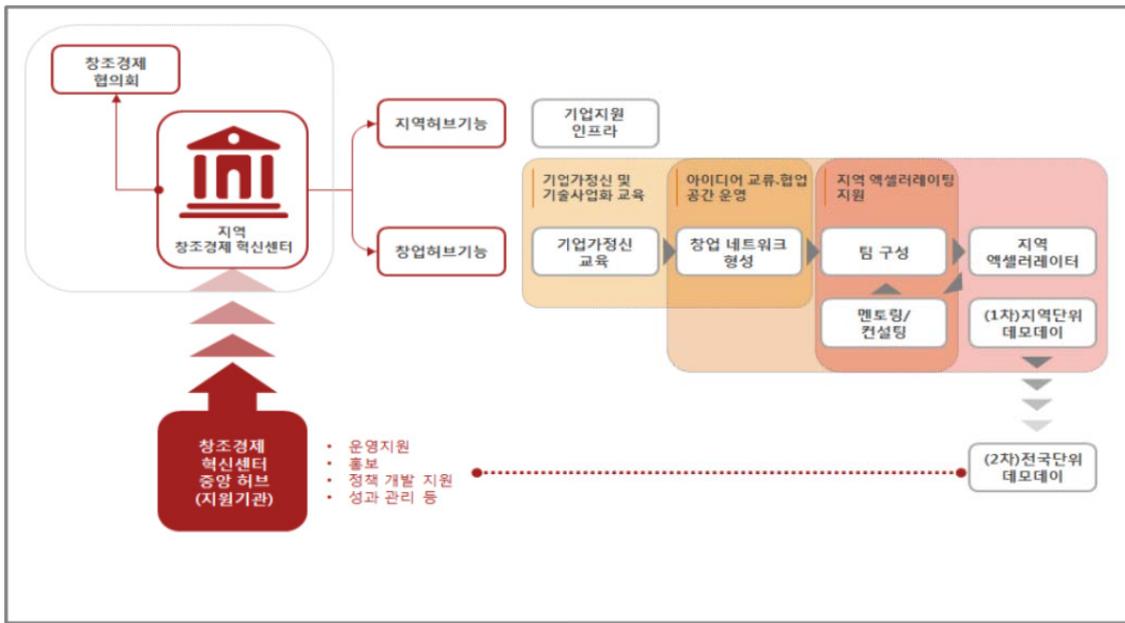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2014.3.7)'을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류·협업 공간은 지역의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창조경제 주체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자유롭게 교류·소통·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업가적 행동, 기업가적 과정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가적 의도를 이끌어내고 기업가적 의도를 가진 예비 기업가의 기업가적 행동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며 기업가적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다.



[그림 9] 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세스

출처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구축 방안(1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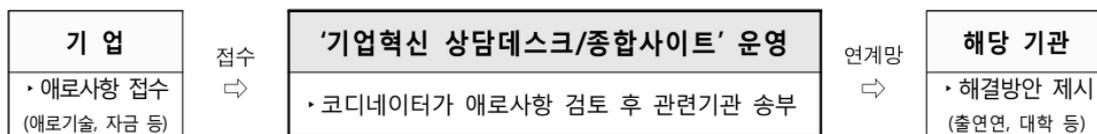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창업 허브 기능은 기업가 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 아이디어 교류·협업 공간 운영을 통한 예비 기업가의 창업 네트워크 형성 및 팀 구성, 이 과정의 멘토링·컨설팅 지원을 통한 벤처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창조된 벤처에 자금 조달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엑셀러레이터의 발굴 및 육성에 초점에 두고, 지역의 엑셀러레이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류·협업 공간에서 투자자이자 엑셀러레이터로 엑셀러레이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또 다른 핵심 역할 중 하나인 혁신 거점 기능은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한 지역 주도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프로그램 등을 연계·총괄하고 지역 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선 사항 등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 발굴·추진하며,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사다리 확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데 두고 있다. 지역혁신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계획으로는 크게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운영'이 있다.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육성은 경제규모, 인프라 등의 지역 역량, 기업 현황 및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을 지역 자원을 결집·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도로 선정된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5개 내외)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산·학·연 전문가 및 전문경영인 중심의 분야별 혁신 커뮤니티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혁신거점으로 거듭나는데 있어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운영은 지역 내 관련기관·조직을 연계하여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업혁신 상담데스크/종합사이트'를 운영하여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 후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나. 추진 체계적 측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비즈니스 개발 수단과 비교할 때 단순한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교류협업 공간(co-working, networking place)이나 중소기업 지원 센터와 같은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의 혁신센터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물론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등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의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지향하는 지역 경제성장의 정책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표 12>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존 비즈니스 개발 수단 및 목표의 매칭

수단	목표			
	비즈니스 스타트업	비즈니스 유인	비즈니스 확대/유지	혁신 및 기업가정신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	○	○	○
원스톱 센터	○	○	○	
스타트업 및 벤처 파이낸싱 기업	○	○	○	
중소기업 지원 센터	○		○	○
그룹 마케팅 시스템	○		○	○
촉진 및 관광 프로그램	○	○	○	
연구개발(R&D)				○
인큐베이션 센터	○			○
기술 및 비즈니스 파크	○	○	○	
기업 지대	○	○	○	
기업가정신 개발 활동	○			○
여성 기업	○			○
마이크로 기업	○		○	○

자료 : Leigh & Blakely('Plann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 2013) 수정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2014.3.7)'에 의하면, 지역 특화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있어 간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창조경제협의회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아젠다 발굴·추진 및 지역경제 혁신 도모를 위한 각종 현안

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 및 운영될 계획이며 협의회의 구성은 지역 내 경제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의 지도급인사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산업계 비중을 가장 높게 구성하며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회장직은 지자체 부단체장 및 민간(경제단체장, 기업CEO 등) 공동회장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방 중기청, 테크노파크, 지역발전연구원, 연구개발특구, 거점 대학 등 지역경제 관련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기관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창조경제민관협의회의와 '14.1.13일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시킨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하는데 있어 지역과 중앙간의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2) 현재의 운영 모델

가. 역할 및 기능적 측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및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적 역할 및 기능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당초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했던 부분인 생태계를 보완·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전문가,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기관, 지자체 등의 역량을 연계하는 노력을 통해 창업·벤처 지원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창업-벤처·중소대기업' 상호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기반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점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1: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혁신센터-대기업간 연계를 통해 대기업이 창조경제 생태계의 적극적인 플레이어(player)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태계의 약한 고리가 보완되고 비로소 창조경제 생태계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모델 및 상품개발, 판로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기업에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인재가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표 13>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연계 현황

개소	지역	기업	업종	근거
개소	대전	SK	ICT	국내 대표적인 ICT기업
	대구	삼성	전자	세계 1위 모바일 기업
'14년 10월~ '15년초	전북	효성	탄소섬유	전주 탄소클러스터 핵심기업
	경북	삼성	전자	구미 중심 스마트기기 거점, 경북산학융합지구 주요사업
	광주	현대자동차	자동차	광주 기아차 공장 중심의 자동차 관련활동 지원
	충북	LG	전자정보·바이오	생명과학 및 청주 생활건강 중심기업
	부산	롯데	유통 및 관광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통·관광 전문 기업
	경남	두산	기계장비	국내 최대의 발전설비 제작
	인천	한진	항공	인천공항 및 인하대 창업지원센터 관련기업
	경기	KT	IT서비스	IT 중심의 판교 테크노벨리내 벤처·창업지원
	전남	GS	건설·에너지	석유화학단지 대표기업
	충남	한화	태양광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국내 태양광 에너지 선도기업
강원	네이버	IT서비스	춘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식거점인 대표 인터넷 기업	
'15년 상반기	서울	CJ	문화	한류를 중심으로한 국내 대표 문화기업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기계	울산 중심 국내 대표 조선 및 기계기업
	제주	다음	IT서비스	제주 중심 국내 대표 인터넷 콘텐츠기업
	세종	SK	ICT	정부 3.0 정보기술, 세종U시티 구축 주요기업

자료: 아시아경제,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 1:1 매칭', 2014년 9월 3일자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30일 발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에서 제시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모델과 비전을 살펴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적 기능에는 크게 변화한 것은 없으나, 그동안 지역혁신생태계에 있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대기업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대전, 대구 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그동안 늘 부족하다고 지적되던 혁신 생태계 내의 대기업의 역할의 보완됨에 따라 생산·마케팅 역량과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촉매제 역할의 수행이 기대되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 보완과 함께 대기업의 역량 확충·미래준비가 연계될 수 있는 강화된 혁신 시스템의 선순환 체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적 시스템은 지역 인재와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 창조경제 모델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지역의 기업가적 활동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대기업의 역량과 지역의 보유 자원의 차이, 기대 등이 다를 수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지역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여 지역 주도형·맞춤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지역 혁신기관간 Networking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창조경제 전략 수립 참여, 지역 창조경제 사업 기획, 파일

릿 프로젝트 발굴·기획과 같이 기존의 방안에서는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 발굴 및 육성과 관련된 기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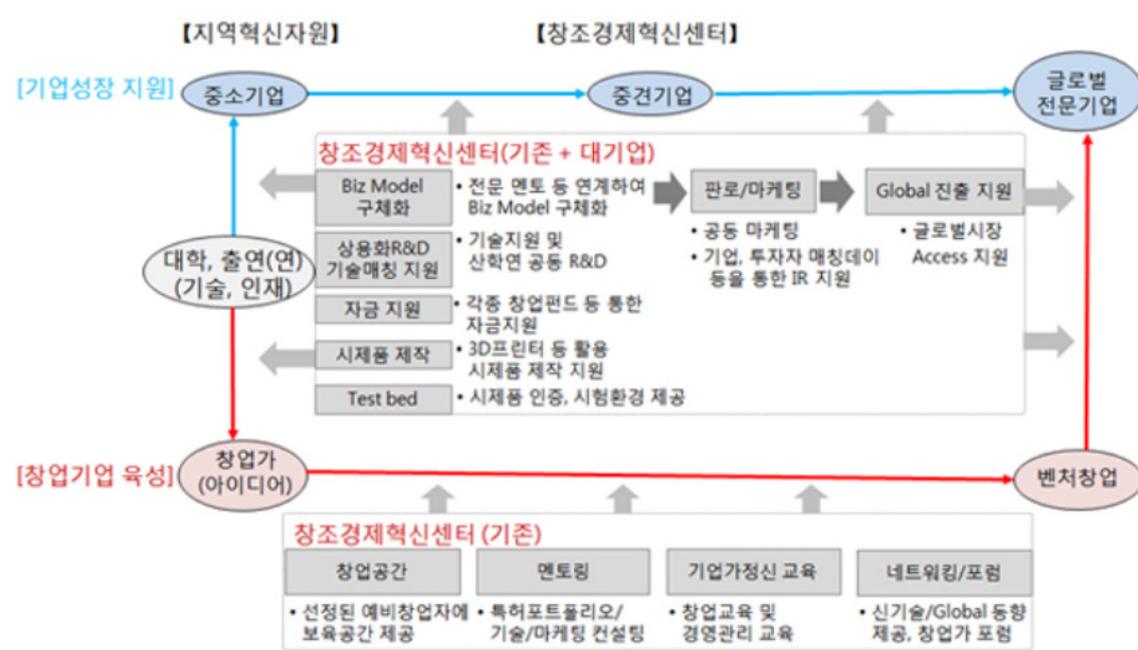
비전	지역 보유 역량의 연계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우수 인재가 상주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지역경제시스템 구축 ▷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간 유기적 생태계 구축 ▷ 지자체, 지역유관기관, 지역주민의 역량 결집 		
주요기능	창업 허브	지역 혁신 거점	협력성장의 Eng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공간·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혁신주체간 소통과 협업 지원 • 창업촉진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창업 단계별 지원 • 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기관간 Networking을 통한 지역 역량 연계 • 지역 창조경제 전략 수립 참여 • 지역 창조경제사업 기획 •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한 지역 혁신역량 보완 • 연계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및 원스톱 서비스 창구 역할 담당

[그림 12] 대기업 참여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전 및 목표, 주요 기능

자료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14.10.30)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2014.10.30)에 따르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7개 시·도에 설치되고, 창의적인 인재, 창업 및 벤처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자체, 기업 등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을 연계한 지역 내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지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1: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 운영 방안에 포함된 대기업의 혁신센터 운영 참여 유형은 살펴보면, 지역별 여건과 산업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추진이다. 기존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해 확대·운영하거나, 신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된다. 둘째 유형은 기업의 보유자원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이다. 기업 보유자원 중 미사용 IP·제품을 벤처·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업보유 글로벌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등이 지원된다. 셋째 유형은 협력사(중견기업)와 지역 혁신기업, 연구기관 간 상생협력이다. 대기업은 협력사와 혁신센터를 연결할 전문가를 배치하고, 아이디어·기술 발굴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 참여 후, 협력사에 인센티브 부여(우선 구매) 및 M&A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

도록 지원된다. 마지막 넷째 유형은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이다.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기업의 전략이 연계되는 분야에서 상생협력 프로젝트(사업화 공동연구, JV 설립, 벤처 투자 등)가 추진된다.¹²⁾



[그림 13] 지역 창조경제 조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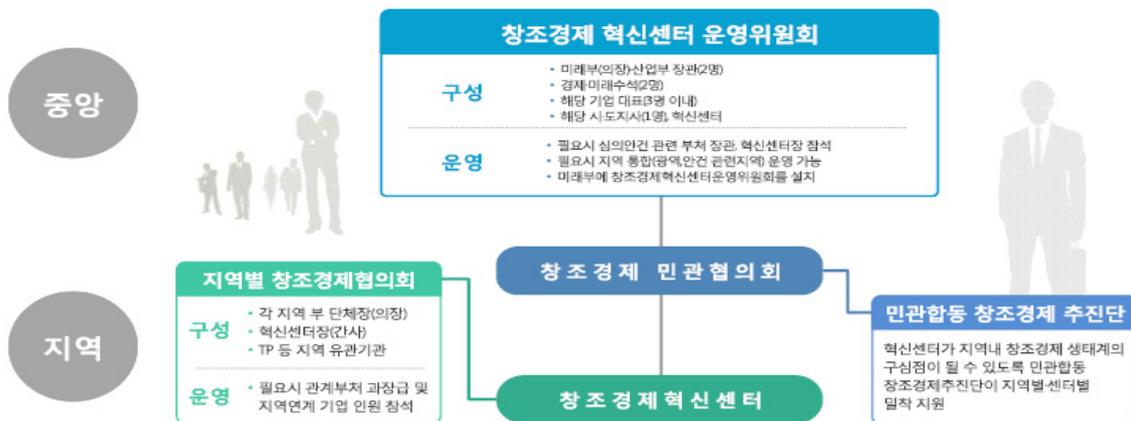
자료 : 문화경제신문, '우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대기업은 어디?', 2014년 9월 16일자

이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에만 연계·의존하여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부족했던 파트너십의 형성과 이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앙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 지원기능으로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의 창업역량 강화하고, 예비 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하며, 지역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중앙·해외 엑셀러레이터와의 교류·협력(성공 노하우·사례 공유, 공동 투자 등) 등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능 수행에 있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또 다른 핵심 역할 중 하나인 혁신 거점의 경우 기능에 있어서는 기본적 역할은 변화가 없으나 지역별 운영에 있어 지역적 보유 자원의 역량과 상황과 기대 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 운영 계획에 맞춤형으로 특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12) 문화경제신문, '우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대기업은 어디?', 2014년 9월 16일자

나. 추진 체계적 측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진 체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둔 변화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채널 강화이며, 두 번째 변화는 초기 운영 모델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못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창조경제 협의회의 구성·운영의 제도화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채널 강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 정부-해당 지자체-해당 참여 대기업-해당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간의 협의 채널이 구축된 것으로 2014년 12월에 일부 개정 공포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하는데 있어 지역과 중앙간의 협력 채널은 더욱 강화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및 운영 지원 체계

자료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14.10.30)를 바탕으로 재구성

두 번째 변화인 제도화 부분을 살펴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 근거의 강화,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법인화의 근거 마련, 지속 가능성과 사업의 구체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12월에 일부 개정 공포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각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나,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관련기관·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등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2014년 11월에 제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혁신주체들간 연계·협업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의 창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³⁾ 2014년 11월 제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안)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의 창조경제혁신거점 기능 수행, 2. 지역 혁신주체들과 연계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3. 정보교류 및 협업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공간 조성·운영, 4.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 및 규제개혁 발굴·추진,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유관기관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6.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사다리 확충지원, 7. 기업가 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의 창업역량 강화, 8. 지역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중앙·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 및 협력, 9.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10.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1.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12.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하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3)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안), 제정, 2014.11

3.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성과와 과제

가. 현재까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성과

2014년 초부터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을 확대해가면서 기능면에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전북센터의 경우 탄소소재 클러스터와 금융지원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광주센터는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및 법률상담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충북센터의 경우 바이오 창업생태계 활성화, 특허공유 및 매칭 기능,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창업 활성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림 15]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의 진화 및 발전

자료 : 청와대 블로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15년 2월 4일 현재 6개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고, 아직 미개소된 지역이 11개나 되며, 기 개소된 지역의 경우에도 개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기반 구축기로 볼 수 있다. 실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점과 정책적으로도 계획이 수립되고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논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추진 과정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될 지역 사회의 관심은 물론 전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대기업의 참여이다.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업가적 활동 및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펀드 조성, 미활용 보유 특허의 제공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매칭된 대기업이외에도 포스코는 포항시와 협력하여 민간 자율형의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정부 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은행 등의 협력적 태도 변화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나 언론 보도를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산업부와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관련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8개 경제단체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고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해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있어 이러한 참여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은 분명한 점이다. 네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특화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특화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의 수립은 물론 아울러 대전과 광주의 경우 지역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확대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적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부족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에 있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대기업의 참여 이후 성과 창출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내부 벤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가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 등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창출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개소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대기업(SK그룹)과 만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드

러나며 현재 '한국형 실리콘벨리'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와 SK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해 10월 SK와 결합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확대 출범 후 2개월 만에 외부 투자유치 13억원(5개팀), 매출 6억 2,000만원(4개팀)의 성과를 올렸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러한 성과는 SK와 대전센터의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으며 SK는 대전 지역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체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특구와 정부 출연 연구소, SK 그룹의 우수기술 3,981건을 플랫폼에 등록해 앞으로 창업가들의 사업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¹⁴⁾

<표 14>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참여 이후 성과

(14.12월 초 현재)

구분	주요활동
대구(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b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의 벤처·창업지원 프로그램 - 6개월간 최대 5억원, 1:1 멘토링 등 집중 지원(대구와 삼성이 C-Fund 조성) ○ '삼성 벤처 파트너스 데이' 개최(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졸업 우수기업, 지역 벤처·창업 기업 발굴·투자
대전(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SKT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eam Venture Star 선발 창업팀 센터 입주, 2천만원 창업준비금, 멘토링 등 지원 - SK 총 450억원의 벤처육성펀드 조성(연말) - 투자계약 4건 및 인수합병 1건 성사 - (주)오비랩, 크레셈, (주)스몰머신즈, 아스크스스토리 등 총 21억 5천만원 투자 연계 - (주)판도라TV의 (주)노바토 인수합병 성사(11억원)
전북(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C'incu Room 프로그램' 운영 (효성&전북 창업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업체 입주(12.8/2개월), 사업화자금 1억원 지원(심화단계별 별도선정) - 멘토지원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 입주업체 워크숍(12.11) ○ '창업활성화 정기 세미나(워크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목요일, 분야별 창업맞춤 Solution 제공(탄소·농생명·한문화분야) - 효성&전북 창업공모전 선발 10개 업체(11.21), 대학교창업동아리 등

출처 : 미래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참여', 2014.12.26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 중인 교류·협업 공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난 해 6개월(6.12~12.10) 간의 단순 기본적인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개소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 대구, 전북 3개소가

14) 헤럴드경제뉴스, 'SK와 손잡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두달만에 투자·매출 쑥쑥', 2014년 12월 29일자

있으나 전북의 경우 개소된 지 1개월 미만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2개 소만 대상으로 하였다. 센터의 개소 시기, 홍보, 지역적 인구 규모 및 수요자의 니즈 차이, 센터의 보유 자원 및 역량, 계절적 요인, 지역 자원들의 관심과 협조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제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적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대전, 대구 2개 지역의 기업가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인재를 의미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용 고객은 총 7,503명이며, 이들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관심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성과로는 교육 및 강좌 개최 실적으로 총 65건, 교육 및 강좌 참여자는 총 2,695명, 컨설팅 상담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은 인원은 498 명 또는 기업, 기관(사업) 연계 지원 실적은 3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및 강좌는 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비롯한 창업 교육 등 기업가정신 촉진 관련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설팅 상담 및 멘토링은 기업가적 준비 과정 및 기업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유관기관 및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한 실적은 기업가적 활동 및 기업의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실적을 의미한다.

<표 15> 창조경제 교류·협업 공간 운영 지원 실적

(2014년 12월 10일 현재, 단위 : 명, 건, %)

지역	이용 객수	교육 / 강좌		컨설팅 상담 / 멘토링 지원 건수	기관(사업)연계 지원 건수	기업가적 활동 직접 지원 비율
		교육 및 강좌 개최 건수	교육 및 강좌 참여자수			
합계	7,503	65	2,695	498	34	43%
대전	4,324	49	1,641	104	11	41%
대구	3,179	16	1,054	394	23	46%

주) 조사 대상 기간: '14.6.12~'14.12.10

아울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포함한 2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교류·협업 공간을 통해 직접적 수혜를 받은 실적은 3,227명(기업 포함)으로 기업가적 관심 단계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 고객 대비 약 43%의 기업가적 활동 및 성장 지원에 있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나. 현재까지의 성과를 통해 본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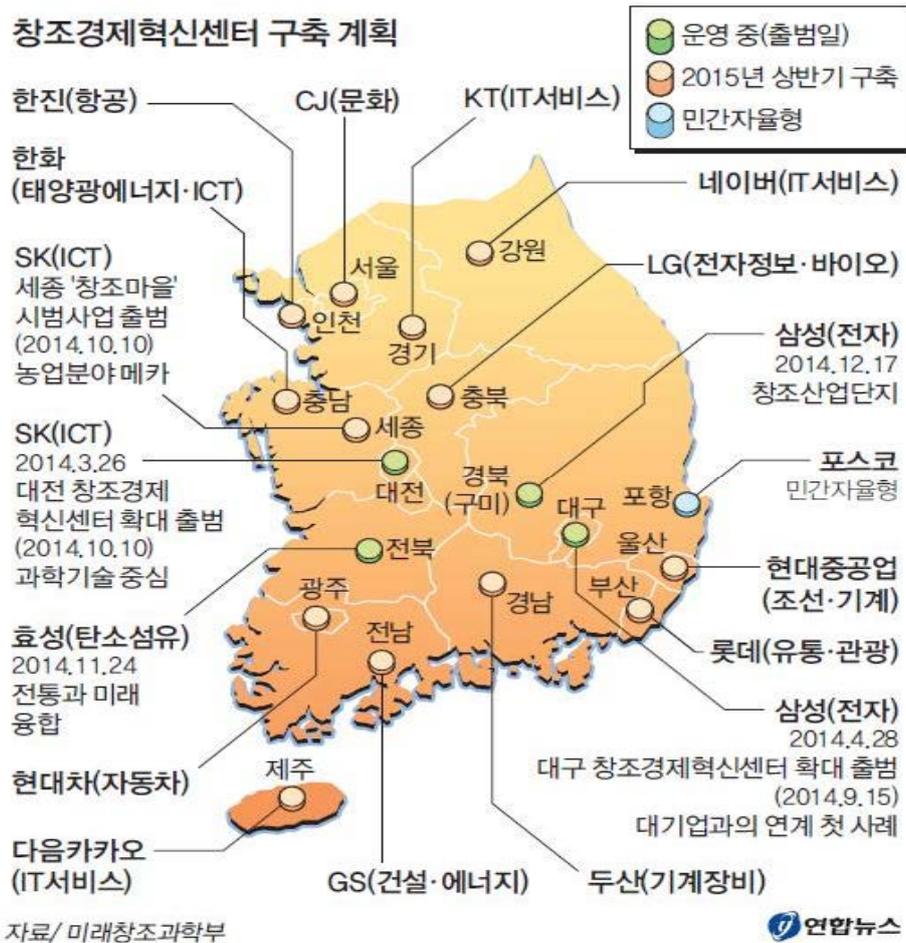
정부가 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이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른다. 기본적으로 지역 창조경제 구

현에는 빈약한 혁신생태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가 창출 및 유지하려는 정책의 방향이나 지역의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분위기, 커뮤니티 형성에는 특히 오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빈약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15년 상반기까지 기타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데 우선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 구현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몇 가지가 있어 보인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2014.3.7.)'을 살펴보면, 지역창조경제협의체 운영, 혁신 거점 및 창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센터 직원과 참여 대기업의 지원 인력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교류·협업 공간의 성공적 정착에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년 2월 현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허브 기능 수행의 핵심적 교류·협업 공간이 구축된 대전, 대구, 전북, 경북, 광주, 충북 센터를 비롯해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적 이벤트를 확대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의적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자유롭게 교류·소통·협업할 수 있는 지원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대학생의 경우 지역의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여 창업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기업가적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학습을 하고 스타트업 결성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성공 사례의 창출 경험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류·협업 공간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뉴욕의 실리콘앨리,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독일 베를린 등 세계적 창업도시에서 형성되고 있는 교류·협업공간의 사례와 같이 기업가적 의도, 기업가적 행동, 기업가적 과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기업가적 의도를 높이고, 기업가적 행동과 기업가적 과정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지역의 기업가를 배출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지역창조경제 구현의 방향 및 과제

1. 지역 창조경제 구현의 방향

미래부는 지역 창조경제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연계해 1: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된 대기업은 아래 [그림 16]과 같으며 각 지역은 대기업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참여를 통해 상호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기반한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6]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계획

자료: 대전일보, 2015년 1월 16일자

현재까지 구체화된 각 혁신센터별로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삼성은 대구에서 아이디어 사업화, 초기단계의 비즈니스 모델과 디자인 등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숙성시키게 되며, 경북(구미) 혁신 센터등과 연계하여 후속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 구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출·내수 주력 업종(섬유·전자·금형 등)의 보유역량을 토대로 신기술·신기능을 가미한 창업과 보다 숙성된 단계의 사업화 추진에 주력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신수종(新樹種)·신협력기업군(新協力企業群)으로 전환하여 노후화된 구미 산업단지 등을 제조업 혁신을 통한 창조산업단지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인데,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등의 기존 보유역량에 신기술·신기능을 가미한 신사업 개발과 스마트 공장 확산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코의 자율적인 참여로 2014년 12월 17일 출범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철 관련 신소재 분야의 지원을 통해 포항을 산업단지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활용한 신산업 에너지 활용 분야에 특화된 동부권의 창업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 제조업과 친환경 에코산단의 거점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제조업의 도약과 산업단지의 혁신에 있어서는 포항을 넘어서 경북전체를 아울러 지원할 계획이다.¹⁵⁾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와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R&D의 거점으로 기존 제조 공법을 에너지 절감·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확산 등을 지원한다.

대전의 경우는 정부가 2014년 12월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SK그룹과 제2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 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공공연구성과 기반 혁신기업 육성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연계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보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 수요연계형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에 대한 멘토링·시제품·자금·글로벌 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할 계획이며 SK이노파트너스, 글로벌 협력 파트너 랩라인과 함께 3개월 내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고, 또한 전통 제조업에 무선통신, 바이오, 로봇 등 과학기술과 ICT 등 기술을 접목한 기술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¹⁶⁾

전북지역은 농업과 탄소, 전통문화 부분에서의 풍부한 자산과 연구개발 역량 등 잠재된 발전가능성을 지닌 반면 지역 핵심 역량들이 연계됨으로서 형성되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아직 잘 조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 미래부, 보도자료, 2014.12.18., ‘경북 창조경제 트라이앵글(대구-경북(구미)-포항) 구축, 경북지역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에 박차!

16) 미래부, 산업부, 보도자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형 실리콘벨리를 목표로’, 2014.12.26

2014년 11월 24일 출범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지역이 탄소소재 산업의 원천·응용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산업의 가치 사슬화를 통해 신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탄소소재 산육성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생산량의 35%를 담당하는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역량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 연구소 및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¹⁷⁾

광주지역은 총 2개의 센터가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되는데 제1센터는 광주시 북구 과학기술원에 위치하며 광주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40%, 제조업 고용률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 ‘자동차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제2센터는 일반인의 접근성이 우수한 광주시 도심에 위치해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제시’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1센터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창업 아이디어 개발 → 산업화’ 전 과정을 연계해 지원하고, 수소차 융합스테이션을 구축해 ‘수소경제로의 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2센터는 ‘창조적 전통시장 육성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사업 및 생활창업’을 지원하며 ‘창조문화 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¹⁸⁾

충북지역은 LG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충북지역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키우기 위한 충북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 특징으로는 K-Beauty(화장품 한류), 의료기기 등을 통해 ‘바이오 창업 중심지’육성 및 제로 에너지하우스¹⁹⁾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조속한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허지원창구(IP Support Zone)²⁰⁾의 설치 및 벤처·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투자·융자(1,100억 원)²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7) 중앙일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의미와 전망] 宋 지사, 민선6기 주요 도정 추진 ‘날개’, 2014년 11월 24일자

18) 청와대 블로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 ‘자동차 산업’부터 ‘서민경제’까지 육성 지원, 2015년 1월 27일자

19) 단일 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20) 대기업의 유희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중소·벤처기업에게 매칭하는 창구 LG는 27,396건의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게 공유할 예정

21) 미래성장펀드 3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 + LG 150억 + 충북 50억. 동반성장펀드 400억 원(융자), 창조금융펀드 300억 원(융자) 지원

2.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제

지역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본연의 목표 아래 현재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강화에 방향을 설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방향에 따라 실행에 역점을 두어야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행에 옮기는 이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만의 몫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의 혁신 조직이 함께 협력해서 나눠야 되는 몫이라 할 수 있다. 지역 혁신자원의 연계하는 역할과 그 협의체가 바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 거점이자 창조경제협의회를 지원하는 간사기관이다. '15년도 1월 현재까지 시·도 지자체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 대구, 전북, 경북, 광주 등 개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 지역에서 지역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준비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혁신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창조경제협의회'가 3.10일(월)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출범하였다. 대전창조경제협의회는 지역 내 경제단체, 기업, 대학·연구소, 지자체 등의 지도급 인사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시 부시장과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10일 개최된 제1차 대전창조경제협의회에서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운영계획(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2)

<표 16> 대전창조경제협의회 안건 주요 내용 요약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동안 지역 내 논의를 통해 도출된 5개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및 전문경영인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기업들의 성장지원과 규제완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출연(연), 대학, 기업의 공동 출자 연구소 기업 및 기술연구조합 설립 등이 포함될 것이다.

* 5개 전략산업(①무선통신융합 ②로봇자동화 ③메디바이오 ④금속가공 ⑤ 지식재산서비스)

둘째, 서울의 D.Camp와 같이 (예비)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업할 수 있는 교류공간을 3월에 개소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기업이 정신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각 기관별 창업관련 기능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네트워크(가칭 '대덕커넥트')를 4월내로 구축*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커넥트구성·운영안 수립 및 운영 설명회 개최('14.3월) → 포럼개최('14.4월) → 대덕커넥트 네트워크 발족('14.4월)

셋째,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 기반이 지역으로 확장되도록 지역기반 엔젤투자자, VC 등을 창업 엑셀러레이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중에 대전지역의 엔젤투자자 등을 발굴하여 예비 엑셀러레이터로 육성하고, 하반기에는 기존의 창업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창업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된 (예비) 창업가들과 함께 엑셀러레이팅 실습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엔젤투자자 발굴('14 상반기) → 예비 엑셀러레이터 육성('14 6~7월) → 엑셀러레이터 역량 강화('14. 8월 이후)

22) 정책브리핑, '제1회 대전창조경제협의회 개최', 2014년 03월 10일자

넷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사업화를 최소의 시간·비용으로 윈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반기내로 지역 내의 창의적인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반기 중에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실시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이디어 발굴('14.4~6월) → 사업화 준비('14.7~10월) → 가능성 검증('14.11월) → 투자유치 지원('14.12월)

자료: 정책브리핑, '제1회 대전창조경제협의회 개최', 2014년 03월 10일자

이후 17일 대전에 이어 대구에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가 출범하였고 '대구 창조경제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본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경제단체, 기업, 대학·연구소, 지자체 등의 지도급 인사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구시 부시장과 대구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²³⁾

지역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기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외 기타 지역의 개소와 관련되어 있지만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조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구축에 앞서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한 지역 자원간의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지역 창조경제 구현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파트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자원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매칭된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지역 창조경제가 지역 특화 전략 산업으로 발굴·육성하는데 있어 기존의 지역 발전 계획과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집중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산업부의 지역의 주력산업과 배치되지 않지만 지역이 보유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연계 대기업의 의존성이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반대로 수도권 외 지역은 새로운 지역 산업 육성 계획과 지역 창조경제 계획과의 조화로운 연계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과 선택은 지역 발전정책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3) 정책브리핑, '제1회 대구창조경제협의회 개최', 2014년 03월 17일자

<표 17> 산업부 지역 주력산업 육성 계획과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연계 내용 비교

(2015년 2월 현재 기준)

(산업부) 지역주력산업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대기업의 주력 분야	비고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전	ICT (*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SK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대구	전자 (* 지역전통산업과 IT 융합)	삼성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부산	유통 및 관광	롯데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경남	기계장비	두산
-	인천	항공	한진
-	경기	IT서비스	KT
스마트가전,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광주	자동차 (* 수소차,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현대자동차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전북	탄소섬유 (* 탄소소재 클러스터)	효성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전남	건설·에너지	GS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충북	전자정보·바이오 (* 바이오 창업 생태계)	LG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충남	태양광에너지	한화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경북	전자 (* 스마트팩토리 등 창조산업 단지 조성)	삼성
웰니스식품,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강원	IT서비스	네이버
-	서울	문화	CJ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울산	조선·기계	현대중공업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전기차서비스	제주	IT서비스	다음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세종	ICT	SK

주) (*) : 현재 감소된 지역의 도출된 중점 분야

제4장 지역 혁신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지역별 혁신 역량

1. 지역별 혁신 역량

지역별 혁신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의 창업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의 혁신 및 창업 지원 생태계가 어느 정도를 조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지역의 혁신관련 조직의 보유 현황과 이를 기능별로 확인하고 그러한 지역의 도시 기반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서울

중기청의 '2014 중소기업 현황'²⁴⁾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서울은 740,129개로 22.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8%인 738,818개이며,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84,363개(11.4%) 차지하고 중기업은 26,241개(3.5%)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4.94%인 110,604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5.75%인 6,359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되며 전체기업 수 중 0.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서울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740,129 (100.0)	628,214 (84.9)	712,577 (96.3)	84,363 (11.4)	26,241 (3.5)	110,604 (14.94)	738,818 (99.8)	1,311 (0.2)	6,359 (5.75)	0.86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4) 앞으로 반복해서 중기청은 매년 현황자료를 발간함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 중 서울은 9,631,482명으로 20.0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3,291,42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중 3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1,582,926명으로 16.43%,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1,708,494명으로 17.74%로 나타나고 있다. 구 단위 전체 인구 중, 상대적으로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217,094명으로 송파구가 가장 높으며 관악구 215,611명, 강남구 183,76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구역은 관악구 112,488명, 송파구 103,436명, 강남구 92,17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젊은 층의 인구수와, 주거지, 유동인구 등 창업관련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표 19> 서울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서울특별시	9,631,482 (20.07)	1,582,926 (16.43)	1,708,494 (17.74)	3,291,420 (34.17)	48	39	9
종로구	151,069	26,866 (17.78)	23,398 (15.49)	50,264 (33.27)	3	2	1
중구	117,253	19,587 (16.70)	20,603 (17.57)	40,190 (34.28)	2	1	1
용산구	217,228	35,194 (16.20)	41,546 (19.13)	76,740 (35.33)	1	1	-
성동구	290,277	48,025 (16.54)	54,124 (18.65)	102,149 (35.19)	2	1	1
광진구	358,319	70,147 (19.58)	64,305 (17.95)	134,452 (37.52)	3	3	-
동대문구	339,599	61,406 (18.08)	57,454 (16.92)	118,860 (35.00)	4	3	1
중랑구	400,027	62,547 (15.64)	66,761 (16.69)	129,308 (32.32)	1	0	1
성북구	452,704	74,128 (16.37)	80,536 (17.79)	154,664 (34.16)	6	6	-
강북구	322,587	46,791 (14.50)	55,143 (17.09)	101,934 (31.60)	0	0	-
도봉구	347,220	51,383 (14.80)	53,936 (15.53)	105,319 (30.33)	1	1	-
노원구	584,906	82,739 (14.15)	94,573 (16.17)	177,312 (30.31)	6	5	1
은평구	448,112	62,478 (13.94)	78,648 (17.55)	141,126 (31.49)	1	1	-
서대문구	307,562	54,264 (17.64)	51,098 (16.61)	105,362 (34.26)	6	4	2
마포구	363,343	63,932 (17.60)	73,767 (20.30)	137,699 (37.90)	2	2	-
양천구	466,456	64,290 (13.78)	71,409 (15.31)	135,699 (29.09)	0	0	-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강서구	543,559	84,395 (15.53)	100,486 (18.49)	184,881 (34.01)	1	1	-
구로구	401,239	61,647 (15.36)	78,510 (19.57)	140,157 (34.93)	3	2	1
금천구	230,447	35,719 (15.50)	39,714 (17.23)	75,433 (32.73)	0	0	-
영등포구	374,543	58,061 (15.50)	72,501 (19.36)	130,562 (34.86)	0	0	-
동작구	390,197	75,975 (19.47)	72,555 (18.59)	148,530 (38.07)	3	3	-
관악구	511,185	112,488 (22.01)	103,123 (20.17)	215,611 (42.18)	1	1	-
서초구	388,220	61,702 (15.89)	69,441 (17.89)	131,143 (33.78)	1	1	-
강남구	522,198	92,179 (17.65)	91,584 (17.54)	183,763 (35.19)	0	0	-
송파구	640,732	103,436 (16.14)	113,658 (17.74)	217,094 (33.88)	1	1	-
강동구	462,500	73,547 (15.90)	79,621 (17.22)	153,168 (33.12)	0	0	-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서울에는 총 155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6개가 있는데 서울은 88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서울은 6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서울은 55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 17개 중 서울은 6개가 존재한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은 347개가 존재하며, 이 중 서울지역은 25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20> 서울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서울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8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3
	창업대학원(중기청)	10	2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1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8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1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6
	산학협력단	340	59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5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총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1	

구분		기관	전국 계	서울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37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13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5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6
소계			979	155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4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7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1
		연구개발지원단	1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9
		지자체연구소	19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1
소계			347	25
총계			1326	180

‘14년도 현재 서울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으로는 총 25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서울중소기업청, 서울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은 정부 출연(연)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등이 있다.

<표 21> 서울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서울 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경기(과천)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본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양천구
		서울(서부)		
		서울 동남부		서초구
		서울 북부		영등포구
	통상진흥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마포구
	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노원구
	지역특화센터	상명대학교		종로구
(사)한국주얼리 산업연합회		종로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동국대학교 ㈜SPMC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구		
		건국대학교		광진구		
		㈜다리컨설팅				
		이화여대		서대문구		
	지역혁신센터	송실대	분자설계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동작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북구	
			녹색기술센터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중구
			기초연	서울센터	파트너기업 선정, 멘토링 제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기술상담, 장비교육	성북구
				서울서부센터		서대문구
과기정보			서울분원		동대문구	
생기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동대문구	
생기원			산업환경지원본부		강남구	
국보연			정보보안 기술지원센터	기술개발 및 지원	강남구	
전기연			RSS (Russia Science Seoul)센터	연구개발		
지자체연구소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지역특화산업육성, 구축장비 이용, 공동연구개발	구로구		

2) 경기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경기는 705,564개로 2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705,118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85,771개(12.20%) 차지하고 중기업은 21,717개(3.1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5.23%인 107,488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8.15%인 8,762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1.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경기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소계 (A+B)	대기업 (C)	고용창출 중소기업 (A'+B)	벤처 기업 (*주3)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A')						
705,564 (100.0)	597,630 (84.7)	683,401 (96.9)	85,771 (12.20)	21,717 (3.10)	705,118 (99.90)	446 (0.10)	107,488 (15.23)	8,762 (8.15)	1.24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 중 경기는 11,196,053명으로 23.3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전체 인구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3,505,394명으로 31.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1,506,682명으로 13.46%가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1,998,712명으로 17.85%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355,515명으로 수원시가 가장 높으며 성남시 306,056명, 부천시 274,361명, 용인시 266,24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수원시 165,048명, 성남시 138,393명, 부천시 129,54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경기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경기도	11,196,053	1,506,682 (13.46)	1,998,712 (17.85)	3,505,394 (31.31)	71	39	32
수원시	1,054,053	165,048 (15.66)	190,467 (18.07)	355,515 (33.73)	5	3	2
성남시	936,267	138,393 (14.78)	167,663 (17.91)	306,056 (32.69)	4	2	2
의정부시	415,170	52,326 (12.60)	69,938 (16.85)	122,264 (29.45)	3	1	2
안양시	596,772	86,366 (14.47)	99,366 (16.65)	185,732 (31.12)	4	2	2
부천시	842,482	129,549 (15.38)	144,812 (17.19)	274,361 (32.57)	3	1	2
광명시	326,418	45,952 (14.08)	62,179 (19.05)	108,131 (33.13)			
평택시	381,731	48,197 (12.63)	66,655 (17.46)	114,852 (30.09)	3	1	2
동두천시	90,433	10,280 (11.37)	14,642 (16.19)	24,922 (27.56)			
안산시	699,063	101,414 (14.51)	124,063 (17.75)	225,477 (32.25)	4	1	3
고양시	897,222	109,287 (12.18)	149,529 (16.67)	258,816 (28.85)	4	3	1
과천시	66,319	8,152 (12.29)	9,604 (14.48)	17,756 (26.77)			
구리시	184,503	24,302 (13.17)	32,544 (17.64)	56,846 (30.81)			
남양주시	526,639	57,951 (11.00)	98,046 (18.62)	155,997 (29.62)			
오산시	180,996	28,879 (15.96)	40,658 (22.46)	69,537 (38.42)	2	1	1
시흥시	393,293	53,147 (13.51)	76,757 (19.52)	129,904 (33.03)	2	1	1
군포시	274,198	38,442 (14.02)	50,467 (18.41)	88,909 (32.43)	1	1	
의왕시	143,378	19,631 (13.69)	23,890 (16.66)	43,521 (30.35)	2	1	1
하남시	137,569	18,848 (13.70)	23,294 (16.93)	42,142 (30.63)			
용인시	847,138	102,362 (12.08)	163,886 (19.35)	266,248 (31.43)	11	10	1
파주시	323,955	42,853 (13.23)	57,240 (17.67)	100,093 (30.90)	1		1
이천시	192,918	27,536 (14.27)	32,920 (17.06)	60,456 (31.34)	2		2
안성시	175,824	25,977 (14.77)	29,638 (16.86)	55,615 (31.63)	4	2	2
김포시	217,280	23,929 (11.01)	35,999 (16.57)	59,928 (27.58)	2	1	1
화성시	474,160	57,867 (12.20)	107,163 (22.60)	165,030 (34.80)	6	4	2
광주시	224,269	26,885 (11.99)	40,771 (18.18)	67,656 (30.17)	2	1	1
양주시	183,673	20,364 (11.09)	32,701 (17.80)	53,065 (28.89)	1		1
포천시	136,580	16,040 (11.74)	19,260 (14.10)	35,300 (25.85)	3	2	1
여주군	100,052	10,503 (10.50)	14,348 (14.34)	24,851 (24.84)	1		1
연천군	41,295	4,459 (10.80)	4,887 (11.83)	9,346 (22.63)			
가평군	50,272	4,560 (9.07)	5,960 (11.86)	10,520 (20.93)			
양평군	82,131	7,183 (8.75)	9,365 (11.40)	16,548 (20.15)	1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있으며, 이 중 경기지역은 총 160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6개가 있는데 이 중 경기지역은 91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경기지역은 4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경기지역은 63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 17개가 있으며 이 중 경기는 2개가 존재한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은 347개가 있으며, 이 중 경기지역은 35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24> 경기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경기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10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2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1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3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5	1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14	
	산학협력단	340	59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3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1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52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9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2
	창업지원 조직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진흥원(중기청)	1	
소계			979	160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4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1
		통상진흥원	10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1
		테크노파크(산업부)	18	2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4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9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10
		지자체 연구소	19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1	
소계			347	35
총계			1326	195

‘14년도 현재 경기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으로는 총 35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반월 시화 기업주치의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이 있으며, 지자체 연구소인 경기의약연구센터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존재하고 있다.

<표 25> 경기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수원	
		경기(동부)		분당	
		경기(서부)		시흥	
		경기(북부)		고양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	
	기업지원플러스 (중기청)	반월 시화 기업주치의센터	지역 산업단지 내에 상주하며 회원기업들을 전담 관리하는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	안산	
	테크노파크 (산업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포천	
		경기테크노파크		안산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 중소제조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통합 지원 사업	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반월, 시화 그린 IT 부품산업(PCB)활성화 사업	안산	
		차의과학대학교 (주)차알아이에스	경기 줄기세포관련산업 기술혁신체계 구축사업	포천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부천 ECO-Design 융합 LED 조명산업 역량강화	부천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경기대	산업기술보호특화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수원
			경희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
		피부생명공학 지역혁신센터			용인
		경원대 (가천대)	나노입자 지역혁신센터		성남
		을지대	바이오-메디테크산업화지역 혁신센터		성남
			수원대		환경청정기술 지역혁신센터
		전자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			수원
명지대		천연신기능성소재 지역혁신센터	용인		
성균관대	정보통신용 신기능성 소재 및 공정 지역혁신센터	수원			
연구개발지원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		수원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공공연구 기관	정부 출연(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개발 및 지원	고양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과기정보		경인지원	수원
		생기원		금형기술센터	부천
		생기원		경기지역본부	안산
		ETRI		서울SW-SoC 융합R&BD센터	판교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센터	화성
		전기연		안산분원	안산
		전기연		의왕분원	의왕
	지자체연구소	(재)경기의약연구센터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구축장비이용,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등 중소 기업 지원	수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성남	

3) 대전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대전은 97,149개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97,078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9,422개(9.7%)차지하고 중기업은 2,692개(2.8%)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2.47%인 12,114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8.39%인 1,016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1.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 대전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97,149 (100.0)	84,964 (87.5)	94,386 (97.2)	9,422 (9.70)	2,692 (2.80)	97,078 (99.90)	71 (0.10)	12,114 (12.47)	1,016 (8.39)	1.05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 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 중 대전은 1,490,158명으로 3.1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 전체 인구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

은 474,413명으로 31.8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230,068명으로 1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244,345명으로 16.40%를 차지하고 있다. 구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58,238명으로 서구가 가장 높으며, 유성구 101,989명, 동구 78,982명, 중구 73,993명, 대덕구 61,21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서구가 77,984명, 유성구 48,416명, 동구 40,61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7> 대전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대전광역시	1,490,158	230,068 (15.44)	244,345 (16.40)	474,413 (31.84)	14	10	4
동구	244,344	40,613 (16.62)	38,369 (15.70)	78,982 (32.32)	4	2	2
중구	254,577	34,066 (13.38)	39,927 (15.68)	73,993 (29.07)	1	1	
서구	498,524	77,984 (15.64)	80,254 (16.10)	158,238 (31.74)	3	2	1
유성구	289,303	48,416 (16.74)	53,573 (18.52)	101,989 (35.25)	4	3	1
대덕구	203,410	28,989 (14.25)	32,222 (15.84)	61,211 (30.09)	2	2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대전지역에는 총 45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6개가 있는데 이 중 대전지역은 24개가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대전지역은 3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소가 있는데 이 중 대전지역은 17개가 있고, 창업지원조직은 전국 17개소가 있는데 이 중 대전지역은 1개가 존재한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은 347개가 존재하며, 이 중 대전지역은 29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28> 대전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대전	
창업 관련 기관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1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2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4	
	산학협력단	340	14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2
		창업공작소(미래부)	1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1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1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소계		979	45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1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2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6
		연구개발지원단	1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연구개발특구	4	1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16
		지자체연구소	19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소계		347	29	
총계		1326	74	

'14년도 현재 대전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으로는 총 29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진과 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같은 정부 출연(연)이 존재하며, 대부분 유성구에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연구소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9> 대전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유성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서구	
	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유성구	
	테크노파크 (산업부)	대전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유성구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배재대학교		대전 IT융합 인쇄문화산업 육성사업	서구
		한남대학교		대전지역 웰빙 페브릭산업 육성사업	대덕구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한밭대	화학소재 상용화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유성구
			환경개선형 신소재개발 지역혁신센터		유성구
		목원대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서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의약 지역혁신센터		유성구
		한남대	민군겸용 보안공학 지역혁신센터		대덕구
		대전대	난치성 면역질환 동서생명의학 지역혁신센터		동구
	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지자체연구소	-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		

4) 대구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대구는 182,872개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100.0%인 182,782개이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15,466개(8.4%)를 차지하고 중기업은 4,063개(2.2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0.68%인 19,529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7.78%인 1,520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8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0> 대구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 창출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82,872 (100.0)	163,253 (89.3)	178,719 (97.7)	15,466 (8.40)	4,063 (2.20)	182,782 (100.00)	90 (0.00)	19,529 (10.68)	1,520 (7.78)	0.83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대구지역은 2,431,774명으로 5.07%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 전체 인구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707,801명으로 29.1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331,906명으로 1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375,895명으로 15.46%를 차지하고 있다. 구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79,350명으로 달서구가 가장 높으며, 북구 138,024명, 수성구 113,07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달서구가 85,848명, 북구 62,402명, 수성구가 52,94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 대구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대구광역시	2,431,774	331,906 (13.65)	375,895 (15.46)	707,801 (29.11)	10	3	7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중구	72,399	11,734 (16.21)	11,118 (15.36)	22,852 (31.56)			
동구	319,022	42,262 (13.25)	50,543 (15.84)	92,805 (29.09)			
서구	210,409	30,806 (14.64)	29,597 (14.07)	60,403 (28.71)			
남구	167,873	27,339 (16.29)	25,337 (15.09)	52,676 (31.38)	2	1	1
북구	450,218	62,402 (13.86)	75,622 (16.80)	138,024 (30.66)	4	1	3
수성구	444,119	52,940 (11.92)	60,134 (13.54)	113,074 (25.46)	1		1
달서구	600,509	85,848 (14.30)	93,502 (15.57)	179,350 (29.87)	3	1	2
달성군	167,225	18,575 (11.11)	30,042 (17.97)	48,617 (29.07)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있으며, 이 중 대구 지역에는 총 44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대구지역은 25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대구지역은 3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대구지역은 16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으나 대구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은 347개가 존재하며, 이 중 대구지역은 21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32> 대구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대구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3
		창업대학원(중기청)	10	1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1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5	1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IP 창조 Zone(특허청)	4	1
		산학협력선도대학	86	5
	산학협력단	340	11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2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1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구분		기관	전국 계	대구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282	10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3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3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소계			979	44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1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4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4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1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5
		지자체연구소	19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2
	소계			347
총계			1326	65

‘14년도 현재 대구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21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대구연구개발특구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연)으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한국섬유개발원, 다이텍연구원 등이 있다. 지자체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이 대부분 달서구, 중구, 북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 대구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달서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북구
	테크노파크 (산업부)	대구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동구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재)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모바일 기기 감성융합 디자인소재산업 육성	동구
		(사)디자인 정책연구원	대구 주얼리 산업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	북구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공동브랜드 '블릭'자립형	북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블릭		브랜드 스타기업 육성사업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금형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달서구
	계명대	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차부품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달서구
		저공해자동차 부품기술개발 지역혁신센터			
		전통미생물 자원개발 및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영진전문대	High-speed초정밀금형지역혁신센터			북구
	연구개발지원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동구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재)대구테크노파크			동구
연구개발특구	대구연구개발특구			달서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기초연	대구센터	기술개발 및 지원	북구
		과기정보	대구경북지원		북구
		생기원	대경권지역본부		달서군
		ETRI	대경권연구센터		달서군
		기계연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달서군
	지자체연구소	-	-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기술지원	서구
다이텍연구원		기술지원	서구		

5) 인천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인천은 166,490개로 4.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166,388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16,598개(10.0%)차지하고 중기업은 4,554개(2.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2.70%인 21,152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6.16%인 1,304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 인천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66,490 (100.0)	145,236 (87.2)	161,834 (97.2)	16,598 (10.0)	4,554 (2.70)	166,388 (99.90)	102 (0.10)	21,152 (12.70)	1,304 (6.16)	0.78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 중 인천지역의 인구는 2,632,035명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 전체 인구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813,941명으로 30.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373,704명으로 1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440,237명으로 16.73%로 나타나고 있다. 구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70,749명으로 부평구가 가장 높으며, 남동구 144,149명, 남구 134,98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 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부평구가 79,368명, 남구 66,104명, 남동구가 64,94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천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남구, 연수구, 계양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인천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인천광역시	2,632,035	373,704 (14.20)	440,237 (16.73)	813,941 (30.92)	7	4	3
중구	81,846	10,805 (13.20)	14,376 (17.56)	25,181 (30.77)			
동구	72,794	9,427 (12.95)	12,519 (17.20)	21,946 (30.15)	1		1
남구	411,756	66,104 (16.05)	68,878 (16.73)	134,982 (32.78)	2	1	1
서구	389,057	48,864 (12.56)	41,914 (17.66)	117,567 (30.22)			
연수구	274,352	39,907 (14.55)	79,205 (15.28)	81,821 (29.82)	2	2	
남동구	453,903	64,944 (14.31)	91,381 (17.45)	144,149 (31.76)			
부평구	542,433	79,368 (14.63)	56,071 (16.85)	170,749 (31.48)			
계양구	334,970	48,675 (14.53)	68,703 (16.74)	104,746 (31.27)	2	1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있으며, 이 중 인천 지역에는 총 29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인천지역은 13개가 있으며, 시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인천지역은 4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인천 지역은 11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인천지역에는 1개(제물포스마트타운 JST)가 있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은 347개가 존재하며, 이 중 인천은 15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36> 인천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인천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3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1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1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0	
		산학협력단	340	7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3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중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1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6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3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2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29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2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1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7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1	
		지자체연구소	19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소계			347	15	
총계			1326	44	

‘14년도 현재 인천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으로는 총 15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인 한국생산기술연구소가 있으며, 지자체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이 상대적으로 연수구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인천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남동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동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연수구	
		인천(서부)			서구	
	통상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남동구	
	테크노파크 (산업부)	인천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연수구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인천대학교		해조류를 이용한 블루 신산업 산업화	연수구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인하대	열플라즈마 환경기술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남구
			소재경량화 지역혁신센터			
			서해연안환경 지역혁신센터			
			자동차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			
인천대		멀티미디어 지역혁신센터		연수구		
		동북아 전자물류 지역혁신센터				
		기계전자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지원단	인천테크노파크 전략기획실			연수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생기원	인천지역본부			
	지자체연구소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6) 광주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광주는 98,220개로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98,162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9,862개(10.0%)차지하고 중기업은 2,568개(2.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2.66%인 12,430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5.30%인 659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 광주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98,220 (100.0)	85,732 (87.3)	95,594 (97.3)	9,862 (10.00)	2,568 (2.60)	98,162 (99.90)	58 (0.10)	12,430 (12.66)	659 (5.30)	0.67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 중 광주지역의 인구는 1,466,143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전체 인구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457,972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 중 31.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217,114명으로 14.81%를 차지하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240,858명으로 16.43%로 나타나고 있다. 구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50,310명으로 북구가 가장 높으며, 광산구 117,839명, 서구 94,74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북구가 75,281명, 광산구 45,491명, 서구가 44,52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광주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북구에 6개, 남구, 광산구에 각각 4개씩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광주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광주광역시	1,466,143	217,114 (14.81)	240,858 (16.43)	457,972 (31.24)	17	11	6
동구	103,998	20,007 (19.24)	13,599 (13.08)	33,606 (32.31)	3	1	2
서구	304,469	44,524 (14.62)	50,218 (16.49)	94,742 (31.12)			
남구	214,612	31,811 (14.82)	29,664 (13.82)	61,475 (28.64)	4	3	1
북구	477,593	75,281 (15.76)	75,029 (15.71)	150,310 (31.47)	6	4	2
광산구	365,471	45,491 (12.45)	72,348 (19.80)	117,839 (32.24)	4	3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광주지역에는 총 51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광주지역은 25개가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광주지역은 5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광주지역은 20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광주 지역은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은 347개가 존재하며, 이 중 광주지역은 24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40> 광주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광주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1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1	
		산학협력선도대학	86	5	
		산학협력단	340	15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4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1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3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2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51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1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1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5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5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1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5	
		지자체연구소	19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1	
	소계	247	24		
총계			1326	75	

‘14년도 현재 광주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으로는 총 24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기업주치의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연구개발특구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연)으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국광기술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기관이 상대적으로 광산구와 북구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광주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서구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광산구	
	통상진흥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광산구	
	기업지원플러스 (중기청)	광주 기업주치의센터	지역 산업단지 내에 상주하며 회원기업들을 전담 관리하는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	북구	
	테크노파크 (산업부)	광주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북구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주)하우스앤	광주 하우징 2.5산업 활성화 사업		
		광주여자대학교	우리밀빵 명품 브랜드화 사업		광산구
		조선대학교	의료용 임플란트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구
		광주대학교	친환경 기능성 힐링가든사업		남구
	지역혁신센터(산업부)	조선대	치과용 정밀장비 부품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동구
			부품산업테크노센터		
		호남대	가상현실응용 지역혁신센터		광산구
		전남대	광소재부품 지역혁신센터		북구
	연구개발지원단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북구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북구	
연구개발특구	광주연구개발특구			북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기초연	광주센터	북구	
		과기정보	호남지원	광산구	
		생기원	호남권지역본부	북구	
		ETRI	호남권연구센터	북구	
		세계김치연구소		남구	
	지자체연구소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북구

7) 울산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울산은 70,234개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70,165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6,630개(9.5%) 차지하고 중기업은 2,119개(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2.46%인 8,749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4.31%인 377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 울산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비 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70,234 (100.0)	61,416 (87.4)	68,046 (96.9)	6,630 (9.5)	2,119 (3.0)	8,749 (12.46)	70,165 (99.9)	69 (0.1)	377 (4.31)	0.54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 중 울산지역의 인구는 1,071,673명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315,788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 중 29.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135,320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 중 1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180,468명으로 16.84%로 나타나고 있다. 구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98,955명으로 남구가 가장 높으며, 중구 62,035명, 동구 52,17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남구가 45,291명, 중구 28,375명, 동구가 24,36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울산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울주군에 2개, 남구, 동구에 각각 1개씩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북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43> 울산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울산광역시	1,071,673	135,320 (12.63)	180,468 (16.84)	315,788 (29.47)	4	2	2
중구	221,373	28,375 (12.82)	33,660 (15.21)	62,035 (28.02)	0	0	-
남구	332,617	45,291 (13.62)	53,664 (16.13)	98,955 (29.75)	1	1	-
동구	164,051	24,366 (14.85)	27,808 (16.95)	52,174 (31.80)	1	0	1
북구	167,821	18,211 (10.85)	32,400 (19.31)	50,611 (30.16)	0	0	-
울주군	185,811	19,077 (10.26)	32,936 (17.72)	52,013 (27.98)	2	1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로 존재하며, 이 중 울산지역에는 총 10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울산지역은 6개가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울산지역은 3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이 중 울산지역은 1개가 존재한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은 347개가 존재하며, 이 중 울산지역은 10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44> 울산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울산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1	
	산학협력단	340	5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구분		기관	전국 계	울산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282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2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창업지원 조직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10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1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2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2
		연구개발지원단	1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2
		지자체연구소	19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소계			347	10
총계			1326	20

‘14년도 현재 울산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으로는 총 10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울산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 정부출연(연)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있으며, 울산지역에 지자체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기관이 상대적으로 중구와 남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울산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재)울산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중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남구	
	통상진흥원	울산경제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북구	
	테크노파크 (산업부)	울산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중구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울산TP 정밀화학센터	연구 개발 지원		중구
		울산TP ㈜유리스인터내셔널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울산대	네트워크기반 자동차 지역혁신센터 기계부품 및 소재 특성평가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남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생기연	친환경정정기술센터	실용화기술 개발 지원	
		화학연			그린정밀화학연구소
	지자체연구소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8) 부산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부산은 254,696개로 7.5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254,519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23,741개(9.3%) 차지하고 중기업은 6,962개(2.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2.05%인 30,703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7.09%인 2,176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6> 부산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254,696 (100.0)	223,816 (87.9)	247,557 (97.2)	23,741 (9.30)	6,962 (2.70)	254,519 (99.90)	177 (0.10)	30,703 (12.05)	2,176 (7.09)	0.85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 중 부산지역의 인구는 3,393,191명으로 7.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971,767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 중 2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474,971명으로 14.00%,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496,796명으로 14.64%로 나타나고 있다. 구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17,521명으로 부산진구가 가장 높으며, 해안대구 111,725명, 사하구 99,00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부산진구가 58,873명, 해운대구 48,975명, 사하구가 47,78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남구와 금정구에 각각 4개씩, 부산진구와 사상구에 각각 3개씩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부산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부산광역시	3,393,191	474,971 (14.00)	496,796 (14.64)	971,767 (28.64)	23	14	9
중구	47,260	6,175 (13.07)	6,855 (14.50)	13,030 (27.57)			
서구	116,214	15,715 (13.52)	14,779 (12.72)	30,494 (26.24)	1	1	
동구	93,256	12,137 (13.01)	12,803 (13.73)	24,940 (26.74)			
영도구	138,808	20,215 (14.56)	18,098 (13.04)	38,313 (27.60)	2	2	
부산진구	378,965	58,873 (15.54)	58,648 (15.48)	117,521 (31.01)	3	1	2
동래구	265,596	35,894 (13.51)	37,713 (14.20)	73,607 (27.71)			
남구	291,406	44,140 (15.15)	43,624 (14.97)	87,764 (30.12)	4	3	1
북구	301,296	41,276 (13.70)	42,450 (14.09)	83,726 (27.79)	1		1
해운대구	407,851	48,975 (12.01)	62,750 (15.39)	111,725 (27.39)	2	1	1
사하구	340,844	47,789 (14.02)	51,213 (15.03)	99,002 (29.05)	1		1
금정구	245,725	37,654 (15.32)	31,858 (12.96)	69,512 (28.29)	4	3	1
강서구	52,207	7,304 (13.99)	7,704 (14.76)	15,008 (28.75)			
연제구	202,523	27,624 (13.64)	30,298 (14.96)	57,922 (28.60)	2	1	1
수영구	169,081	22,962 (13.58)	25,326 (14.98)	48,288 (28.56)			
사상구	249,053	38,412 (15.42)	36,518 (14.66)	74,930 (30.09)	3	2	1
기장군	93,106	9,826 (10.55)	16,159 (17.36)	25,985 (27.9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부산에는 총 68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부산지역은 36개가 있으며 시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부산지역은 4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부산 지역은 27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이 중 부산은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이 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347개가 존재하며, 이 중 부산지역은 21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48> 부산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구분		기관	전국 계	부산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1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2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1
		IP 창조 Zone(특허청)	4	1
		산학협력선도대학	86	7
		산학협력단	340	21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3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1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9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5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3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2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6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1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3
		지자체연구소	19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3
	소계			347
총계			1326	89

'14년도 현재 부산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21개가 존재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부산연구개발특구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연)으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로는 부산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중소기업진흥연구원이 있다. 또한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이 강서구에 6개 기관,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에 각각 3개의 기관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부산지역의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 소 기 업 지 원	지방 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강서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서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사상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연제구	
	테크노파크 (산업부)	부산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강서구	
	지역혁신센터(산업부)	동의대	블루바이오 소재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부산진구
			전자세라믹 지역혁신센터		부산진구
		동아대	고기능성 벨브기술지원 지역혁신센터		사하구
			신소형재 가공정정 공정개발 지역혁신센터		사하구
	동서대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지역혁신센터	사상구		
		첨단 아케이드 게임 지역혁신센터	사상구		
연구개발지원단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팀		강서구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재)부산테크노파크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부산연구개발특구		사하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기초연	부산센터	강서구	
		과기정보	부산울산경남지원	해운대구	
		생기원	친환경부품소재센터	강서구	
	지자체연구소	부산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구축장비용,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등 중소 기업 지원	강서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강서구	
		한국신발피혁연구원		부산진구	
중소조선연구원		강서구			

9) 세종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세종은 5,970개로 0.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8%인 5,960개이며, 대기업은 0.2%에 불과한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575개(9.7%)차지하고 중기업은 741개(2.8%)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2.41%인 741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7.96%인 59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되며 전체기업 수 중 0.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50> 세종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5,970 (100.0)	5,219 (87.4)	5,794 (97.1)	575 (9.7)	166 (2.8)	741 (12.41)	5,960 (99.8)	10 (0.2)	59 (7.96)	0.99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세종지역의 인구는 130,708명으로 0.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31,616명으로 세종 전체 인구 중 24.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14,685명으로 1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16,931명으로 12.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 세종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세종시	130,708	14,685 (11.23)	16,931 (12.95)	31,616 (24.19)	3	2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로 존재하며, 이 중 세종지역에는 총 4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세종지역은 1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세종지역은 1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세종지역은 2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으나 세종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세종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세종	
창업 관련 기관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1	
	산학협력단	340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1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1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소계		979	4	

10) 충남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충남은 128,041개로 3.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127,949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한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11,738개(9.2%)차지하고 중기업은 3,044개(2.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1.54%인 14,782개로 추정 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6.37%인 941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53> 충남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28,041 (100.0)	113,167 (88.4)	124,905 (97.6)	11,738 (9.2)	3,044 (2.4)	14,782 (11.54)	127,949 (99.9)	92 (0.1)	941 (6.37)	0.73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충남지역의 인구는 2,000,473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559,597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 중 27.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263,053명으로 1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296,544명으로 14.82%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95,359명으로 천안시가 가장 높으며, 아산시가 99,976명, 서산시가 41,17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천안시가 94,288명, 아산시가 49,330명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시에 7개, 아산시에 4개가 위치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충남지역의 청년 인구 및 보유 대학 현황

(2010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충청남도	2,000,473	263,053 (13.15)	296,544 (14.82)	559,597 (27.97)	20	13	7
천안시	565,201	94,288 (16.68)	101,071 (17.88)	195,359 (34.56)	7	5	2
공주시	120,660	16,142 (13.38)	13,009 (10.78)	29,151 (24.16)	2	1	1
보령시	97,091	8,161 (8.41)	12,562 (12.94)	20,723 (21.34)	1	0	1
아산시	272,282	49,330 (18.12)	50,646 (18.60)	99,976 (36.72)	4	4	-
서산시	155,082	16,438 (10.60)	24,732 (15.95)	41,170 (26.55)	1	1	-
논산시	117,686	12,129 (10.31)	13,338 (11.33)	25,467 (21.64)	2	2	-
계룡시	41,395	3,799 (9.18)	7,284 (17.60)	11,083 (26.77)	-	0	-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충남지역에는 총 68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충남지역은 40개가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충남지역은 3개

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충남은 24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충남지역은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이 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있으며, 충남지역은 20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55> 충남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충남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5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1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2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8	
		산학협력단	340	23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3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2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3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68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1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5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9	
연구개발지원단			1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1	
		지자체연구소	19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1	
소계			347	20	
총계			1326	88	

'14년도 현재 충남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20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충남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경제통상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자체연구소로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있다.

또한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기관이 상대적으로 천안시(6개), 아산시(4개)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충남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천안시	
	통상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아산시	
	테크노파크 (산업부)	충남테크노파크	산학연 커뮤니티, 교육&세미나	천안시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충남도립청양대학			청양군
		선문대학교			아산시
		공주대학교 (주)FnFNetworks			공주시
		중부대학교			금산군
		청운대학교			홍성군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순천향대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아산시
			자원재활용소재 지역혁신센터		공주시
		공주대	자동차 의장 및 편의부품 지역혁신센터		공주시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 지역혁신센터		아산시
		호서대	의학레이저의료기기 지역혁신센터		천안시
			전자부품 검사자동화 지역혁신센터		천안시
		단국대	충남지역 신가공기술 혁신센터		천안시
			기전융합형 부품소재 TroubleShooting 지역혁신센터		천안시
충남테크노파크		원격계측 지역혁신센터	논산시		
공공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시	
	지자체연구소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지역특화산업육성, 구축장비 이용, 공동연구개발	금산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천안시	

11) 중복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중복은 102,653개로 3.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102,593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한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9,061개(8.8%)차지하고 중기업은 2,508개(2.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1.27%인 11,569개로 추정 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6.09%인 705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57> 중복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02,653 (100.0)	91,024 (88.7)	100,085 (97.5)	9,061 (8.8)	2,508 (2.4)	11,569 (11.27)	102,593 (99.9)	60 (0.1)	705 (6.09)	0.69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중복지역의 인구는 1,495,984명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415,061명으로 중복 전체 인구 중 27.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196,111명으로 1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218,950명으로 14.64%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212,724명으로 청주시가 가장 높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2%로 104,7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청주시에 5개의 대학이 위치해 다른 중복 소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충북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충청북도	1,495,984 (3.12)	196,111 (13.11)	218,950 (14.64)	415,061 (27.75)	16	11	5
청주시	662,102	104,719 (15.82)	108,005 (16.31)	212,724 (32.13)	5	5	-
충주시	201,361	24,850 (12.34)	26,982 (13.40)	51,832 (25.74)	2	2	-
제천시	133,626	15,461 (11.57)	16,538 (12.38)	31,999 (23.95)	2	1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충북지역에는 총 41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충북지역은 23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충북지역은 2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충북지역은 15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이 중 충북지역은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이 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등 혁신 관련 기관이 있으며, 이 중 충북지역은 21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59> 충북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충북	
창업 관련 기관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1	
	창업발전소(문체부, 권)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3	
	산학협력단	340	16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2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2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41	

구분	기관	전국 계	충북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2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1
		통상진흥원	10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4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8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2
		지자체연구소	19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소계		347	21	
총계		1326	62	

‘14년도 현재 충북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21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충북중소기업청, 충북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센터, 지역 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연)으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기관이 청주시(10개)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충북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남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청주시	
		충북북부		충주시	
	지방 중소기업청	충북 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청주시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 기술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 교육지원	청주시	
	중소기업지원통센터 (미래부, 출연연)	출연(연)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기술애로 접수 및 해결방안 제시	청원군	
	테크노파크 (산업부)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장비활용지원, 인력양성	청주시	
	연구개발지원단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센터	창업환경지원, 네트워킹, 협업 기반조성	청주시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기업역량 강화, 콘텐츠산업 육성	청주시	
	지역특화센터(산업부)	청주대학교			청주시
		충북도립대학			옥천군
충주대학교		충주시			
충청대학 (췁보은물산)		청주시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지역혁신센터(산업부)		건국대	바이오 식의약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충주시
		영동대	생물(의약-식품)지역혁신센터		영동군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 지역혁신센터		청주시
			생물건강 산업개발 지역혁신센터		청주시
		청주대	정보통신 지역혁신센터		충주시
		한국교통대	친환경에너지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		충주시
		서원대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식품 지역혁신센터		청주시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 지역혁신센터		제천시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생명(연)	오창분원		청주시
		기초(연)	오창분원		청주시
	지자체연구소	-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

12) 강원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강원은 113,238개로 3.3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113,199개로 대부분의 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8,257개(7.3%) 차지하고 중기업은 2,069개(1.8%)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9.12%인 10,326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4.71%인 486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61> 강원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13,238 (100.0)	102,873 (90.8)	111,130 (98.1)	8,257 (7.3)	2,069 (1.8)	10,326 (9.12)	113,199 (100.0)	39 (0.0)	486 (4.71)	0.43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 중 강원지역의 인구는 1,463,650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380,046명으로 강원지역 전체 인구 중 25.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178,485명으로 12.19% 차지하고 있

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201,561명으로 13.77%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89,445명으로 원주시 가장 높으며, 춘천시가 80,613명, 강릉시가 57,89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춘천시가 42,307명, 원주시가 41,284명, 강릉시가 28,35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원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춘천시에 5개, 원주시에 4개, 강릉시에 4개가 위치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강원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강원도	1,463,650 (3.05)	178,485 (12.19)	201,561 (13.77)	380,046 (25.97)	19	9	9
춘천시	274,220	42,307 (15.43)	38,306 (13.97)	80,613 (29.40)	5	3	2
원주시	309,803	41,284 (13.33)	48,161 (15.55)	89,445 (28.87)	4	3	1
강릉시	217,481	28,351 (13.04)	29,540 (13.58)	57,891 (26.62)	4	2	2
동해시	90,321	9,121 (10.10)	13,394 (14.83)	22,515 (24.93)	1	1	-
태백시	51,400	5,094 (9.91)	7,736 (15.05)	12,830 (24.96)	1	0	1
속초시	80,505	7,986 (9.92)	11,539 (14.33)	19,525 (24.25)	-	0	-
삼척시	67,131	7,511 (11.19)	7,964 (11.86)	15,475 (23.05)	1	1	-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강원지역에는 총 55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강원지역은 32개가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강원지역은 2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강원지역은 21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으나, 강원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있으며, 이 중 강원지역은 26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63> 강원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강원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4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1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1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1	
		산학협력선도대학	86	6	
	산학협력단	340	18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2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8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3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창업지원 조직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소계		979	55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2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5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7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5	
		지자체연구소	19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소계		347	26		
총계		1326	81		

'14년도 현재 강원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26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강원중소기업청, 강원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연)으로는 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있다.

또한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기관이 상대적으로 강릉시와 춘천시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강원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서)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춘천시
		강원영동		강릉시
	지방 중소기업청	강원 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춘천시
	통상진흥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원주시
	테크노파크 (산업부)	강원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춘천시
	연구개발지원단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공동R&D/기술이전, 국제기술 교류지원, 인력양성/교육지원	강릉시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강원도립대학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강릉시
		쑤아라심수		고성군
		관동대학교		강릉시
		연세대학교		원주시
		강원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강원대	강원 웰빙 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횡성군
			석재복합 신소재제품 지역혁신센터	춘천시
		강릉대	파인세라믹 지역혁신센터	강릉시
동해안 해양생물자원 지역혁신센터			강릉시	
연세대		의용계측및재활공학/첨단 의료기기지역혁신센터	원주시	
관동대		첨단해양공간개발 지역혁신센터	강릉시	
한림대		식의약품효능 평가 및 기능성소재 지역혁신센터	춘천시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과기연	강릉분원	강릉시
		기초연	강릉센터	강릉시
		기초연	춘천센터	춘천시
		생기연	강원권지역본부	강릉시
		지자연	해수용존 리튬자원 연구시설	강릉시
	지자체연구소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역특화산업육성, 구축장비 이용, 공동연구개발	철원군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홍천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13) 경북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경북은 182,059개로 5.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181,932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한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14,396개(7.9%)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은 3,483개(1.9%)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9.82%인 17,879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7.5%인 1,341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65> 경북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82,059 (100.0)	164,053 (90.1)	178,449 (98.0)	14,396 (7.9)	3,483 (1.9)	17,879 (9.82)	181,932 (99.9)	127 (0.1)	1,341 (7.50)	0.74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경북지역의 인구는 2,575,370명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669,649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 중 26.0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311,034명으로 1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358,615명으로 13.92%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42,630명으로 구미시 가장 높으며, 포항시 140,246명, 경산시 89,01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구미시가 65,942명, 포항시 64,304명, 경산시가 48,332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북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경산시에 12개, 포항시에 4개, 구미시에 3개가 위치해 경북 소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경북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경상북도	2,575,370 (5.37)	311,034 (12.08)	358,615 (13.92)	669,649 (26.00)	35	19	16
포항시	508,736	64,304 (12.64)	75,942 (14.93)	140,246 (27.57)	4	2	2
경주시	252,750	29,199 (11.55)	34,616 (13.70)	63,815 (25.25)	3	2	1
김천시	126,823	12,620 (9.95)	15,488 (12.21)	28,108 (22.16)	2	1	1
안동시	165,399	19,047 (11.52)	20,264 (12.25)	39,311 (23.77)	3	1	2
구미시	399,019	65,942 (16.53)	76,688 (19.22)	142,630 (35.75)	3	2	1
영주시	108,268	10,081 (9.31)	12,320 (11.38)	22,401 (20.69)	2	1	1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영천시	94,350	9,089 (9.63)	10,914 (11.57)	20,003 (21.20)	1	0	1
문경시	68,692	5,208 (7.58)	7,057 (10.27)	12,265 (17.86)	1	0	1
경산시	260,643	48,332 (18.54)	40,678 (15.61)	89,010 (34.15)	12	8	4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경북지역에는 총 74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경북지역은 43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경북지역은 2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경북은 28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이 중 경북지역은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이 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있으며, 경북지역은 20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67> 경북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경북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1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1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2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7
	산학협력단	340	30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2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2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4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22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74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3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1
테크노파크(산업부)	18	2		

구분	기관	전국 계	경북
공공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5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정부 출연(연)	74	2
	지자체연구소	19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2
소계		347	20
총계		1326	94

‘14년도 현재 경북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20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구미기업주치의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로는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영천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가 있다. 또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 있다.

이 중 6개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기관이 구미시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구미시에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경북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서북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구미시	
		경북동부		포항시	
		경북남부		경산시	
	기업지원플러스 (중기청)	구미기업주치의센터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	구미시	
	지방과학기술진흥 센터(SP)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업지원	구미시	
	통상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구미시	
	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경산시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	
	연구개발지원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업지원	구미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구미시	
지역특화센터		경운대학교		구미시	
		동양대학교		영주시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대구(중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산시	
		㈜하브랜드		대구(수성구)	
공공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원자력연	기술개발 및 지원	경주시	
		건설연		하천실험센터	안동시
	지자체연구소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지역특화산업육성, 구축장비 이용, 공동연구개발	포항시
		영천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			영천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술상담, 공동연구개발, 사업화지원	포항시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경산시			

14) 경남

경남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경남은 223,686개로 6.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223,549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20,823개(9.3%) 차지하고 중기업은 5,162개(2.3%)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1.62%인 25,985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6.53%인 1,698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69> 경남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223,686 (100.0)	197,564 (88.3)	218,387 (97.6)	20,823 (9.30)	5,162 (2.30)	223,549 (99.90)	137 (0.10)	25,985 (11.62)	1,698 (6.53)	0.76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경남지역의 인구는 3,119,571명으로 6.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859,510명으로 경남 전체 인구 중 27.5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365,165명으로 1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494,345명으로 15.85%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316,367명으로 창원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창원시 성산구가 76,17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창구가 72,289명,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62,61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창원시가 143,3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창원시 성산구가 34,518명, 창원시 의창구가 33,99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지역은 김해가 20~39세 연령이 145,022명, 20~29세 청년인구가 55,27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남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진주시에 6개, 창원시에 4개, 김해시에 3개가 위치해, 경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경남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경상남도	3,119,571	365,165 (11.71)	494,345 (15.85)	859,510 (27.55)	15	11	4
진주시	335,297	46,484 (13.86)	47,027 (14.03)	93,511 (27.89)	6	4	2
통영시	127,896	13,973 (10.93)	21,091 (16.49)	35,064 (27.42)			
사천시	106,175	10,073 (9.49)	16,991 (16.00)	27,064 (25.49)			
김해시	484,244	55,274 (11.41)	89,748 (18.53)	145,022 (29.95)	3	3	
밀양시	98,564	8,558 (8.68)	10,883 (11.04)	19,441 (19.72)			
거제시	225,014	29,972 (13.32)	47,359 (21.05)	77,331 (34.37)			
양산시	249,529	28,306 (11.34)	44,799 (17.95)	73,105 (29.30)	2	1	1
창원시	합계	1,047,488 (13.68)	143,347 (16.52)	173,020 (30.20)	4	3	1
	의창구	239,899 (14.17)	33,998 (15.96)	72,289 (30.13)			
	성산구	244,365 (14.13)	34,518 (17.05)	76,178 (31.17)			
	마산합포구	175,986 (13.95)	24,557 (13.96)	49,133 (27.92)			
	마산회원구	217,183 (13.10)	28,460 (15.72)	62,610 (28.83)			
	진해구	170,055 (12.83)	21,814 (20.20)	34,343 (33.02)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경남지역에는 총 60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경남지역은 37개가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경남지역은 3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경남지역은 20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으나, 경남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있으며, 경남지역은 20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71> 경남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경남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1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2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2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8
		산학협력단	340	21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3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7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3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창업지원 조직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소계			979	60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3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1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5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3
		지자체연구소	19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1	
소계			347	20
총계			1326	80

'14년도 현재 경남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20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중소기업진흥공단, 창원기업주치의센터, 경남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이 있다.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으로는 재료 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는 하동 녹차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산청 한방약초연구소가 있다. 또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한국실크연구원이 있다. 이 중 창원시(8개), 진주시(5개), 김해시(4개)가 위치해 상대적으로 경남의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이 창원시와 진주시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경남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창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중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창원	
		경남(동부)		김해	
		경남(서부)		진주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창원 기업주치의센터	지역 산업단지 내에 상주하며 회원기업들을 전담 관리하는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	창원	
	테크노파크 (산업부)	경남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창원	
	지역혁신센터 (산업부)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김해
			수송기계부품 지역혁신센터		김해
		경남대	연안역 폐자원 및 환경 지역혁신센터		창원
			생산자동화 지역혁신센터		창원
		경상대	수송기계부품 지역혁신센터		진주
		창원대	5축-CAM지역혁신센터 (구메카트로닉스)		창원
		진주산업대	동물생명산업 지역혁신센터		진주
	지역특화센터 (산업부)	부산대학교	밀양 생물자원의 기능성소재를 활용한 웰빙가공제품 활성화 사업	부산	
		(재)김해시 차세대의생명 융합지원센터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김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의보감촌 브랜드 마케팅 개발사업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함양 기능성 식품 전략화 사업	진주	
(주)거창스톤		거창 화강석 기능성 석재 브랜드화 및 수익창출사업	거창		
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창원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 (SP)	(재)경남테크노파크		창원		
공공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재료연구소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지자연	진해해저탐사지원실	진해	
	지자체연구소	(재)하동녹차연구소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구축장비이용,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등 중소기업 지원	하동군	
		(재)남해마늘연구소		남해군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산청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진주		

15) 전남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전남은 117,325개로 3.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9.9%인 117,264개이며, 대기업은 0.1%에 불과한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8,774개(7.4%) 차지하고 있고, 중기업은 1,994개(1.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9.18%인 10,768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4.6%인 495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42%를 차지하고 있다.

<표 73> 전남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17,325 (100.0)	106,496 (90.8)	115,270 (98.2)	8,774 (7.4)	1,994 (1.7)	10,768 (9.18)	117,264 (99.9)	61 (0.1)	495 (4.60)	0.42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전남지역의 인구는 1,728,749명으로 3.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377,706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 중 21.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160,399명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217,307명으로 12.57%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72,703명으로 목포시가 가장 높으며, 여수시가 66,910명, 순천시가 65,67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목포시가 32,010명, 순천시가 28,701명, 여수시가 28,066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남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에 각각 3개의 대학이 위치해,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전남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전라남도	1,728,749 (3.60)	160,399 (9.28)	217,307 (12.57)	377,706 (21.85)	19	10	9
목포시	248,694	32,010 (12.87)	40,693 (16.36)	72,703 (29.23)	3	2	1
여수시	268,727	28,066 (10.44)	38,844 (14.45)	66,910 (24.90)	2	1	1
순천시	257,800	28,701 (11.13)	36,973 (14.34)	65,674 (25.47)	3	1	2
나주시	77,825	6,801 (8.74)	7,777 (9.99)	14,578 (18.73)	3	2	1
광양시	137,100	14,646 (10.68)	21,886 (15.96)	36,532 (26.65)	2	1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전남지역에는 총 45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전남지역은 23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전남은 3개가 있다. 또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전남은 18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전남은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이 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있으며, 전남지역은 17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75> 전남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전남	
창업 관련 기관	창업 아카데미(중기청)	45	1	
	창업 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1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5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3	
	산학협력단	340	17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3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3	

구분		기관	전국 계	전남
창업지원 조직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2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1
소계			979	45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2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1
		통상진흥원	10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6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2
		지자체연구소	19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소계			347	17
총계			1326	62

‘14년도 현재 전남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17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전남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연)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로 구례야생화연구소, 장흥군 버섯연구소,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으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5개의 기관이 순천시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순천시에 많은 기관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전남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무안군
		전남(동부)		순천시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 기술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 교육지원	무안군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 (SP)	(재)전남테크노파크	지역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지역개발 및 투자유치	순천시
	테크노파크 (산업부)	전남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순천시
	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R&D관련 지원사업 및 기술정보제공	영암군
	지역특화센터(산업부)	목포대학교	기업지원	목포시
		동신대학교		나주시
		목포해양대학교		목포시
		(재)전라남도생물자원 진흥재단		나주시
순천대학교		순천시		
	순천대학교 (주)순천대친환경농수산		순천시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항우연	나로 우주센터	지역특화산업육성, 구축장비 이용, 공동연구개발	고흥군	
		기초연	순천센터		순천시	
	지자체연구소	구례야생화연구소			구례군	
		(재)장흥군 버섯연구소				장흥군
		(재)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목포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		

16) 전북

전북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전북은 121,254개로 3.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121,204개로 대부분의 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10,113개(8.3%) 차지하고 중기업은 2,375개(2.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0.30%인 12,488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5.13%인 641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53%를 차지하고 있다.

<표 77> 전북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121,254 (100.0)	108,716 (89.7)	118,829 (98.0)	10,113 (8.3)	2,375 (2.0)	12,488 (10.30)	121,204 (100.0)	50 (0.0)	641 (5.13)	0.53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전북지역의 인구는 1,766,044명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448,217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 중 25.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207,587명으로 1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240,630명으로 13.63%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190,442명으로 전주시 가장 높으며, 익산시가 80,496명, 군산시가 73,21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전주시가 91,224명, 익산시가 39,793명, 군산시가 32,760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에 6개, 군산시에 5개의 대학이 위치해 전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전북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전라북도	1,766,044 (3.68)	207,587 (11.75)	240,630 (13.63)	448,217 (25.38)	20	12	8
전주시	646,512	91,224 (14.11)	99,218 (15.35)	190,442 (29.46)	6	4	2
군산시	258,845	32,760 (12.66)	40,457 (15.63)	73,217 (28.29)	5	2	3
익산시	294,479	39,793 (13.51)	40,703 (13.82)	80,496 (27.34)	2	1	1
정읍시	109,458	8,701 (7.95)	12,966 (11.85)	21,667 (19.79)	1	0	1
남원시	78,425	5,777 (7.37)	9,032 (11.52)	14,809 (18.88)	1	1	-
김제시	82,739	7,095 (8.58)	8,219 (9.93)	15,314 (18.51)	1	0	1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14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며 이 중 전북 지역에는 총 52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전북은 32개가 있으며,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전북지역은 2개가 있다.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전북은 18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으나, 전북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있으며, 전북지역은 31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79> 전북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전북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2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1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작터(중기청)	30	3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가·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6
		산학협력단	340	19
	시작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2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작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16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2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지원 조직	창업진흥원(중기청)	1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	16	
소계			979	52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2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통상진흥원	10	1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6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6
		연구개발지원단	11	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1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6
		지자체연구소	19	5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1
소계			347	31
			1326	83

'14년도 현재 전북지역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31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전북중소기업청, 전북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연)으로는 과학기술연구원, 핵융합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

자력연구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연구소로 순창군청 장류연구소사업소,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등이 있으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있다. 이 중 12개의 기관이 전주시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전주시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전북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동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전주시	
		전북서부		군산시	
	지방 중소기업청	전북 중소기업청		전주시	
	통상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전주시	
	테크노파크 (산업부)	전북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전주시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재)전북테크노파크		전주시	
	연구개발지원단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지역산업기획, 산·학·연·관 연계협력	전주시	
	지역특화센터(산업부)	(주)고산향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완주군
		(재)진안홍삼연구소			진안군
		전북대학교			전주시
		원광대학교			익산시
	지역혁신센터(산업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익산시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익산시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전주시
		자동차부품 지역혁신센터			전주시
농기계부품 개발 및 생산 지역혁신센터			전주시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과기연	전북분원	기술이전, 연구장비 공동활용	완주군
		핵융합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군산시
		생명(연)	전북분원		정읍시
		원자력연	첨단방사선 연구소		정읍시
		기초연	전주센터		전주시
		재료연	부안풍력시험동		부안
지자체연구소	순창군청 장류연구소사업소	순창군청 장류연구소사업소	지역특화산업육성, 구축장비 이용, 공동연구개발	순창군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임실군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시	
		(재)진안홍삼연구소		진안군	
		(재)고창북부자연연구소		고창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 및 지원	익산		

17) 제주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3,354,320개의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제주는 44,740개로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4,724개로

대부분의 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4,432개(9.9%) 차지하고 중기업은 1,070개(2.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창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12.30%인 5,502개로 추정된다. 이 중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은 1.65%인 91개로 추정(2014년도 기준 대입) 되며 전체기업 수 중 0.2%를 차지하고 있다.

<표 81> 제주지역의 산업구조현황

(2012년 현재)

전체 (A+B+C)	소기업(A)			중기업 (B)	중소기업 (고용창출 가능)	소계 (A+B)	대기업 (C)	벤처 기업	전체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소상 공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제외						
44,740 (100.0)	39,222 (87.7)	43,654 (97.6)	4,432 (9.9)	1,070 (2.4)	5,502 (12.30)	44,724 (100.0)	16 (0.0)	91 (1.65)	0.2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주:1. ()안은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47,990,761명의 인구가 있으며 제주지역의 인구는 528,411명으로 1.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 인구 현황은 140,582명으로 제주 전체 인구 중 26.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는 20~29세 연령은 59,844명으로 1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30-39세 연령은 80,739명으로 15.28%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혁신적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20~39세 이하의 인구 현황은 제주시가 112,3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29세 청년인구가 48,627명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소재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의 4개 대학 모두,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제주지역의 청년 인구 및 대학 현황

(2010년 현재)

시도별	전체인구	20~29세	30~39세	20~39세	전체 대학수	4년제	전문대
전국	47,990,761	6,594,369 (13.74)	7,794,495 (16.24)	14,388,864 (29.98)	340	201	139
제주도	528,411 (1.10)	59,844 (11.33)	80,738 (15.28)	140,582 (26.60)	4	2	2
제주시	398,677	48,627 (12.20)	63,723 (15.98)	112,350 (28.18)	4	2	2
서귀포시	129,734	11,217 (8.65)	17,015 (13.12)	28,232 (21.76)	0	0	-

자료 :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창업관련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979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제주지역에는 총 17개의 창업관련기관이 있다. 이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 548개가 있는데 이 중 제주지역에는 8개가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49개가 있는데 이 중 제주지역에는 2개가 있다.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365개가 있는데 이 중 제주지역에는 6개가 있으며, 창업지원조직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제주지역에는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이 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관련기관이 있으며, 제주지역은 9개가 존재하고 있다.

<표 83> 제주지역의 주요 창업지원 기관 현황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전국 계	제주
창업 관련 기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아카데미(중기청)	45	
		창업선도대학(중기청)	18	1
		창업대학원(중기청)	10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청)	6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중기청)	2	
		스마트창업터(중기청)	30	1
		창업발전소(문체부, 콘)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총 4개소가 '14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5	
		IP 창조 Zone(특허청)	4	
		산학협력선도대학	86	2
		산학협력단	340	4
	시제품 제작	무한상상실(미래부, 문체부)	42	2
		창업공작소(미래부)	1	
		시제품 제작터(중기청)	4	
		사물인터넷 DIY Open Lab/Factory(미래부) * '15년 충청(대전, 천안), 영남(대구, 부산, 창원) 중 2개소 설치 예정	2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	282	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중기청)	60	1
		지자체 산하 인큐베이팅 시설	22	1
	창업지원 조직	연구원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	1	
		창업진흥원(중기청)	1	
	소계			979
혁신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청	11	
		중소기업진흥공단	32	1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4	1
		통상진흥원	10	
		중소기업지원통센터(미래부, 출연연)	1	
		기업지원플러스(중기청)	4	
		테크노파크(산업부)	18	1
		지역특화센터(산업부)	65	4
		지역혁신센터(산업부)	70	
		연구개발지원단	11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SP)	10	
		연구개발특구	4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74	1
		지자체연구소	19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	
소계			347	9
총계			1326	26

'14년도 현재 제주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은 총 7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제주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이 있으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자체연구소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있으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지역의 산업 및 기업 지원기관은 모두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제주지역의 주요 산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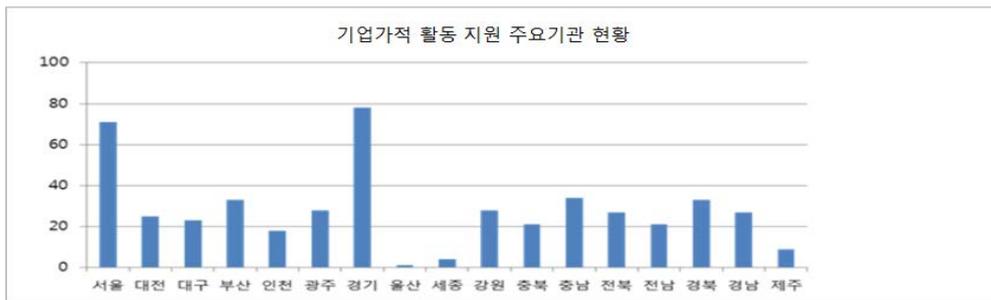
(2014년 현재)

구분	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지
중 소 기 업 지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제주시
	지자체 산하 산업 및 기업지원조직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 기술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 교육지원	제주시
	테크노파크 (산업부)	제주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제주시
	지역특화센터(산업부)	제주TP			제주시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린					
제주대학교					
공공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기초연	제주센터	파트너기업, 멘토링 제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기술상담센터	제주시
	지자체연구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역특화산업육성, 구축장비 이용, 공동연구개발	제주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2. 지역별 혁신 역량 시사점

국내 지역별 혁신역량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 내 창업 지원 생태계는 창업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근접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젊은 청년인구가 몰려 있는 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창업 네트워킹 및 창업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혁신 거점 기능과 연계 가능성 또는 다른 대안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별 보유하고 있는 혁신관련 조직 중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7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77개, 서울 71개, 충남 34개, 경북 33개, 부산 32개, 강원 28개, 광주 28개, 전북 27개, 경남 27개, 대전 26개, 대구 23개, 충북 21개, 전남 21개, 인천 17개, 제주 9개, 세종 4개, 울산 1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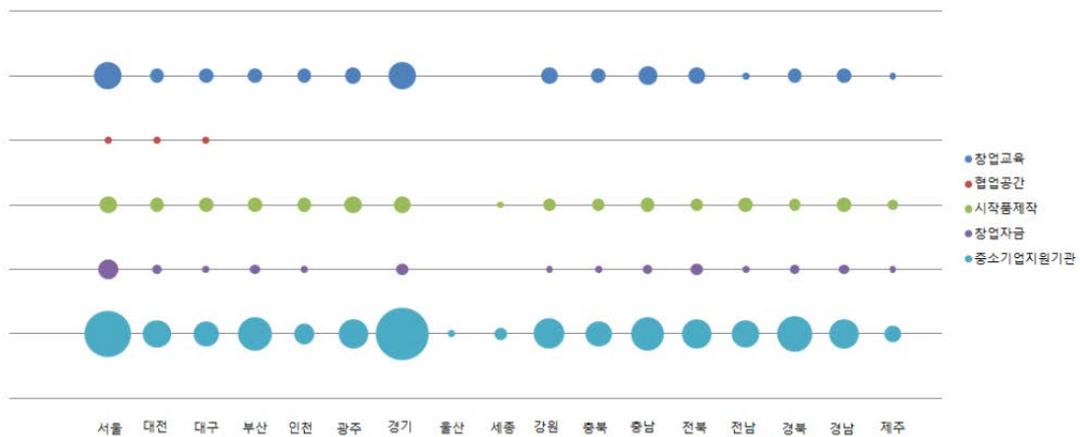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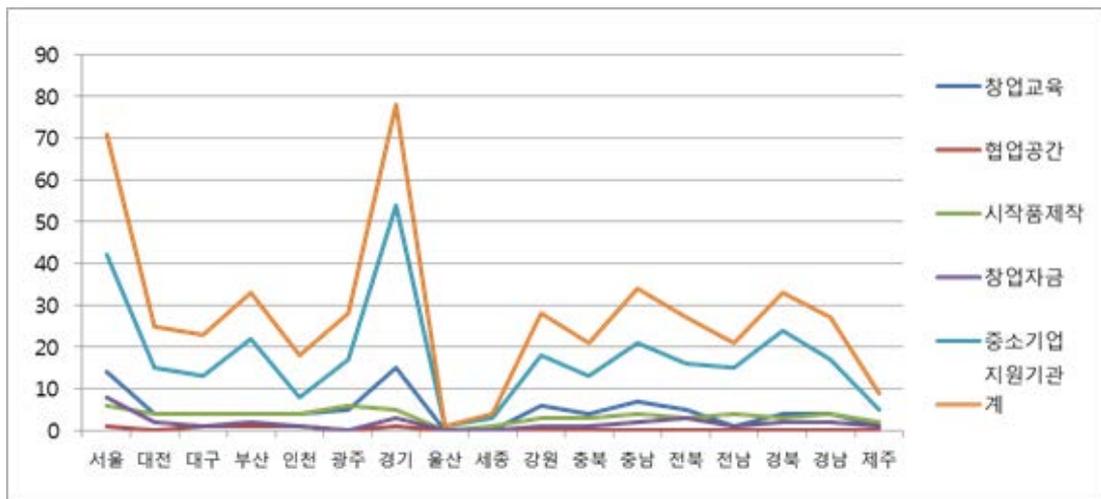


[그림 17]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 주요기관 현황

<표 85>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 주요기관의 기능별 분포 현황

시도별	계	창업교육	교류·협업공간	시작품제작	창업자금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	71	14	1	6	8	42
대전	26	4	1	4	2	15
대구	23	4	1	4	1	13
부산	32	4	-	4	2	22
인천	17	4	-	4	1	8
광주	28	5	-	6	-	17
경기	77	15	-	5	3	54
울산	1	-	-	-	-	1
세종	4	-	-	1	-	3
강원	28	6	-	3	1	18
충북	21	4	-	3	1	13
충남	34	7	-	4	2	21
전북	27	5	-	3	3	16
전남	21	1	-	4	1	15
경북	33	4	-	3	2	24
경남	27	4	-	4	2	17
제주	9	1	-	2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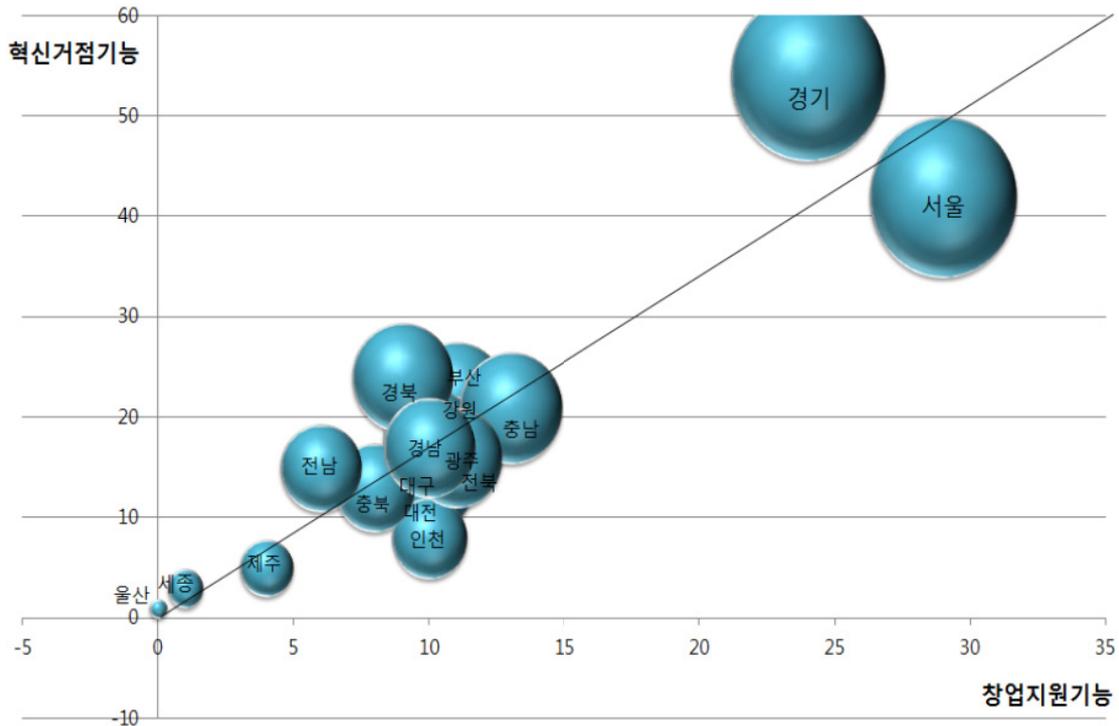
지역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 내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관련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창업교육, 시작품제작, 창업자금, 협업 공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7개 지역 모두 지자체 산하 BI시설과 창업보육센터 등이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되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류·협업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8] 17개 시·도 지역별 기업가적 활동 지원기관의 기능별 분포 현황

이와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인 혁신거점 기능과 창업지원 기능이 모두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지역별로 혁신거점 기능 역량을 살펴보면 경기 54개, 서울 42개, 경북 24개, 부산 22개, 충남 21개, 강원 18개, 광주 17개, 경남 17개, 전북 16개, 전남 15개, 대전 15개, 충북 13개, 대구 13개, 인

천 8개, 제주 5개, 세종 3개, 울산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 기능 역량을 살펴보면 서울 29개, 경기 23개, 충남 13개, 전북 11개, 부산 10개, 광주 11개, 경남 10개, 강원 10개, 대전 10개, 대구 10개, 인천 9개, 경북 9개, 충북 8개, 전남 6개, 제주 4개, 세종 1개, 울산 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9] 17개 시·도 지역의 보유 혁신역량 및 자원의 분포

서울, 충남, 전북, 충북, 제주 지역은 혁신거점기능과 창업지원기능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북, 강원, 전남, 세종, 울산 지역은 혁신거점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지원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교류·협업 공간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여 대행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도시 생태계 및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울산, 제주와 같이 도시 생태계 및 기반이 동일한 지역 내 혁신센터의 2가지 주요 기능과 관련 지역 내 교류·협업 공간 등 실제 유사기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관기관이 존재하며, 대행 운영이 가능한 관련 기관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 생태계 및 기반이 동일한 지역 내 혁신센터의 2가지 주요 기능과 관련 지역 내 교류·협업 공간 등 실제 유사기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관기관은 존재하며, 2가지 주요 기능과 관련 모두 보유 역량이나 자원이 충분히 갖추어 있지 못한 지역으로 특정 기능을 중심으

로 최소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인근 지역에 혁신센터가 존재하여 이 기능에 대해 커버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충남, 충북, 강원, 경북, 전남, 전북과 같이 도단위 지역의 경우, 도시 생태계 및 기반이 각기 다른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가지 주요 기능과 관련 지역 내 교류·협업 공간 등 실제 유사기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기능 중심의 유사·유관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광역 자치단체지역으로 특정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산업단지 등의 기업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도시 기반의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업가적 준비 과정 및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 제약 요인이 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제2절 지역별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 및 개선과제

1. 지역별 혁신생태계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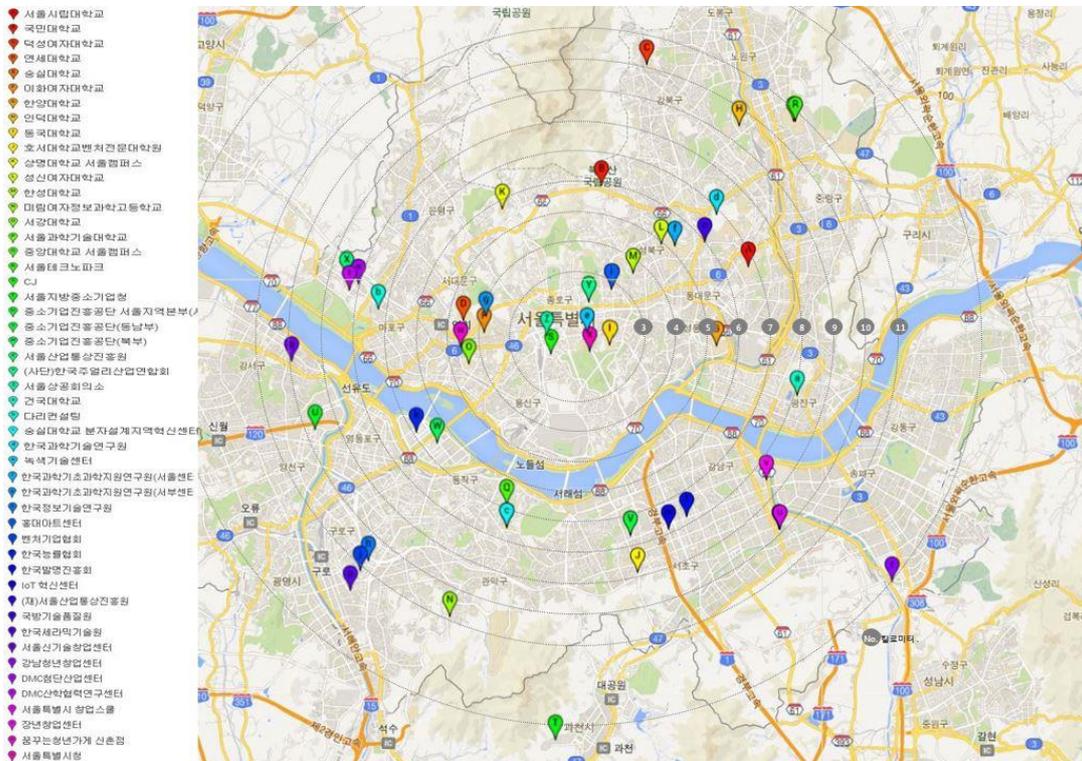
1) 서울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서울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86>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20]과 같다.

<표 86> 서울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지방청)	서울중소기업청	IR개최, 컨설팅 지원 사업, 교육
스타트업 배양기관	케이큐브벤처스	이스라엘식 창업 프로그램(중소기업청 지원)
민간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실무교육
지자체 산하기관	강남 강북 청년창업센터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지자체 산하기관	꿈꾸는청년가게	아이디어 공모, 오프라인 판로 제공
정부 산하기관	서울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 활성화와 벤처 생태계 지원, 인재 양성
대학	연세대학교	창업대회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 주최)
민간단체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육성, 해외 진출 지원
정부 산하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벤처기업 지원 및 활성화
정부 산하기관	국방벤처센터	기술교류
대학	송실대학교	벤처기업협회 소속 벤처기업을 위한 산학 맞춤형 학위과정 개설
기업	포스코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 재기회 지원
대학	서울대학교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민간단체	창업보육협회	멘토링 및 자금 설명회
민간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	기술 교류 및 산학협력 교류
대학	한양대학교	벤처기업육성(TIPS프로그램), 공동 연구
민간단체(VC)	더벤처스	벤처기업육성(TIPS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	마루 180	벤처기업육성(TIPS프로그램)
스타트업 배양기관	프라이머	벤처기업육성(TIPS프로그램)
정부 산하기관	서울테크노파크	기술지원 센터 구축, 인력양성 센터 구축
기업	CJ	공동 연구 및 인력 발굴
정부 산하기관	한국벤처투자(주)	서울지역 벤처투자 IR개최
지자체 산하기관	서울통상진흥원	공동 연구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민간단체	한국무역협회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민간단체	소상공회	창업 정보 제공, 창업 아카데미 개최
대학	경희대학교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대학	숙명대학교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기업	IBK자산운용	창업 정보 제공 및 투자
대학	단국대학교	창업 교육 및 인재 양성,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정부 산하기관	기술보증기금	사업화 지원
출연(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화 지원
정부 산하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엑셀러레이터	Kstartup	창업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교류공간	D캠프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	SK텔레콤	장비 공유
컴퍼니빌더	패스트트랙아시아	창업 교육, 벤처 캐피탈 투자 및 마케팅 자료 제공
기업	㈜스마일게이트	창업보육, 멘토링



[그림 20] 서울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서울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서울의 혁신 생태계는 [그림 21]과 같이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을 주축으로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참여 주체들이 함께 기술개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체들 간의 연계가 다양하지 못 하고 주로 정부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간의 연결성, 정부산하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연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정부산하기관을 주축으로 혁신 생태계가 가장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테크노파크는 정부연구기관, 대학교,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으로 '차세대패키징공정장비실용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테크노파크가 총괄관리기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테크노파크내에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NT, IT, 제조장비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운영 프로그램으로 참여대학과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실험실습장비의 이용, 대학 간 상호 교류 등을 하고 있다.²⁵⁾ 또한 중소기업청은 엔젤 투자회사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 벤처 및 기술주도 대기업 등 운영사를 선정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창업자를 모집·선정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서울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민간단체와 대학 간의 공동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안양대학교와 청년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공동으로 '청년창업로드쇼 셀 위 두 잇(Shall We Do It?)'을 개최²⁶⁾하였으며, 벤처기업협회와 한국폴리텍 대학 신기술연수센터는 신기술 교육과 기술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 하였다.²⁷⁾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민간단체는 벤처기업협회를 주축으로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벤처기업협회와 서울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대학, 대기업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는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프로젝트경영학과를 개설하여, 벤처기업협회 소속

25)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주요사업

26) 아시아경제, '청년창업 전도사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년 12월 24일자

27) 아이뉴스24뉴스, '벤처협-한국폴리텍대, 산학교류 협약 체결', 2012년 2월 20일자

벤처기업을 위한 산학 맞춤형 학위과정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벤처기업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포스코와 함께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창조경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지원, 기술협력, 전략적 투자 및 M&A, 공동 글로벌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²⁸⁾ 이 밖에 벤처·창업기업의 육성 및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서울대학교와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벤처산업과 학계의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은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기술선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전용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²⁹⁾ 이 밖에 ‘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해 유망창업기업, 지식·기술 우수기업, 수출기업, 산업단지 소재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³⁰⁾ ‘KDB은행-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는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¹⁾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서울의 혁신 생태계를 본 결과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벤처기업 육성 및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 예로 CJ는 다양한 기관, 대학들과 협력을 맺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외식 창업 전문 교육 기관인 ‘상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CJ헬로비전과 경민대학교 산·학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하였고,³²⁾ CJ푸드빌과 서울문예대는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 실천방안을 수립³³⁾하였다. 이렇게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등 서울 소재 대학과 산학 협력 수행하고, 타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이 서로 협약을 맺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8) 아시아경제, ‘포스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앞장서’, 2014년 11월 26일자

29) 뉴스웨이, ‘하나銀, 기술선도 창업기업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2014년 4월 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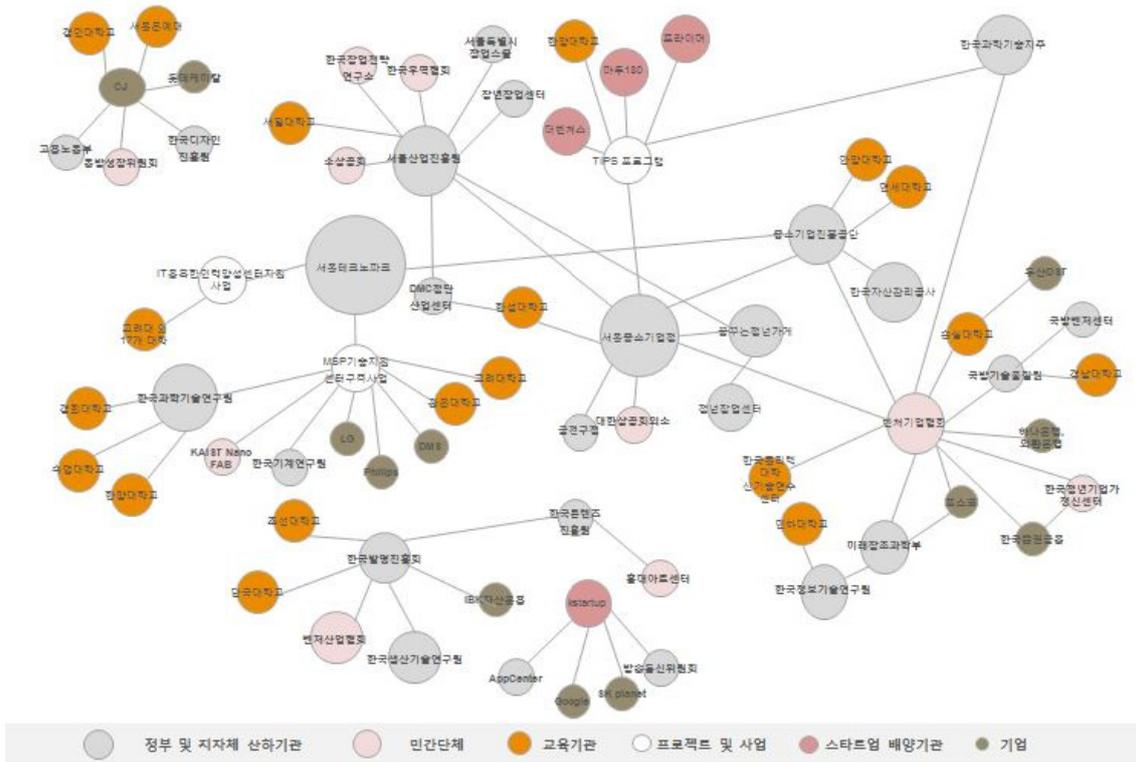
30) NSP통신,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유망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5년 1월 29일자

31) 국민일보, ‘KDB산업은행·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우수 中企 금융지원 업무협약’, 2014년 8월 26일자

32) 신아일보, ‘경민대- CJ헬로비전, 인턴제 운영 등 산·학 상생발전 도모’, 2014년도 12월 18일자

33) 국제뉴스, ‘서울문예대, CJ푸드빌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2014년 10월 3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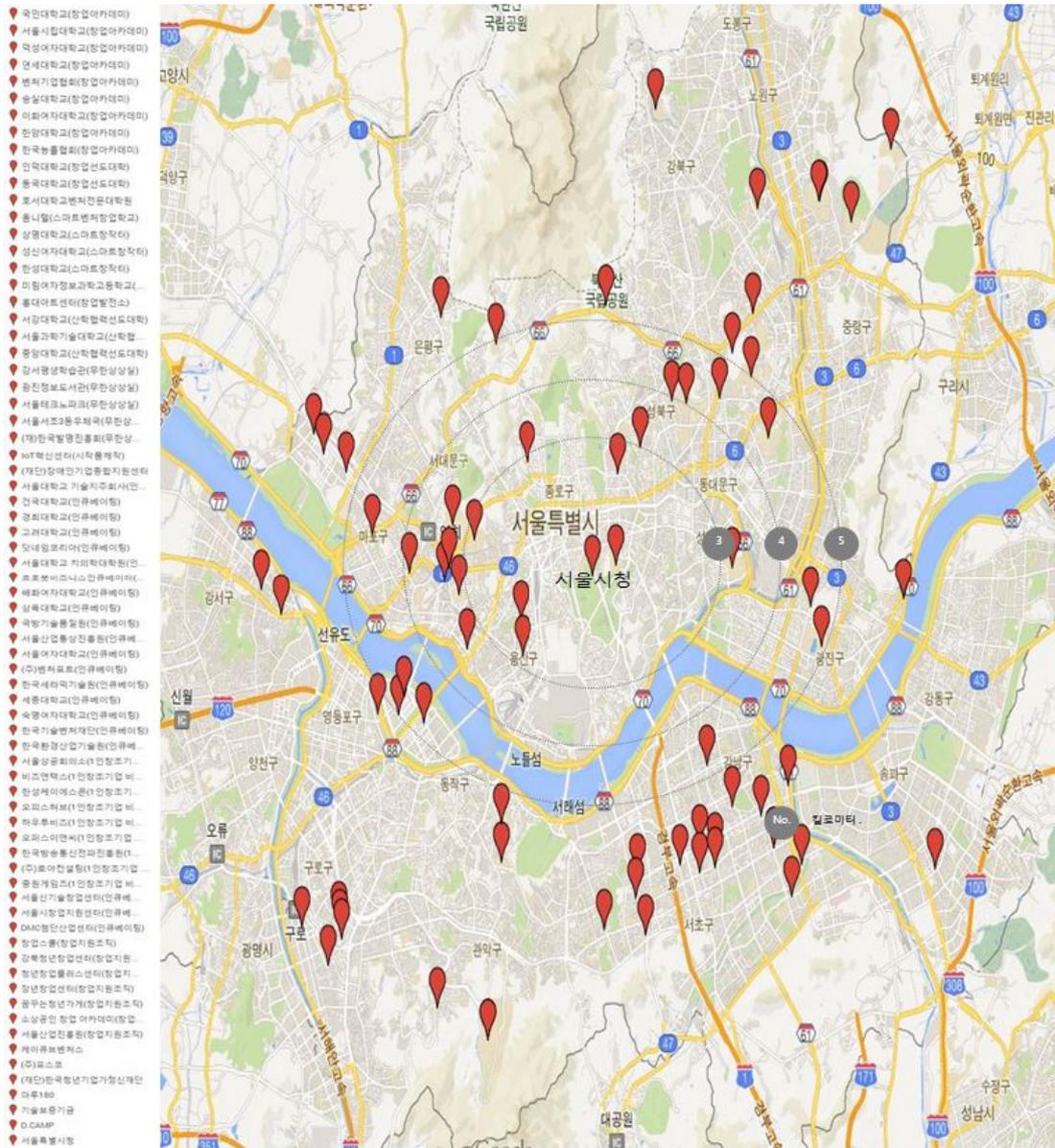
특히 서울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민간단체인 벤처기업협회와 같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주축으로 산업체, 연구소, 협력대학간의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서울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마) 지역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서울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86>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22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서울지역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이 실질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은 혁신 생태계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간 또는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후원이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 연결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성공벤처 엔젤투자사가 기술창업팀을 발굴하고 투자, 보육하는 팁스(Tip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머는 엔젤투자와 병행한 밀착형 멘토링 보육 지원을 수행하며, 국내 최초 엔젤투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지

주, 서울대기술지주는 '14년도 3월부터 TIPS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벤처스는 성공 벤처인들의 법인형 엔젤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유망 창업팀에 대해서는 엔젤투자사(TIPS 운영기관)간 연계 투자도 활발하여, 민간주도 엔젤투자펀드 결성 등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지주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출연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팀스(TIPS)에 선정된 출연연 기술기반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지주가 선행투자(최대 5억원) 및 후속 추가투자(최대 30억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³⁴⁾ 또한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와 단국대학교가 지식재산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창직을 위한 대학 내 지식재산연계전공 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창업창직 전문가 및 청년창업창직자 양성 교육과 인프라 강화, 창업창직 사업에 관한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창업동아리의 창업창직 멘토링 및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창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³⁵⁾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민간단체인 벤처기업협회가 벤처·창업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공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벤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고, 벤처·창업기업의 다양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³⁶⁾ 한국과학기술지주는 벤처기업협회와 장소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의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협회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과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재기 벤처기업인의 재도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⁷⁾

기업이 참여한 스타트업 지원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포스코, 벤처기업협회가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과 이를 통한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타운', '드림엔터' 등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포스코 및 벤처기업협회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과 연계해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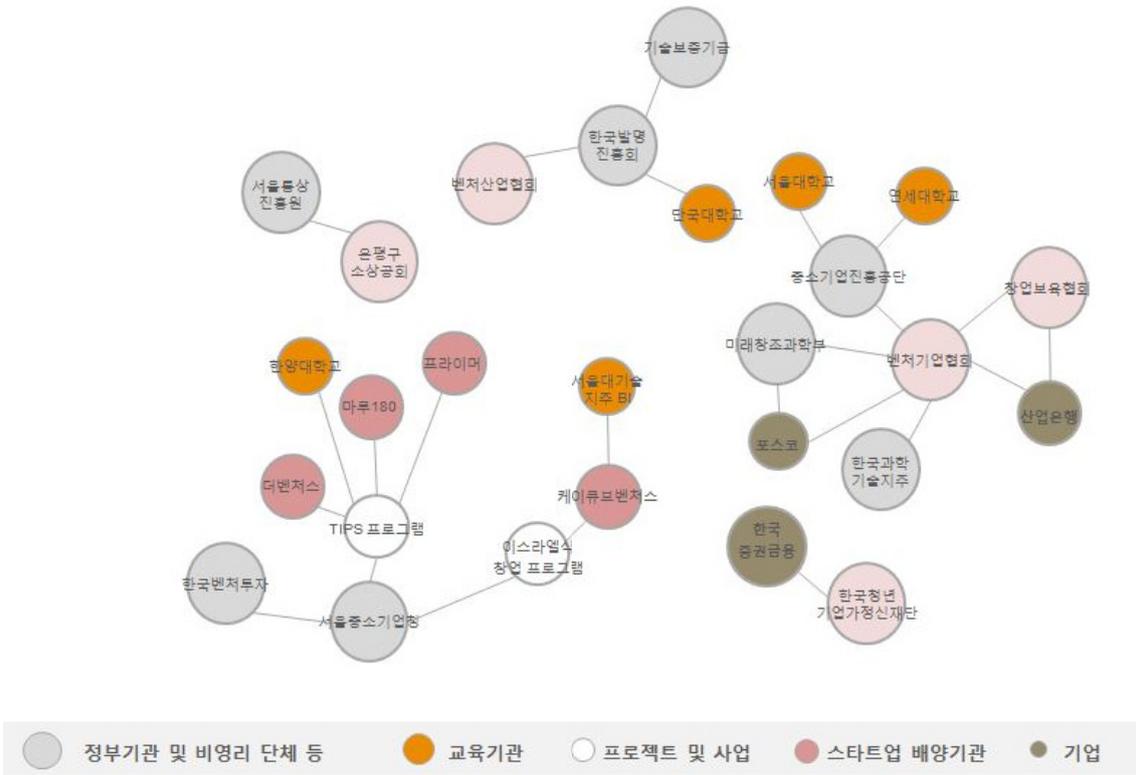
34) 정책브리핑,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한양대서 현판식', 2014년 10월 2일자

35) 이투데이, '단국대-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우수인력 양성 협약식', 2014년 1월 16일자

36) 중소기업뉴스, '벤처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2014년 9월 10일자

37) 머니투데이뉴스,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와 창조경제 업무협약', 2014년 4월 21일자

38) 아시아경제, '미래부·포스코·벤처협회, 대기업-벤처기업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4년 11월 25일자



[그림 23] 서울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

2) 경기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기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87>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표 87> 경기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지방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신제품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자체 산하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창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경기 테크노파크	예비 창업인 발굴, 창업교육
민간단체	경기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예비 창업인 발굴, 창업교육
연구기관	차세대융합기술원	예비 창업인 발굴
지자체 산하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
정부 산하기관	신용보증기금 경기본부	창업 금융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성남산업진흥재단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정부 산하기관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지자체 산하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창업활성화 지원, 창업보육
민간단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 교육
민간단체	부천여성회관	여성 취·창업 교육
공공 연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공동연구(SKT와 공동연구)
지자체 산하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 기술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아이디어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산하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민간단체	디코리아재단	인재양성
정부 산하단체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협업공간 제공, 창작장비실 운영 창작 스튜디오 운영
민간 단체(부설기관)	한국엔젤투자지원센터	벤처창업 활성화, 자금지원
대학	경북대	창업 교육
대학	단국대학교	예비 창업인 발굴, 창업교육
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예비 창업인 발굴, 창업교육
금융기관	외환은행	금융지원
금융기관	기업은행	금융지원
금융기관	하나은행	금융지원
기업	SKT	공동연구
기업	(주)큐알티	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 기술지원
기업	SAP코리아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 보급 활용 지원



[그림 24] 경기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경기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정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예로 총괄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기관인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가 서로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업력에 따라 지속성장(7년이상), 창업기업(7년미만)으로 구분하여,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컨설팅하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⁹⁾

또한 지자체 산하기관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IoT융합 아이디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 지원센터는 오픈랩(Open Lab)과 창업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D프린터실, 디자인실, DIY실습실, 교육장, 아이디어마당, 창업지원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 대학생과 창업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⁴⁰⁾

39) 정책브리핑, 「중소기업의 경쟁력」, 맞춤형 컨설팅으로 높인다, 2015년 2월 9일자

40) 국제뉴스, '용인시, 'IoT융합아이디어지원센터' 열내 개소', 2014년 8월 20일자

또한 경기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기업과의 연결성을 보였는데 그 예로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은 SKT와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사업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말부터 공동 추진해온 개방형 IoT 플랫폼 ‘모비우스(Mobius)’를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 등 개발자들은 누구나 이 플랫폼을 통해 IoT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⁴¹⁾. 또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과 큐알티(주)는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과 큐알티(주)의 인력지원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 서남부 소재 소자설계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톱 기술지원 및 주 7일, 24시간 분석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⁴²⁾

이 밖에 경기지역은 산·학·관이 연계하여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단국대학교, SAP코리아, 디코리아재단은 ‘창조경제 생태계 및 글로벌 혁신 콘텐츠 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협약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최신 기법인 ‘디자인싱킹(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론)’을 도입하고, SAP코리아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도구 ‘SAP HANA 플랫폼’을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및 협력, 확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⁴³⁾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경기지역은 대학이 가장 많은 시·도로 정부산하기관과 교육기관과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안양대와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촉진 및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능기부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개설,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및 교류를 협력하기로 하였다.⁴⁴⁾ 또한 경기대 산학협력단과 도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청년CEO의 창업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연계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⁴⁵⁾

41) 파이낸셜뉴스, ‘SKT. 연내 ‘개방형 IoT’ 플랫폼 선보인다’, 2014년 6월 1일자

42) 국제뉴스, ‘한국나노기술원-큐알티(주), 업무협약 체결’, 2015년 2월 23일자

43) 한국경제, ‘경기콘텐츠진흥원-단국대-SAP코리아-디코리아재단, 상호협력 MOU체결’, 2014년 12월 3일자

44) 국제뉴스, ‘안양대,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산학협력 MOU체결’, 2014년 10월 30일자

45) 중부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대와 청년창업 MOU 체결’, 2014년 4월 1일자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지자체 산하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5개 창업 투자회사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하여, 보육·투자 등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하며, 앞으로 우수(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투자 등 성장지원,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창업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⁴⁶⁾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창업자의 마케팅 활로를 개척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창업성공을 높이고자,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마케팅세미나와 마케팅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광창업투자, 케이큐브벤처스 등과 같은 창업초기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과 유통전문기업들이 현장에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마케팅 상담을 진행하였다.⁴⁷⁾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먼저 경기지역은 정부 산하기관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하여 수행하는 창업지원 프로젝트 및 사업을 중심으로 혁신 관련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는 'HIT500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신제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HIT500'이란 2년 이내 신제품 출시기업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유망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홍보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소비자의 제품체험과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14년도 하반기 HIT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HIT제품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였으며,⁴⁸⁾ '15년도 2월 전자랜드프라이스킹과 중기제품 판로확대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통해 히트500(HIT500)을 통해 발굴한 2700여개의 신규 유망 중소기업 제품과 올해 발굴될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⁴⁹⁾

또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정부 산하기관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모라비안프라트룸은 청년장사꾼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사업인 '영+원(Young One)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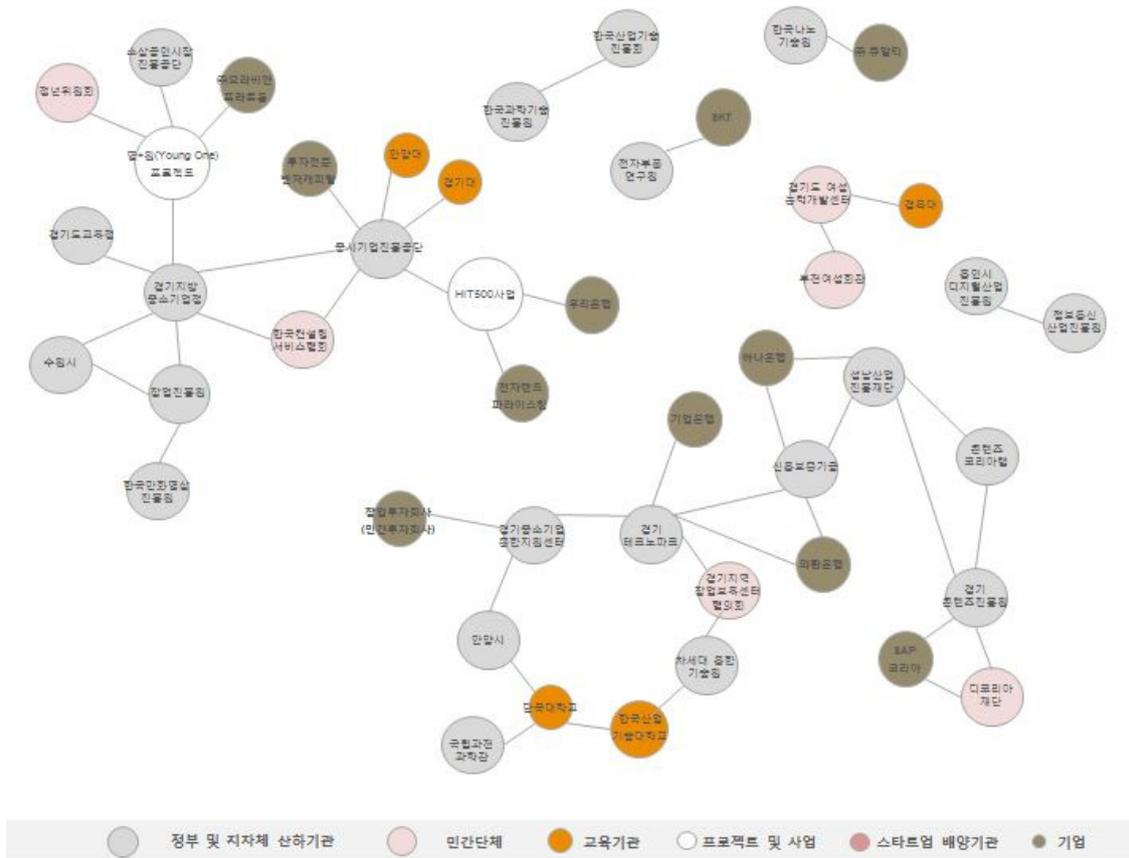
46) 경인일보, '경기중기센터-창업투자사 5곳, 공동협력 협약', 2014년 11월 26일자

47) 서울경제, 중진공, 경기도 안산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마케팅·투자 상담회 개최', 2014년 6월 13일

48) 중부일보, 중진공 경기본부, HIT500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2014년 7월 23일자

49) 디지털타임스, '중진공-전자랜드프라이스킹, 중기제품 판로확대 mou 체결', 2015년 3월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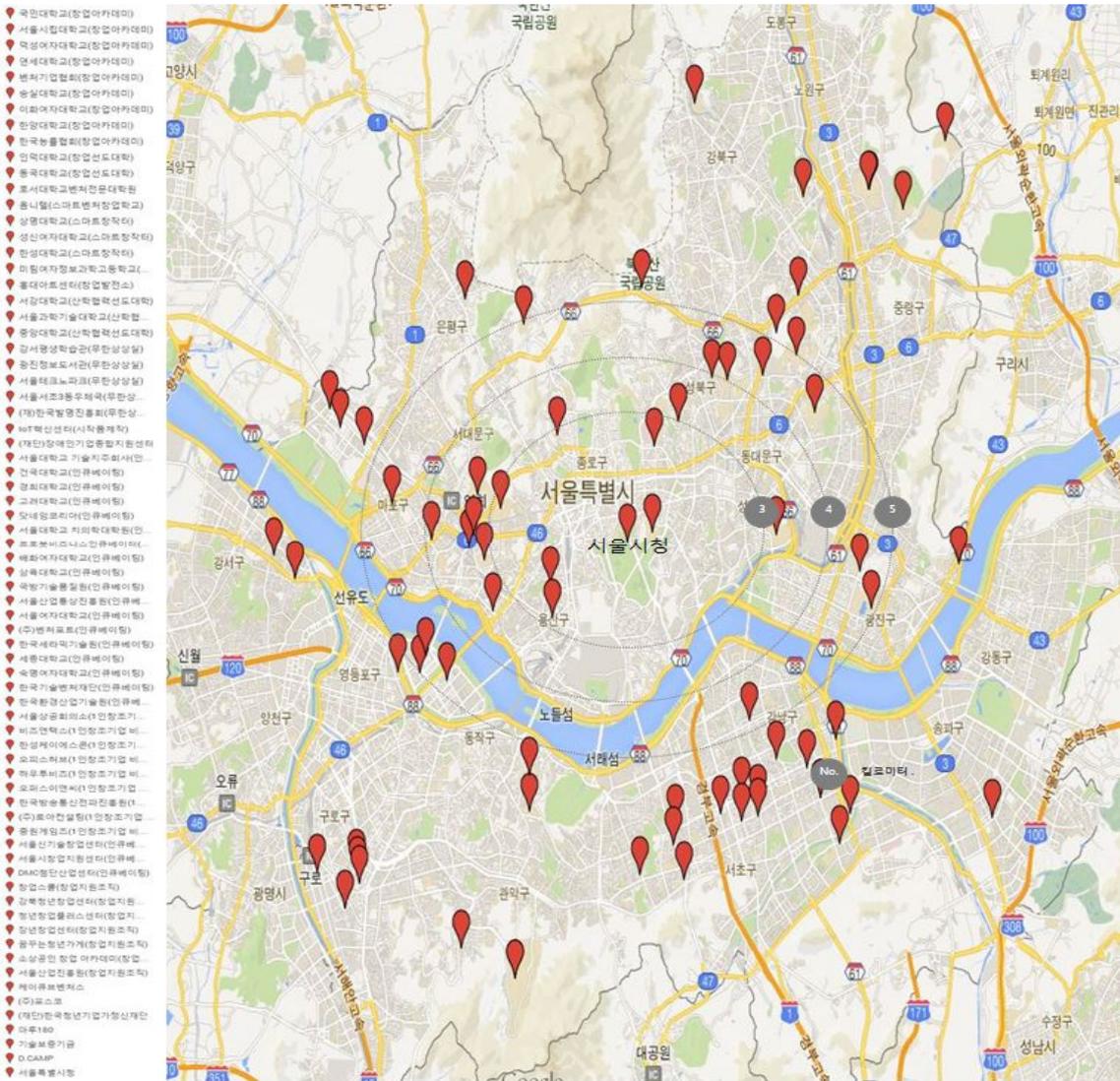
경기지역의 혁신 생태계는 [그림 25]와 같이 정부산하기관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결성을 보였으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주축으로 고등교육기관, 기업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나타났으나, 기업과 스타트업 배양기관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경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기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87>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1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 상에 나타내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경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은 혁신 생태계 연결성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산하기관을 주축으로 연계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대학,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과의 연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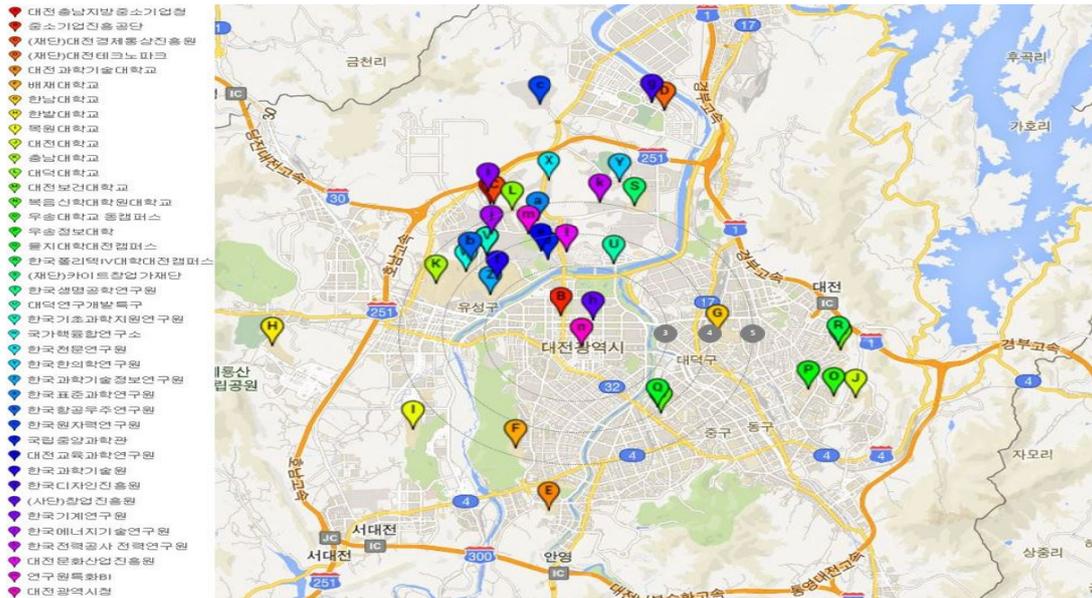
먼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모라비안프라트룸 등이 함께 청년 장사꾼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사업인 ‘영+원(Young One)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영+원(Young One) 프로젝트는 수원 영동시장(Young)과 고양 원마운트(One)에서 청년들이 체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많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주로 IT 관련 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창업자

3) 대전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대전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88>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28]과 같다.

<표 88> 대전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정부 산하기관	대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대전테크노파크	강소기술기업육성,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민간단체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멘토링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대전지방노동청	인력 양성
대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자문 및 실무수습
정부 산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망 콘텐츠에 대한 프로젝트형 대출
대학	대전대학교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컨설팅
대학	한남대학교	청년창업지원
금융기관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정부 산하기관	대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 사업화 지원, 장비 공동 활용, 국내외 자문, 투자유치
기업	SK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정부 산하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중소기업 수요기술 발굴과 사업화 촉진
대학	카이스트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대학	한밭대학교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금융기관	산업은행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정부 출연(연) 부설 기업	한국과학기술지주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정부 출연(연)	국가행육합연구소	기술개발, 시설 공동 활용, 인력, 학술 교류
민간단체	창업보육협회	멘토링 및 자금 설명회
정부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 연구 및 인력양성
지자체 산하기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공동 연구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정부 산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판로지원
기업	이베이코리아	판로지원 (창업진흥원과 협약)
정부 산하기관	특허정보원	특허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 및 판로지원
정부 출연(연)	한국기계연구원	유망기술 발굴 및 공동 연구
기업	포스코	유망기술 발굴 및 공동 연구
공기업	한전 전력연구원	유망기술 발굴



[그림 28] 대전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대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대전지역은 정부와 SK가 힘을 합해 '대전커넥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커넥트'는 기관이나 기업별로 흩어져 있던 혁신역량을 하나의 사슬로 연결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시스템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SK와 대전시는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SK 계열사와 연결시켜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⁵⁴⁾

대전 지역은 연구개발 역량, 교육환경 등 잠재 가능성이 크지만 창업활동, 벤처문화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의 산학연이 각각 가진 역량을 결집하는 대전커넥트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커넥트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SK 등 기업과 카이스트(KAIST) 등 교육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45곳이 다자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대전커넥트는 기업가 양성, 시제품 및 창업, 기술사업화, 기술투·융자 등 4개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기업가 양성은 KAIST·충남대·한밭대 등 교육기관이 담당해 2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54) 서울경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커넥트 프로젝트 통해 중소·벤처 맞춤형 지원', 2014년 10월 10일자

표준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은 1,000건의 시제품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재단과 중소기업청 등이 기술사업화에 1,500억원을 지원하며, SK 등 대기업은 1,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투자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대전커넥트가 활성화될 경우 중앙부처 위주의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패키지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기관별 중복투자가 감소, 건수 위주의 정책 방향보다는 일자리·중소기업 육성 등 실제 가치창출에 집중하는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⁵⁵⁾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또한 대전지역은 정부 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아이디어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보이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충남 지역 8개 대학(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중부대, 충남대, 카이스트, 한밭대)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⁵⁶⁾ 지역 소재 으뜸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 희망자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으며, 산·학·간 창업 컨설팅 및 창업 자금 지원 등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그 외 '대전테크노파크-충남대', '대덕연구개발특구-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대전 경제통상진흥원-한남대'등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가 '성공-창업기업 멘토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4년도 5월 성공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멘토링 지원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멘토링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⁵⁷⁾ 창업 진흥원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창업기업의 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된 창업기업이 제품 개발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판매할 곳'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⁵⁸⁾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KB국민은행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창업지원 펀드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외부 창업전문 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⁹⁾

55) 아시아경제, 2014.10.10., "정부-SK, 대전에 '창조경제 커넥트' 가동

56) 뉴스1, 2013.03.20.,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본부, 8개 대학과 창업 활성화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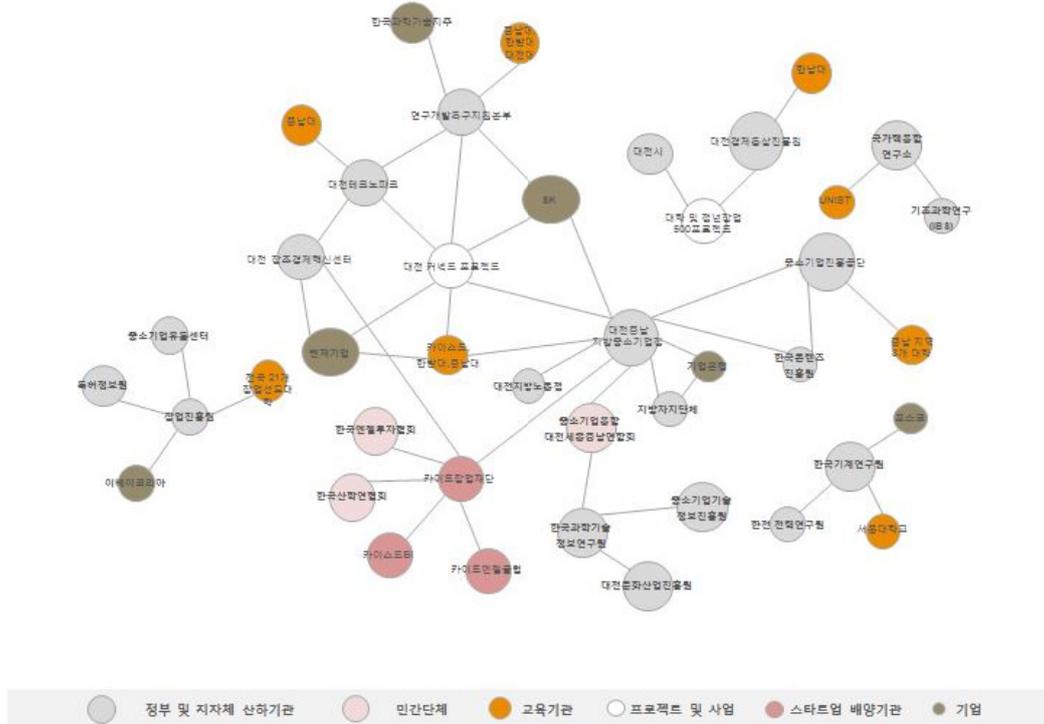
57) 충청투데이, '대전충남중기청·중기융합연합회 성공·창업기업 멘토링 홈페이지 오픈', 2014년 5월 8일자

58) 이투데이, '중소기업유통센터·창업진흥원, 창업기업 판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4년8월 24일자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그림 29]와 같이 대전지역의 혁신 생태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비영리단체, 대학 등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기업과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후원과 공동 참여가 대전 혁신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배양기관으로서 국내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인 카이트창업재단이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팀을 선발, 투자-R&D-창업보육을 일괄 지원하여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며, 혁신기술창업가를 선발하여 KAIST BI에 입주 후 집중보육 및 연구 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스타트업 배양기관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은 특히 정부 산하기관인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대전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를 주축으로 민간단체, 금융기관, 대학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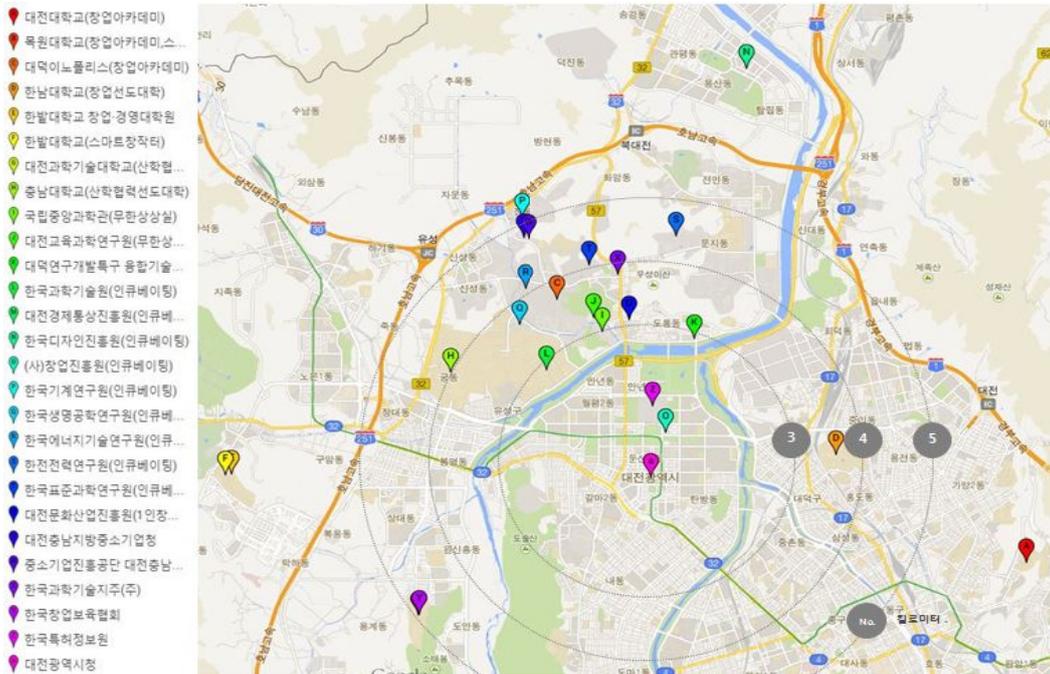


[그림 29] 대전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59) 미디어펜, 'KB국민은행, 중소기업 지원...“국민행복 시대” 적극 동참’, 2014년 3월 26일자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대전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88>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6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30]과 같다.



[그림 30] 대전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대전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을 주축으로 연계하여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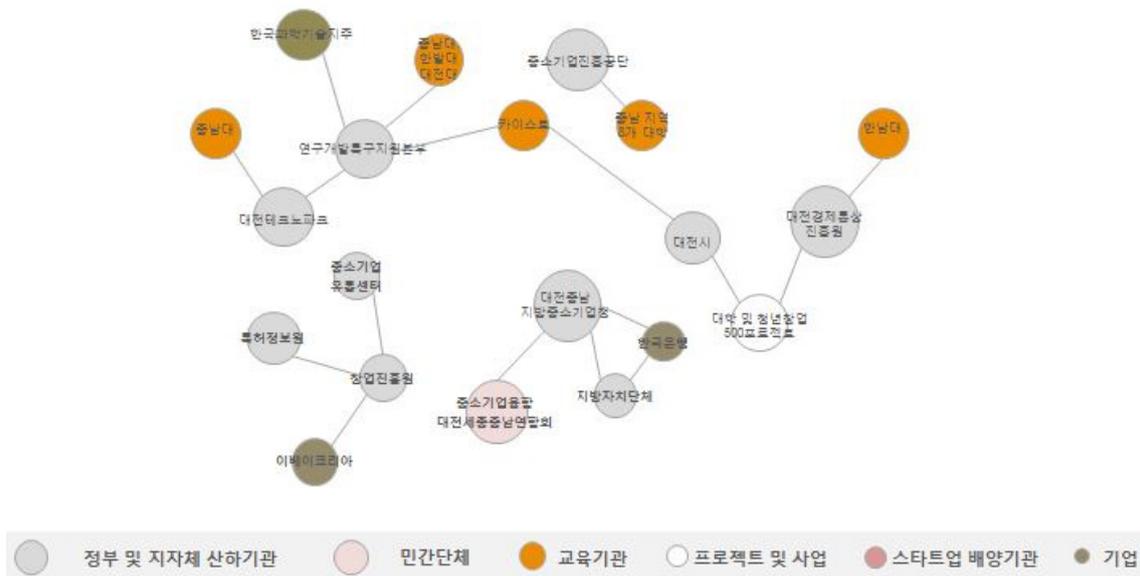
대전은 각종 연구기관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최적의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전은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창업지원 프로젝트 시행중에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대학창업 기업가 및 청년창업 기업가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를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금과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후속지원, 전

문가를 통한 분야별 멘토링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매년 100개 이상의 업체를 선발하여 249개의 창업기업을 탄생시켜 70%에 가까운 창업성공률을 보이고 있다.⁶⁰⁾

대전지역은 정부산하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결성을 보였는데, ‘대전경제통상진흥원-한남대’, ‘대전테크노파크-충남대’, ‘대덕연구개발특구-충남대, 한밭대, 대전대’등이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디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창업진흥원과 이베이코리아가 협약을 맺고, 창업기업 우수 제품 발굴 및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와 관측으로 창업기업들의 난제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⁶¹⁾ 금융기관인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와, 지방자치단체(대주시, 충남도) 및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금융지원과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지역 내 확대방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²⁾



[그림 31] 대전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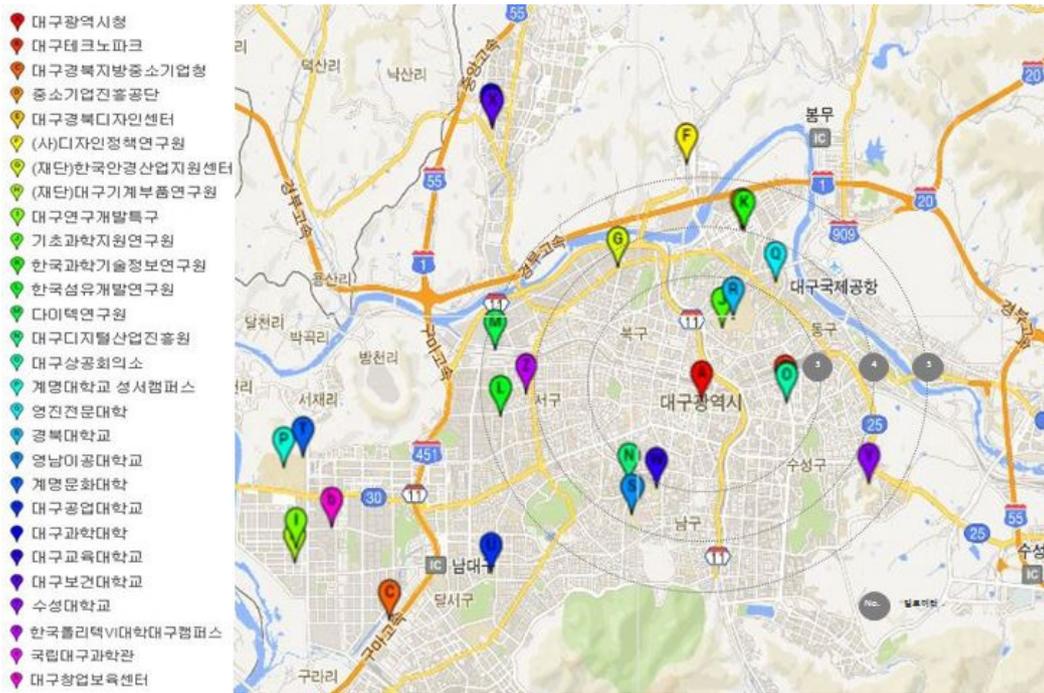
60) 대전투데이, ‘대전시, ‘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 예비창업자 본격 지원’, 2015년 1월 28일자
 61) 이투데이, ‘창업진흥원-이베이코리아, ‘창업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4년 12월 11일자
 62) 대전투데이,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 개최’, 2014년 8월 26일자

4) 대구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대구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89>와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표 89> 대구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지방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민간기관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창업 지원, 특허출원 지원, 컨설팅
정부 산하기관	대구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 사업화, 멘토링
지자체 산하기관	대구테크노파크	기술 사업화
정부 산하기관	국립대구과학관	인재 양성, 공동 개발 및 지원
대학	계명문화대학	산학협력
대학	경북대학교	시작품제작터 운영
민간단체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	창업기업 개발기술 해외현지화 지원
정부 산하기관	한국항공공사 대구지사	창조기업 우수제품 전시
정부 산하기관	경북지방우정청	판매채널 제공, 사무공간 지원
민간단체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판매채널 제공, 사무공간 지원
민간단체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멘토링
대학	계명대학교	현장실습 및 청년인턴 활용제도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업체 대상)
민간단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기업	삼성	창업 자금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앱 개발센터 상호교류
정부 산하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인력 양성
지자체 산하기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공동 연구, 인력, 정보, 설비, 기술자료 공유
정부 산하기관	대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공기술 발굴 및 이전 우수기술 사업화,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구은행	우수기술 사업화, 투자유치
민간단체	벤처캐피탈협회	국내 외 벤처캐피탈 연결
정부 산하기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인력 양성
지자체 산하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자체	대구 중구청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기업	네이버	마케팅 및 홍보 기회 제공
대학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기업	(주) 창의공간, 창공과학관	인재 양성, 공동 개발 및 지원



[그림 32] 대구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대구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대구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부 산하기관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대구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가장 활발한 연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테크노파크는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협약을 맺고,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KERI 보유 기술의 기술이전과 조기사업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⁶³⁾ 또한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연구개발특구, 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에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발굴·이전, 투자촉진, 우수기술을 사업화 할 기업을 발굴하여, 유망기업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술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다.⁶⁴⁾

63) 뉴시스 경남, '한국전기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 업무협약', 2013년 12월 28일자

64) 헤럴드뉴스, 2014.12.15. '대구은행, 지역 벤처기업 활성화 MOU체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디자인-설계-Mock up(목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제품제작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산학협력 형식으로 시제품제작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셀프제작소”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나 창업자 누구나 무료로 장비, 공구, 작업공간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구축장비와 경북대학교에 축적된 기술력을 개방하고 중소기업, 예비 및 초기 창업자가 원하는 제품을 설계부터 시제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산학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⁶⁵⁾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과는 창업기업 개발기술 해외현지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해외 국가 및 시장별 수요특성에 맞도록 최적화를 지원하고, 대구경북 지역 8개 대학(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영남대)과 ‘대학창업 공동아카데미’를 협약하였다. 이는 대학과 산학, 지역이 결합한 협업모델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유래 없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창업 공동아카데미’는 담당 멘토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사무실 등의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⁶⁶⁾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대구지역은 정부산하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연결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은 창업초기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해외 국가 및 시장별 수요특성에 맞도록 최적화(R&BD)를 지원하는 「창업기업 개발기술 해외현지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는 지역 청년창업자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청년창업자 멘토-멘티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창업자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밝혔다.⁶⁷⁾

또한 우수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 그 예로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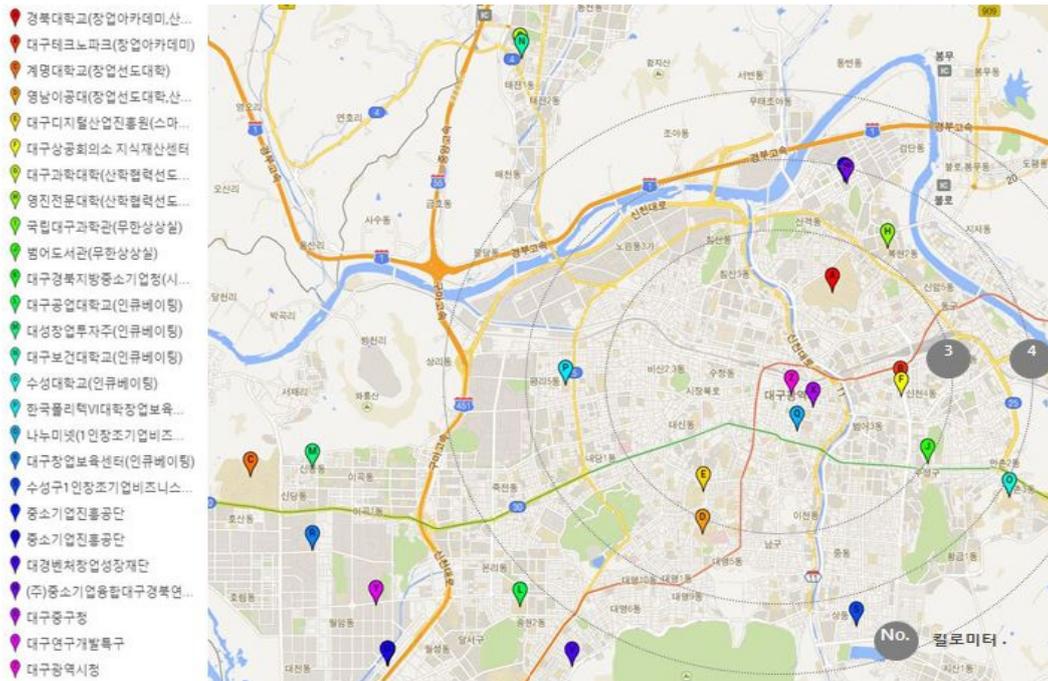
65) 노컷뉴스, ‘시제품 제작터…비용 절감 등 큰 도움’, 2014년 7월 10일자

66) 영남일보, ‘대구권 대학 공동 창업교육…소속 구분 없이 “학점 인정”’, 2014년 2월 7일자

67) 매일신문, 2013.10.24. ‘중진공 청년창업자 멘토 멘티 협약’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대구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89>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2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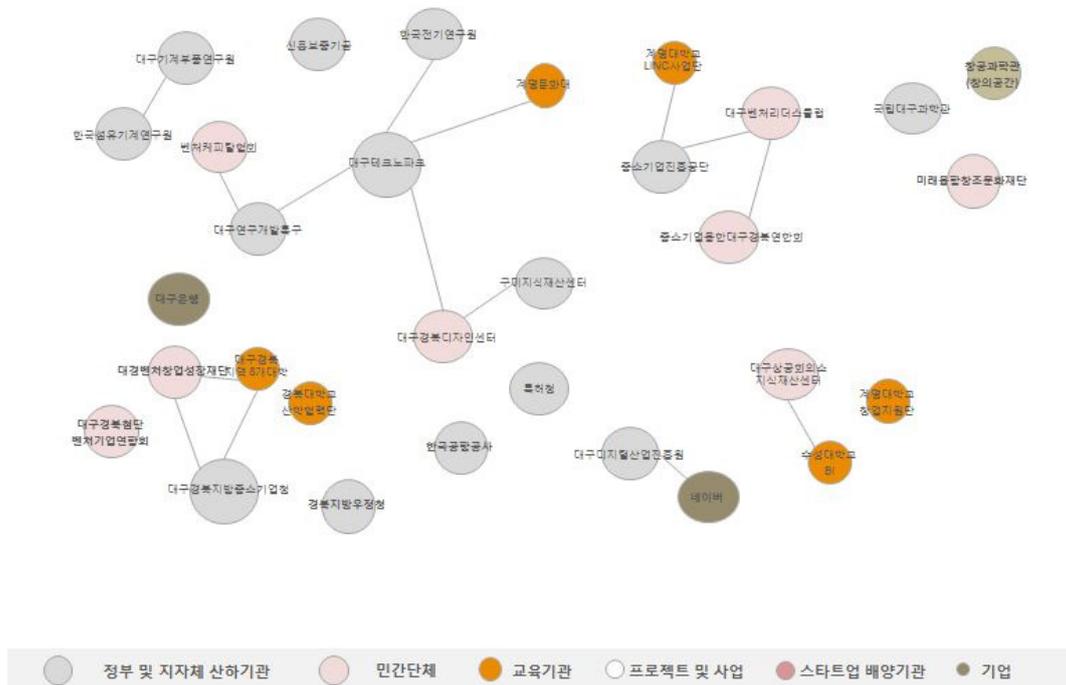
[그림 34] 대구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대구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이 실질적으로 서로 협약관계를 갖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사하기관을 주축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지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주체들의 연결성이 아닌 정부기관간의 연결성을 보이며, 단순히 일대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먼저, 대구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이 벤처육성 프로그램인 C-Lab(Creative Lab)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의 후원으로 벤처창업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으며, 우수 창업 및 벤처기업을 선발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창업 육성프로그램인 C-Lab 엑셀레이터와 법률, 회계, 세무, 특허, 창업과 관련된 강의 및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구 중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창의적인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이 IT(정보기술), CT(문화기술), 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활동비, 창업 공간, 사무기기, 맞춤형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⁶⁹⁾

또한 대구지역은 정부산하기관과 고등교육기관, 민간단체와 고등교육기관간이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상공회의소-계명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고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과 우수 창업 아이디어 보유자의 창업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⁷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계명대학교 LINC사업단'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청년인턴 활용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사업 초기 청년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창업 생존율을 높이면서 대학생을 청년창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림 35] 대구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69) 뉴스타운, 2015.01.23. '대구 중구청,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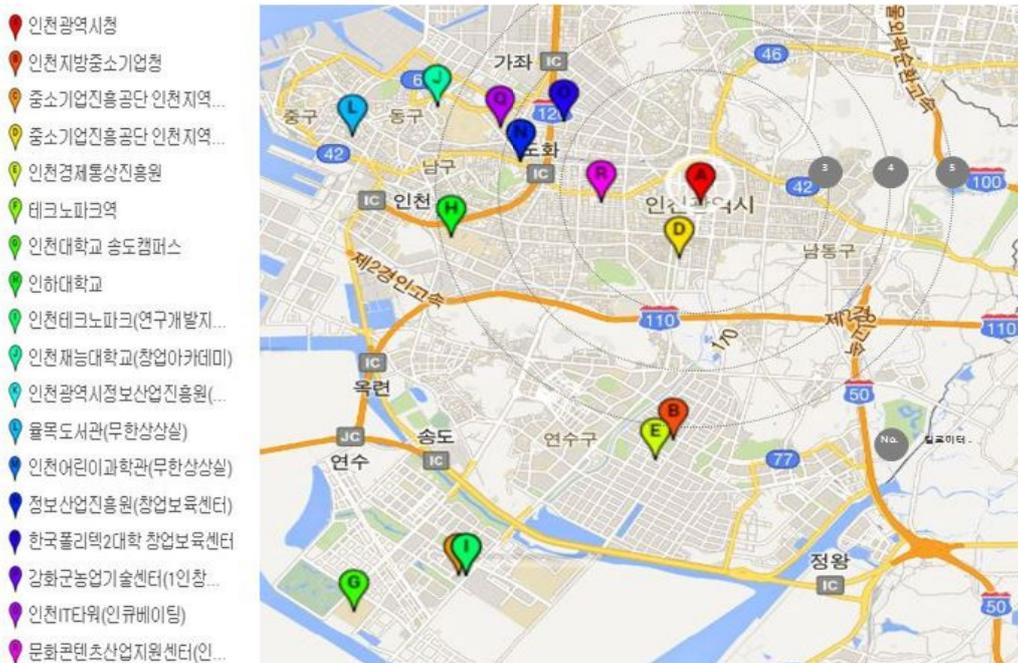
70) 대구일보, 2014.11.10. '대구상의-계명대 기술창업 활성화 합심'

5) 인천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인천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0>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36]과 같다.

<표 90> 인천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지자체	인천광역시청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기업	포스코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기업	(주)계일인터내셔널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중앙행정기관(지방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 활성화 지원
정부 산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교류 활성화, 판로지원
정부 산하기관	인천중소기업진흥공단	유망 창업기업 발굴, 멘토링, 및 컨설팅
지자체 산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시설 및 장비 공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대학	인하대학교 기업가센터	기업가정신 고취 교육, 기술사업화 포럼, 멘토링 등
정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가정신 고취 교육, 기술사업화 포럼, 멘토링 등
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멘토링
대학	한국폴리텍 II대학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창업자 발굴, 산학협력
대학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기업-인력 연결, 창업자금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산하기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우수 신규 창업자 발굴, 제품판로
지자체 산하기관	JST(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 교육, 창업 공간제공 및 자금 지원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술 사업화 금융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컨설팅, 투자 생태계 조성
민간단체	인천창업보육센터협의회	투자 생태계 조성



[그림 36] 인천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인천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먼저 인천지역은 정부산하기관들 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남동발전(주)과 공동으로 기술교류 활성화와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글로벌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술력을 가진 벤처 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협소한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외 홍보, 마케팅, 법률, 특허, 회계,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더불어 글로벌 벤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⁷¹⁾ 또한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인천창업보육센터는 공동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VC·엔젤 투자유치 전략교육」을 개최하여 투자를 받고자 하는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벤처·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⁷²⁾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먼저 인천지역은 정부산하기관들과 고등교육기관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하대학교 기업가센터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주최하여, 학생 창업자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지역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기업금융상담과 소공인 대상 전문가 상담인 소공인 테크마켓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포럼 진행, 상생협력 설명회, 멘토링 등 다채로운 기업가 행사를 지원하였다.⁷³⁾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는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취업, 창업멘토링 행사도 함께 개최해 중진공 직원들이 인하공전 학생들에게 취업과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대학 간 기술협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인천시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협약하였다.⁷⁴⁾

71) tvreport,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2013년 10월 9일자

72) 아주경제, ‘교육에서 투자까지’, 인천지역 벤처 엔젤 투자 생태계 조성, 2014년 9월 17일자

73) 매일일보, 인하대 “인천 기업가 축제 한마당”, 2014년 11월 27일자

74) 국제뉴스,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하공전과 업무협약’, 2014년 4월 29일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는 한국폴리텍 II대학, 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와 산·학·관 협약을 맺고,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창업 희망 졸업 예정자를 발굴·육성 등 산·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⁷⁵⁾ 또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지역 내 으뜸기업을 발굴해 대학 우수 인력을 연결하고, 청년층의 창업활동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발굴 및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었으며, 지역 내 창업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우수 청년 창업자를 공동 발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공동 창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⁷⁶⁾

그 밖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제품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⁷⁷⁾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역 유망 창업 기업과 건전한 엔젤투자자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투자유치 세미나를 개최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엔젤투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신규 엔젤투자자로 모집해 투자 방법, 투자 선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엔젤투자층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⁷⁸⁾

다) 기업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2013년도 포스코는 인천 송도에서 제5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하고, 인천시청, 게일인터내셔널과 함께 인천지역 벤처산업의 자립 생태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포스코 벤처지원 프로그램은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에서부터 엔젤투자 및 사후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로 포스코 벤처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돼 10주간의 심화멘토링을 받았던 14개 기업들은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청중들이 직접 가상투자도 진행했다. 향후 이들 기업은 포스코와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게 되며, 포스코는 인천시와 송도와의 협력을 통해 벤처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⁷⁹⁾

75) 시민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 한국폴리텍 II대와 협력체계 구축', 2013년 10월 16일자

76) 기호일보, '인천대 창업지원단-중기진흥공, 일자리 지원 협약', 2013년 6월 1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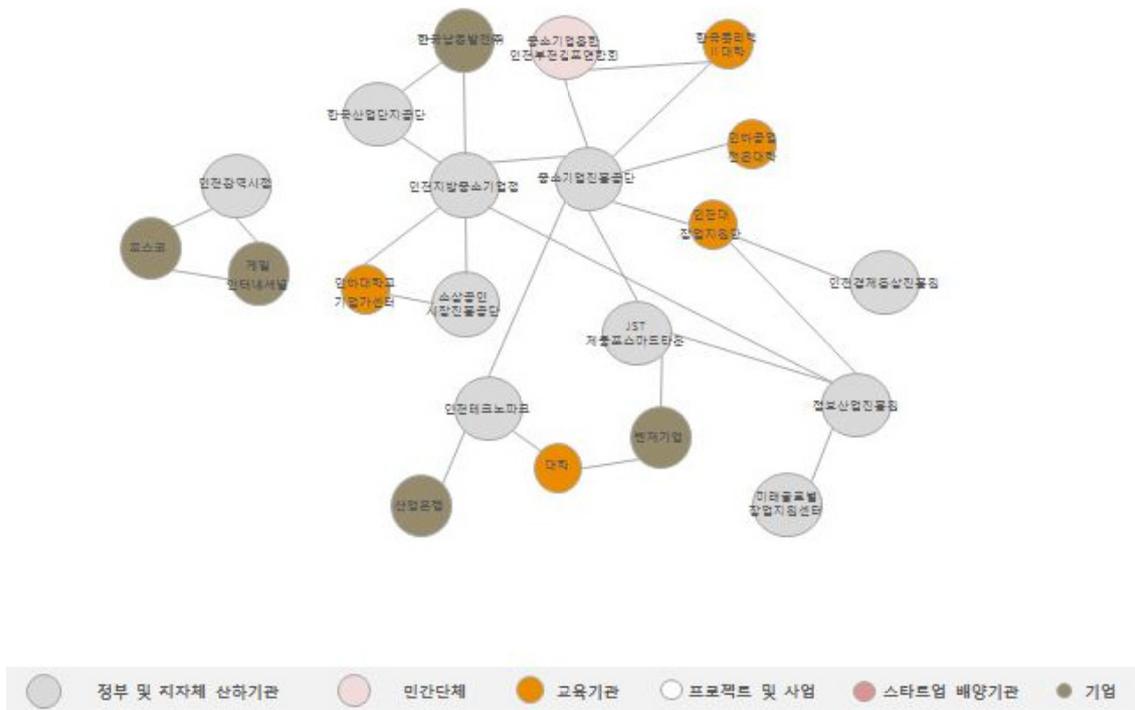
77) 머니투데이뉴스, '인천대-인천경제통상진흥원 "창업 제품 판매 지원"', 2013년 2월 15일자

78) 경인일보, '인천대 창업지원단등 '엔젤투자생태계' 조성', 2014년 4월 18일

79)조선비즈, '포스코, 벤처기업 위한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개최', 2014년 9월 24일자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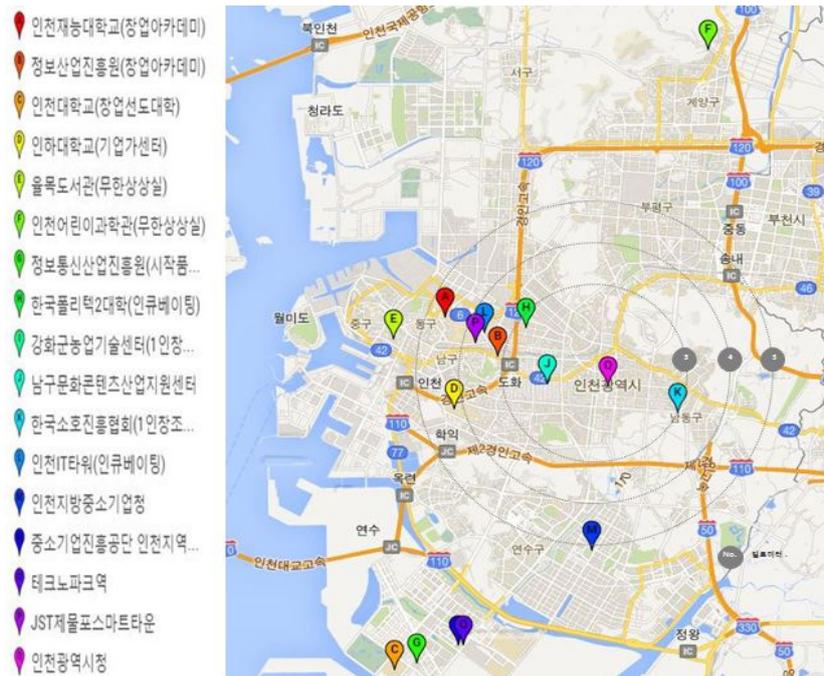
인천의 혁신 생태계는 정부 산하기관인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를 주축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주축으로 기업, 대학 등 참여 주체들이 함께 기술개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인천 소재 대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설명회 및 멘토링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을하기로 약속하는 등 가장 활발한 연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민간단체 및 금융기관과의 연결성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인천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이 중 인천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0>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0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3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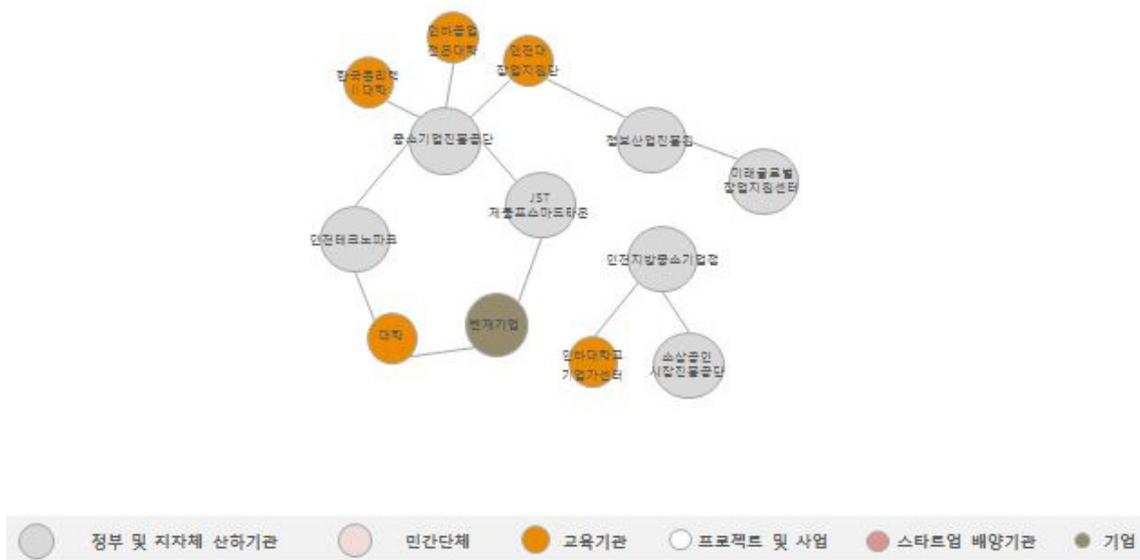
[그림 38] 인천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인천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39]와 같이 실질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산하기관과 대학을 주축으로 연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단체,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시는 지자체산하기관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중심으로 각종 벤처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성장산업에 뛰어들 벤처기업들은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스마트 창작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JST 창업스쿨, JST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무료 교육, 창업 공간제공 및 자금 등 창업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벤처기업이 JST에 입주하면 정보산업진흥원이 근접 지원하고, 대학과 함께 연구 개발에 나서는 형태로 운영되며, 인천테크노파크에 걸쳐있는 지식정보산업단지, 바

이오단지, TP확대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연세대, 뉴욕주립대 등이 사업 대상이 되고 있다.⁸⁰⁾

인천 지역은 특히 정부산하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인하대 기업가센터’는 기업가정신 고취 및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⁸¹⁾ ‘중소기업진흥공단인천 지역본부-한국폴리텍 II 대학-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는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창업기업 발굴,⁸²⁾ ‘중소기업진흥공단-인하공업전문대학’은 창업멘토링 행사 개최,⁸²⁾ ‘중소기업진흥공단-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엔젤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유망 창업 기업과 건전한 엔젤투자자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림 39] 인천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80) 인천일보, ‘SW 융합 클러스터’ 사업지역 송도·제물포 ‘경제자유구역·JST’ 강점, 2014년 7월 4일자

81) 매일일보, ‘인하대“인천 기업가 축제 한마당”’, 2014년 11월 2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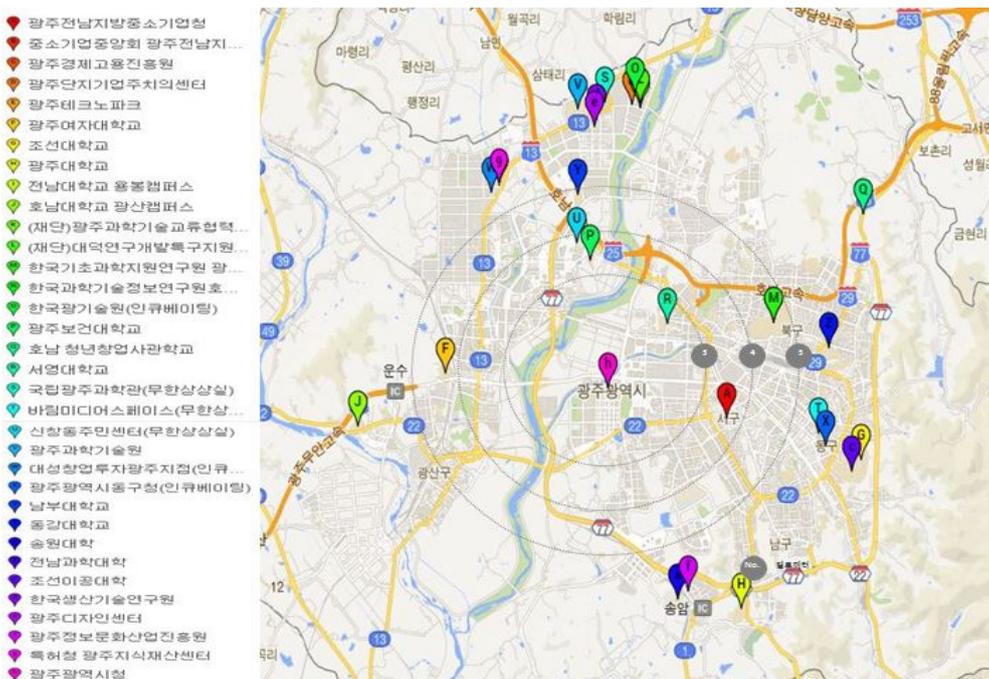
82) 국제뉴스,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하공전과 업무협약’, 2014년 4월 29일자

6) 광주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광주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1>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40]과 같다.

<표 91> 광주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정부 산하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민간단체	광주NGO시민재단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지원
대학	광주대학교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지원
정부 산하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우수공공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기술창업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전남테크노파크	우수공공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기술창업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아이디어 발굴, 창업교육 및 컨설팅,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프라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식창업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창업터 운영
정부 산하단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지식창업 지원
국공립(연)	국립전파연구원	연구협력, 기술정보 교류
대학	조선대학교	연구협력, 기술정보 교류, 지식창업 지원
대학	전남대학교	지식창업 지원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금융지원
기업	광주MBC	모바일분야 창업활성화
정부 산하기관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금융지원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창업 지원
민간단체	중소기업융합회	멘토링



[그림 40] 광주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광주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2014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권 기술 공급의 허브(Hub) 및 기술창업·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공공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교류,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창업,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광주·전남의 비즈니스 교류협력 등과 관련하여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⁸³⁾ 광주시의 경우,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광주테크노파크는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가장 필요한 창업자금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발굴·지원하는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단계별 연계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⁸⁴⁾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또한 광주지역은 정부산하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결성이 나타났다. 조선대학교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과 ICT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연구협력 및 기술정보 교류,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교육, 우주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대학(원)생 현장실습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⁸⁵⁾ 또한 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 지식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발굴, 지식재산화, 창업교육 및 컨설팅,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프라지원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함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광주지역 지식창업 관련 6개 유관기관이 2013년 지식창업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다.⁸⁶⁾

83) 뉴스1, '광주연구개발특구,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2014년 10월 21일자

84) 이뉴스투데이, '광주테크노파크-신용보증기금, 창업자금해소 업무협약 체결', 2014년 4월 9일자

85) 전자신문 etnews, '조선대·국립전파연구원, ICT산업 발전 업무협약', 2015년 2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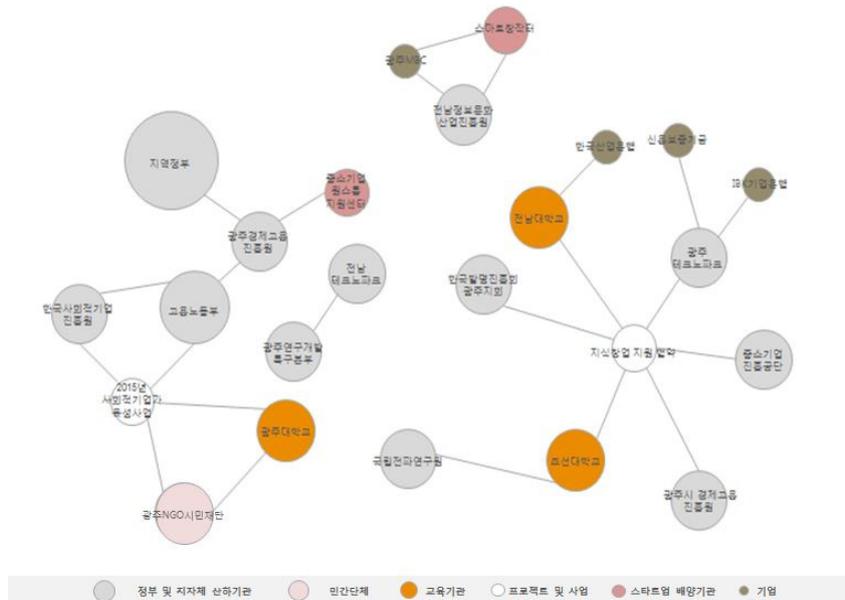
86) 뉴시스, '광주TP 등 6개 기관 지식창업 지원 협약', 2013년 3월 8일자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광주지역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남대는 한국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창업자금해소를 위해 2014년,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기업은행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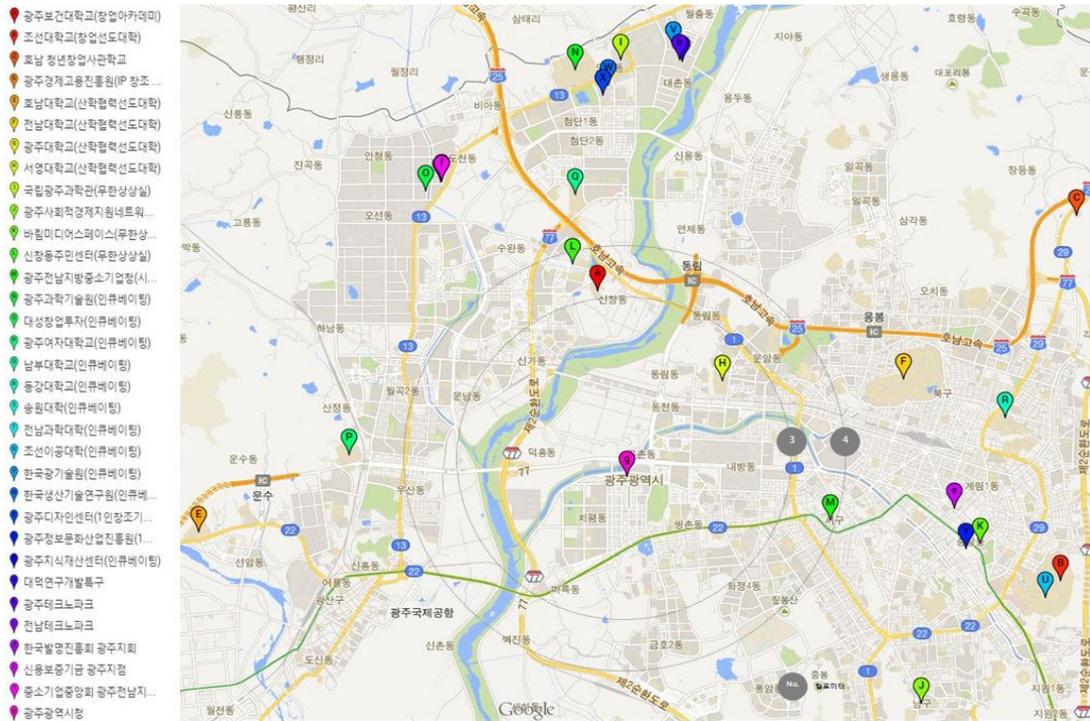
광주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들 간의 연계 활동, 대학과의 협업,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들 간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지역은 민간단체,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대는 민간단체인 광주NGO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광주·전남권역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예비창업자에게 사업비 및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밖에 민간단체가 참여한 혁신생태계 연결성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광주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이 중 광주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1>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3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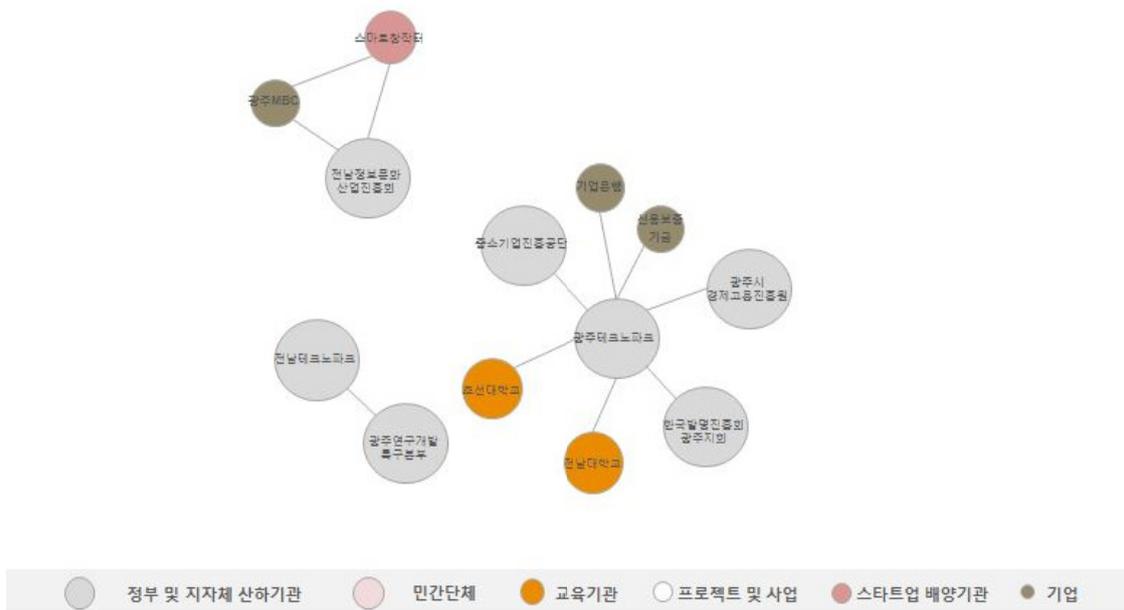
[그림 42] 광주지역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광주지역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이 정부 산하 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신용보증기금과 창업자금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에 있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단계별 연계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정보공유 등을 위해 양 기관 간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13년도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유관기관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주테크노파크는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조선대 창업지원단·전남대 창업보육센터 등과 선순환적인 지식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광주TP가 주관해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역 내 지식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연계하고 '아이디어 발굴 → 지식재산화 → 창업 → 사업화 → 마케팅' 지원의 전주기적 지

식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하기위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지식재산화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창업단계에서는 광주TP,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조선대 창업지원단, 전남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컨설팅 및 교육,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업안정화 단계에서는 광주TP를 중심으로 참여기관 전체가 마케팅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⁸⁷⁾

또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MBC는 모바일 분야 창업활성화 및 지역 모바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모바일 분야 우수 창업자 발굴 및 마케팅·사업화 지원,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 제작·유통, 방송서비스 등 비즈니스 플랫폼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방송·통신, 정보융합의 신사업 추진 등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에 힘쓰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창작터와 연계해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창업자 발굴을 통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⁸⁸⁾ 또한 광주테크노파크는 창업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자금조달, 투자유치, 공동 기획사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⁸⁹⁾



[그림 43] 광주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87) 뉴스1, '광주TP 등 6개 기관, 지식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맞손' ', 2013년 3월 7일자

88) 뉴스1,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MBC와 업무협약', 2014년 7월 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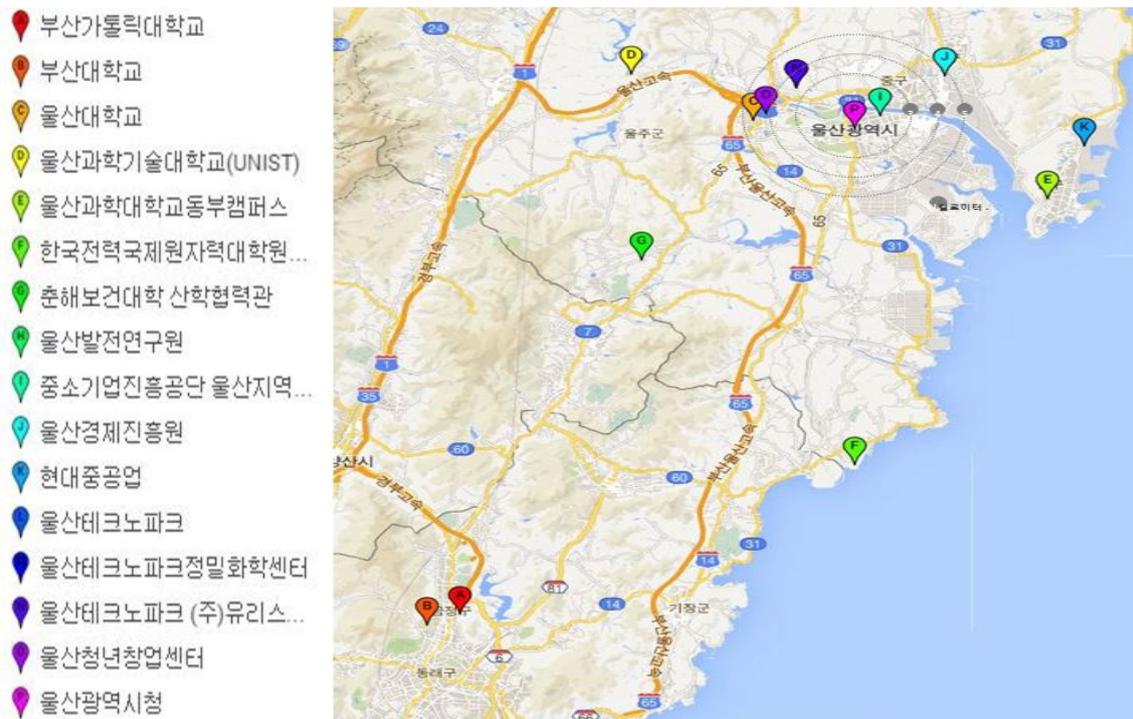
89) 전자신문 etnews,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은행 기업지원 맞손', 2014년 5월 22일자

7) 울산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울산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2>와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44]와 같다.

<표 92> 울산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지자체 산하기관	울산테크노파크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민간단체	울산벤처기업협회	인력양성
지자체 산하기관	울산발전연구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선정, 창업교육
지자체 산하기관	울산경제진흥원	지식재산(IP)신규 개발 및 이전, 사업화
정부 산하기관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본부	지식재산(IP)신규 개발 및 이전, 사업화
정부 산하기관	기술보증기금 영남본부	창업자금 지원
대학	울산대학교	멘토링
대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창업지원(싱가포르 경영대와 협약) 사업화 지원 인재양성
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인력 양성



[그림 44] 울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울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울산지역은 정부산하기관과 지자체산하기관 간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울산시는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울산발전연구원을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청년창업센터 내에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여 창업 사무실과 회의실, 사업비 및 각종 경영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⁹⁰⁾ 울산경제진흥원은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본부와 협업하여,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시행하였다. 협약의 지원 대상은 전문자격증이나 아이디어 또는 기술 지식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과 특허권이나 실용실안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IP)을 신규로 개발, 이전 및 사업화하거나 이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창조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⁹¹⁾

이밖에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배출한 창업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유망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울산시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⁹²⁾ 기술보증기금과 협약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을 돕겠다고 밝혔다.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울산대학교는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 함께 울산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입교생 등 예비창업자들이 선배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적인 성공 창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⁹³⁾ 또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산학협력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인재양성, 차세대 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이전, 창업보육에 관련한 상호간 업무협약을 하기로 약속하였다.⁹⁴⁾ 그 밖에 울산과학대학교는 울산벤처기업협회와 지역 벤처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 인턴십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해 울산과학대학교 재학생들의 활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⁹⁵⁾

90) 파이낸셜뉴스,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2014년 5월 11일자

91) 경상일보,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본부, 울산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 2014년 10월 27일자

92) 일요신문, '울산시,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본격 추진', 2015년 2월 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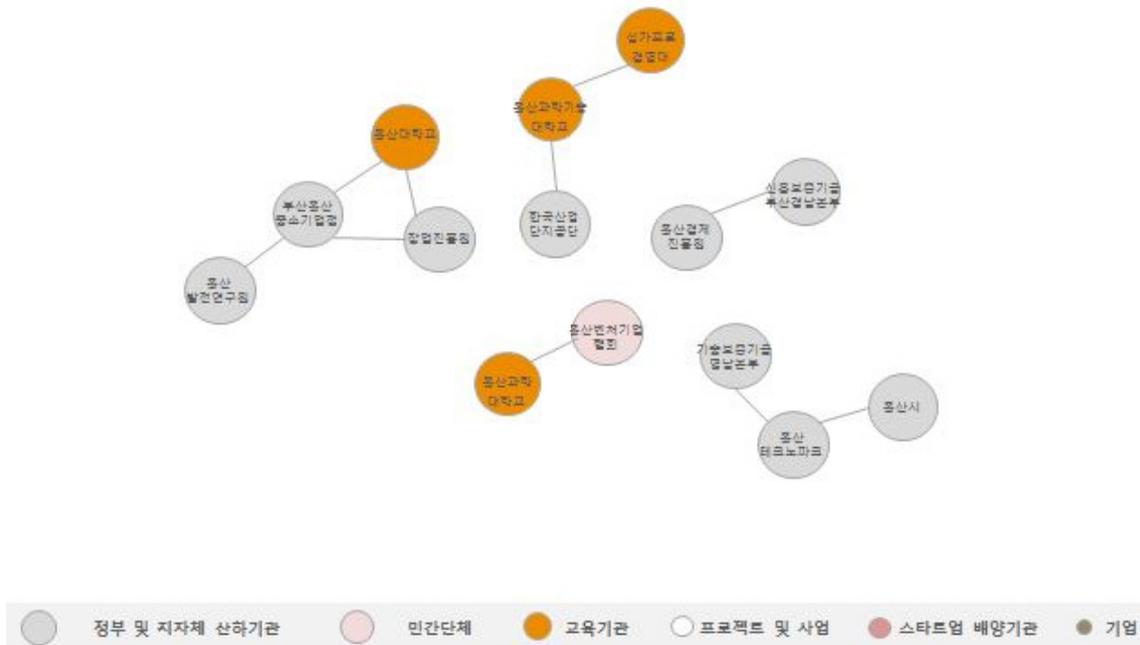
93) 아이도민, '울산대-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상상 콘서트', 2014년 12월 21일자

94) 디지털타임스, '산단공, 울산과학기술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2014년 5월 13일자

95) 뉴스1, '울산과학대-울산벤처기업협회, 산학협력 협약', 2014년 7월 24일자

다)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울산지역은 17개 시·도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혁신관련 조직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교류 및 협업 공간, 시제품 제작 등 창업지원 기능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역별 혁신 연결성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은 정부 산하기관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과 울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및 창업공간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산 소재의 대학과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협약을 통해 인재양성, 산학협력 공동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멘토링, 창업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스타트업배양기관, 민간단체,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울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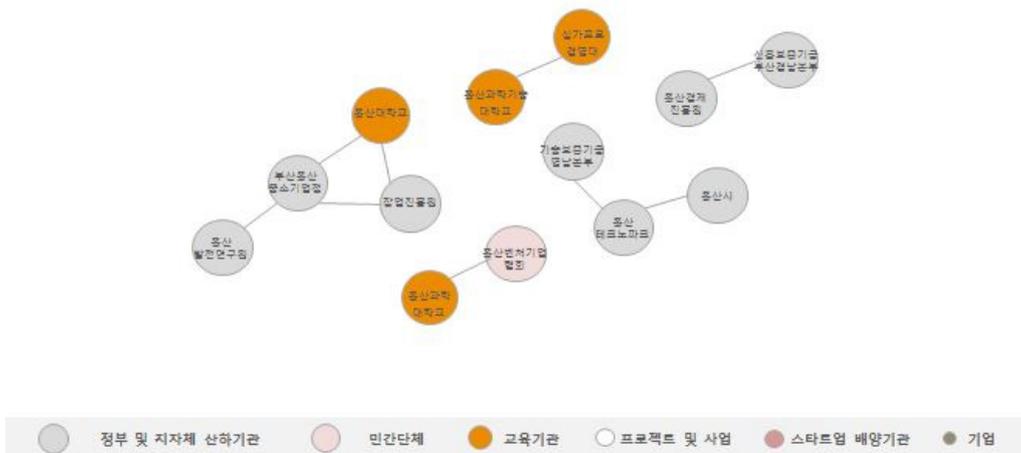
라)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울산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2>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울산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울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울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는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간의 연결성과,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결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부산중소기업청, 울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단체,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과의 생태계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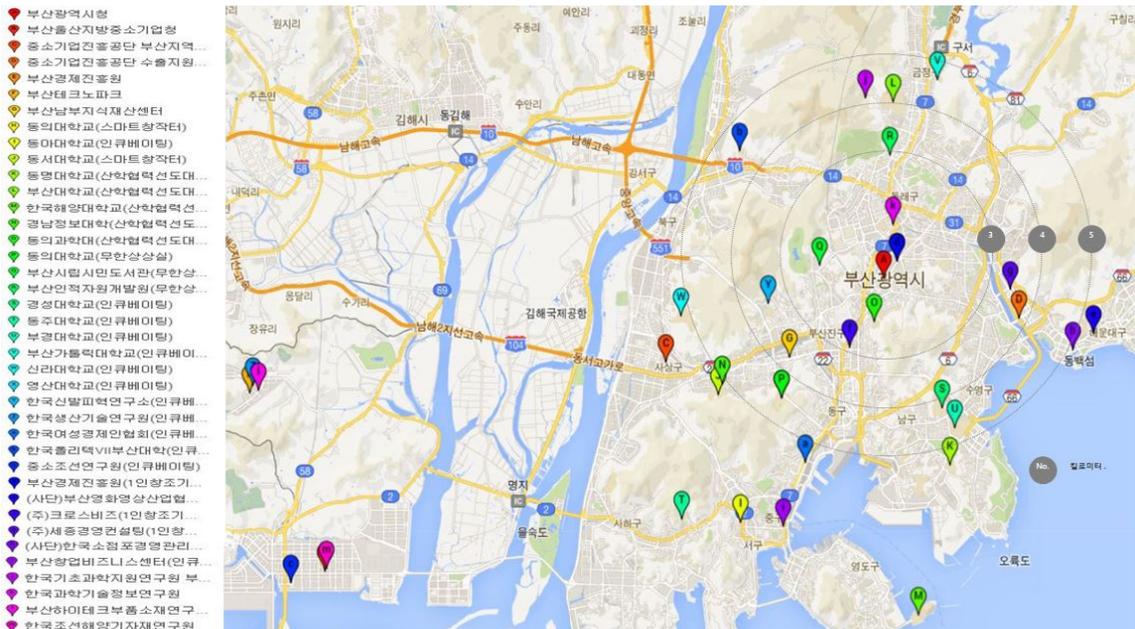
[그림 47] 울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8) 부산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부산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3>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48]과 같다.

<표 93> 부산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지방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 판로개척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창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산하기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제작
지자체 산하기관	부산경제진흥원	홍보 및 마케팅,
지자체 산하기관	부산테크노파크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민간단체	부산상공회의소	투자설명회,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
지자체 산하기관	부산관광공사	일자리창출
지자체 산하기관	부산디자인센터	일자리창출
지자체 산하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창업보육, 멘토링
대학	동아대학교	엑셀러레이팅, 멘토링 지원
금융기관	부산은행	청년창업 출자지원
중앙행정기관(지방청)	부산지방조달청	판로개척
대학	동명대학교	시제품제작
민간단체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창업지원
정부 산하기관	신용보증기금	창업자금 지원
민간단체	한국엔젤투자협회	지역 창업 활성화
민간단체	부산·울산 창업보육센터협의회	창업보육
금융기관	기업은행	금융지원, 기술 사업화 지원
대학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창업 교육
대학	부산대학교 LINC사업단	시제품제작 지원
기업	(주) DMS (3D 프린팅)	시제품제작 지원
대학	부경대학교	사무공간 지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그림 48] 부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부산지역은 부산시 산하 6개 경제 관련 기관(부산관광공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인적자원개발원)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약을 맺고 있다. 이들 6개 기관은 청년 구직자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창업자 공동관리와 지원 이력 공유, 청년 일자리 관련 통합 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역할로는 부산관광공사는 청년 창업가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이스(MICE) 전문인력,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러 등 관광산업 인력 양성에 나서며,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았고, 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 관련 창업보육 지원사업과 디자인 인력 양성, 취업 일선사업을 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특히 기술업체 창업과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융합 부품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은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과 부산형 착한기업 육성사업,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⁹⁶⁾

또한 지자체 산하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와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5년째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글로벌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홍보, 마케팅, 법률, 특허, 회계 투자 유치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 협약으로 초기 창업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글로벌 기업발굴과 창업지원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⁹⁷⁾

특히 부산지역의 혁신생태계는 정부 산하기관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 부산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기업, 대학, 금융기관,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조달청과 합동 추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구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 기관 대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약 하였다.⁹⁸⁾

96) 노컷뉴스,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부산 6개 기관 뭉친다’, 2014년 6월 24일자

97) 미디어잇,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부산경제진흥원과 업무 협약 체결’, 2013년 11월 27일자

98) 뉴시스, ‘부·울 지역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발판 마련’, 2014년 7월 24일자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와 주관하여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우수특허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가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 1:1 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 선도기업 채용박람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나) 교육기관과의 연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동아대학교와 부산은행과 협력하여 엑셀러레이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상자들은 상금 수상은 물론 이후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심화 엑셀러레이팅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수상자에 한해서는 부산은행의 청년창업 출자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 창업·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하고 있다.⁹⁹⁾ 또한 예비창업자 여름캠프를 개최하여 창업과정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전문 강사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 기술지주는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인 패스트트랙아시아와 협업하여 부산과 영남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초기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패스트캠퍼스X부산(FAST CAMPUS X Busan)'을 개최하였다.¹⁰⁰⁾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부산은행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 동아대학교와 협력하여 엑셀러레이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한해서 청년창업 출자지원을 함으로써 사업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또한 부산테크노파크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엔젤투자협회와 벤처 투자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하여 (예비)창업자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며, 한국엔젤투자협회와 협약하여 지역 창업 활성화와 벤처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 정보교류 포럼 및 IR 신청, 자료 공유 자문정보를 제공하는 단디벤처포럼을 결성하였다.¹⁰¹⁾

99) CNBNEWS, '부울중기청, 엑셀러레이팅 경진대회 12~13일 개최', 2014년 8월 1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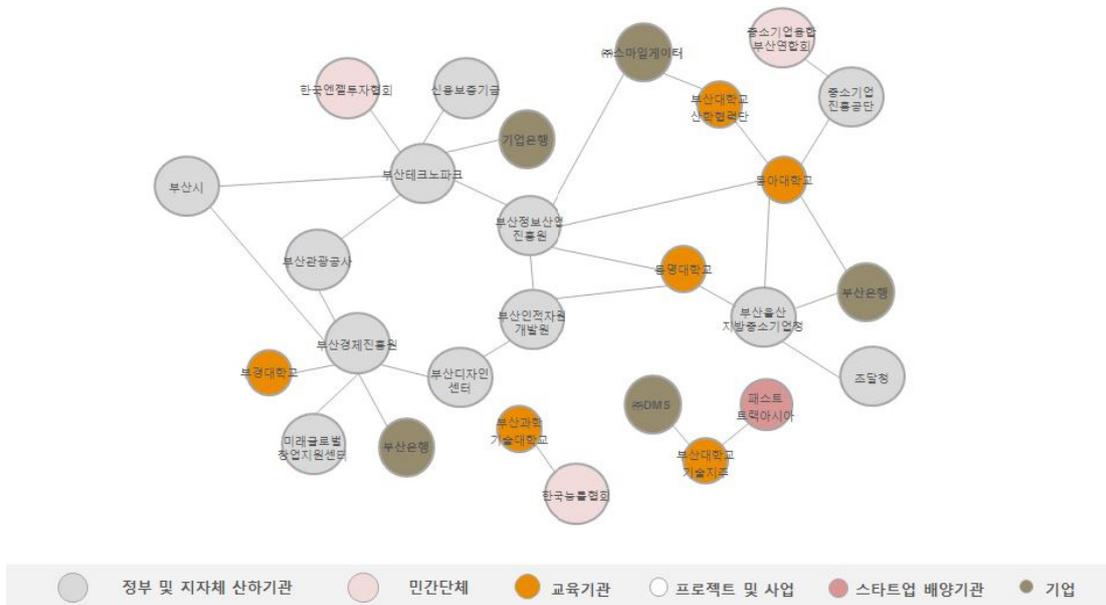
100) 아주경제, '패스트트랙아시아, 부산대학교 기술지주와 '패스트캠퍼스 X' 부산 개최', 2014년 6월 11일자

101) 연합뉴스, '단디벤처포럼 창립 1주년...벤처창업 활성화 기여', 2014년 6월 25일자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부산지역의 혁신생태계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주축으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부산하기관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조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와 엑셀러레이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산하기관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시와 우수특허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부산지역은 고등교육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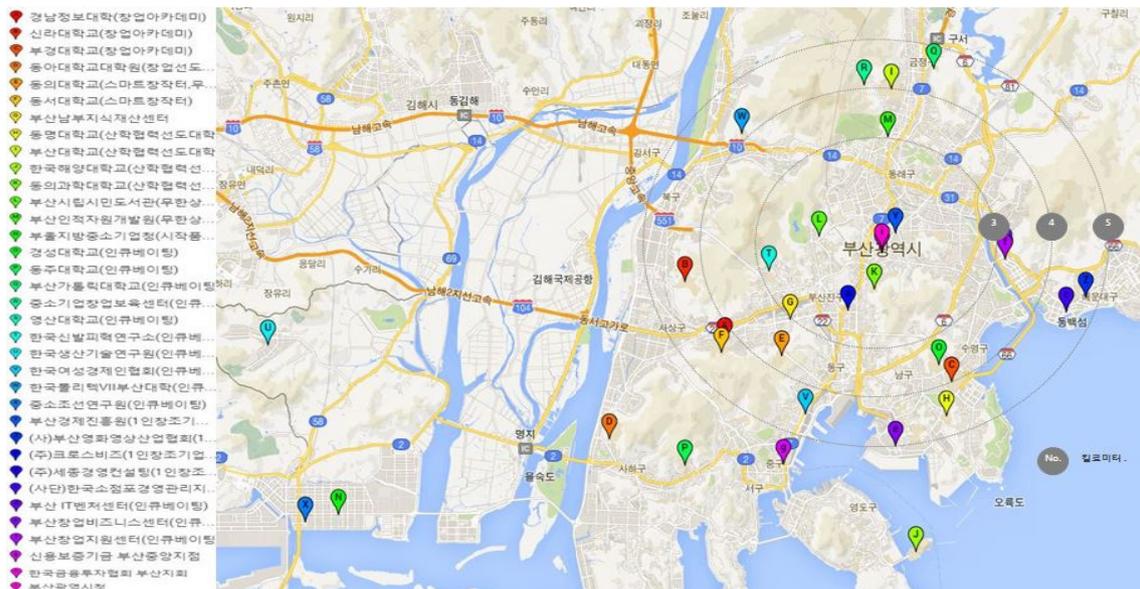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 민간단체도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을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부산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부산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3>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3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50]과 같다.



[그림 50] 부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부산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이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은 혁신 생태계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주로 정부산하기관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 대학을 주축으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도 연계하여 스타트업 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산지역의 부산·울산 창업보육센터협의회(BUBIA)는 부산 지역 창업보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BUBIA는 부산 소재의 15개의 대학과 3개의 연구기관(중소조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개의 기타기관(부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이노비즈센터)로 구성되어있다. 2000년에 결성된 BUBIA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0개의 센터에 418개의 기업이 입주해 1,181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112,109백만원(2013년도 누적기준)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특히 기업들은 해양, 항만, 조선 관련 산업분야, 해양환경 바이오 산업 등에 특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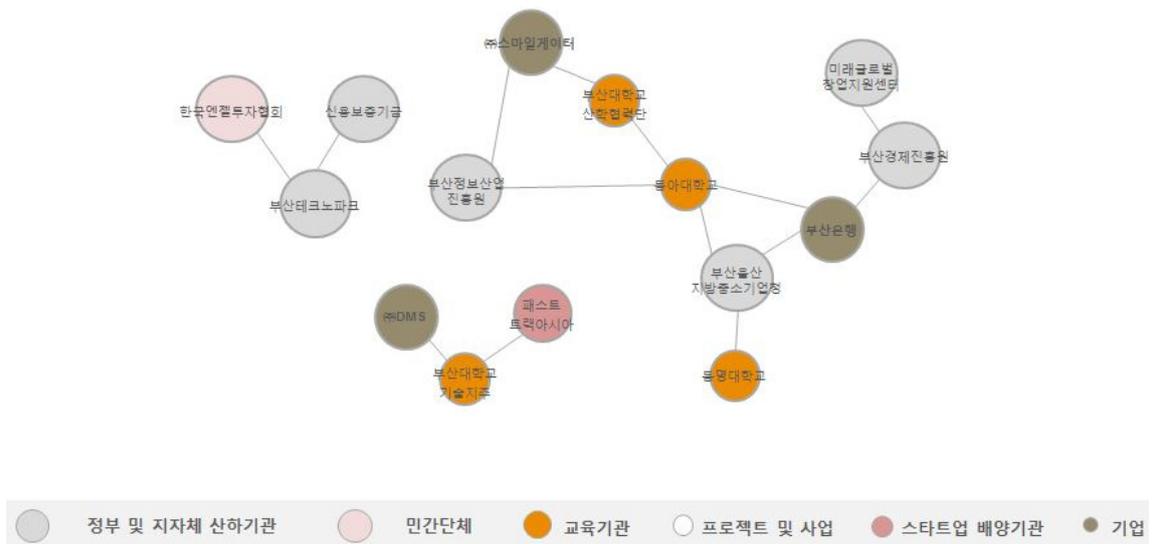
부산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금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이 나타났는데, 먼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동아대-부산은행’이 엑셀러레이팅 경진대회를 개최를 통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부산은행에서는 청년창업 출자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창업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 (주)스마일게이트와 부산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구

축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부산지역 내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분야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일게이트는 Start-Up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공간 구성과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하는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Start-Up 기업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협력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부산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3자 파트너십 구조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²⁾

부산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주축으로 활발한 스타트업지원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 부산테크노파크 등을 주축으로 민간단체, 대학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부산테크노파크-한국엔젤투자협회'가 협약하여, 지역 창업 활성화와 벤처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디벤처포럼 결성, '부산경제진흥원-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글로벌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동명대'는 시제품제작터(창작지원센터)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밖에 부산대학교 LINC사업단은 3D 프리팅을 활용한 부품제조전문업체인 (주)DMS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의형상제작센터를 개소해 지역의 기업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품 모델링, 출력 및 후처리 가공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창의형상제작센터는 교육을 통해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제품 제작도 부산대 LINC 사업단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⁰³⁾



[그림 51] 부산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02) 아크로팬, '스마일게이트, 부산 청년창업지원 위한 MOU 체결', 2013년 11월 1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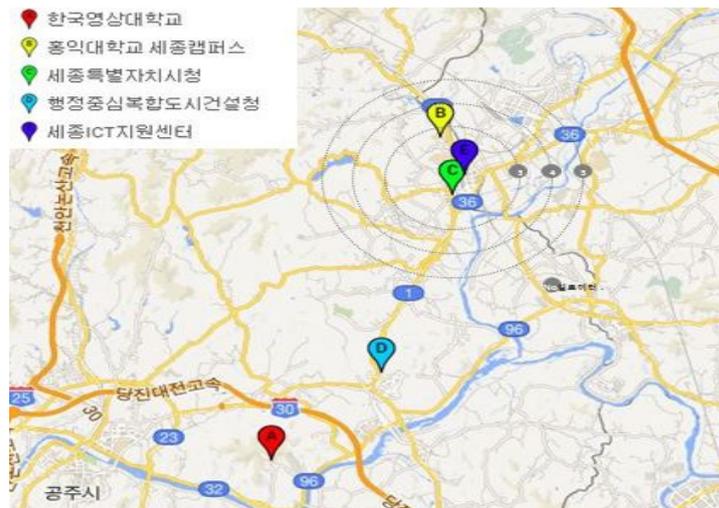
103) 부산일보, '부산대, 창의형상제작센터 개소', 2015년 2월 5일자

9) 세종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세종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4>와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52]와 같다.

<표 94> 세종지역의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지자체 산하기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시작품제작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세종ICT지원센터	창업교육
중앙행정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융지원
대학	한밭대	세종시 산학융합캠퍼스 구축 추진
대학	홍익대학교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기업	SK	기술지원
금융기관	우리은행	금융지원
정부산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멘토링



[그림 52] 세종지역의 혁신 생태계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세종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정부와 세종시, SK가 창조경제를 농촌에 구현하기 위해 ‘세종시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 기술로 농업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시범사업은 도농복합시인 세종시 농촌지역에 SK의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핵심역량을 집중시켜 6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립·성장을 실현하는 ‘잘사는 농촌’을 구현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¹⁰⁴⁾

104) 농민신문, ‘세종시·SK ‘창조마을 시범사업’ 가속도’, 2014년 11월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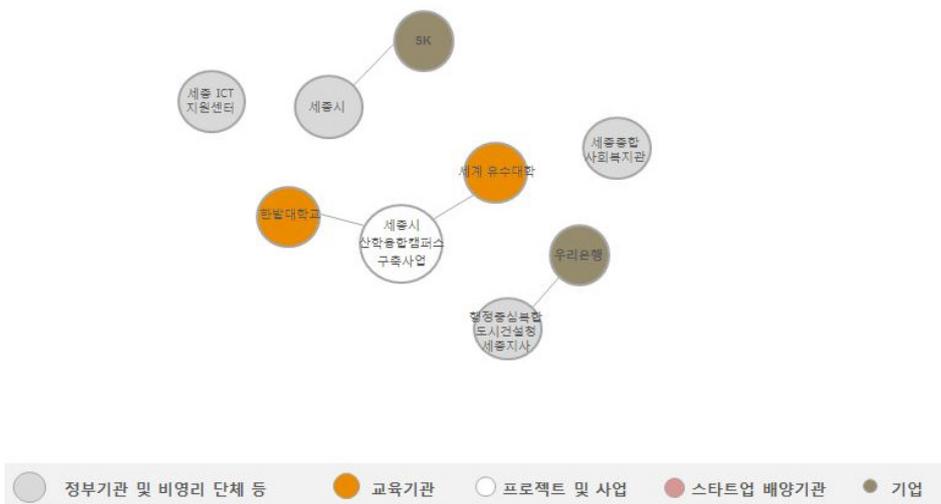
또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우리은행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우대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자금, 기술형 창업 기업경영자금, 청년창업 자금을 우대하기로 하였으며, 경영전략, 재무관리, 원가절감 등 경영컨설팅(consulting, 자문)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¹⁰⁵⁾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한밭대는 세계 우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에 산학융합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밭대는 이를 위해 2012년 행복청, 울릉공대학(호주), 마틴루터대(독일), 큐슈공대, 교토공대(일본) 등과 세종시에 약 16만㎡ 규모의 국제컨소시엄대학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대학원 기능의 차세대융합기술대학원과 연구소 기능의 국제R&D센터, 사업화 및 창업을 담당하는 R&BD사업화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첨단과학에 대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밭대는 앞으로 세종시 산학융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외국대학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개발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고,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¹⁰⁶⁾

다)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세종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정부이전에 따라 도시가 새롭게 생성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혁신 거점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53]과 같이 특히 세종의 혁신 거점으로 창업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 간의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세종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05) 정책브리핑, '세종시 입주기업 금융지원...우대금리 적용', 2014년 3월 26일자

106) 충청투데이, '세종시 산학융합캠퍼스 설립 박차', 2014년 2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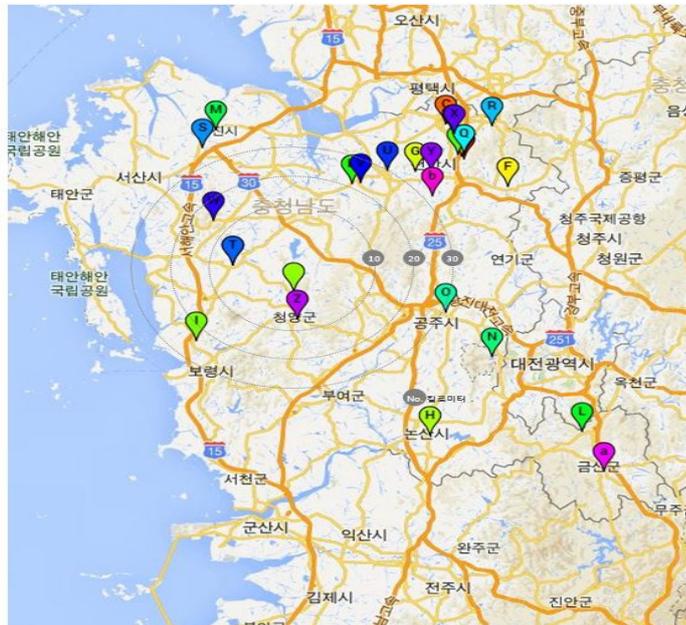
10) 충남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충남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5>와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54]와 같다.

<표 95> 충남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정부 산하기관	충남중소기업진흥공단	CEO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지자체 행정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창업교육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지원
민간단체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자체 산하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자체	당진시청	정보, 기술, 인력 등 자원 공동 활용,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정부 산하기관	기술보증기금	자금조달 애로해소
민간단체	충남벤처협회	벤처창업 활성화, 자금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충남테크노파크	자금지원, 창업공간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창업공간 지원
금융기관	우리은행	창업기업들에게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 (희망드림 프로젝트)
대학	순천향대학교	정보, 기술, 인력 등 자원 공동 활용,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학	중부대학교	창업교육 및 창업생태계활성화
대학	공주대학교	CEO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대학	건양대학교	창업공간 지원

- 홍서대학교 천안캠퍼스
- 백석문화대학교
- 남서울대학교
-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 청운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 건양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순천향대학교
- 중부대학교
- 달진도서관
- 청운문화재단
- 공주대학교 공주신관캠퍼스
- 충남테크노파크
- 백석대학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성대학교
- 청운대학교
- (재단)충청남도경제진흥원
- 한국폴리텍IV대학 아산캠퍼스
- 한서대학교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청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북부...
- 충남도립청양대학
- (재단)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림 54] 충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충남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충남경제진흥원은 기술보증기금 충청·호남지역본부와 성공창업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기술창업자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자금을 조달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남경제진흥원은 예비창업자에 대한 마케팅,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 사업화 지원을, 기술보증기금은 충남경제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통한 사전보증으로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¹⁰⁷⁾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당진시청은 순천향대학교와 관·학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적 협력사업 발굴과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 기술, 인력 등 자원 공동 활용,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동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¹⁰⁸⁾

또한 충남교육청은 건양대와 단국대, 대전대, 선문대 등 충청권 11개 대학과 '지역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확산사업의 상호 협력과 확산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기타 창조경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협력기로 하였다.¹⁰⁹⁾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충남벤처협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엔젤투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창업초기 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한 '충남엔젤투자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하였다. 충남지역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충남지역 내 창업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의 엔젤투자 지원정책 홍보와 충남 창업초기 투자자금 조성 예산편성, 지역 내 엔젤투자 생태계 구축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등 토대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¹⁰⁾

107) 충남일보, '예비기술 창업자 자금 조달 애로 해소', 2014년 6월 10일자

108) 디트NEWS24, '순천향대, 당진에 창업 거점센터 '운영'', 2014년 10월 20일자

109) 노컷뉴스, '충남교육청-충청권 11개 대학 '창업교육' 업무협약', 2014년 9월 25일자

110) 아시아투데이, '충남벤처협회, 충남엔젤투자 지원정책 설명회 성황리 개최', 2014년 11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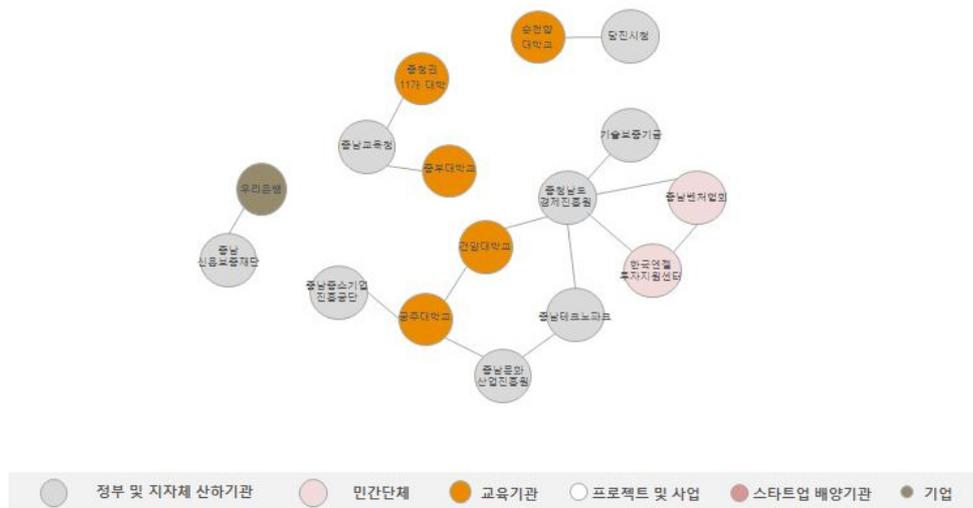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으로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동종업종 3인 이상 창업자모임인 ‘아름’에 대해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창업교육 및 마케팅 등 종합육성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우리은행은 도내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우수기업, 신규 전입기업, 창업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중소기업 통합 금융서비스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도 제공하기로 약속 하였다.¹¹¹⁾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충남의 혁신 생태계는 정부산하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지자체산하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을 주축으로 충남지역의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한 혁신거점기관의 다양한 연결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기관 및 대학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충남지역의 창업 투자자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지역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스타트업 배양기관, 기업, 민간단체의 참여와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지원 프로젝트 및 사업단위의 연결성이 부족한 것을 보인다. 특히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간, 또는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연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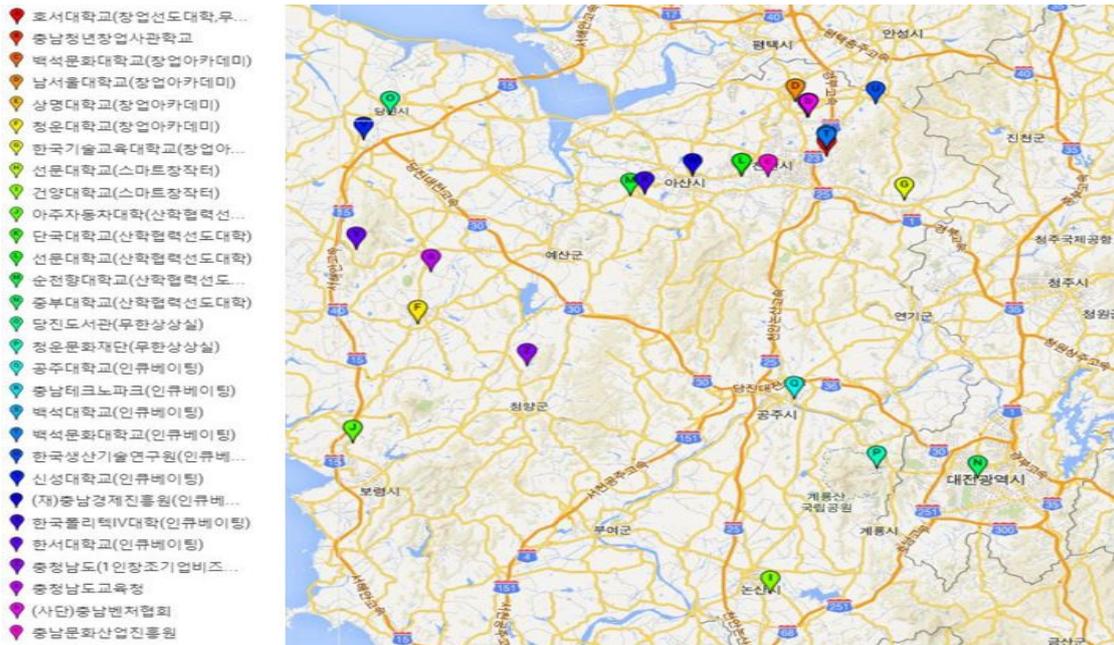


[그림 55] 충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11) 뉴스1, ‘우리은행, 충남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14년 10월 30일자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충남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5>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0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56]과 같다.



[그림 56] 충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충남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57]과 같이 실제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은 혁신 생태계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후원이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 연결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간과 업무 협약을 통한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로 충남경제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예비기술창업자를 공동지원하고 있으며,¹¹²⁾ 충남경제진흥원은 또한 충남벤처협회, 한국엔젤투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창업초기 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한 '충남엔젤투자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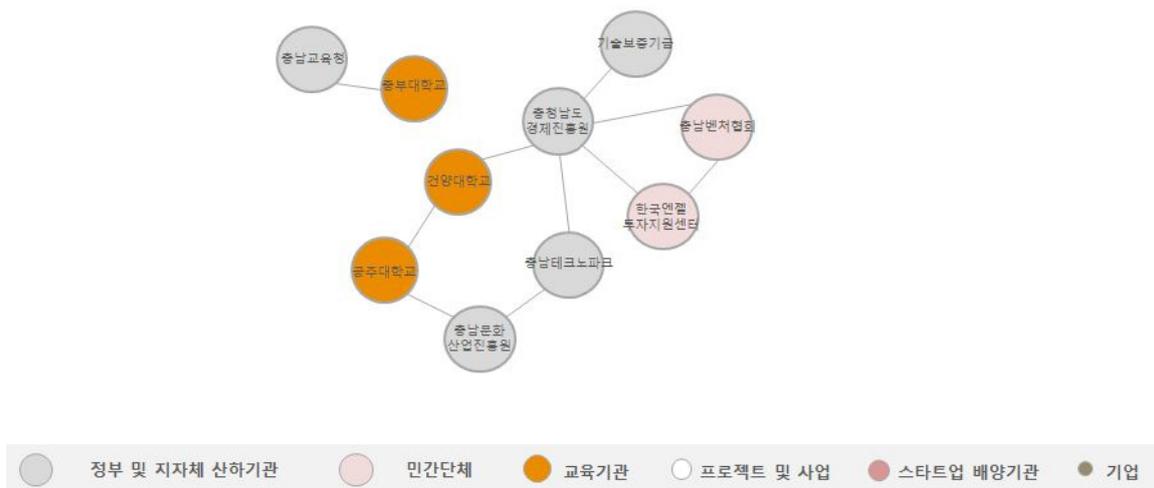
또한 정부행정기관과 교육기관과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을 보였는데, 충남교육청-중부대학교는 '지역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 협약'을

112) 세계일보, '충남경제진흥원, 예비기술 창업자 자금 조달 애로 해소', 2014년 6월 10일자

113) 아시아투데이, '충남벤처협회, 충남엔젤투자 지원정책 설명회 성황리 개최', 2014년 11월 6일자

체결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확산사업의 상호 협력과 확산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기타 창조경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 협력하기로 하였다.¹¹⁴⁾

또한 충청남도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CEO 500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이들을 포함해 461명이 참여해 청년 사업가로서 꿈을 키워오고 있다. 예비 청년창업자로 선발되면 창업절차 및 창업실무,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성공사례 등 창업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이수 후 충남경제진흥원 및 4곳의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주대학교, 건양대학교에서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구비된 창업공간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 경영, 마케팅, 특허 법률 등 전문적인 맞춤형 창업지원교육과 창업활동비, 또한 창업활동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과 교육 및 홍보 활동비를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¹¹⁵⁾



[그림 57] 충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114) 금강일보, '중부대, 창의인재 양성 통한 창업문화 확산 나서', 2014년 10월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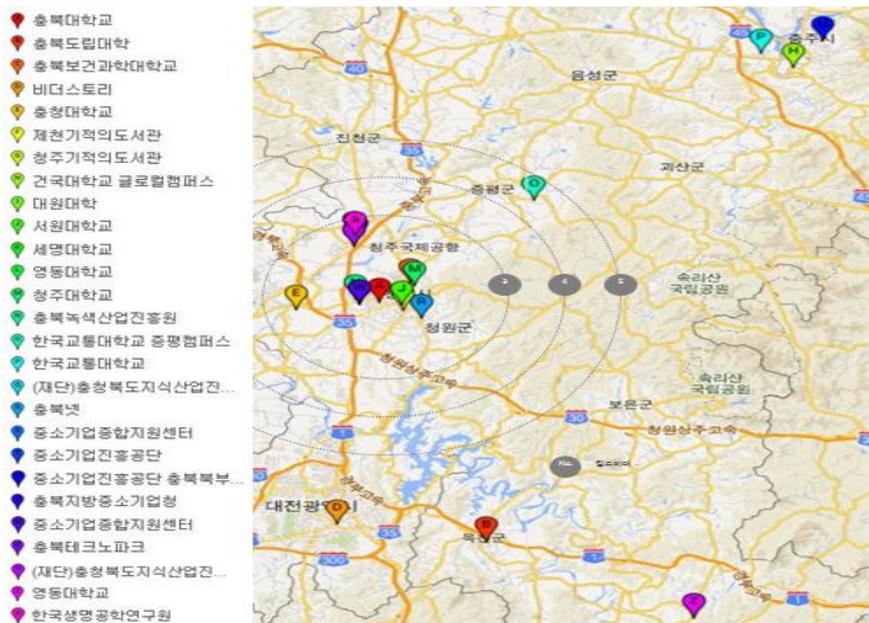
115) 대전투데이, '충남경제진흥원 "청년CEO 500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중"', 2014년 12월 4일자

11) 충북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서울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6>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58]과 같다.

<표 96> 충북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충청북도 지방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 기술 사업화 지원
정부 산하기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지원, 예비 창업자 양성, 멘토링, 창업보육, 창업지원자금, 사업화 자금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창업보육
민간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창업 설명회
지자체 산하기관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지식재산(IP)의 유·무상 제공 및 활용, 기술사업화
민간단체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IP)의 유·무상 제공 및 활용 기술사업화
지자체 산하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재산(IP)의 유·무상 제공 및 활용,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및 교류의 장
민간단체	LG특허협의회	지식재산(IP)의 유·무상 제공 및 활용, 기술 사업화
대학	청주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단	창의 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발굴
기업	충북넷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민간단체	청주 상공회의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대학	서원대학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민간단체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대학	한국교통대학교 3D프린팅 센터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지원, 인력 양성
민간단체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멘토링
대학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단	창업보육
대학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교육, 창업 멘토링, 제반 창업 프로그램
기업	(주)제이비엘	시제품 제작



[그림 58] 충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충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충북지역은 서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지식재산(IP) 허브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충북지식산업진흥원, 특허청,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LG특허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IP)의 유·무상 제공 및 활용을 통한 기술창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충북 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재산(IP)의 기업이전 활성화, 특허소송, 분쟁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지속가능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¹¹⁶⁾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충북지역은 정부산하기관과 교육기관 간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충북대 창업지원단,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주)제이비엘이 참여하여 도내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등 효율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은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시제품 제작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창업지원·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을 지원받는 연계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3D프린터 등 제반 장비와 전문가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충북중기청, 한국교통대, (주)제이비엘에서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을 할인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의 접근성이 편리해 지며,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시제품 제작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또한 구현된 아이템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진흥공단 충북본부가 창업지원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충북대 창업지원단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창업 멘토링, 제반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¹¹⁷⁾

116) 충청일보, '충북지식재산센터 IP 허브구축 창조경제활성화 앞장', 2015년 2월 25일자

117) 충북일보, 2014-06-19, '충북 예비창업자·중소기업지원위해 산·학·관 협약'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분부는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와 '청년창업자 멘토-멘티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영 노하우와 경험을 청년창업자들에게 전달하여,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성공한 선배기업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창업자들에게 전수해주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와 청주상공회의소, 서원대학교,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등 4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창조적 1인 기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이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 창업실무와 자기 계발 교육, 성공스쿨 2회 운영, 데코파주 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 창조기업 간담회와 앱개발자 컨퍼런스 등 세미나 개최를 통해 자기개발 등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각 시설을 이용한 창조카페를 개설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 회의나 세미나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기도 한다.¹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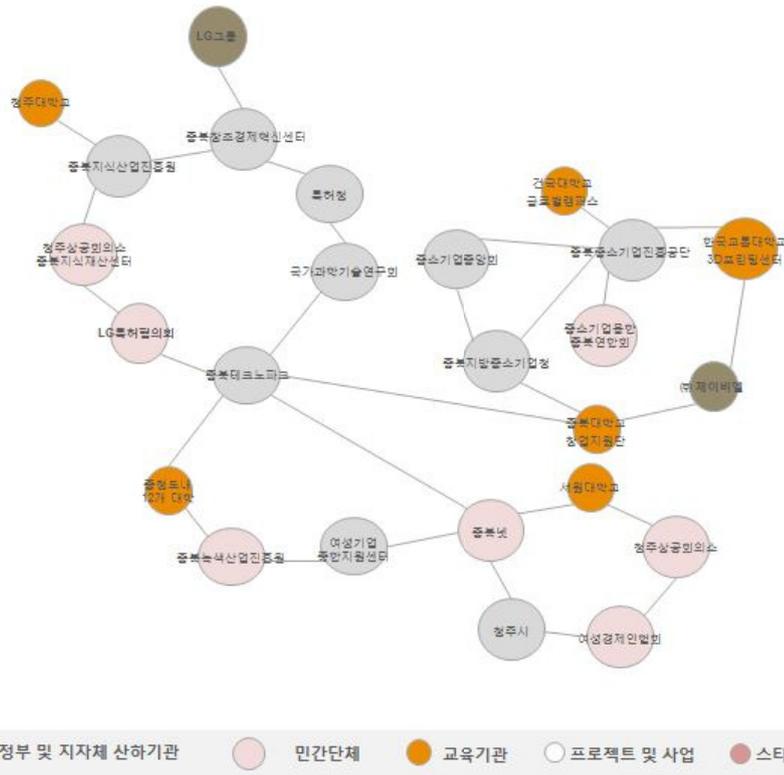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충북지역의 혁신 생태계는 [그림 59]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산·학·관의 연결성이 형태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대학, 기업 간의 연결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소재의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단체와 협약 체결하고 지식재산(IP) 허브 구축을 위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지역 최대의 바이오헬스 기술 설명회를 통한 지역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¹¹⁹⁾ 또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충북 소재의 대학,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제작 등 효율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8) 뉴시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11일 오픈', 2013년 4월 10일자

119) 아주경제, '충북테크노파크 주관 '제2회 바이오헬스 충북기술장터'', 2014년 10월 9일자



[그림 59] 충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그러나 충북지역 역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간단체,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 및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충북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6>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2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60]과 같다.



[그림 60] 충청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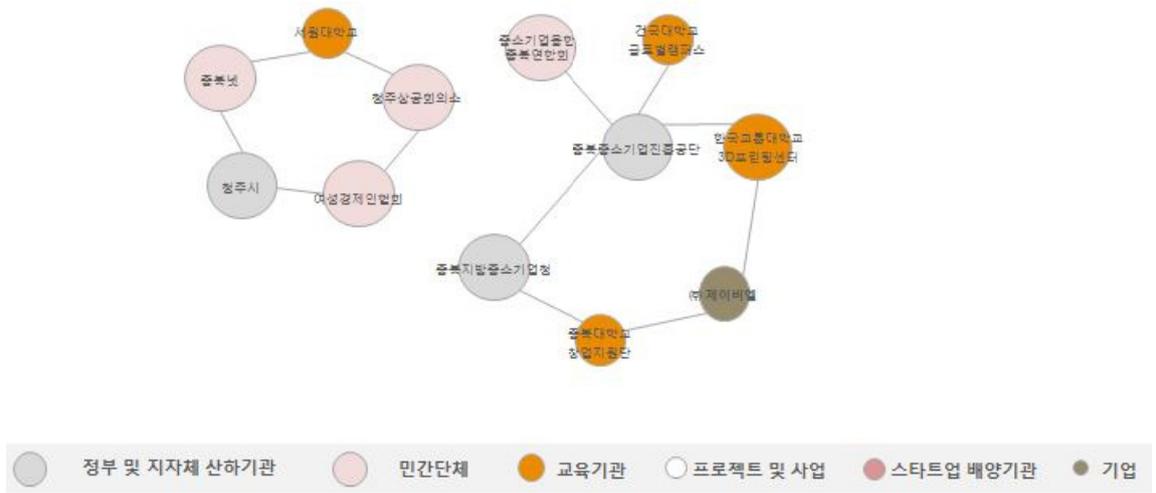
충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61]과 같이 실질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을 주축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간의 연결성,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대학 간에 연결되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 스타트업 배양 기관의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는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와 ‘청년창업자 멘토·멘티 협약식’을 체결하고, 성공한 선배기업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창업자들에게 전수해주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¹²⁰⁾

120) 연합뉴스, ‘충북 선배기업·청년창업자 ‘멘토·멘티’ 협약’, 2013년 10월 31일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충북중소기업청, 충북대 창업지원단, 한국교통대 산업협력단, (주)제이비엘 등이 참가해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등 효율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¹²¹⁾

그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와 한국교통대학교 3D프린팅센터 협약하여, 예비창업자 양성, 시제품제작 지원, 현장방문 기업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¹²²⁾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와 건국대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 및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 충북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21) 충북일보, '충북 예비창업자·중소기업 지원위해 산·학·관 협약', 2014년 6월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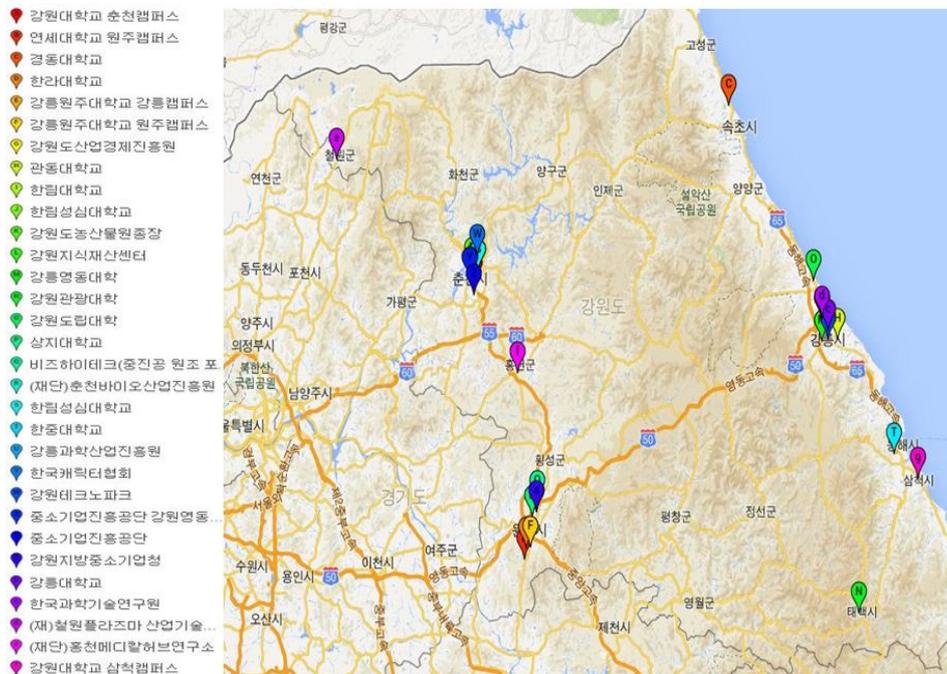
122) 충북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한국교통대 3D프린팅센터 업무협약', 2014년 11월 20일자

12) 강원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강원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7>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62]와 같다.

<표 97> 강원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민간단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공동연구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기술창업 금융지원, 컨설팅, 마케팅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강원도인재육성센터	인력양성, 창업 및 취업활성화
지자체 산하기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양성, 창업 및 취업활성화
지자체 산하기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기술창업 금융지원
민간단체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주회사	
지자체 산하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기술창업 금융지원, 컨설팅, 마케팅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부설 기관)	강원지식재산센터	창의인재양성
정부 산하기관	한국표준협회	창업교육, 연구개발에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청년 창업기업 발굴
대학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아이디어 및 앱 공모전 추진
대학	연세대 원주 IINC사업단	창의인재양성
대학	강원관광대학	창업교육
대학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예비창업자 양성



[그림 62] 강원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강원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의 연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강원지식재산센터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을 발굴해 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기술창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신용보증기금은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추천기업에게 보증·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도본부는 정책자금·컨설팅·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강원지식재산센터도 도내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 운용지원 폭을 확대하고 ‘강원 IP창조존’과 연계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금융지원 등 청년창업가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²³⁾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시제품 제작을 통한 상품 출시,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출원비용 및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는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종합 컨설팅, 마케팅 등의 정책사업을 맞춤형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¹²⁴⁾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강원대학교는 강원도 인재육성센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창업, 취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재육성센터는 사회적 경제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트랙 이수 청년의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대는 사회적 경제 부문과 교육 복지서비스 부문의 청년 전문인력 양성사업 분야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¹²⁵⁾ 또한 한림대학교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산학협력 및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과 공동연구,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의 협력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와 협약하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대학 지적재산의 중소기업 이전, 상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의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¹²⁶⁾

123) 강원도민일보, ‘기술창업 금융지원 첫 수혜기업 탄생’, 2014년 10월 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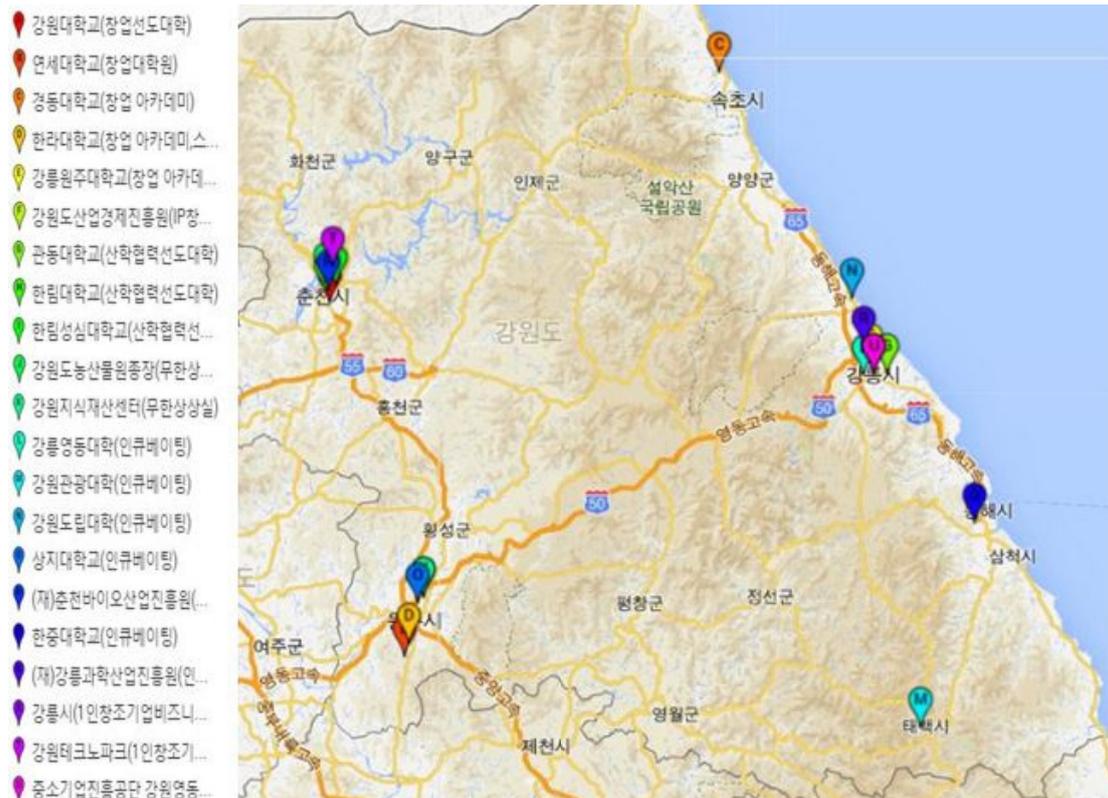
124) 강원일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업무협약’, 2014년 9월 4일자

125) 아주경제, ‘강원대,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2014년 12월 17일자

126) 한국대학신문, ‘한림대,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와 협약’, 2014년 7월 7일자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강원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7>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7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
 상에 나타내면 [그림 64]와 같다.



[그림 64] 강원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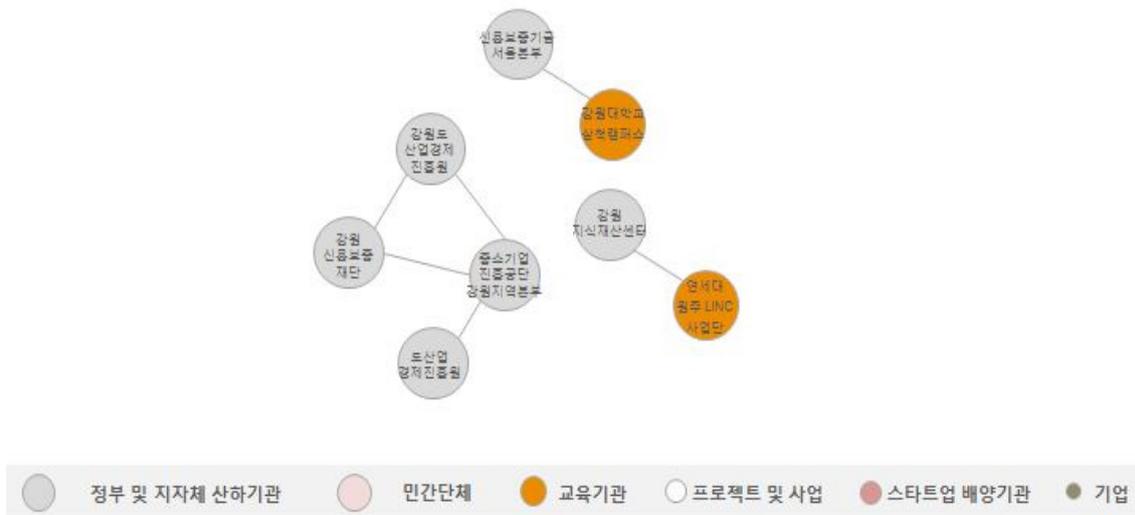
강원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65]와 같이 실
 제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전체
 적인 연결성이 낮고 일부 부분적인 스타트업지원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을 주축으로 연계하여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일대일 형태
 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가 기술창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 협약으로 강
 원신용보증재단은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추천기업
 에게 보증·경영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도본부는 정책자금·컨설팅·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¹²⁸⁾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지식재산센터와 연세대학교 LINC사업단(원주)은 ‘지식재산기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강원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림 65] 강원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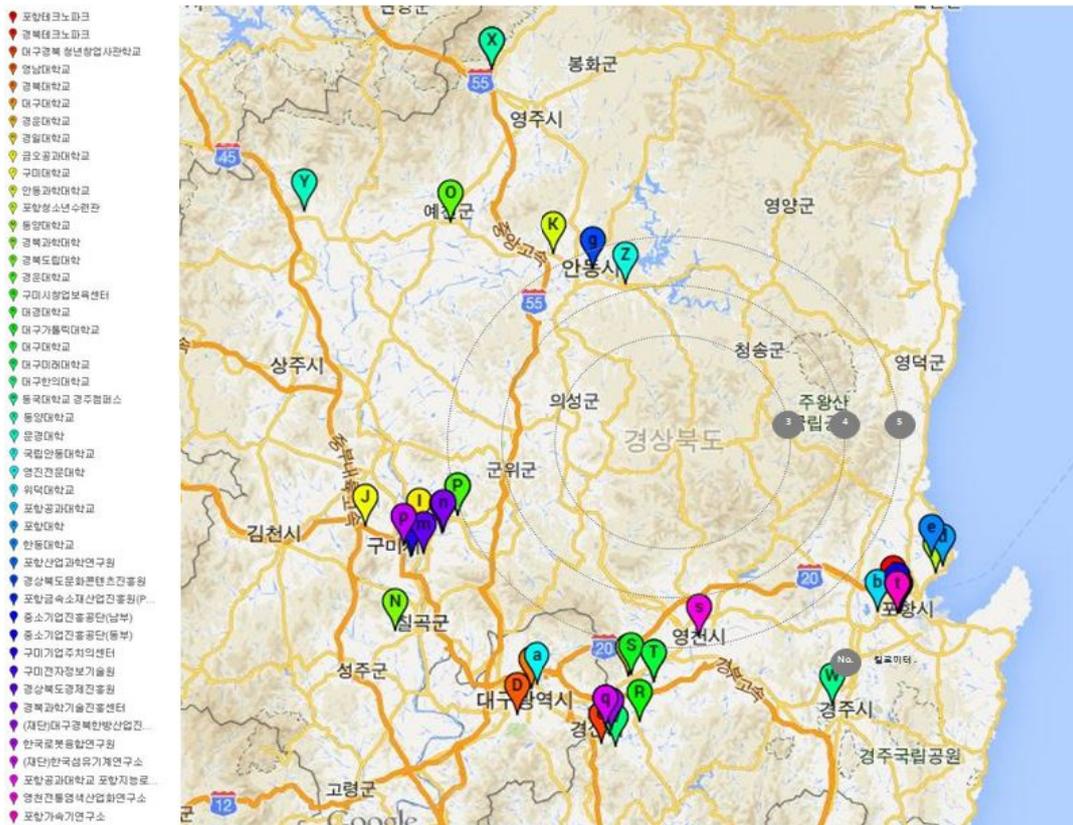
128) 강원도민일보, '기술창업 금융지원 첫 수혜기업 탄생', 2014년 10월 8일자

13) 경북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북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8>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66]과 같다.

<표 98> 경북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금융, 인력, 기술개발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경북테크노파크	비즈니스아이디어(BI)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포항테크노파크	창업 및 기술개발 자금 지원, 사업화 지원
금융기관	산업은행	창업 및 기술개발 자금 지원
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
금융기관	대구은행	창업 금융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지원부	비즈니스아이디어(BI)지원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스타트업 배양기관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대학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우수 아이디어 발굴
지자체 산하기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제작 육성 및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콘텐츠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인력 양성
대학	경북도립대	인력 양성
지자체 산하기관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육성
지자체 산하기관	포항 가속기연구소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육성
지자체 산하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학	포항공과대학교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육성
지자체 산하기관	나노융합기술원	인력교류, 장비·시설 공동 활용, 기술 사업화 지원
대학	포항대학	예비 창업자 육성
정부 산하기관 (산단 부설조직)	구미기업주치의센터	컨설팅, 창업 교육, 경영, 기술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
대학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지자체 산하재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기업	LG화학 기술연구원	공동 연구 및 기술교류



[그림 66] 경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경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경북지역은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포항시는 지자체산하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중심으로 기업,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OMIA는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텍 등 포항지역 주요 산학연과 협력·융합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발굴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와 포항대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제작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우수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화·영상 콘텐츠 제작을 육성·지원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산업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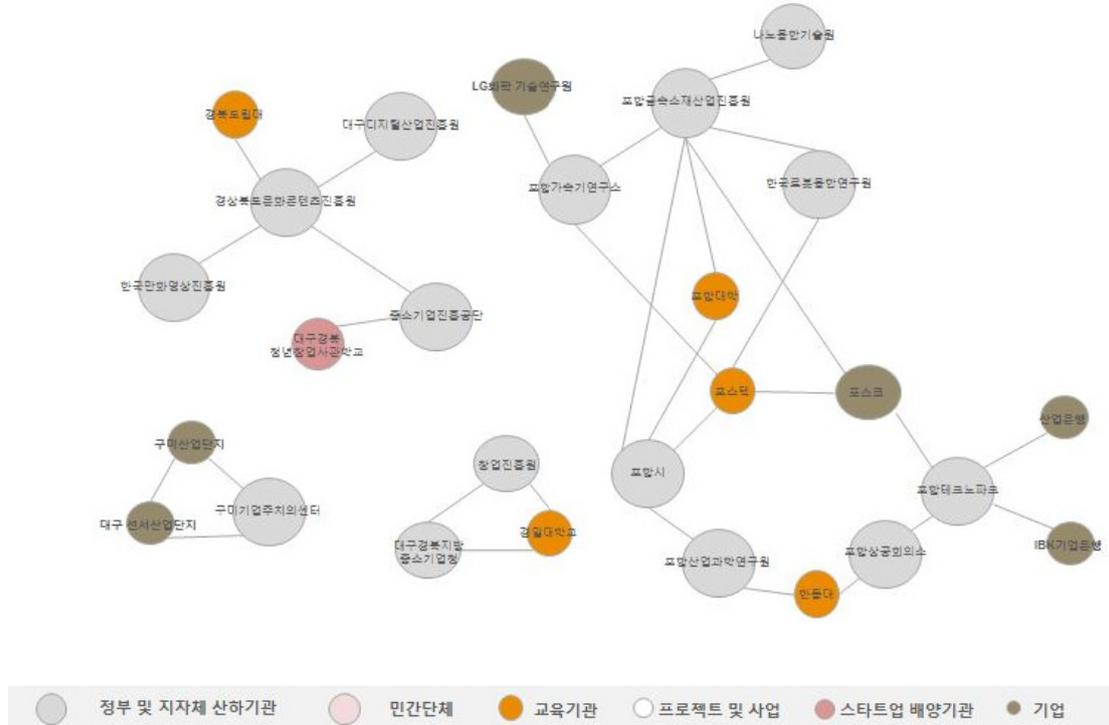
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¹²⁹⁾ '13년도 경북도립대와 산학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서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창조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에 특화된 신일자리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¹³⁰⁾

나)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경북지역은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에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조직이 밀집되어 있으며, 포항을 제외한 지역은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를 거의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 관련 조직 간의 생태계 연결성은 포항시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특히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교육기관이 서로 연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의 혁신 조직은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소재의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을 주축으로 대학, 기업 등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교육기관, 스타트업 배양기관, 기업 간의 상호 연결성이 활발하지 않다.



[그림 67] 경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29) 기호일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2014년 11월 24일자

130) 매일신문, '경북도립대-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교류 협약', 2013년 8월 10일자

다)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북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8>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3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 상에 나타내면 [그림 68]과 같다.



[그림 68]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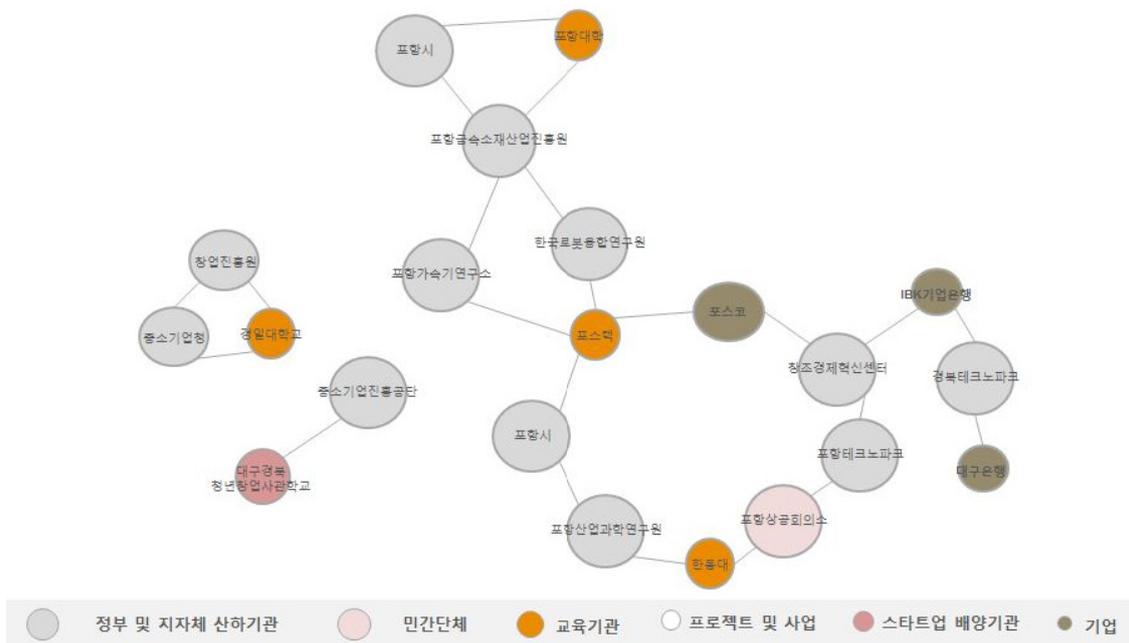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69]와 같이 실제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을 주축으로 대학,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 단체,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북지역은 포스코가 포항시에 민간기업 특화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며 포항시, 경상북도, 포스텍, 한동대, 포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업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기회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벤처 아이디어 시뮬레이션, 모형제품 전시공간, 교육실, 상담실 등이 마련 될 계획이다. 또한 이미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내 지역창업보육센터도 연계되어 운영될 계획이며,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 멘토링부터 자금,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연구 개발(R&D)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¹³¹⁾

131) 아시아경제, '포스코, 연초에 포항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2014년 12월 17일자

또한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는 포항시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 산하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주축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되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와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텍 등이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포항시-POMIA-포항대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밖에 경북지역은 정부 산하기관, 대학, 금융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예로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후원으로 '2014 대구.경북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¹³²⁾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위해 포항테크노파크와 IBK기업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였고,¹³³⁾ 경북테크노파크는 대구은행과 IBK기업은행과 각각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조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¹³⁴⁾



[그림 69]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32) 머니투데이 뉴스, '경일대 '창업'으로 대학 혁신을..', 2014년 12월 14일자

133) 경북일보, '포항TP-IBK기업은행, 업무협약', 2014년 6월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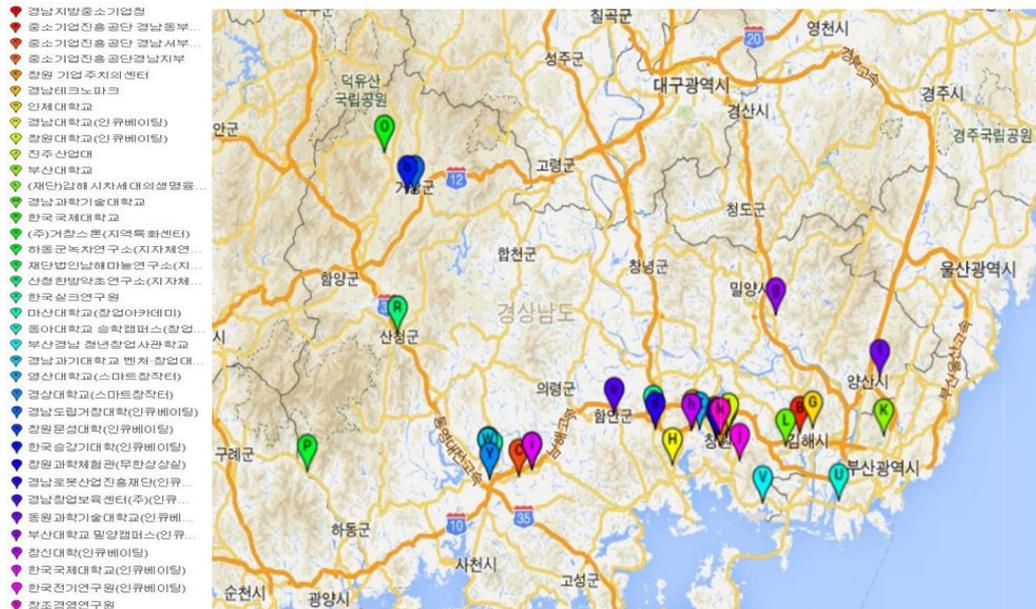
134) 전자신문, '대경권 테크노파크, 기술금융 투자 지원 늘려 강소기업 키운다', 2015년 1월 29일자

14) 경남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남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99>와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70]과 같다.

<표 99> 경남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정책금융과 컨설팅 지원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유망 창업기업 발굴, 멘토링, 및 컨설팅
지자체 산하기관	경남테크노파크	창업 활성화 벤처 생태계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전문인력양성
정부 산하기관 (산단 부설조직)	기업주치의센터(창원)	컨설팅
민간단체	동남권 산학협력중개센터	기업가정신 배양, 멘토링
대학	경상대학교 IINC 사업단	창업교육, 자문,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경남 전문가네트워크 협동조합	창업교육, 자문,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경영지원, 컨설팅
민간단체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금융기관	경남은행	금융상담
민간단체	경남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정책금융과 컨설팅 지원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금융, 경영컨설팅
대학	한국국제대	기업가정신 교육
대학	경남과기대	공동연구 및 장비 공동활용
지자체 산하기관	부산디자인센터 경남디자인지원단	마케팅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업, 벤처포럼



[그림 70] 경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경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중소기업청과 ‘경남지역 우수 IR(기업설명회) 기업 투자 상담회’와 경남 창업·벤처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전문 엔젤 투자자를 초청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와 해당 분야 전문투자자간 1대1 심층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경남 지방중소기업청은 경남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경남은행과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우수 청년 창업기업 등의 발굴과 육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컨설팅 지원, 센터별 전담 금융상담사 지정 운용,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으며,¹³⁵⁾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중소기업청과 ‘경남지역 우수 IR(기업설명회) 기업 투자 상담회’와 경남 창업·벤처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전문 엔젤 투자자를 초청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와 해당 분야 전문투자자간 1대1 심층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경남지역 소재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경남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국제대와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가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정규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학생들의 중소기업현장 방문과 기업탐방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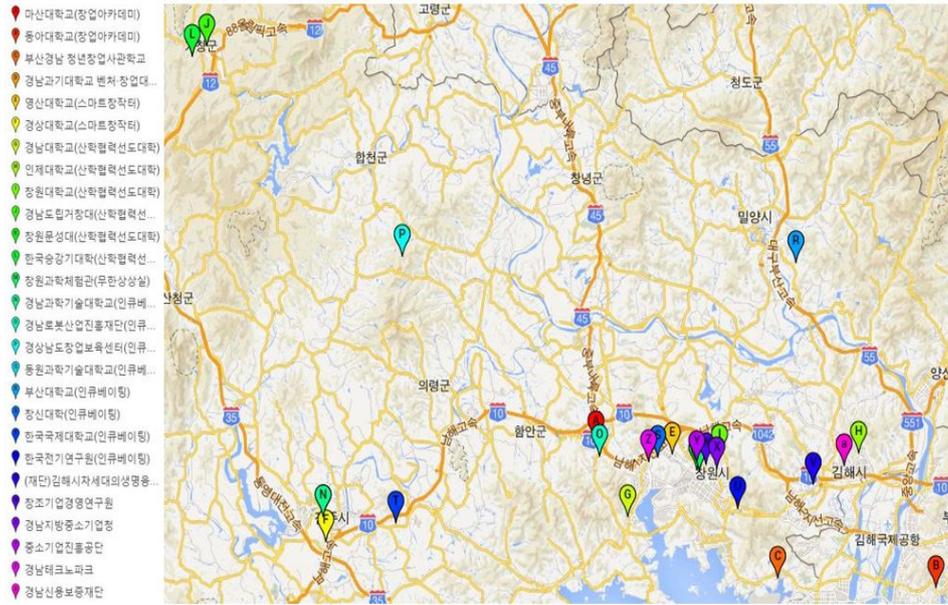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남과기대와 중소기업 산·학 협력과 창업지원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졸업생간 취업 연계, 공동 프로젝트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¹³⁶⁾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경남대학교 선도대학(LINC)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대학 보유기술 및 인력 활용, 첨단 기계·로봇·전자기술을 접목한 산업응용 분야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용 대학보유 실험장비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35) 뉴시스, ‘경남중기청, 제3회 경남 창업·벤처포럼’, 2014년 6월 24일자

136) 연합뉴스, ‘경남과기대-중소기업진흥공단, 협력 협약’, 2013년 12월 19일자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남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99>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9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72]와 같다.



[그림 72] 경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경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73]과 같이 혁신 생태계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기관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을 주축으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대학과 연계하여 주로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며, 민간단체, 기업과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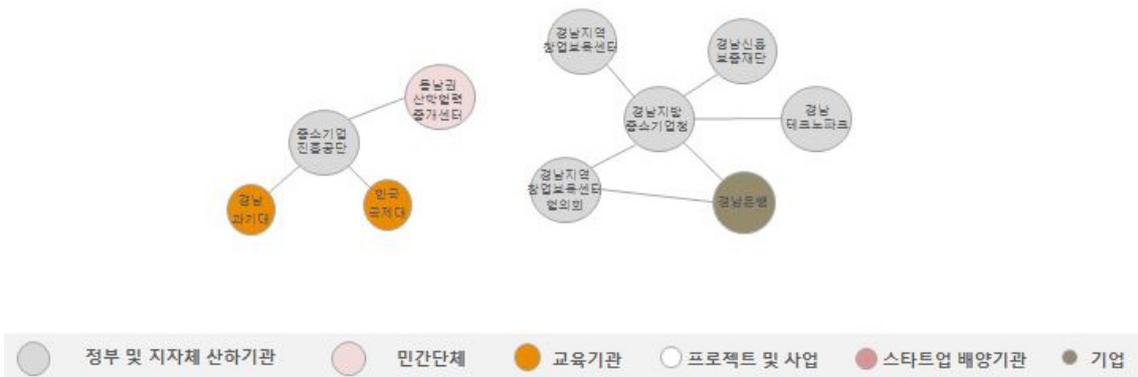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창업·벤처붐 조성 및 엔젤·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벤처포럼 행사 개최하였으며,¹³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경남지역창업보육센터 협의회 주관으로, 경남지역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의 창업 성공사례 발표회와 창업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열고, 창업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개최하기로 하였다.¹³⁹⁾

138) 뉴시스 경남, '경남중기청, 제 3회 경남 창업·벤처포럼', 2014년 6월 24일자

139) 뉴스웨이, '경남도 창업성공사례와 우수제품 전시회', 2014년 11월 10일자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간의 일대일 협약체결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국제대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업가정신 정규과목 개설하였으며, 경남과기대와는 산·학 협력과 창업지원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 강화,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등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¹⁴⁰⁾ 또한 동남권 산학협력중개센터와 공동으로,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대학교와 산업체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창의 창업캠프 개최하였다.¹⁴¹⁾

이밖에도 경남지역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3년도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은행, 경남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는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수 청년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금융 및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¹⁴²⁾



[그림 73] 경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140) 연합뉴스, '경남과기대-중소기업진흥공단, 협력 협약', 2013년 12월 19일자

141) 한국경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창업캠프 개최', 2015년 1월 2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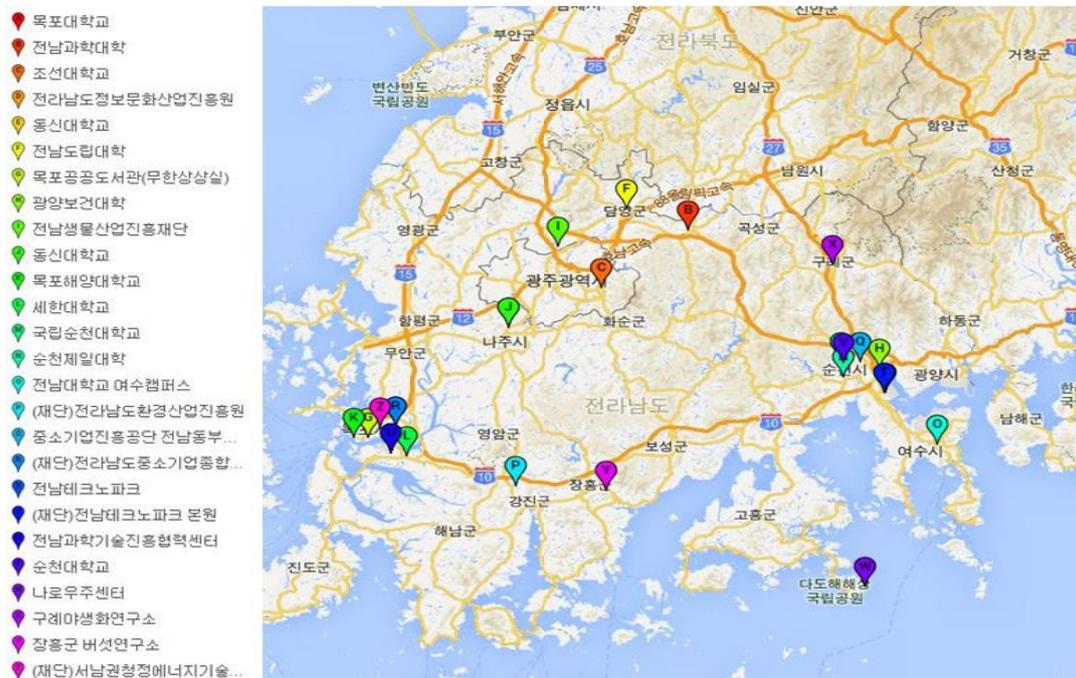
142) 경남신문, '경남은행, 청년기업 지원 나섰다', 2013년 10월 18일자

15) 전남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전남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100>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74]와 같다.

<표 100> 전남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정부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재양성, 중소기업 컨설팅
지자체 산하기관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투자지원
정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지자체 산하기관	전남테크노파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및 기술금융 연계
민간단체	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스타트업지원, 네트워크
민간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 수요기술 발굴과 사업화 촉진
민간단체	광주경영자총협회	
민간단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전남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기술 금융 연계 지원
대학	전남대학교	인재양성
대학	한영대학	인재양성
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



[그림 74] 전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사업시행 주체들 간 공식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및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보았다.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먼저 정부산하기관 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전남테크노파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는 광주·전남권 기술공급의 허브(Hub) 및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공공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 교류,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창업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광주특구가 보유한 3,000여건의 우수공공기술 가운데 바이오, 조선산업 등 전남지역 혁신기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기로 협약 하였다.¹⁴³⁾

또한 전남테크노파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전남센터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개인 및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협약하였다고 밝혔다.¹⁴⁴⁾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전남지역은 정부산하기관 간의 연결성 외에 정부산하기관과 대학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는 한영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식을 갖고, 인재양성 및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밖에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멘토링, 인턴십 등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전남지역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중소기업청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는 한국산업은행 호남본부와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금융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 했으며, 구체적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 창업 편의제공,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 CEO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¹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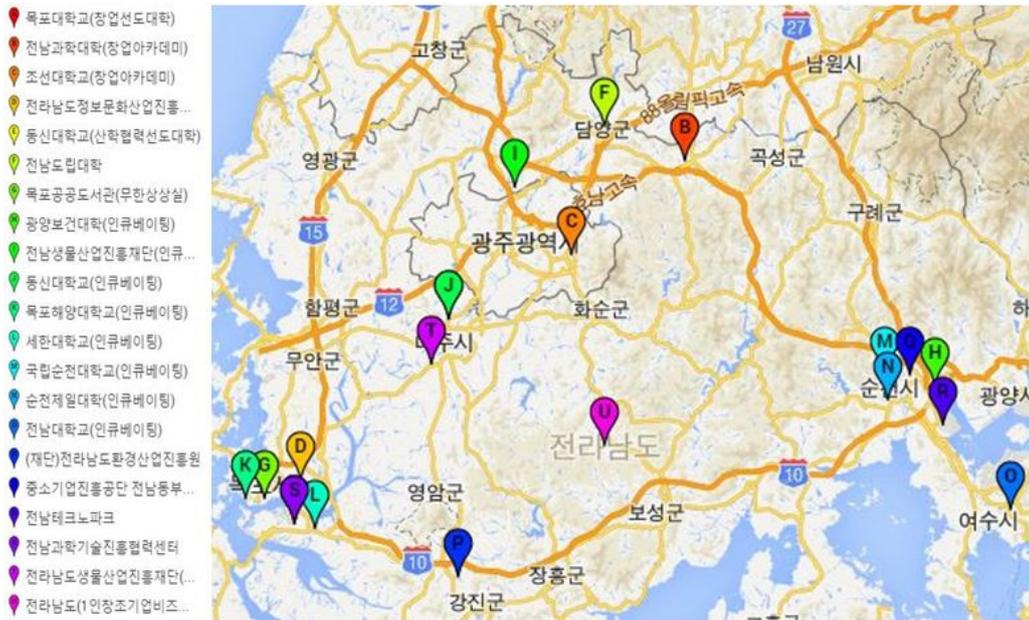
143) 뉴스1, '광주연구개발특구,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2014년 10월 21일자

144) 뉴스1, '전남테크노파크, 농신보 전남센터와 中企지원 업무협약', 2014년 10월 23일자

145) 네이버뉴스, '산은 호남본부-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업무협약', 2014년 8월 26일자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전남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100>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12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76]과 같다.



[그림 76] 전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전남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혁신 생태계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정부산하기관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단체, 대학, 기업,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은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성본부가 협약하여, 전남의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창업기업 육성 및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창조기업 컨설팅지원과 전남의 창업기업과 수도권 유망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협력을 촉진하는데 힘쓰기로 하였으며,¹⁴⁶⁾ 특히 전남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정부산하기관들과의 연결성을 보였는데, 그 예로 ‘전남테크노파크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전남센터’, ‘전남테크노파크와 광주연구개발특구’ 등이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기관 간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스타트업 조직 간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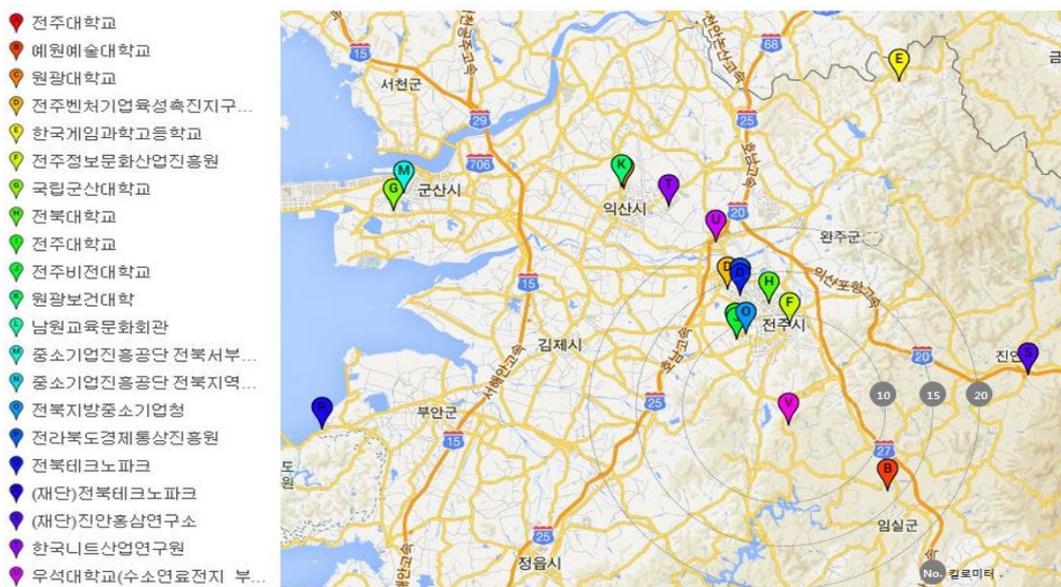
146) 뉴스1, ‘전남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 2014년 5월 12일자

16) 전북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전북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101>과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78]과 같다.

<표 101> 전북지역의 주요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경영, 마케팅, 기술, 인력, 자금 등 애로사항 종합지원
민간단체	전북 희망창업협의회	희망창업자들을 위한 차별화 마케팅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지자체 산하기관	전북 소상공인희망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창업공간 제공
지자체 산하기관	일자리종합센터	대학인재 및 전문인력과의 일자리 매칭
정부 산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동연구 및 인재 양성
대학	전북대학교	공동연구 및 인재 양성
대학	우석대학교	공동연구 및 인재 양성
지자체 산하기관	3D프린팅 융복합센터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기업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지자체 산하기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지식 정보의 상호 제공, 창작과 창업
기업	헝그리앱	지식 정보의 상호 제공, 창작과 창업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창업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전북테크노파크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자체 산하기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우수 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자체 산하기관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우수 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자체 산하기관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우수 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그림 78] 전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전북지역의 정부산하기관 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정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결성의 형태는 주관기관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산하기관들 간의 연결성이 주를 이루어져 있음을 보인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자체생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마케팅/기술/인력/자금 등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지원시스템(One Roof - One Stop Service)을 구축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¹⁴⁷⁾ '전라북도희망창업협의회', '전라북도 FTA활용지원센터',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청년서비스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각 기관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중소기업창업과 지역정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서 연결성을 보였다. 그 중 '전라북도희망창업협의회'는 뉴욕시에서 추진중인 'Made in NYC'와 마찬가지로 '희망창업'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희망창업자들만을 위한 브랜드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과 기술 사업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 테크노파크는 2014년 7월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과 '전북도 조명 관련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과 기술 사업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테크노파크는 2014년 7월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과 '전북도 조명 관련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조명연구원은 이번 협약에서 도내 조명 및 LED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 시설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했다.¹⁴⁸⁾

나)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2년도에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손을 잡았으며, 양 기관은 대학생의 기업 적응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상호 협력키로 하고, 우수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장비 및 시설 공동 이용, 인력 교류 등에 뜻을 모았으며,¹⁴⁹⁾ '15년도 우석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에 마을기업과 공동체 사업을 이헤시키고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과

147)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148) 연합뉴스, '전북테크노파크-한국조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4년 7월 29일자

149) 머니투데이, '우석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2012년 10월 30일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학기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¹⁵⁰⁾ 또한 전북대학교는 전북지역 사회적기업 15곳과 지원 및 교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이전 및 지도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전북대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십 및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은 전북대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멘토로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¹⁵¹⁾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지역 창업 활성화와 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호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은행과의 협약에서는 창업과 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 연계해 창업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¹⁵²⁾ 또한 금융위원회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벤처 성장단계별 창조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는데, 이 업무협약에서는 효성, 성장사다리펀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도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전북 지역내 창업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데 부족하였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 창업·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창조경제 연계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⁵³⁾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전북지역의 혁신 생태계는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을 주축으로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참여 주체들이 함께 기술개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체들 간의 연계가 다양하지 못 하고 주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협약 또는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기업의 연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단체, 기업과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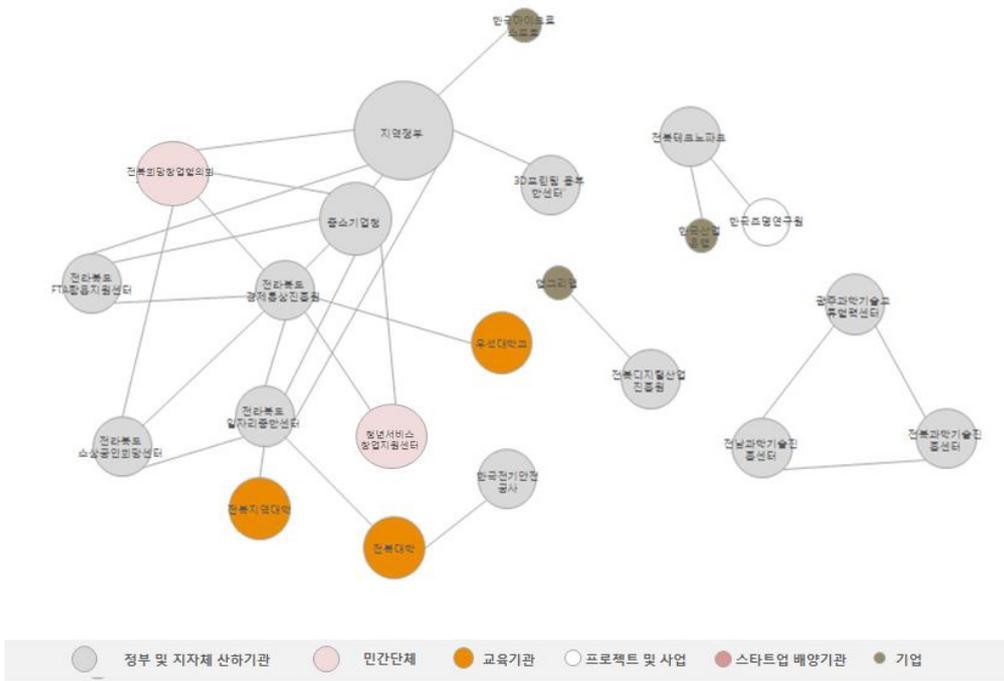
특히 정부산하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청, 지자체산하기관인 전북일자리종합센터를 주축으로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150) 뉴스1, '전북도, 우석대와 한일장신대에 '마을기업 강좌'개설', 2015년 3월 2일자

151) 아시아뉴스통신, '전북대, 전북지역 사회적기업 15곳과 교류.지원 협약', 2014년 1월 8일자

152) 중앙일보, '전북테크노파크-한국산업은행 호남본부, 창업 활성화·벤처 지원 업무 협약', 2014년 6월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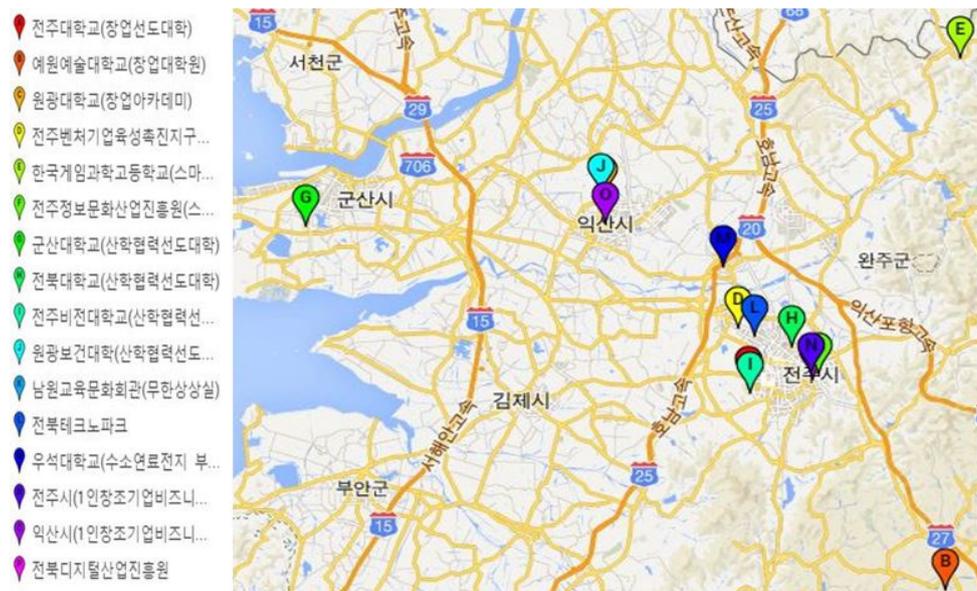
153) 이투데이, '금융위-전북혁신센터, 창업벤처 성장단계별 금융 지원 MOU 체결', 2014년 11월 24일자



[그림 79] 전북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마) 전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전북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101>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9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8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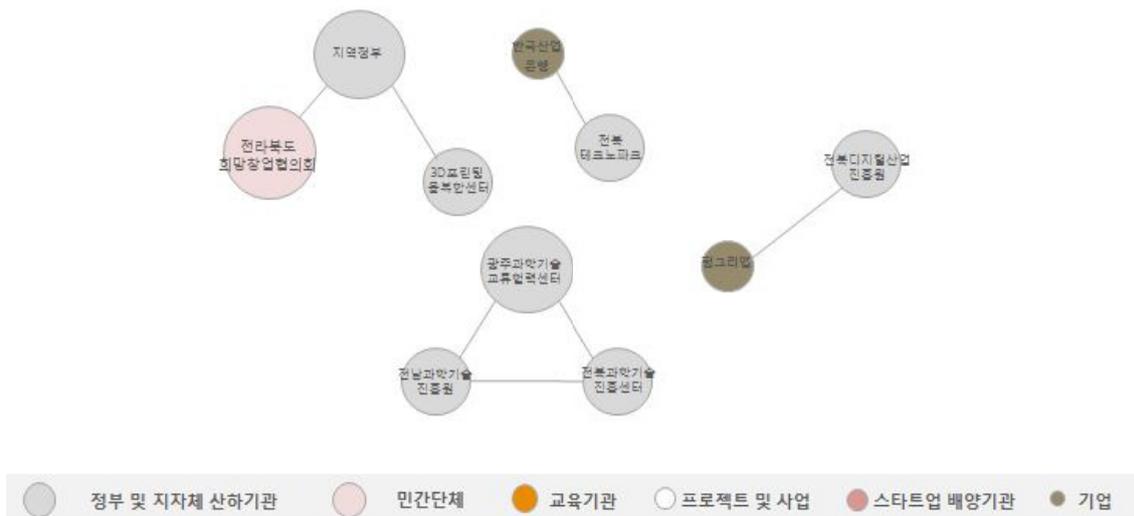


[그림 80] 전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전북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 81]과 같이 실제로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주축으로 연계하여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특히 민간단체, 대학과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청과 지역정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희망창업협의회', '전라북도FTA활용지원센터',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청년서비스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게임전문 커뮤니티 형그리앱이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 내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을 통한 창작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양 기관은 콘텐츠분야 정책, 사업, 동향, 전시, 연구, 통계 등 지식 정보의 상호 제공, 창작과 창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인재양성,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국내외 마케팅-퍼블리싱 업무교류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¹⁵⁴⁾ 또한 전북 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은행 호남본부가 '전북 지역 창업 활성화와 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81] 전북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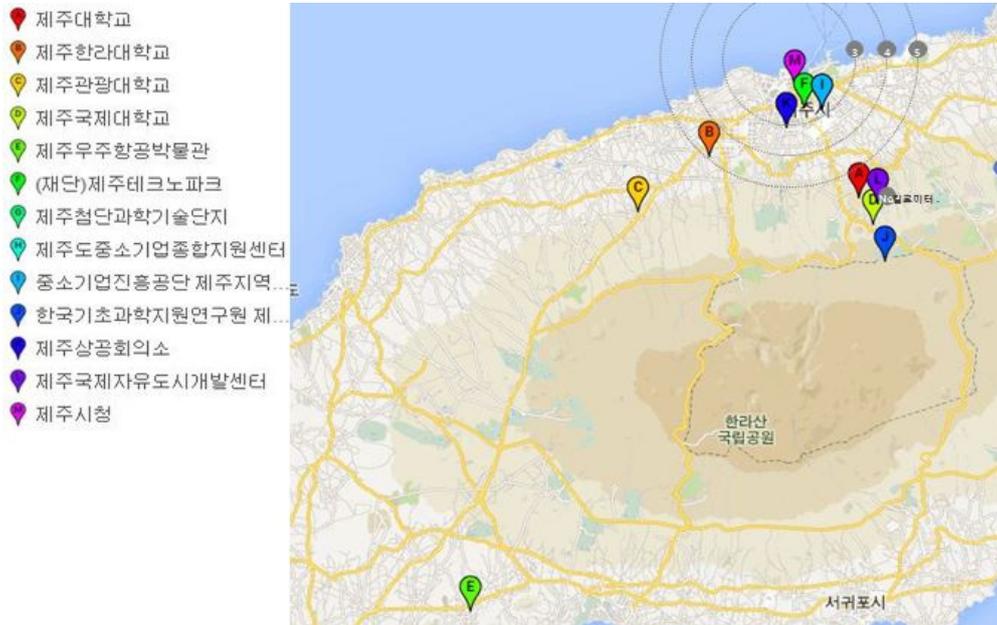
154) 네이버뉴스, '형그리앱-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협약 체결', 2014년 1월 16일자

17) 제주지역의 혁신 및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제주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은 <표 102>와 같이 있으며,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82]와 같다.

<표 102> 제주지역의 혁신 조직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정부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컨설팅, 창업자금 대출
지자체 산하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자금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자에게 정보 교류, 애로사항 해결
지자체 산하기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팅,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지자체 산하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기술교류, 판로확보, 기술협력
정부 출연(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 R&BD협력단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민간단체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창업육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컨설팅
지자체 산하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종합컨설팅
민간단체	제주상공회의소	청년취업인턴제 (창업 및 우수기업에 취업기회 확대)
대학	제주대학교	창업교육, 장비공유, 컨설팅
금융기관	KDB산업은행	창업자금 금융지원
기업	SK미소금융재단	창업자금 금융지원
금융기관	제주은행	컨설팅,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엑셀러레이터	인매지네이터	창업보육



[그림 82] 제주지역의 혁신 조직

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연결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사업화 통합지원 및 청년 대학생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와 기술보증기금 충청호남영업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R&BD협력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제주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 가치를 평가해 기술금융 보증 지원을 하고, 기술 창업자의 사업 안착을 위한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 R&BD협력단은 산학연관 기술사업화 지원 및 애로기술 해소 지원 체계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 하였다.¹⁵⁵⁾

또한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서귀포시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테크노파크는 시가 운영하는 창업 스튜디오 입주자에게 제주테크노파크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사업을 공동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서귀포시와 청년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교육·컨설팅, 청년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¹⁵⁶⁾

나) 교육기관과의 연결

제주지역은 특히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부산하기관, 제주 소재의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로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은 제주소재의 고등학교와 창업교육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교육프로그램 교류 및 보유시설 및 장비활용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우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¹⁵⁷⁾ 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하고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¹⁵⁸⁾

155) 중소기업뉴스, '제주 中企 기술사업화 '젠 걸음'', 2014년 10월 22일자

156) 뉴시스, '서귀포시·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창업지원 업무협약', 2012년 3월 15일자

157) 교육 전문 신문 베리타스 알파, '제주대 LINC사업단-제주중앙고, "창업교육확산 협약"', 2015년 2월 26일자

158) 한라일보, '제주신보-리걸클리닉센터 업무협약', 2015년 2월 2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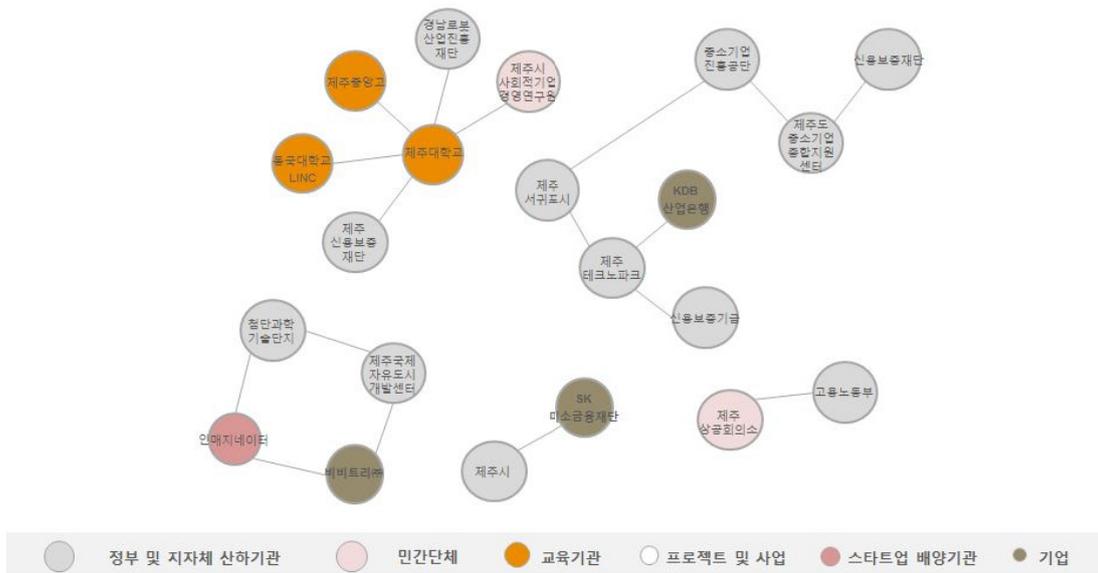
다) 민간단체 및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과 제주대학교는 창업 육성, 증진 및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육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¹⁵⁹⁾ 제주은행은 지역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업무를 20년째 이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밖에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주지역의 혁신 생태계는 타 지역과 비슷하게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을 주축으로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과 연계되어,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과 같은 창업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체들 간의 연계가 다양하지 못 하고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간 또는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의 업무 협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제주지역은 제주대학교와 정부산하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와 주축으로 제주소재의 다른 대학과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간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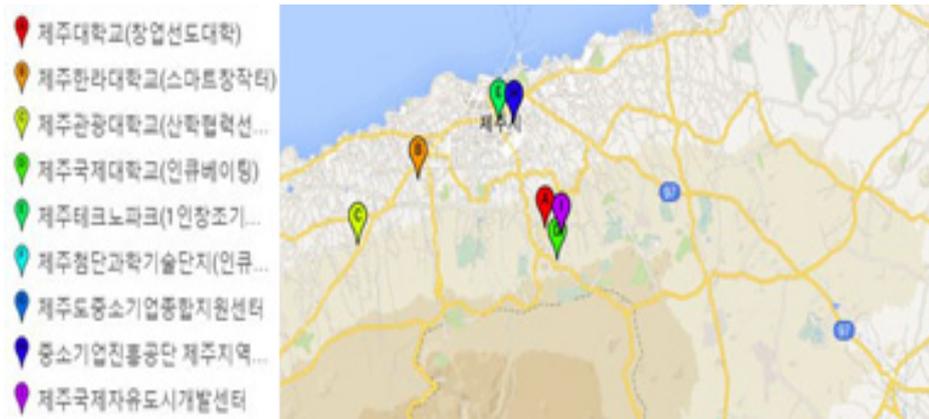


[그림 83] 제주지역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

159) 제민일보,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제주대 창업지원단 업무 협약', 2014년 11월 27일자

마)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제주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은 <표 102>에 음영 처리된 기관인 8개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8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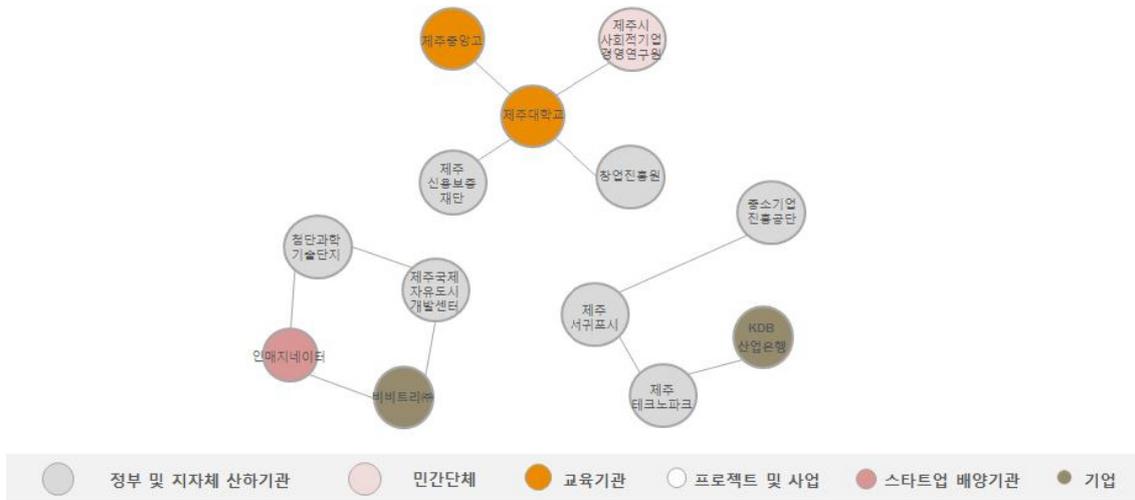
[그림 84] 제주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제주 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을 살펴보면, [그림85]와 같이 서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연결성은 혁신 연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과 대학을 주축으로 연계하여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단체, 기업, 스타트업 배양 기관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되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협의회와 엑셀러레이터인 인매지네이터, 비비트리(주)가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엑셀러레이터인 인매지네이터사는 JDC가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무료로 1년간 창업보육을 실시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직접 투자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기로 약속 하였다.¹⁶⁰⁾

특히 제주 지역은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제주 소재의 대학, 민간단체, 정부 산하기관과의 연결성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정부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는 금융기관인 KDB 산업은행과, 제주서귀포시와 각각 '제주지역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60) 한라일보, '[JDC를 말하다]사회공헌-비즈니스 페어', 2014년 12월 16일자



[그림 85] 제주지역의 스타트업지원 생태계 연결성

2. 시사점 및 과제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협약(MOU), 공동연구 등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개 시·도 대부분 연결성의 대상이 되는 혁신 주체들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을 보이거나, 또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상호 협약을 통한 연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참여 주체들이 업무협약(MOU)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연계된 내용 측면에서는 기술개발, 공동연구, 인력 및 장비 교류 등을 진행하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주축으로 다른 기관들과는 기술교류 및 이전, 전문적인 컨설팅,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 등의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학과는 인력 양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지역 소재의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17개 시·도 대부분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내 전체적인 연결성을 보이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한정되거나 일대일 연결성을 보이고 있어 전체 혁신생태계의 네트워크 내 분절적인 연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을 보이거나, 또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서로 일대일 협약을 통한 연결성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인해 창업교육에서 실제 스타트지원 및 성장까지의 기업가적 과정과 성장 지원에 있어 연결성이 낮은 기능적 분절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도별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금융기관, 민간단체 간의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민간단체인 벤처기업협회를 주축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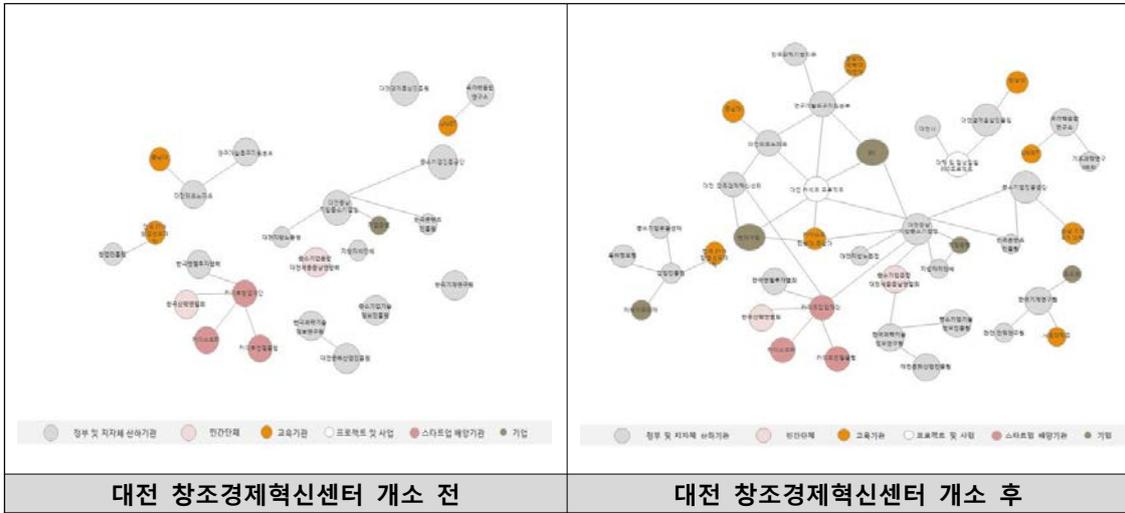
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선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자금조달지원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연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예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5개 창업 투자 회사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밖에도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정부 산하기관인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을 주축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보였으며, 특히 지자체 산하 창업지원조직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중심으로 각종 벤처 정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과의 연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고취 및 지역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멘토링, 창업활동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일대일 협약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실제로 창업활동 지원까지 스타트업 연결성이 낮아 기능적 분절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산하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주축으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기반의 대기업인 포스코가 포항시에 민간기업 특화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등 포항시, 경상북도, 포스텍 등과 협력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산, 광주, 경남 지역 역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을 주축으로 기업,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전문 인력 교류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에 연구 협력 및 창업교육 등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업과 민간단체의 참여나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과의 연결성은 대부분 분절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이 낮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 강원, 세종, 제주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 및 스타트업 지원 조직이 적으며, 혁신 생태계 연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강원지역은 민간단체와 자금조달지원 기관과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부분 일대일 연결로 분절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17개 시·도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17개 시·도 대부분이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연결성을 보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분절된 형

태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그 외 스타트업 배양기관, 기업, 자금 조달지원 기관과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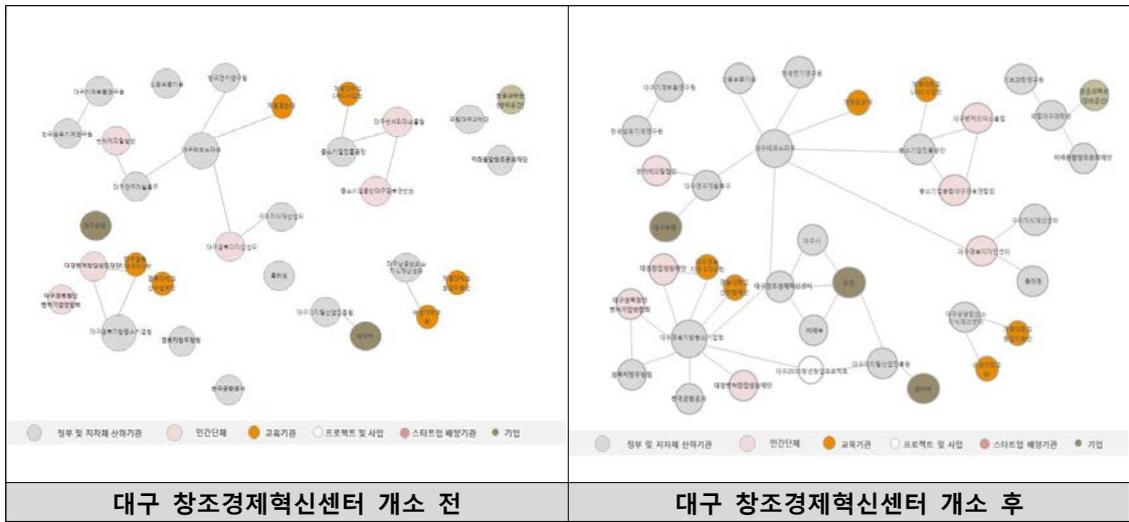
지역창조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지역의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에 있어 변화정도를 확인하고자, 14년 상반기에 개소된 대전,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교하면, 각각 다음 [그림 86]과 [그림 87]과 같이 나타난다.

먼저 대전지역의 경우 개소 전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연개구발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일대일 연결성이 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대전테크노파크-충남대’, ‘대덕연구개발특구-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대전경제통상진흥원-한남대’ 등이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체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가 연합하여 ‘성공-창업기업 멘토링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적인 생태계 연결성은 창업교육에서 실제 창업 성장 지원 단계까지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기능적 분절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후에는 대전 지역은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 소재의 연구기관 및 대기업이 참여하여 기관이나 기업별로 흩어져 있는 혁신역량을 하나의 사슬로 연결해 창조경제를 활성화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전 커넥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 커넥트’ 프로젝트의 목표는 글로벌 기업가 양성, 시제품 및 창업지원, 맞춤형기술사업화 지원, 자금투자로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혁신센터 등 3자 사이에서만 업무협약(MOU)에서 ‘대전 커넥트’ 프로젝트를 통해 총 45개의 기관이 다자간 MOU를 맺는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업가정신 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지원, 기술 사업화, 투·융자 지원도 체계적 협업 체계로 형성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연구개발 역량과 교육환경 등 잠재 가능성이 크지만 창업활동, 벤처문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만큼 ‘대전 커넥트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러한 노력은 혁신 생태계 내 혁신 주체들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6]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전후 혁신 생태계 연결성

두 번째로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전 대구 지역 역시 정부 산하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을 주축으로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간의 연결성,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대학 간의 일대일 연결성이 주로 나타났으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후 대구창조경제협의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간 실질적 연계·협력을 이끌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경북 중기청,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DIP,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6개 혁신서도기관을 지정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24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대구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지역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이 벤처육성 프로그램인 C-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삼성 등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창업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가 후원으로 벤처창업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으며, 우수 창업 및 벤처기업을 선발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창업 육성프로그램인 C-Lab 액셀러레이터와 법률, 회계, 세무, 특허, 창업과 관련된 강의 및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계된 스타트업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7]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전후 혁신 생태계 연결성

이러한 17개 시·도의 혁신 및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면,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혁신 생태계 내 혁신주체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 리더들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협의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6]과 [그림 87]과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계기로 개선된 대전, 대구 지역의 사례처럼 지역창조경제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창업교육은 물론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준비과정과 기업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가적 활동 주기 전반의 기능적 연계·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적 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태계 연결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스타트업 및 혁신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커뮤니티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은 자생적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제5장 해외 주요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성공사례

제1절 해외 주요 도시기반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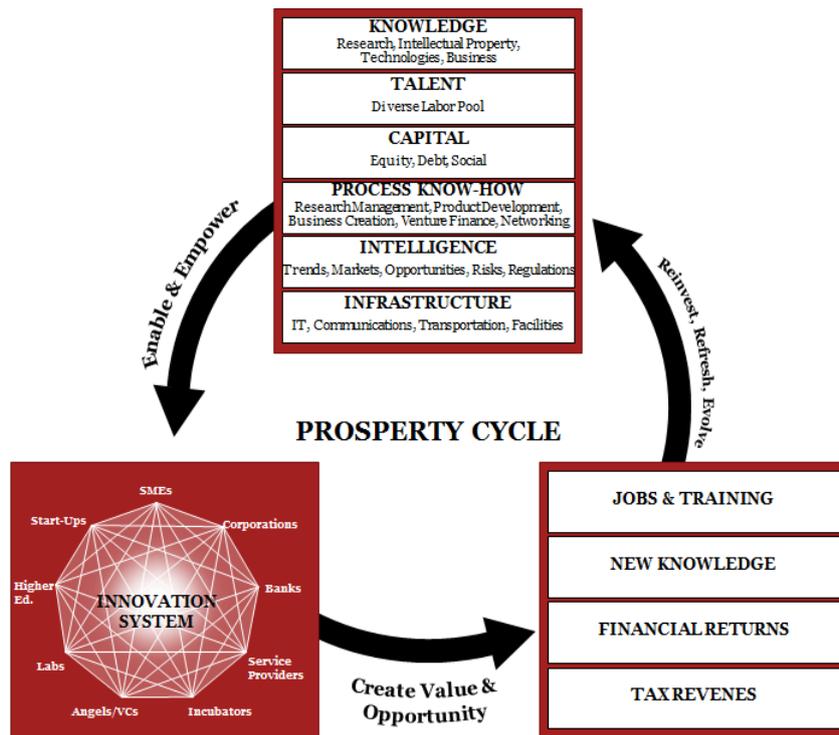
1. 미국의 Silicon Valley(Bay Area)

지난 60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지역은 전 세계를 배경으로 혁신센터의 역할을 이끌어왔다. 베이지역은 개인컴퓨터, 스마트폰, 반도체(semiconductors), 클린테크(clean tech),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relational databases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공간, 사회활동을 창조하며 전 세계 기업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베이지역의 능력은 계획 및 구상, 연구, 개발과 신기술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이며 이는 다양한 연구 및 교육 기관들과 그 외의 수행자들로 구성되어 서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문화적 관점을 공유하는 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혁신을 생각하면 주로 기술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혁신은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혁신이나 프로세스에서의 혁신 등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데,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애플의 아이폰은 기술제품이기는 하나 디자인과 더불어 복합적인 창조에 의해 혁신제품으로 불리고 있다. 기업이 제품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혁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품화 과정에서 오픈 소스의 활용과 다분야 간의 협력 즉, ‘Open Innovation’이 필요하며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혁신시스템이 강해져야 한다. 21세기 이후 전 세계는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혁신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과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에서는 혁신을 최우선과제로 여기고 있다.¹⁶¹⁾

베이지역의 혁신시스템은 역동적이고 복잡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혁신 시스템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상품화, 지식, 재능, 자본, 프로세스의 노하우, 시장 정보, 그리고 인프라는 혁신시스템을 구동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161) Council on Jobs and Competitiveness, Road Map to Renewal (Washington D.C.: Council on Jobs and Competitivenes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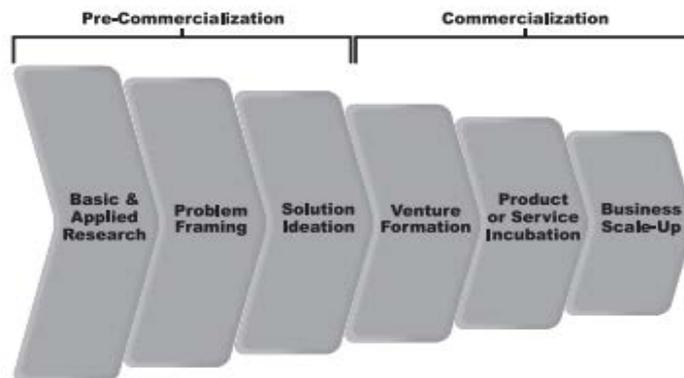


[그림 88] Flow of Assets in the Prosperity Cycle

자료출처: 'The Bay Area Innovation System',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2012

기술연구의 가치화를 위한 혁신 프로세스에서는 여러 단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기초&응용연구, 문제 구성, 문제해결 사고, 벤처 형성, 제품 및 서비스 인큐베이션, 비즈니스 스케일 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혁신은 non-linear processes를 통해 창출되는 것으로 기초 연구과정에서 창출될 수도 있지만 창조적인 개인, 디자인, 시장 및 고객니즈에 대한 문제 해결, 비즈니스 문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발생 될 수도 있다.



[그림 89] 기술 혁신 가치사슬

자료출처: 'The Bay Area Innovation System',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2012

베이지역 혁신시스템은 다양한 플레이어들로 구성되는데 창업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자본제공자(엔젤 투자자, VC, 민간투자자, 은행 등),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특화된 서비스 제공자(IT, 직원채용, 법률, 회계, 전략분야), 디자인기업(IDEO, Frog 등), 그리고 정부가 그에 해당된다. 이러한 플레이어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 플레이어들은 창업가, 중소기업,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베이지역 혁신시스템은 주요 기관의 중심에 내장되어 있으며 주로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 베이지역 혁신시스템과 연계된 대학은 University of California와 Stanford 등 4개의 지역 캠퍼스, 5개의 주립대학, 그리고 26개의 지역전문대학이 있다. 연구중심대학은 특허와 발명실적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4개의 UC캠퍼스에서 대학원생 및 교직원들에 의해 약 1,800건의 특허와 3,000건의 발명이 산출되었다.

기업은 산업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성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 또한 다른 학술연구자들과 연구 및 공동연구와 관련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데 베이지역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시스템, 사립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전문대학은 대학생, 석사 수준의 기술인력, 숙련된 기술자들을 제공함으로써 베이지역의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San Jose State University는 지역에서 가장 큰 공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4,700명의 학생들을 보유, Foothill-DeAnza Community College District은 매년 약 70,00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의 졸업자들이 실리콘벨리에 입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대학 외에도 베이지역은 공공연구기관들이(Federal laboratories) 혁신시스템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베이지역에 위치한 공공연구기관들로는 4개의 U.S. Department of Energy labs; Lawrence Berkeley, Lawrence Livermore, Sandia (California), Stanford Linear Accelerator와 NASA의 Ames Research Center, San Francisco Veterans Administration Medical Center, Veterans Administration Palo Alto Health Care System,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인 Lawrence Berkeley와 Lawrence Livermore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Joint Genome Institute가 있다. 이와 같이 베이지역의 정부, 공공기관, 연구시설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구축된 연구 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또 다른 '파트너 간 융합' 혹은 '학제 간 융합' 활동을 스스로 이끌어내고 있다.

베이지역은 지역 정부,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 민간 등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발전해온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로부터 사업화과정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스타트업 배양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베이지역에는 최소 80개가 넘는 기관, 단기 임대 사무실, 네트워크의 기회, 법률 및 컨설팅 자문, 스타트업을 위한 VC 접근 경로 등이 구축되어 있다. 혁신의 사업화는 비축된 VC, 엔젤투자자, 스타트업 및 기업(early-, later stage)에 자금을 조달해 줄 프라이빗 에쿼티(private equity)에 의해 구동되는데 베이지역은 300개 이상의 VC 및 프라이빗 에쿼티 기업이 지역 신생 기업에 투자했으며 평균적으로 미국 내 벤처투자의 36%, 전 세계 벤처투자의 16%가 베이지역에서 이루어지며 9개의 카운티로 이루어진 베이지역이 하나의 국가라면 GDP \$533B으로 전 세계 경제순위 19위를 차지하게 된다.

베이지역은 스탠포드, 버클리 등 Silicon Valley에 인접한 세계 우수 대학 인재들의 상당수가 졸업과 동시에 Silicon Valley에 입성하고 있는데 2013년도 LG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 매출이 프랑스 국내 총 생산량과 비슷한 2조 7,000억 달러에 이르며 1930년대 이래로 동문들이 영위하는 기업이 3만 9,900개, 창출된 일자리가 54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	업종	설립년도	설립 배경
HP	컴퓨터	1939	스탠포드 대학 동문 창업
Apple	컴퓨터	1976	홈브루 컴퓨터 클럽 출신 창업
Intel	반도체	1968	페어차일드 반도체 스핀오프 기업
Cisco	통신장비	1984	스탠포드 대학 동문 창업
Google	인터넷	1998	스탠포드 대학 동문 창업
Oracle	소프트웨어	1977	CIA의 연구 활동 기반
eBay	인터넷 경매	1995	프랑스 이민 창업가 설립
Advanced Micro Devices	반도체	1969	페어차일드 반도체 스핀오프 기업
Yahoo	인터넷	1994	스탠포드 대학 동문 창업
Symantec	정보보안	1982	스탠포드 대학과 NSF 연구 활동
Agilent Technologies	전자장비	1999	HP의 스핀오프 기업
San Disk	반도체	1988	전직 인텔 직원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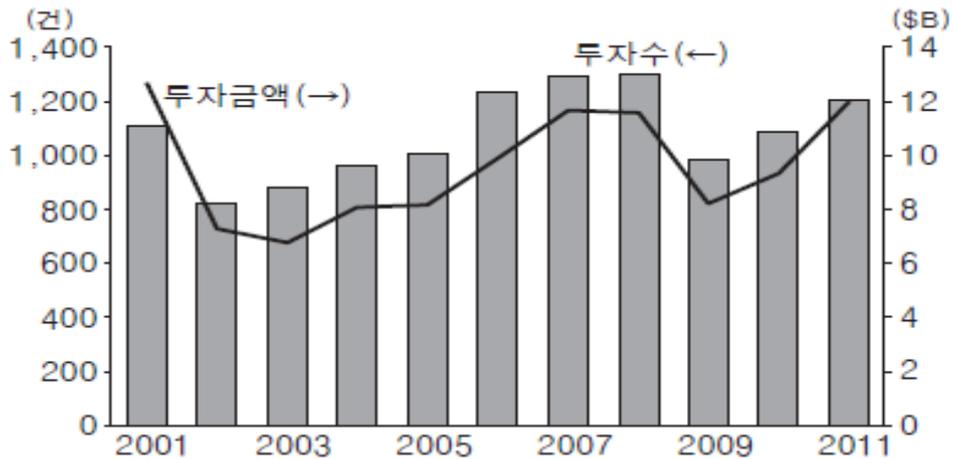
[그림 90] Silicon Valley의 주요기업

자료 : Silicon Valley (2013)

또한 베이지역은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창업활동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인구의 25.4%가 이민자들이며 이들이 세운 첨단기술기업이 전체기업의 31%를 차지, Silicon Valley 기업의 43.9%를 차지한다. 1984년도 베이지역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원학사의 44%가 외국 국적이었으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56%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2년, 인텔, 야후, 구글 등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이 설

립한 기업이 5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6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미국 벤처캐피탈의 40%가 silicon Valley에 집중되어있으며 대기업 또한 전략적으로 베이지역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엔젤투자는 신생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미국 벤처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내 엔젤투자규모는 2012년 229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를 통하여 27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엔젤투자기업뿐 아니라 할리우드배우 혹은 일반인들도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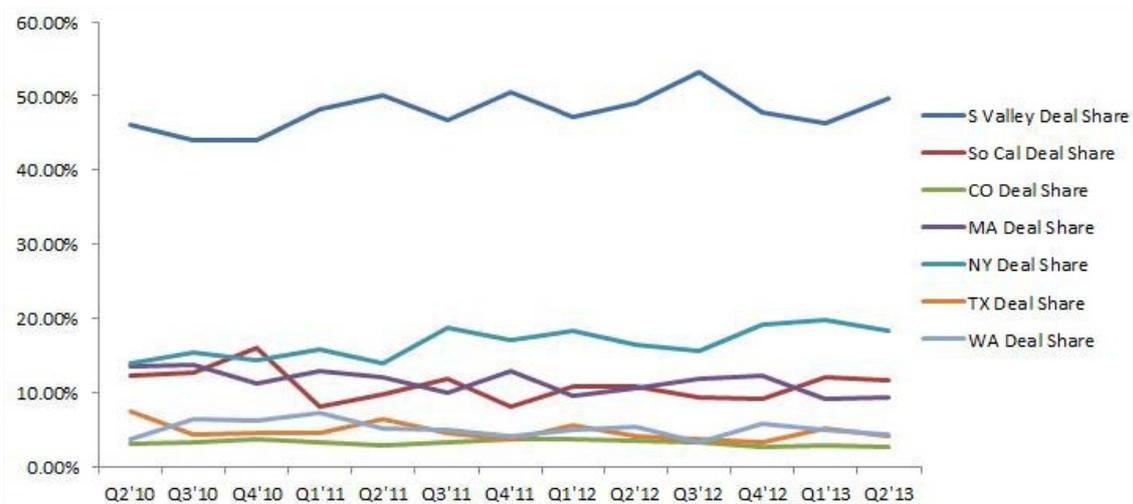
[그림 91] Silicon Valley기업에 대한 투자건수 및 규모

자료 : PWC,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2. 미국 뉴욕시의 Silicon Alley

미국의 Silicon Alley는 뉴욕시 맨해튼의 첼시, 미드타운, 유니온스퀘어 근처의 신생기업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을 말한다. 뉴욕의 실리콘앨리는 실리콘벨리와는 다르게 뉴욕의 기존사업과 뉴미디어를 결합한 콘텐츠에 힘쓰고 있다(위키패디아, 2015).

지금까지의 뉴욕은 월스트리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으며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다.¹⁶²⁾ 하지만 2007년부터 뉴욕지역의 기술 분야 창업기업이 엔젤투자, Seed 투자자, VC 등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닷컴버블(Dot-Com Bubble, 1997~2000)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생기업과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은 뉴욕이 기술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림 92] Silicon Valley Deal Share vs. Major Tech Hubs (Q2'10-Q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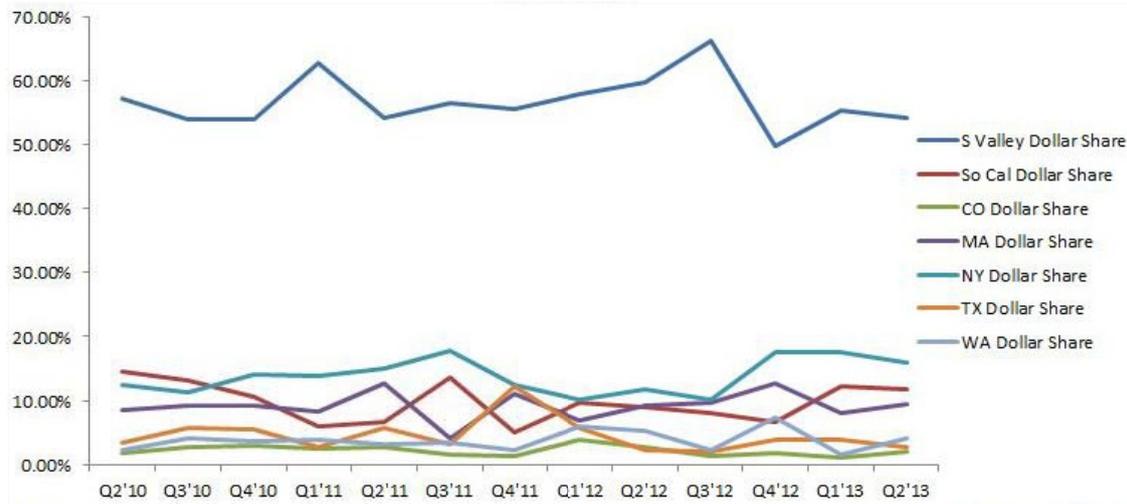
자료: cbinsights.com

벤처캐피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CBinsights에 따르면 뉴욕 실리콘앨리를 제2의 실리콘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CBinsights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7개 기술허브 지역을 조사한 결과 Deal Share부분에서 여전히 실리콘벨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외 지역들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뉴욕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실리콘벨리 뒤를 따르고 있다.¹⁶³⁾ 또한 동일 지역의 Funding Share 부분에서는 12년도

162) 'new tech city' www.nycfuture.org, may 2012

163) CB insight, 'The Next Silicon Valley is Probably Going to be...Silicon Valley', 2013년 8월 13일자

3분기 시점부터 가속화되어 실리콘벨리지역의 성과가 저조했던 지점에서 오히려 급속히 성과가 창출되는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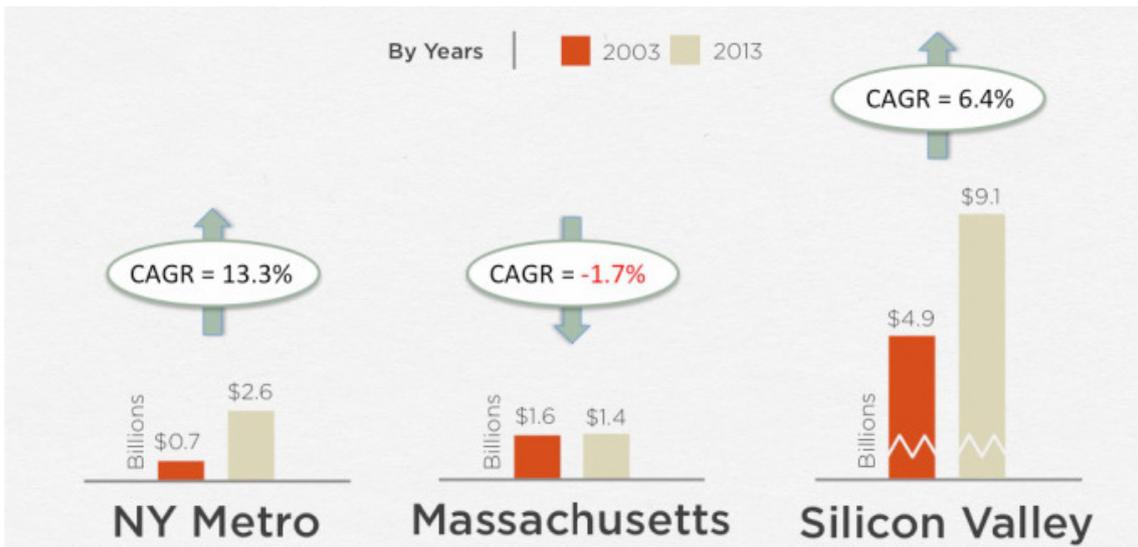


[그림 93] Silicon Valley Funding Share vs. Major Tech Hubs (Q2'10-Q2'13)

자료: cbinsigh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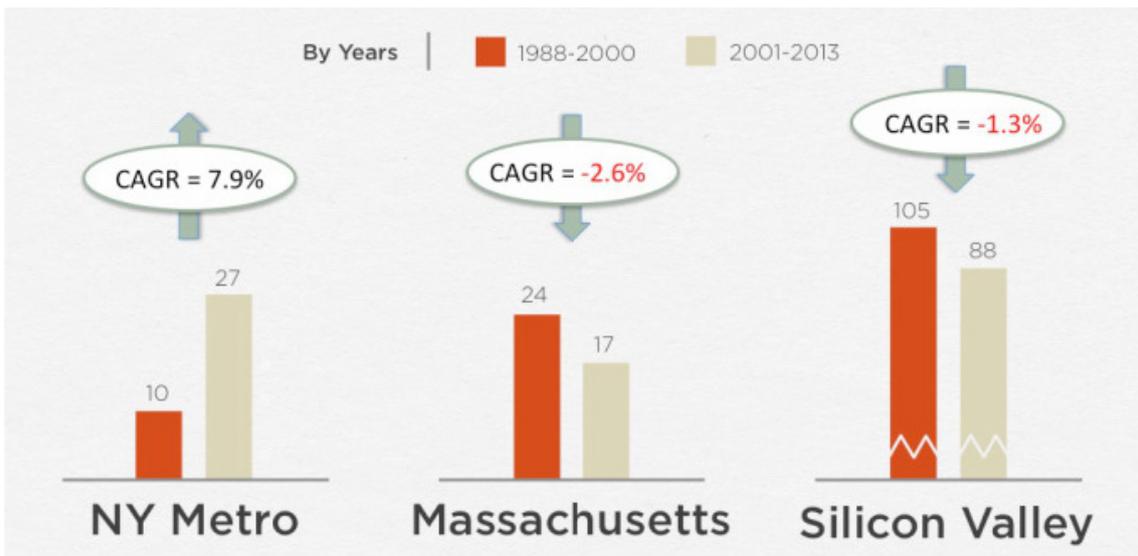
또한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뉴욕이 \$2.6B 규모의 VC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매사추세츠보다 87%가 큰 규모이고 실리콘벨리의 28% 규모라고 밝히며 뉴욕의 기술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뉴욕은 현재 미국 내 스타트업 생태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은 정보기술분야에서 투자유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2003~2013년 사이 투자금액이 0.7B\$에서 2.6B\$로 13.3%가 증가했으며 이는 실리콘벨리의 투자유치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또한 2001~2013년 사이 뉴욕 정보기술분야 기업의 Exit규모가 \$500M이상으로 증가하며 현재 뉴욕의 경제 생태계는 인터넷 버블이 터지기 이전, 건축산업의 세대 보다 크기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림 94] 뉴욕주 정보기술분야 스타트업 VC투자

자료: www.nickbeim.com



[그림 95] 뉴욕주 정보기술분야 Exits

자료: www.nickbeim.com

또한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는 2010년 2,000개의 기업이 설립되어 2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3년에는 7,000개의 기업이 설립되어 10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하이테크산업을 성장시켰다.¹⁶⁴⁾

NYC Future 리포트에(2012) 따르면 2007년도부터 외부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의 공식적 집계는 486개로 나타났으나, 이외 데이터 분석과 뉴욕의 기업

164) 'New York City's Growing High-Tech Industry', New York State Comptroller, Thomas P. DiNapoli, April, 2014

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약 1,000여개 이상의 기술 스타트업이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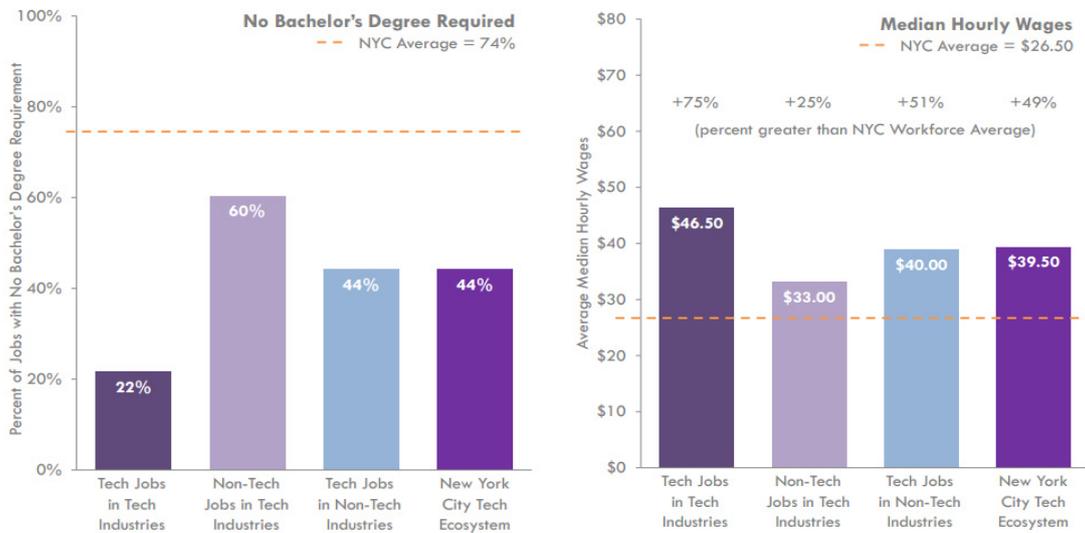
이에 관하여 뉴욕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 TechStars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David Tisch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접수된 지원서 수가 2011년 1월에 600여개로 집계되었으나 같은 해 7월에는 1,100여개 이상,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1,600여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NYC는 실리콘벨리, 보스턴에 이어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로 발전하고 있으며 뉴욕 공동작업공간을 이용하는 스타트업의 30%는 외부지역에서 이동한 스타트업으로 이전에 Wall Street으로 몰리던 HBS(Harvard Business School) 학생들이 현재 창업을 위해 뉴욕을 찾고 있다(뉴욕 소재 테크스타트업의 28% 이상이 Harvard Business School 출신임). 이에 관하여 벤처캐피탈리스트(보스턴소재) Jeff Busgang은 HBS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3가량이 뉴욕에서 창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뉴욕의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3~2013년 사이 미국전역의 인력이 4%가 증가한데 반해, 뉴욕시대의 인력은 12%나 증가하였고 특히, 기술 생태계의 인력은 246,000명에서 291,000명으로 18%가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기술 산업에서의 기술인력', '기술 산업에서의 비기술 인력', '비기술 산업에서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뉴욕시대의 기술생태계를 통해 총 29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다.¹⁶⁵⁾ 뉴욕시 기술생태계가 조성되며 간접적 영향을 받은 일자리를 반영하면 총 541,000개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 인력의 12.6%를 차지한다.

뉴욕시 기술생태계 인력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44%인 128,000명은 학사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 중 11,600명은 기술 산업의 기술 인력이다. 뉴욕시 기술생태계 인력에 대한 평균 시급은 39.5달러로 뉴욕시 전체 지역 시급의 중간 값인 26.5달러보다 49% 높게 나타났으며 학사 이하 인력에 대한 평균 시급은 27.75달러로 동일 학력조건인 다른 지역인력이 19달러인 것에 비해 4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5) nyctechconomy 홈페이지



자료출처 : nycteconomy 홈페이지

뉴욕시 기술생태계는 뉴욕시에 약 5.6B달러(연간세체수입)를 창출하고 있고(Property Tax: 2.5B달러, Personal Income Tax: 1.3B달러, Corporation & Business Income Tax: 0.9B달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 촉진 시책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술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율(이전건수/보유건수)이 2009년 22.7%, 2010년 23.1%, 2011년 26.0%, 2012년 27.1%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대학·재단을 중심으로 혁신적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수행함에 따라 실업률 또한 2010년 9.9%에서 2013년 7.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뉴욕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영국 런던의 Tech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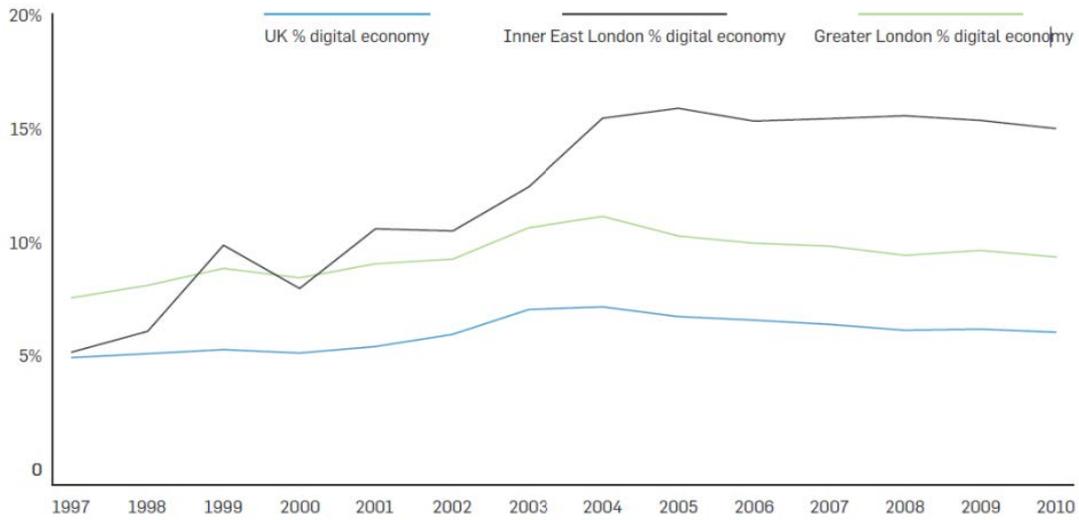
문화콘텐츠 중심이었던 영국의 창조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고 이후 1990년도부터 창업가들과 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지조건을 갖춘 런던 동부의 Shoreditch와 Clerkenwell 지역으로 이동하여 하이테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성장해왔으며 2010년 11월, 영국 정부는 이러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테크시티를 설립하였다. 테크시티는 Imagine, Sart, Grow 3가지 단계를 통해 성공적 창업의 길로 유도하여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기업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대학 및 전 세계 기술클러스터와의 연계, 성장기업 선정 및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테크시티의 3가지 과제에 따른 전략을 살펴보면, Imagine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18~25세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상업적 노하우를 온라인 코스로 지도하고 추후 기업 및 교육기관과 연계할 예정에 있다. Sart는 창업 초기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테크시티의 입주 및 계약안내와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맞춤형 관여정책으로 통한 투자자와의 연결로 계약 성공률을 높이며 영국 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을 통해 기업이 국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Grow과제에서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 기업에게 대중시장에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와 기업의 성장 및 성공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주 및 이민, 투자, 고객유치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 13개 Technology Clusters와의 융합을 통한 지식 및 정보자원을 공유한다. 이 외에도 테크시티는 대학 및 전 세계 기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테크시티 지역의 디지털 분야 기업의 성장을 살펴보면 2009년 49,969여개에서 2012년 88,215여개로 76%가량 증가하였으며¹⁶⁶⁾ ‘A Tale of Tech City’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경제 분야의 인력의 경우 ‘97년 대비 3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디지털경제 분야의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영국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은 영국 민간부분 일자리의 67%이상 제공, 영국 GDP 50%이상 기여하고 있다.¹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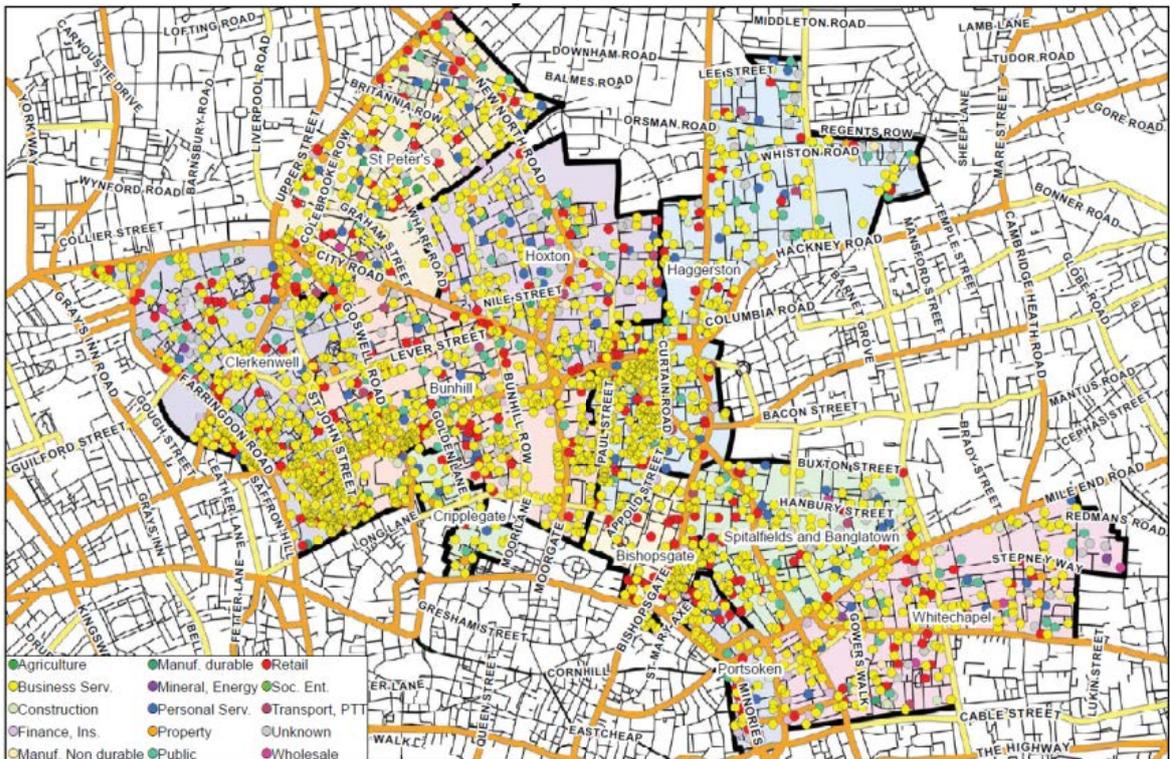
166) computerweekly.com, ‘Tech City: 27% of London job growth comes from technology’, 2013년 12월 6일자

167) “Tech City Future Report: FOREWORD”, May, 2013, Ryan Garner, Julian Blake



[그림 96] Digital Economy Employment Share '97-'10

자료: BSD/ Secure Data Service, "A Tale of Tech City: The Future of Inner East London's Digital Economy", Max Nathan, Emma Vandore, Rob Whitehead. Centre for London 2012



[그림 97] 테크시티지역 산업별 일자리 분포도

자료출처 : 'Characteristics of SMEs and Social Enterprises around Tech City', Report prepared for the City of London Corporation by Experian, Novemb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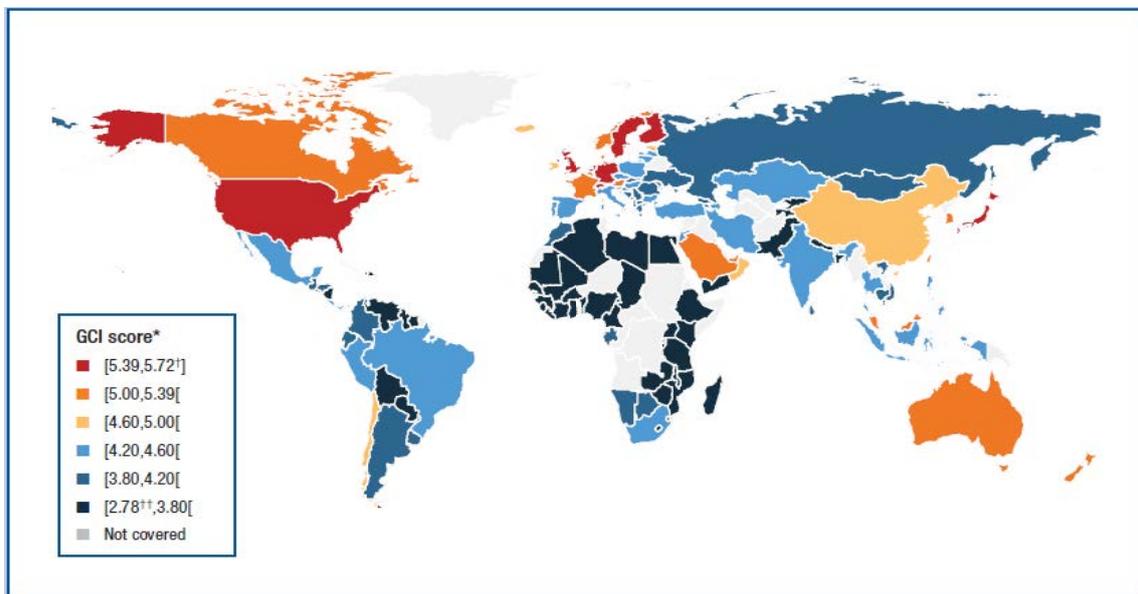
또한, 테크시티에서 디지털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을 도와주는 'Future Fifty'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Future Fifty의 기업들로 인해 2013년 12월 12,9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14년 10월에는 15,091개로 일자리 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uture Fifty 기업의 예상 순이익 부분에서도 2013년 12월 1.3B유로에서 2014년 10월 2.17B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13개 기업에서 총 260M유로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⁸⁾

하지만 2013년 'Tech City Future Report'에 따르면 테크시티 기업의 평균연령은 5.8년으로 정부가 기존지역을 'Tech City'로 브랜딩하기 전부터 있었던 기업들임에 따라 현재 테크시티의 성공을 정부의 공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Future fifty report, 2014).

168) future fifty report, 2014, future fifty.com

4. 독일 베를린의 Silicon Allee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저렴한 아파트 및 오피스 임대료로 젊은이들이 베를린 Mitte지역에 모여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베를린지역이 디지털 스타트업을 이끄는 시초가 되었다.¹⁶⁹⁾ 이후 2006년, 베를린은 UNESCO 디자인 창조도시로 지정되었고 오늘날 런던에 이어 유럽의 스타트업 중심지로 떠오르며 2013년도에는 국가 경쟁력 부문 6위, 혁신능력부문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World Economic Forum의 2012~2013 보고서).



[그림 98]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 The interval [x,y] is inclusive of x but exclusive of y. † Highest value; †† lowest value.

자료: World Economic Forum's 2012-2013 report

베를린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유럽국가 도시에 비해 저렴한 입지조건, 젊고 역동적인 인구, 유럽동부지역의 인력, 샌프란시스코 60년대와 흡사한 ‘Subversive Culture’를 갖고 있으며¹⁷⁰⁾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되어 왔다.

독일의 베를린이 혁신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정부의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정부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시작한 계기가 베를린 지역을 포함한 독일은 중소기업이(Mittelstand¹⁷¹⁾) 독일 경제의 중추역할을 도맡고 있는

169) The Global and Mail, ‘Startup city: Berlin as tech magnet’, 2013년 5월 30일자

170) LandingStanding, ‘Berlin’s Startup Scene - Great For The Traveling Entrepreneur’

171) Mittelstand: 독일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인력이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이 5000만 유로(약 720억 원) 미만인 기업들로, 특히 첨단 제조업 중심의 중간 기업을 뜻함(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며 최근 베를린 지역 경제를 디지털분야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IBB는 2013년 ‘디지털경제와 베를린’에 대해 연구보고서 발표하였고 베를린 시장인 Klaus Wowereit에게 보고되었는데¹⁷²⁾ 이후 베를린은 유럽에서 디지털경제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 정부단위에서의 도시개발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IBB의 2013년 ‘디지털경제와 베를린’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지역 디지털 경제는 연간 €3.9B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베를린지역 경제 수익의 4.2% 규모임을 발견¹⁷³⁾하였고 Ulrich Kissing와 IBB의 CEO는 20시간마다 베를린 지역에서 새로운 인터넷 기반 산업분야 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2012년 한해에만 469개 스타트업이 생성되었다고 추가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s, Technology & Research에서도 디지털경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베를린은 유럽 내 디지털경제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IBB를 중앙사업추진 기관으로 임명하며 지역 경제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베를린 상원의원을 위해 진행한 컨설팅 기업 McKinsey의 연구에 의하면 베를린은 유럽 스타트업 허브를 리드 할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며 베를린이 기업가 및 인재들의 자금접근성, 네트워크 등 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 지원한다면 런던, 텔아비브, 파리, 모스크 등의 스타트업 허브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¹⁷⁴⁾

베를린은 유럽국 중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글로벌 시장주도기업들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기업 이외에도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밀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베를린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온라인마케팅 및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 E-Commerce와 디지털 콘텐츠의 고객서비스와 같은 디지털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⁷⁵⁾

베를린의 기업지원 생태계는 공공 혹은 민간/공공단체로 구성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센터 및 VC 투자자가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로 인해 2012년, 기술기반 베를린지역 스타트업이 133M유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¹⁷⁶⁾. 2013년도에는 6개월간 VC가 베를린 지역 IT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분야 스타트업에 200M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72) Venture Village, “Poor but sexy? We’ll just take sexy, thanks…” Berlin’s digital economy booms, 2013년 7월 2일자

173) Berlin aktuell: Digitale Wirtschaft – Standortanalyse im Städtevergleich, Juli 2013

174) Venture Village, “Make Tempelhof Airport a startup hub – and other McKinsey tips for the Berlin Senate, 2013년 10월 8일자

175)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s, Technology and Research, 2013, ‘Berlin’s Digital Economy - Starting up. Growing. Investing’

176) Slide Share, 2014.01.08., ‘Berlin City Beat - A Handy Guide for Startups in Berlin’

2013년도 Berlin Partner for Business & Technology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베를린 내 258개 프로젝트를 통하여 5,506개 일자리창출, 369M유로 투자유치로 전년대비 200개 일자리 증가, 90M유로 투자가 증가되었으며¹⁷⁷⁾ 이에 관한 McKinsey의 연구는 베를린이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많으므로 2020년, 베를린지역은 스타트업으로 인해 100,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¹⁷⁸⁾

베를린은 현재 전 세계 창업생태계 구축도시 3위를 차지(Startupbootcamp, 2014), '기업 활동하기 좋은 곳' 20위(185개국 중) 차지¹⁷⁹⁾하였으며 신생기업의 경우 44%가 해외기업가로 구성되어 해외기업 및 인재유치부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7) Berlin Partner 홈페이지

178) McKinsey & Company, 2013, McKinsey study: Berlin can become Europe's leading startup hub

179) Slide Share, 2014.01.08., 'Berlin City Beat - A Handy Guide for Startups in Berlin'

5.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Silicon Wadi

모래언덕으로 뒤덮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1909년, 66명의 기업가와 그들의 가족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막지역이던 텔아비브로 이동하며 시작되어 오늘날 스타트업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⁸⁰⁾ 당시 Akiva Aryeh Weiss(Chaired the lottery)는 텔아비브지역 발전의 시초가 된 기업가들에게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뉴욕으로 만들 것 이라 다짐했다.

"I have a plan as to how we may build 100% Hebrew cities... The streets will be broad, the homes will have running water and be surrounded by gardens, electric lights will blaze in the streets and houses and industry will have electrical power day and night. A comprehensive sewage system will be established and everything required for a modern city will be installed"¹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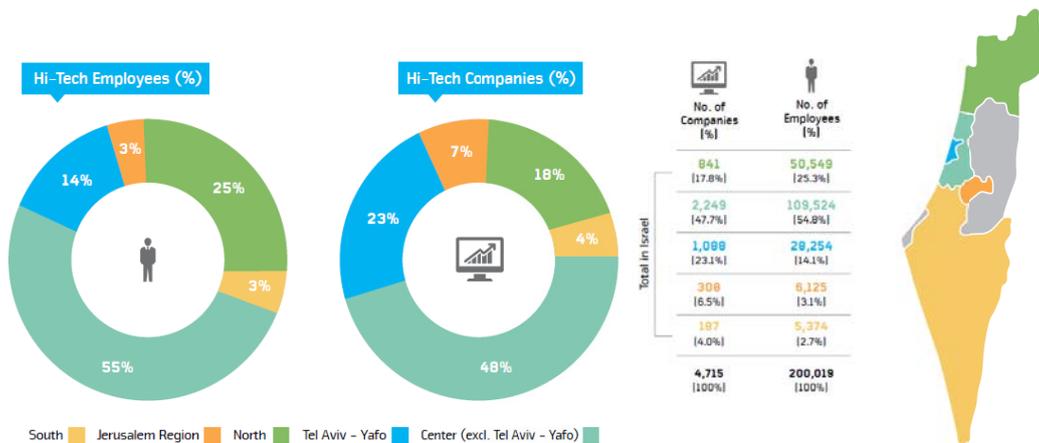
이후 1990년대 후반기부터 IT부문이 이스라엘 기술 산업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이스라엘 정부는 해외 마케팅 및 유통 채널 구축용 자금 지원, 창업기업 세제 우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우대 등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시작하였고,¹⁸²⁾ 이로 인하여 2002년, 이스라엘 벤처창업기업 중 120개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들 기업 대부분이 Hi-Tech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 국내·외 기업을 포함하여 1,000개 이상의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약 23%가 이스라엘기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635개의 첨단기술 분야 이스라엘기업이 텔아비브에 설립되었으며, 345개 기업은 폐업되었다.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 중 인터넷기반 첨단기술 분야는 가장 많은 43%를, 그 다음으로는 통신 및 IT 분야가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스타트업 기업은 64%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텔아비브는 국외기업을 포함하여 약 31,000명의 인력이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28,000명의 인력이 텔아비브에 위치한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180) Tel Aviv Startup City Cracking the Innovation Code - Startup Grind, 2013, Tel Aviv - Yafa municipality | Global City & Tourism | www.tel-aviv.gov.il.

181) boeliem.com, 'Tel-Aviv Centennial - Akiva Aryeh Weiss (1868~1947)'

182) '기술강국 이스라엘 벤처기업 성공비결', 2002. 강영수, KOTRA, 동향/연구보고서



[그림 99]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경제 현황

자료 : Tel Aviv Startup City Cracking the Innovation Code - Startup Grind, 2013, Tel Aviv - Yafo municipality | Global City & Tourism | www.tel-aviv.gov.il.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절반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050년에는 더 증가하여 70%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도시는 광고, 문화, 관광, 산업 등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지고 개발과 사회진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투자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기업, 지식, 기술, 창조적인 재능, 국제기구, 그리고 관광 등에 있어 세계 문대에서 주요선수가 될 수 있도록 2010년 Tel Aviv를 Startup City로 개발하는 'Startup City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Tel Aviv에서는 인터넷, 모바일 및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창업가에게 가장 헌신적인 지원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선정되었다.

6.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Saint Louis

Schumpeter(Schumpeter 1912)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즉, 기업가의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바 있듯이 현재 세인트루이스는 이러한 혁신으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지역단위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실리콘벨리의 경우 기업을 만들어내고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유도하는 독특한 지역의 구조와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들은 스스로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나아간다(Saxenian 1994; Kenney 2000; Lecuyer 2006). 또한 주변 환경이 지닌 인프라는 지역별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만드는데 여러 연구에서도 주변 환경이 지닌 인프라가 많은 대도시일 수록 기업가정신이 더욱 강하다고 밝혀지고 있다(Acs & Armington, 2006).

지난 반세기동안 세인트루이스는 ‘Big Business’ 도시로 알려져 오며 Anheuser-Busch, Nestlé Purina Petcare, Emerson Electric, Enterprise Rent-A-Car, & A.G. Edwards 등 안정적인 기업 혹은 글로벌기업의 고향(hometown)이어왔다. 하지만 이후 Southwestern Bell Communications(AT&T)가 1993년 본사를 텍사스로 이동하고 같은 해 큰 홍수가 지역을 휩쓰는 등 이외 여러 기업들이 매각되며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큰 경제변화가 일어났고 2008년 미국전역에 나타난 경제위기까지 겪고 난 후 실업인구의 증가로 세인트루이스는 직장을 잃은 전문 인력이 밀집된 경제개발을 위해 새로운 엔진이 필요한 도시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개발기관, 세인트루이스 상공회의소, 지역대학들, John McDonnell과 Bill Danforth 커뮤니티 등 공공 및 민간기관들로부터 투자 및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역이민자유치를 위한 Mosaic프로젝트, 기업가정신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Skandalaris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가 세인트루이스의 Washington University에 의해 2001년 설립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 커뮤니티들이 형성되며 기업가정신 지원조직들이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 벤처투자자 Joe Schlafly와 세인트루이스 경제개발 지지자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업 Arch Grants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도시에 유도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사업계획 경연대회를 열어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50,000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선정된 기업의 설립을 세인트루이스로 유도하는 데에 성공했다. Arch Grants의 보조금이 모든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 기여했다고 가정할 수는 없으나 스타트업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은 스타트업이 기업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인트루이스 지역이 보여주었던 공공, 준 공공 및 민간부분을 포함하는 집단의 노력은 정책적 시사점을 부여한다.

7.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반

네덜란드의 기술 및 혁신을 담당하는 The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는 지난 몇 년간 ‘기업가정신’을 경제정책 의제(아젠다)의 상위 주제로 여기고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네덜란드 정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은 네덜란드 국민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GEM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네덜란드 인구(18~64세) 중 34%가 거주 지역에서의 스타트업 기회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에는 네덜란드 인구의(18~64세) 스타트업에 대한 기회인식은 201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같은 레벨의 경제개발국들 평균 수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¹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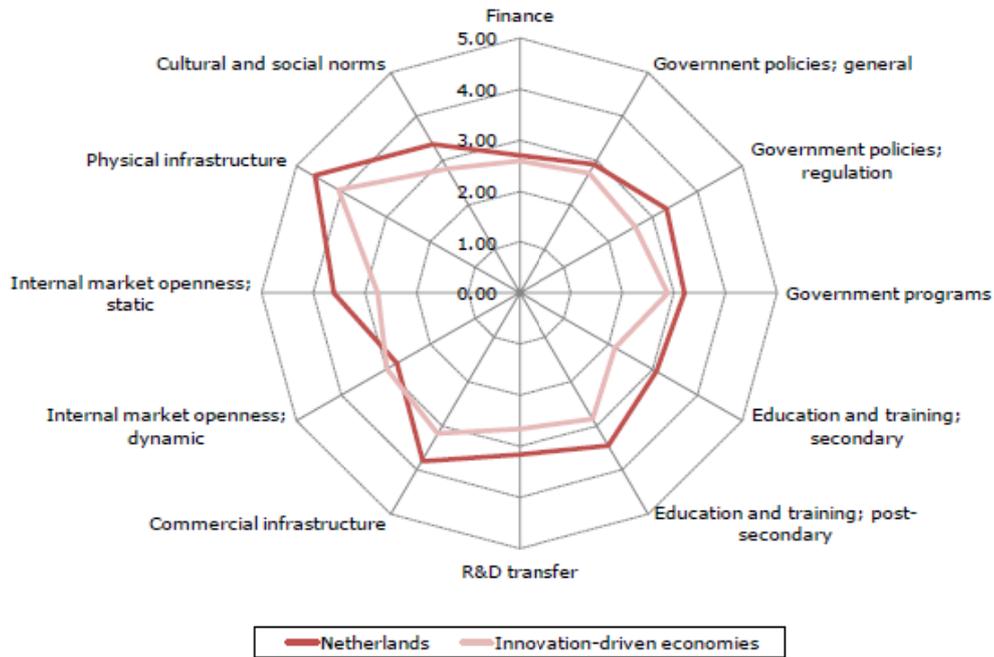
	Factor-driven economies	Efficiency-driven economies	Innovation-driven economies	OECD	EU	Netherlands
Perceived opportunities	63	41	31	33	31	34
Perceived capabilities	71	52	36	42	42	42
Fear of failure	28	37	44	44	47	39

Source: Panteia/GEM APS 2012.

또한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속도와 두 번째로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접근성과 열린 기업의 문화는 기업의 설립자, 해커, VC 간의 커뮤니티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의 성장은 주로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일부인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네덜란드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도시, 아인트호벤이 ‘2011년 Intelligent Community Forum’에서 네덜란드의 지역 중 가장 스마트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아인트호벤은 하이테크 캠퍼스 및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어 필립스와 ASML 같은 기업에게 있어 핫 스팟으로 불리고 있으며 현재 아인트호벤의 하이테크 캠퍼스는 기술 벤처 기업의 증가에 기여하고 인터넷 기반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18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The Netherlands 2012’, National Report, Novem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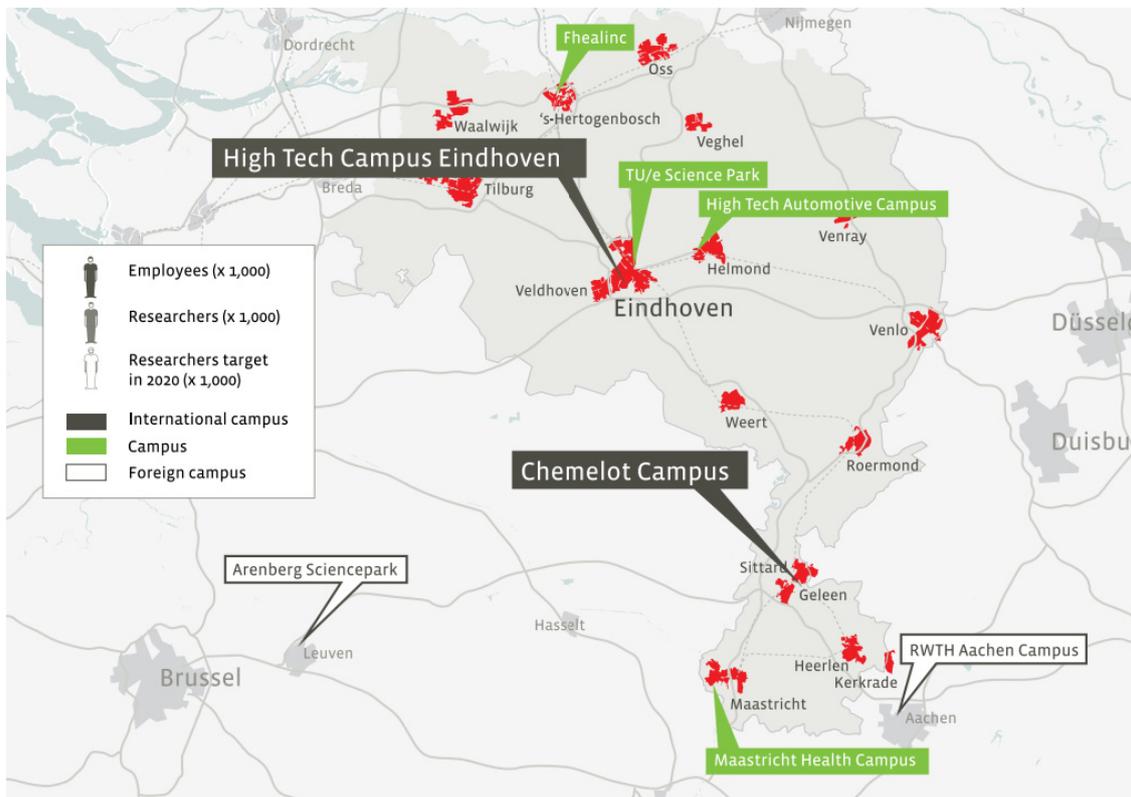
Source: GEM NES 2012.

아인트호벤이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끌며 네덜란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스타트업을 이끌기까지 경제성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인트호벤은 19세기, 산업 혁명으로 운하,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며 네덜란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담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후 1891년 전구제조회사 필립스의 설립으로 아인트호벤 지역이 급속히 발전하며 산업화를 불러들였고 필립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주요 기술과 산업 허브를 만들고, 많은 하이테크 회사를 창출하며 20세기 아인트호벤의 주요 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산업화는 아인트호벤에 인구 증가를 가져와 1815년은 2.310명, 1920년은 47.946명, 1925년은 63.870명, 그리고 1935년에는 103.030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자동차 및 트럭 제조기업인 DAF Trucks의 등장으로 기술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70, '80, '90년대 아인트호벤을 네덜란드 내 5번째 대도시로 만들어 준 대규모 주택개발을 시행하게 되었고 2000년대, 네덜란드 산업 디자인의 수도로 부상하며 Design Academy Eindhoven에서 마르텐 바스, 마르셀 반 더스, 리처드 Hutten, 위르겐 지사, Jongerius 등 주요 네덜란드 디자이너를 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21세기, 자동화기술, 나노테크 놀로지, 의료 관련 산업을 연구하며 본격적으로 첨단산업도시로 변화되었다.

이후 2005년 아인트호벤 지역은 네덜란드 전체 R&D 활동의 36%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의 1/4의 규모가 FEI Company(필립스 전자 광학에서 파생), NXP Semiconductors(필립스 반도체에서 파생), ASML, Toolex, Simac, CIBER, Neways, Atos Origin, Philips & DAF와 같이 기술 및 ICT분야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아인트호벤은 네덜란드 내에서 하이테크지역으로 불리고 있으며 Brainport Industries Park, High Tech Campus Eindhoven, Fhealinc, TU/e Science Park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Chemelot Campus, Arenberg Sciencepark, RWTH Aachen campus, Maastricht Health Campus가 위치해 있어 약125개사와 협업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10,000여명 이상의 연구원, 개발자, 기업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 100] 아인트호벤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자료: Websites HTCE, Chemelot, Buck Consultants International, Brainport Development

제2절 해외 주요 도시기반 창업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1. 미국 샌프란시스코 Bay Area와 Silicon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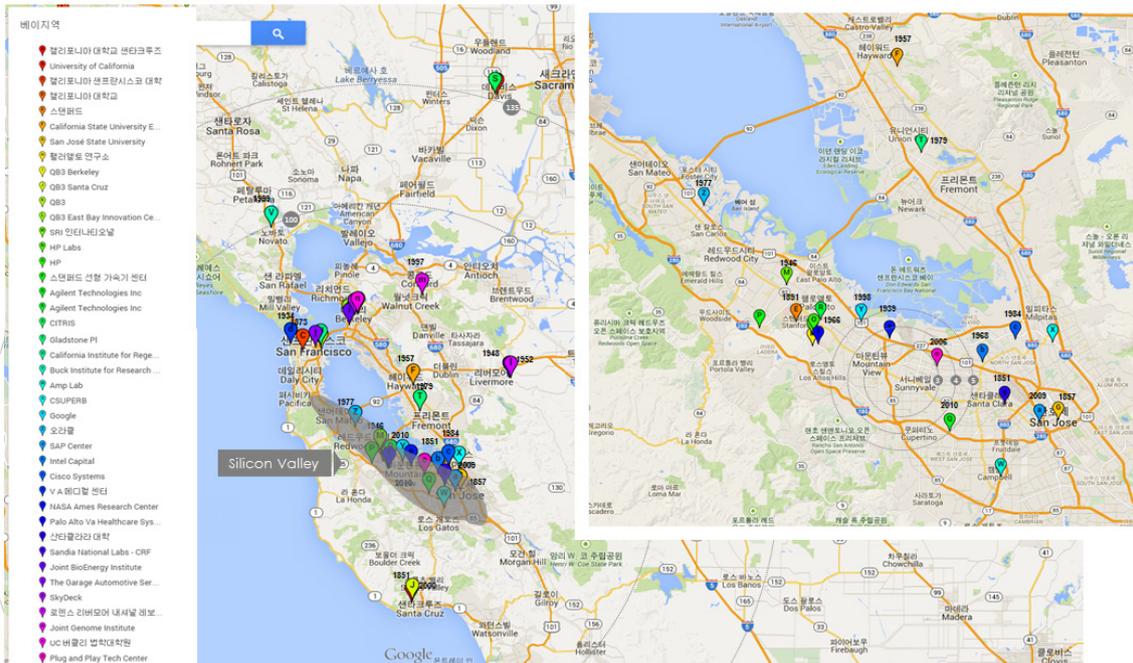
실리콘밸리 지역의 혁신 생태계는 인근 샌프란시스코 만의 베이 지역을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탠포드대학, UC Berkely를 비롯한 우수한 대학,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Sandia National Lab 등의 연방 연구기관, Xerox, HP, Google, Apple, Oracle 등 글로벌 거대기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베이지역 혁신시스템은 다양한 플레이어들로 구성되는데 대학, 연구기관, 금융(벤처, 엔젤, 부채, 프라이빗에쿼티),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공식·비공식적 네트워크, 창업가, 대기업, 그리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특히, 혁신시스템의 중앙에는 연구중심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표 103> 베이지역의 주요 혁신지원 조직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1851	대학	Santa Clara University	공동연구 수행
1857	대학	San José State University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1868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1873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1891	대학	Stanford University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1906	기업	Xerox Corporation	스타트업 지원 및 연구소 운영
1908	기업	British Petroleum	스타트업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1931	정부연구기관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지원
1934	정부연구센터	San Francisco VA Health Care System Home (SFVA)	공동연구 수행
1939	정부기관	NASA Ames	공동연구 수행
1939	기업	Hewlett-Packard	스타트업 지원 및 연구소 운영
1946	비영리 기관	SRI International	공동연구 수행
1948	정부연구기관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지원
1950	정부연구기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공동연구 수행
1952	정부연구기관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UC 대학에 의해 설립,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지원
1957	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1958	리서치 에이전시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공동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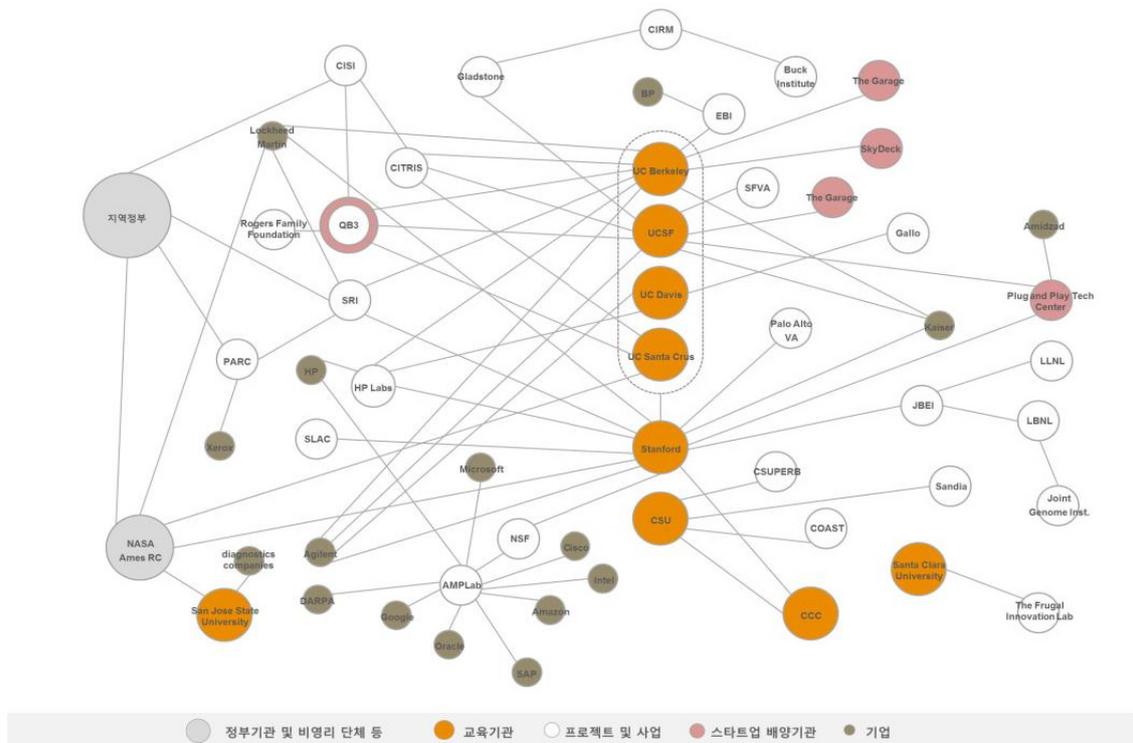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1962	연구소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1965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1966	연구소	HP Labs Palo Alto	기술사업화 및 공동연구 수행
1968	기업	Intel	스타트업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1970	연구소	Palo Alto Research Center, PARC	기술사업화 및 공동연구 수행
1977	기업	Oracle Corporation	스타트업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1979	비영리 연구조직	Gladstone	공동연구 수행
1983	대학 연구소	California Institute for School Improvement (CISI)	기술배양
1984	기업	Cisco	스타트업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1987	연구소	CSUPERB	기술사업화 및 공동연구 수행
1994	비영리조직	East Bay Innovations (EBI)	기술배양
1997	정부연구기관	Joint Genome Inst.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지원
1998	기업	Google	스타트업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1999	민간연구 기관	Buck Institute	기술배양 및 공동연구 수행
2000	비영리 기관	QB3	연구 및 기술사업화 수행
2001	연구소	CITRIS	기술배양
2004	정부연구기관	California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 (CIRM)	공동연구 수행
2006	엑셀러레이터	Plug and Play Tech Center	스타트업 지원
2009	기업	SAP	스타트업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2010	대학 연구소	Agilent	기술배양
-	정부관계기관	Joint BioEnergy Institute (JBEI)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지원
-	인큐베이터	The Garage	스타트업 지원
-	인큐베이터	SkyDeck	스타트업 지원
-	대학 연구소	Gallo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	대학 연구소	The Frugal Innovation Lab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	연구소	CSUPERB	공동연구 수행
-	대학연구소	AMPLab	기술배양 및 공동연구 수행
-	연구소	VA Palo Alto	공동연구 수행

상기 <표 103>과 같은 베이지역의 주요 혁신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조직을 도상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10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01] Bay Area를 중심으로 본 Silicon Valley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이들 혁신 조직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02]와 같다.



[그림 102] Bay Area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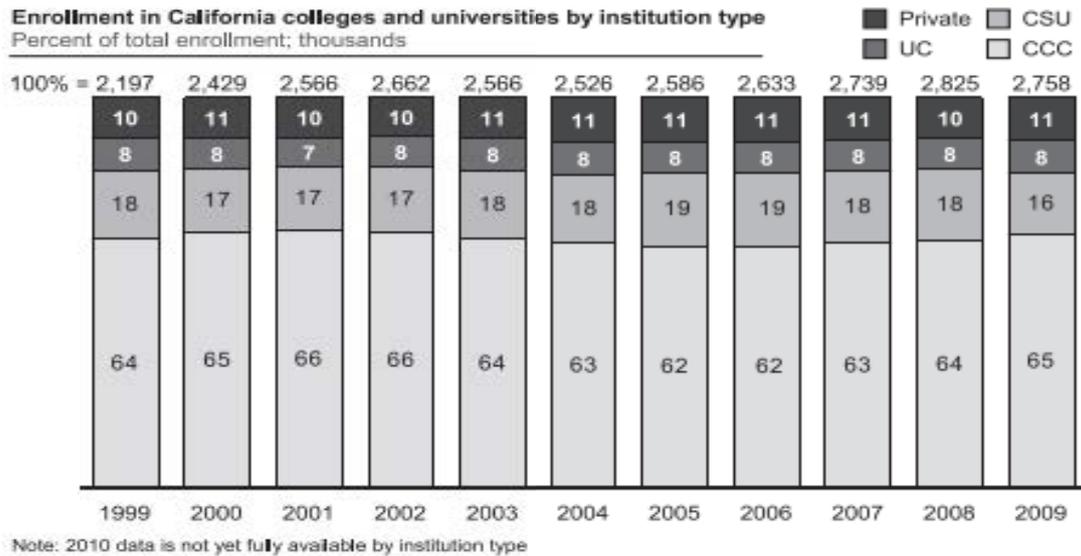
1)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결

베이지역은 미국 내 우수대학들 간 네트워크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연구 중심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베이지역 대학들을 분류하면 다음 <표 104>와 같은데, 이들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로부터 특허와 발명이 창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포드대학과 버클리 대학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표 104> 베이지역 대학 현황

구분	대학
공립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UC): UC Berkeley, UC Davis, UC San Francisco, UC Santa Cruz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CSU East Bay, CSU Maritim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an Jose State University, Sonoma State University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CCC): Berkeley City College, Cabrillo College, Cañada College, Chabot College, City College of San Francisco, College of Alameda, College of San Mateo, Diablo Valley College, Contra Costa College, De Anza College, Evergreen Valley College, Foothill College, Laney College, Las Positas College, Los Medanos College, College of Marin, Merritt College, Mission College, Monterey Peninsula College, Napa Valley College, Ohlone College, San Jose City College, Santa Rosa Junior College, Skyline College, Solano Community College, West Valley College
사립대학	Regionally-based institutions: Stanford University, Santa Clara University, University of San Francisco, Dominican University, Golden Gate University
	Regional campus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Carnegie Mellon Silicon Valley, Wharton School/University of Pennsylvania, Babson College, Hult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Presidio Graduate School, Academy of Art University, San Francisco School of Digital Film Making, Ex'pression College for Digital Arts, Cogswell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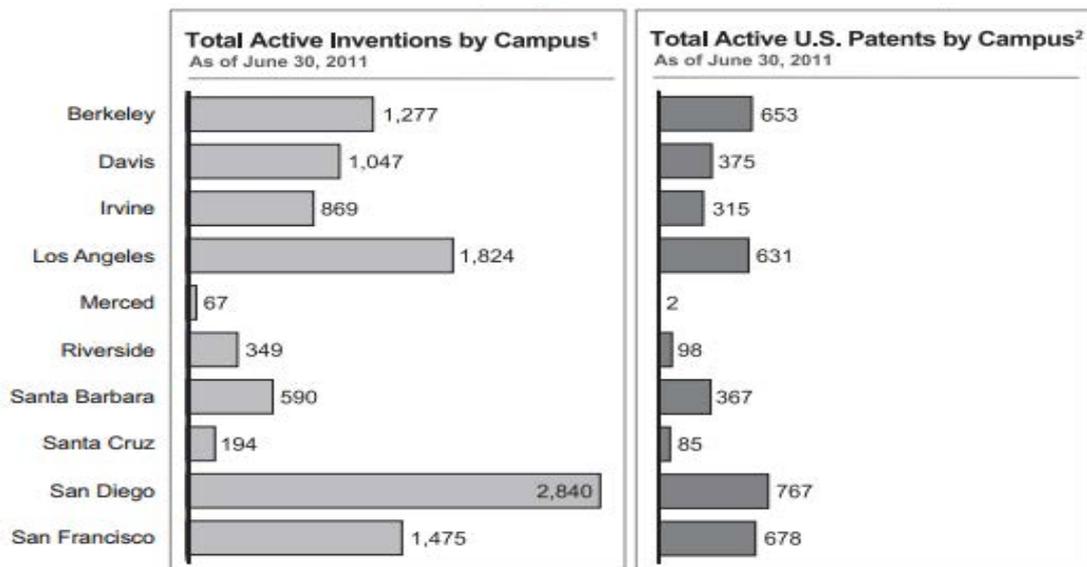
베이지역에 위치한 4개의 University of California 캠퍼스 그리고 스탠포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연구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내 우수(Top ranked graduate program)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약 90%가 공립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림 103] 캘리포니아 공립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출처: California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and McKinsey & Company Analysis

University of California는 미국내 주요 연구중심 대학으로 55,000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메디컬 레지던트를 포함, 총 235,000여명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57명의 노벨수상자들을 배출한 대학으로 많은 수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1 Inventions associated with inventors from more than one campus are reported multiple times in this exhibit
2 Patents associated with inventors from more than one campus are reported multiple times in this exhibit
SOURCE: University of California Technology Transfer Annual Report 2011

[그림 104] 캘리포니아 대학별 발명 및 특허출현 현황

출처: University of California Technology Transfer Annual Report 2011

2011년, 14개 스타트업이 베이지역 4개의 캠퍼스에서 생성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하였다. 베이지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은 각 캠퍼스의 라이선스 오피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은 추가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연구 범주를 넓히고 특화된 연구를 진행한다.

<표 105> 베이지역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 주요 조직

라이선스 오피스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 Berkeley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 Industry Research Alliances (IPIRA) • UC Davis Innovation Access • UC Santa Cruz Office of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MIP) • UCSan Francisco Office of Innovation, Technology and Alliances Management(ITA) •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Technology Transfer an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TTIPM) • UC Office of the President Innovation Alliances and Services (I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rkeley: the Energy Institute; the Institute for Business Innovation(IBM); Renewable and Appropriate Energy Laboratory(RAEL); AMP Lab(Algorithms Machines People); the Energy Biosciences Institute(EBI); the Synthetic Biology Institute; the Wills Neurosciences Center; new Simons Institute for the Theory of Computing. • Davis: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Studies(ITS); the California Lighting Technology Center; the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eijing Genomics Institute; • SantaCruz: the Center for Network Systems

이와 같은 연구소들은 대학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이후 대학 이외,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립화되고 있는데 2012년 설립되어 빅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AMPLab은 DARPA(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the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그리고 Google, SAP, Amazon, HP, Oracle, Cisco, Microsoft, Intel 등 18개의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The Energy Biosciences Institute(EBI)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사의 지원에 의해 2007년 설립되었다. EBI는 전 세계 처음으로 설립된 바이오-에너지 분야 연구소이며 가장 큰 규모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연구소이다. EBI는 버클리대학과 일리노이대학의 교직원 120명, 그리고 200명의 Post-Doc 학생들로 이루어진 60개의 리서치 그룹에 의해 운영되며 연구원들은 바이오연료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스탠포드는 오늘날 버클리와 더불어 베이지역 혁신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1946년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간에 의해 설립된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던 기술 연구가 민간분야로 진입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며 대학의 연구 커뮤니티가 민간 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됨을 알리는 움직임

이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캠퍼스는 이후 Palo Alto, Menlo Park, Mountain View Sunnyvale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 회사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진화하였다.

스탠포드의 여러 연구소 및 연구기관들은 실리콘벨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스탠포드는 Google, Hewlett-Packard, LinkedIn, Netflix, Sun Microsystems, Sun Power, Tesla Motors, Varian, VMware, Yahoo! Zillow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창시자들을 배출했으며 그러한 기업들은 현재 베이지역과 미국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스탠포드의 6개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과학자를 트레이닝하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와 기술사업화와의 간극을 없애므로써 기업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CSU)의 23개 캠퍼스 시스템은 400,000여명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혁신시스템에서 기술인재(학사 및 석사 레벨의 엔지니어)를 제공한다. UC계열의 대학캠퍼스와 CSU계열의 대학캠퍼스 간의 차이는 1960년 'Californi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UC와 CSU모두 학부와 석사과정을 포함하였으나 UC캠퍼스만이 박사학위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CSU는 특수화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이오기술과 교육학의 교차적 연구를 진행하는 CSU Program for Education and Research in Biotechnology(CSUPERB), CSU 교수진과 과학자,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 연안 및 해양에 대한 이슈를 다루며 과학·기술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CSU Council on Ocean Affairs, Science and Technology(COAST)가 있다. COAST는 정규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멘토링과 경험학습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San Jose State University(SJSU) 또한, 베이지역 혁신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SJSU의 졸업자들은 연간 8,000명 정도이며 졸업생의 70%가 베이지역에 거주하거나 베이지역에서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JSU는 지역에서 가장 큰 공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SJSU의 공학프로그램에만 약 4,700여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다. SJSU에서 제공하는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중점을 둠으로써 학생들이 대학과 근접해 있는 실리콘벨리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기업가정신을 트레이닝하는 'six-week boot camp', 1년에 한번씩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상금을 부여하는 '혁신경연대회',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교육과정인 'Silicon Valley Center for Entrepreneurship'을 제공한다.

생명과학분야에 있어서 SJSU는 ‘California Statewide Biotechnology Clinical Laboratories Consortium’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San Mateo County Health System과 베이지역 5개 진단의학 기업(diagnostics companies)과 함께 협력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SJSU는 연구센터인 NASA Ames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학생들이 정부 연구기관의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기관들과의 연결

공동연구시설은 주로 대학과 정부연구기관 그리고 외부인원 간의 진행되는 공동연구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부에 의해 연구기관이 런칭되는 경우, 민간자금과 기초연구 기반 비즈니스와 관련된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상업화 및 가속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California Institutes for Science and Innovation(CISI)는 캘리포니아주에 의해 2000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4개의 UC캠퍼스와 혁신분야 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CISI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4개의 CISI 중 QB3과 CITRIS는 베이지역에 위치해 있다.

2006년, in-house incubator지원을 목적으로 Rogers Family Foundation에 의해 런칭된 QB3(California Institute for Quantitative Biosciences) 프로그램은 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화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분야를 다루는데 스타트업 및 글로벌기업과 같은 민간부분과 대학연구의 접점이 됨으로써 UCSF, UC 버클리, 그리고 UC 산타 크루즈 사이에서 협력적 벤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는 주로 기초생명과학을 다루는데 표적항암치료제와 같이 잠재적 응용영역을 다루게 되며 편당만을 위한 연구가 아닌,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ISI 참여대학인 3개의 UC계열 캠퍼스는 각 대학 캠퍼스가 갖고 있는 강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는 UC버클리는 공학대학에서 컴퓨터능력으로 보완함으로써 UCSF와 함께 임상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UC산타 크루즈는 그 대학의 강점인 정보과학분야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QB3는 220개 리서치랩을 운영, 65개 기업이 런칭하는데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로인해 기업들이 총 \$230M 자금을 유치하였다.¹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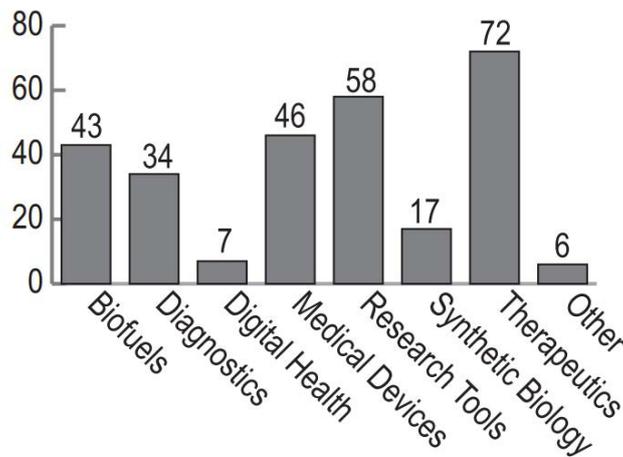
184) California Institute for Quantitative Biosciences, “About,” <http://qb3.org/about> (accessed June 1, 2012).

또한 QB3는 미션베이(Mission Bay)지역에 제약회사를 유치하고 바이오테 크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위해 City of San Francisco와의 강력한 파트너 쉽을 맺고 있으며 현재 미션베이지역에 위치한 바이오-제약회사로는 Fibrogen, Merck, Pfizer, Bayer, CalGene, 그리고 Nektar가 있다. 미션베이는 협력연구 를 위해 외부로부터 지역에 방문한 연구원들이 연구기간동안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science hotel”을 운영하고 있다.

QB3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2011년 런칭된 “Start-Up in a Box”은 중 소기업 보조금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특허출원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The Garage”는 사무공간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사용권을 지원한다. The Garage는 초기 2,500ft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미션베이지역과 버클리지역 내에 5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초기단계 스타 트업을 지원하는 벤처펀드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QB3과 The Garage에서 지난 6년간 지원한 생명과학분야 스타트업이 60개 사이며 해당기업들이 \$226M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그로인해 총 28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60개사 중 45개사가 여전히 인큐베이터에 입주되어 있 으며 13개사는 상업화 공간으로 이주하거나 대기업에 의해 인수·합병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로 보아 QB3과 The Garage에서 지원한 기업들 중 오직 2개 사만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QB3 프로그램의 스타트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성과를 살펴보면 산업분야별로 치료분야(Therapeutics)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리서치툴(Research Tool), 메디컬 디바이스(Medical Device), 바이오연료(Biofuels)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림 105] QB3 스타트업 분야별 일자리 창출 성과

출처: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2012

이 외에도 CITRIS(the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 the Interest of Society)는 정보기술에 중점을 둔 협회로 기초연구가 상업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CITRIS는 UC Berkeley, UC Davis, UC Merced, UC Santa Cruz와의 협력체제로 4개의 UC캠퍼스로부터 300여명 이상의 교직원, 그리고 수천명의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CITRIS는 5개의 이니셔티브 아래 100여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CISIs,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리고 Joint BioEnergy Institute (JBEI)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06> CITRIS의 이니셔티브

- i4Energy Center: IT, Sensors, and Controls for Stable and Sustainable Energy
- Delivering "Quality Health Care Everywhere" for Californians
- Intelligent Infrastructures: Water, Transport, Cities
- Generating Insight from "Big Data"
- Data and Democracy

Emeryville지역에 2007년 U.S. Department of Energy에 의해 설립된 생명공학 연구 센터인 Joint BioEnergy Institute(JBEI) UC Berkeley와 UC Davis, 그리고 LLNL를 포함한 버클리랩,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Carnegie Institution for Science와의 파트너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JBEI는 대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0명의 직원과 총5년간 \$135M 규모의 펀딩을 받아 설립되었다. 베이지역의 기술기업들은 지역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JBEI로 인해 설립된 기업 중 설탕을 화학재료를 대체로 제품을 생산하는 Lygos는 현재 QB3에서 운영하는 미션베이지역 사무공간에 입주해 있다.

반면에 의료용 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는 California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CIRM)은 투자보조금기관(taxpayer-funded grant-making agency)으로 영리 및 비영리기관에 모두 지원하지만 기관에서 연구 자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CIRM은 미션베이지역과 Biotech의 허브라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지역 UCSF의 미션베이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UCSF에 \$120m, UC Davis에 \$66M, UC Berkeley에 \$52M, Buck Institute for Research on Aging에 \$36M, Gladstone Institutes에 \$28M, 그리고 UC Santa Cruz 외 기관에 \$23M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2012).

3) 기업연구소 및 그 외 민간연구소들과의 연결

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기업연구소들은 제품과 관련된 연구보다는 기초연구를 진행하는데 IBM과 HP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의 상용화와 가치창조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2011년에 실시한 지역 R&D 연구 지원규모 조사를 살펴보면 베이지역에 위치한 Agilent, Genentech, HP, IBM, Intel, Xerox가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으로만 총 \$24B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⁵⁾ Agilent는 베이지역 외부에 위치한 하버드나 MIT와 같이 Stanford, UC Berkeley, UC Davis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오크랜드 소재 Kaiser Permanente의 연구소인 Division of Research(DOR)는 미국내 의과대학과 연계되지 않은 가장 큰 의학연구소로 UCSF, Stanford, UC Berkeley 대학의 School of Public Health와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IBM Research-Almaden는 펀드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주로 천연자원 및 데이터분석과 관련한 연구프로젝트를 CITRIS 혹은 Berkeley Lab과 수행하고 UC Berkeley와 Stanford 대학의 우수 교수 및 장학생을 위한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IBM의 과학자들은 Stanford, UC Berkeley, San Jose State, Santa Clara Universitie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Almaden lab에서는 직원, 박사급의 연구원, 인턴직원을 위의 4개 대학으로부터 채용하고 있다.

HP Labs은 기술연구중심 대학으로 유명한 Georgia Tech, University of Michigan, MIT의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베이지역에 위치한 Stanford, UC Berkeley, UC Davis, UC Santa Barbara의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HP 연구원들이 베이지역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HP는 매년 일정금액을 HP Labs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HP Labs와 연구를 진행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HP 기업의 인턴직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Advanced Technology Center(ATC)은 미국의 군수회사에서 설립한 연구소로 항공우주공학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한다. ATC는 주로 NASA의 Ames Research Center, Stanford, UC Berkeley, Lawrence Livermore, Sandia National Laboratories와 협력하여 과학프로그램을 수행한다.

SRI International은 비영리 과학 연구기관으로 정보, 공학, 제약, 생명 공학, 화학, 물리학, 교육, 건강, 경제개발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SRI는 1946년

185) Aggregated from corporate reports and websites

설립되었던 스탠포드연구소에서 1970년 분리되어 1977년 'SRI International'로 명칭을 바꾸었다. SRI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70%는 정부와 관련된 연구이며 30%는 상용화와 관련된 연구이다. SRI는 PARC 그리고 UC Berkeley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정부기관 산하연구소의 역할도 하는데 2011년 PARC에서 연구된 기술이 SRI로 이전되며 생명과학 및 응용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이전은 정부가 두 기관 사이에 위치하여 공동 계약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SRI는 벤처기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기업당 \$400,000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업화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Palo Alto Research Center(PARC)는 1970년 Xerox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02년 정보기술 R&D에 특화된 연구소로 자립하였고 모회사인 Xerox 그리고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PARC와 Xerox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주로 생물학과 관련된 연구로 혈류에 희귀세포를 검출하는 기술을 생산한다. 현재 PARC는 25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의 80%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인력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2,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미국내 최초의 민간 연구시설이자 노화와 만성질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Buck Institute는 CIRM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시설을 확장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민간연구시설이자 비영리 조직인 Gladstone Institutes는 1979에 설립되어 UCSF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Gladstone Institutes 또한 CIRM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Gladstone Institutes와 마찬가지로 민간 연구소 Ernest Gallo Clinic and Research Center(Gallo Center)는 UCSF와 연계되어 있는데 연구소는 초기 Gallo가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e Department of Defense의 편당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4)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연결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단계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기업을 통해 제품, 기술, 서비스의 상업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베이지역의 혁신시스템에서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은 스타트업 배양기관들은 정부와 함께 스타트업을 배양하기도 하고 대학과 함께 협력하여 배양하기도 하는데 베이지역에는 Y-Combinator, Tech Stars, 500 Startup 등 200여개 이상의 인큐베이터 혹은 액셀러레이터들이 Silicon Valley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107> 베이지역의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주요 스폰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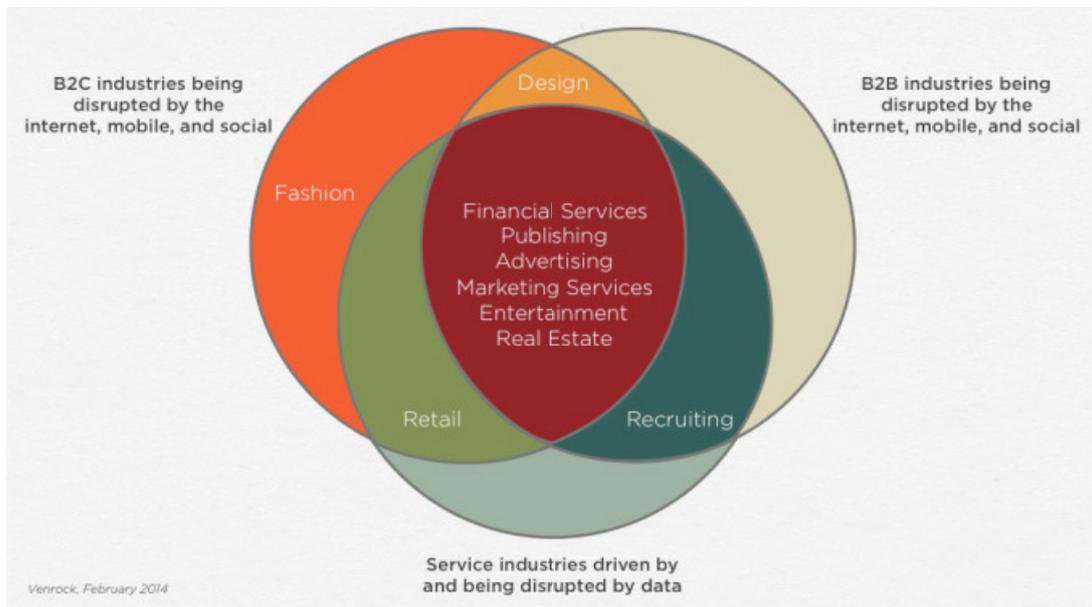
지역정부 혹은 대학에서 지원하는 기관	독립기관 혹은 기업, 민간, 해외, 멀티 스폰서가 지원하는 기관
Berkeley Skydeck Accelerator	500 Startups, AngelPad,
Communications Technology Cluster	ANZA Technology Network, Bayer U.S. Innovation Center, Science Hub,
Environmental Business Cluster	Berkeley Ventures, BootstrapLabs, Canadian Technology Accelerator, CTA@MissionBay(Canadian Technology Accelerator for Life Sciences), Citrix Startup Accelerator,
Frugal Innovation Labs	CoLaborator (Bayer), Dogpatch Labs, Draper University of Heroes, Fogarty Institute for Innovation,
Mission Bay Innovation Center	Founder Institute, Founders Den, German Silicon Valley Accelerator,
Oakland Small Business Growth Center	Greenstart, Hatchery SOMA, Hattery Labs,
QB3 East Bay Innovation Center	Innovation Norway(San Francisco/Silicon Valley), InnoSpring i/o Ventures,
QB3/PharmChem Digital Garage	Innovation Centre Denmark(Silicon Valley), Innovation Endeavors Runway, Irish Innovation Center,
San Jose BioCenter	KickLabs, mission*social,
San Jose Environmental Business Cluster	National Energy Systems Technology Incubator (i-GATE NEST), NextSpace San Francisco, NextSpace San Jose,
Santa Clara University Global Social Benefit Incubator	NextSpace Santa Cruz, Center for Therapeutic Innovation(Pfizer), Plug and Play Tech Center,
StartX	Public Media Accelerator, 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 RocketSpace,
SynBio Startup Launchpad (Singularity University with Triple Ring Technologies)	Rock Health, SCORE, Siemens Technology-To-Business Center,
The Garage (Berkeley)	Springworks, StartupHouse, swissnex San Francisco,
The Garage (UCSF)	TechBA Silicon Valley, Teens in Tech Incubator, The Foundry LLC,
US Market Access Center (US MAC)	WeWork SF-SOMA, Y Combinator, Zero1 Garage

자료: The Bay Area Innovation System: Its Elements and Linkages, 2012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Y Combinator는 2012년을 기준으로 380여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하였으며 Plug and Play Tech Center는 150개 이상의 VC 및 엔젤투자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리콘밸리 투자기업인 Amidzad 그리고 우수대학들(Stanford, UCSF, MIT, Cornell, Carnegie Mellon)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우수대학들 혹은 정부와 연계되어있는데 연구중심 대학 중 하나인 버클리대학에서 설립한 SkyDeck과 The Garage, UCSF의 The Garage, 베이지역의 대학 및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QB3, Santa Clara 대학의 The Frugal Innovation Lab 등이 그 예이다.

2. 미국 뉴욕시의 Silicon Alley

뉴욕은 이전부터 금융서비스, 광고, 마케팅 서비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리쿠르팅, 패션 및 디자인 등 정보중심산업과 소비자산업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뉴욕 도시의 환경적 여건은 창업가에게 좋은 입지조건이 되었다.¹⁸⁶⁾ 이후 2001년, 디지털 분야를 이끌던 주요 기업들이 뉴욕으로 이동한 뒤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전부터 뉴욕이 주도하던 산업의 기업들에 뉴미디어, 광고, 디바이스, 타겟팅 데이터관련 기업들이 더해지며 뉴욕의 환경은 마치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Adtech'¹⁸⁷⁾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림 106] New York Dominated by Information-Centric Industries

자료: NICK BEIM, 2014, 'The Rise and Future of the New York Startup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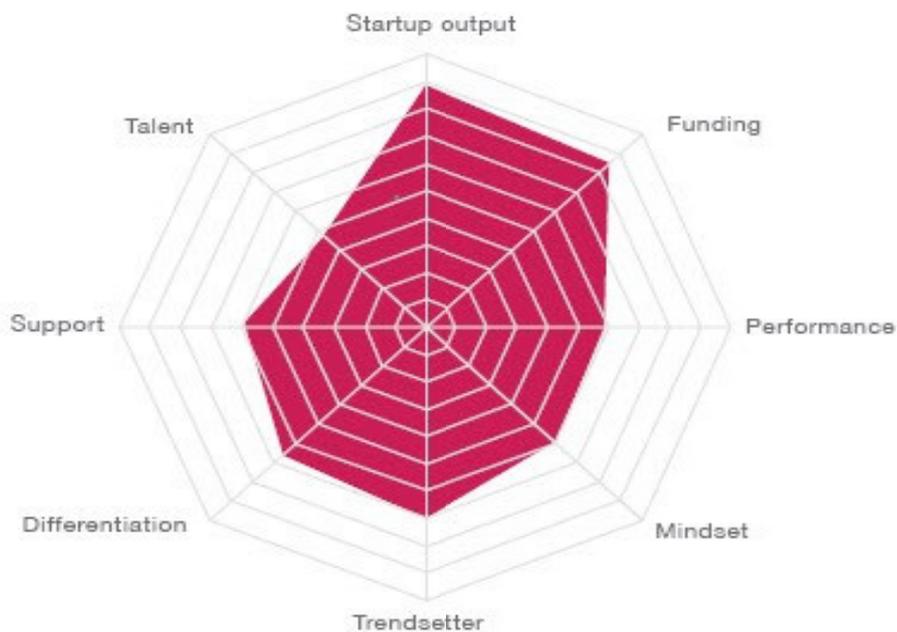
문화와 산업 그 경계에 있는 뉴욕의 길거리는 특정한 장소의 구애 없이 작업하는 스타트업에게 많은 영감을 줄 뿐 아니라 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는 식당과 가게들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새벽 늦게까지 작업하는 프로그래머 혹은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어필되고 있다. 이러한 뉴욕의 환경으로

186) NICK BEIM, 2014, 'The Rise and Future of the New York Startup Ecosystem'

187) Adtech is a German-American digital marketing company, providing publishers, agencies and ad networks with products to manage, serve and evaluate online advertising campaigns, including display, video and mobile formats. Founded in 1998 and headquartered in Frankfurt, Germany, Adtech is the ad serving platform of AOL's digital advertising business. Globally, Adtech has customers in more than 25 countries. It was acquired by AOL on May 15, 2007

AppNexus, Right Media, MediaMath, Vibrant Media, Tremor Video, Quigo, Tacoda, Outbrain, Intent Media, Dstillery, Moat 기업과 같이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뉴욕에 설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뉴욕은 지사를 포함한 유명 로펌들이 밀집되어 있어 스타트업들이 자격을 갖춘 법률 고문으로부터 기업개발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전부터 금융 강국이었던 뉴욕은 선도적인 VC 펌, 엔젤투자자, 지분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 투자자들에게 더 수월히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home town’의 이점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기반을 둔 VC기업, Accel Partners는 2008에서부터 2011년 사이 뉴욕에 소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2012년, 실리콘벨리 다음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번째 오피스를 뉴욕에 오픈했다.

이와 같이 법률자문과 투자기업들과의 근접성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더욱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위치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뉴욕은 국내·외적으로 직항 운행이 가능하여 미국의 공항터미널이자 운송 터미널 역할을 하므로¹⁸⁸⁾ 뉴욕은 스타트업이 투자자, 직원, 전문가와의 만남을 더욱 수월하게 하며 개발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양의 제품을 전 세계로 비교적 낮은 비용, 그리고 짧은 운송시간에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림 107] 뉴욕의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환경적 조건

자료: entrepreneurial-insights, ‘Startup Hubs Around The World: New York’, 2014년 7월 7일자

188) entrepreneurial-insights, ‘Startup Hubs Around The World: New York’, 2014년 7월 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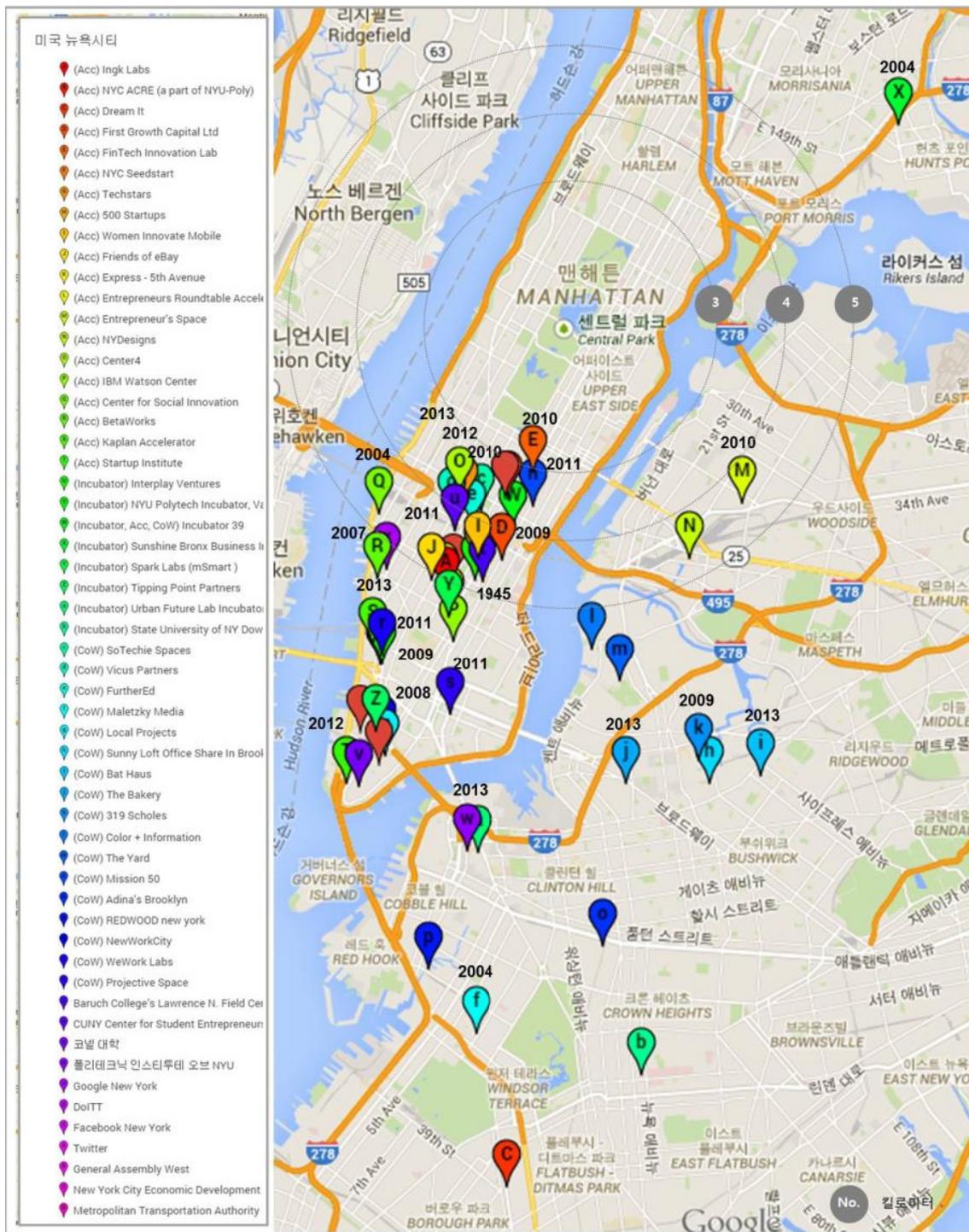
2000년 대 중·후반부터 뉴욕시에는 액셀러레이터, 교류·협업공간 등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들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은 다음 <표 10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108> 뉴욕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1945	액셀러레이터	IBM Watson Center	IBM 연구 부문을 총괄하는 IBM 내 조직이자 본부 연구 센터
1996	액셀러레이터	Ingk LABs	VC, 연구기관, 대학과의 협력으로 스타트업을 배양
2004	액셀러레이터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 및 공동 작업공간과 각종 이벤트 제공
2004	인큐베이터	Sunshine Bronx Incubator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2004	교류·협업 공간	Vicus Partners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2004	교류·협업 공간	Maletzky Media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2004	커뮤니티	NYTECH MEETUP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이벤트 제공
2007	액셀러레이터	BetaWorks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2008	액셀러레이터	NYC Seedstart	B2B를 대상으로하는 12주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2008	교류·협업 공간	NewWorkCity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2009	액셀러레이터	NYC ACRE	NYC-Poly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2009	액셀러레이터	First Growth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2009	교류·협업 공간	319 Schooles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2009	인큐베이터	NYU Polytech Incubator, Varick	NYCEDC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NYU Polytech의 인큐베이터
2010	액셀러레이터	FinTech Innovation Lab	Partnership Fund for New York City와 Accenture에 의해 운영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2010	액셀러레이터	Entrepreneur's Space	NYCEDC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2010	교류·협업 공간	SoTechie Spaces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2010	교류·협업 공간	WeWork Labs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2011	액셀러레이터	Women Innovation Mobile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2011	교류·협업 공간	Mission 50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2011	교류·협업 공간	Project Space	공동작업공간 및 스튜디오제공
2011	커뮤니티	General Assembly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이벤트 제공
2012	액셀러레이터	Techstars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2012	액셀러레이터	Startup Institute	교육 중심의 8주 프로그램을 제공
2012	인큐베이터	Interplay Venture	투자 및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을 제공
2012	교류·협업 공간	FurtherED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3D 프린터기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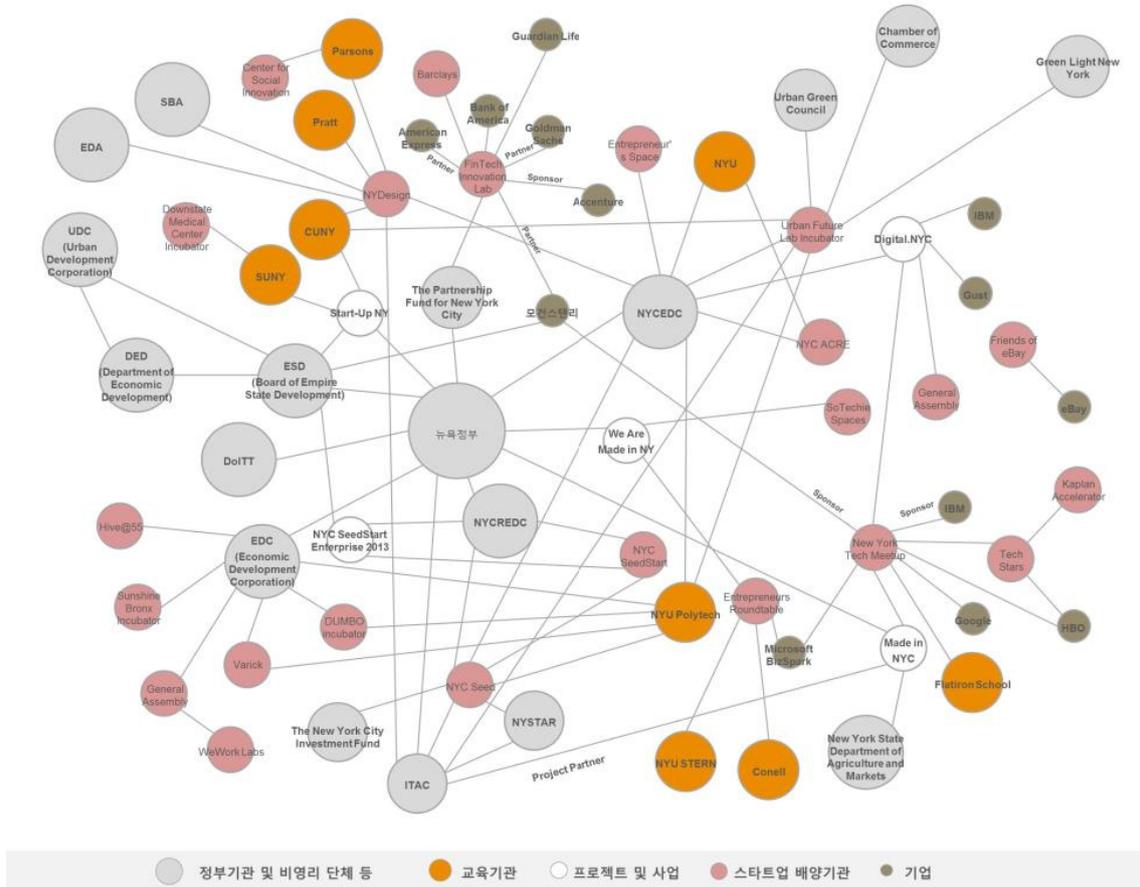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2012	정부기관	NYCEDC	뉴욕시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2013	액셀러레이터	Center4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2013	액셀러레이터	Kaplan Accelerator	Techstars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 중심의 3달 집중 프로그램 제공
2013	교류·협업 공간	Bat Haus	공동작업공간 및 스튜디오제공
2013	교류·협업 공간	The Bakery	공동작업공간 및 스튜디오제공
2014	인큐베이터	Urban Future Lab Incubator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	액셀러레이터	Dream It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	액셀러레이터	500Startups	4주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	액셀러레이터	Friends of eBay	Friends of eBay
-	액셀러레이터	Entrepreneurs Roundtable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	액셀러레이터	NYDesign	CUNY의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	인큐베이터	Incubator39	기술분야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및 공동 작업 공간 제공
-	인큐베이터	Spark Labs(mSmart)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터	Tipping Point Partners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터	State University of NY Downstate Medical Center Incubator	SUNY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교류·협업 공간	Sunny Loft Office Share In Brooklyn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	교류·협업 공간	Color+Information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	교류·협업 공간	The Yard	사무공간 제공
-	교류·협업 공간	Adina's Brooklyn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	교류·협업 공간	REDWOOD New York	사무공간 및 공동작업 공간 제공
-	기업가정신센터	CUNY Center for Entrepreneurship	CUNY의 기업가정신 센터
-	기업가정신센터	Baruch College's Lawrence N. Field Center for Entrepreneurship	Baruch College의 기업가정신 센터 무료 컨설팅 제공(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	대학	코넬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제공
-	대학	NYU Polytech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정부기관	DoITT	스타트업 배양기관 지원 및 인터넷 서비스 지원
-	공기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Corporate Office	소유 건물을 연구시설로 변화
-	기업	Google	스타트업 배양기관 지원
-	기업	Facebook	스타트업 배양기관 지원
-	기업	Twitter	스타트업 배양기관 지원

상기 <표 108>과 같은 뉴욕시 지역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도상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108]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08] 뉴욕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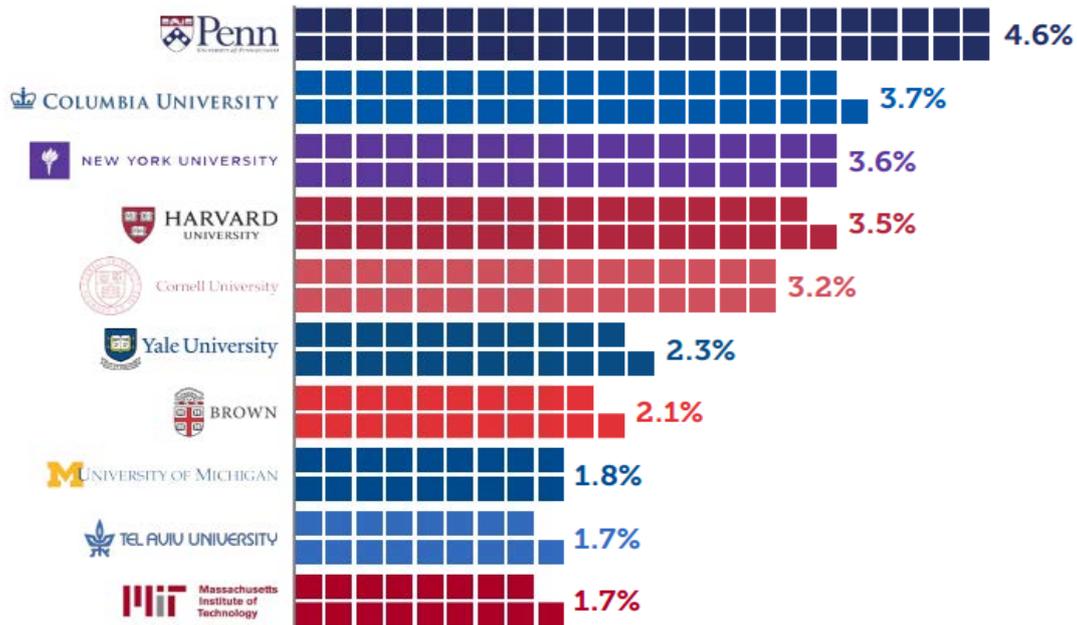
이들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09]와 같다.



[그림 109] 뉴욕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1) 스타트업 지원조직과의 연결

뉴욕은 실리콘 벨리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에 스탠포드나 MIT와 같은 주요 기술/공학 분야의 연구중심 대학의 수가 적지만 Endeavor insight의 2014년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스타트업의 1,920명을 조사한 결과 뉴욕에서 기업을 설립한 스타트업 중 약 90%가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대학들 중 뉴욕에서 가장 먼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한 창업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0] 뉴욕 기술 분야 스타트업 설립자의 졸업 대학 순위

자료: 'THE POWER OF ENTREPRENEUR NETWORKS: How New York City Became the Role Model for Other Urban Tech Hubs', Endeavor Insight, November 2014

인터넷 버블이후 오픈소스의 증가, 쉬워진 기술의 이용, 그리고 프로그램의 저렴해진 배포는 기술만큼이나 비즈니스 및 제품의 아이디어가 중요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중심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자가 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뉴욕은 실리콘벨리와는 달리 경영대학을 졸업한 학생 혹은 창의적인 도시의 힙스터 등 기술 및 공학 분야의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¹⁸⁹⁾ 이에 따라 뉴욕은 뉴욕에 위치한 우수 대학들 중 하나인 Cornell-Technion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Google, Facebook, Twitter, Amazon, eBay 등 뉴욕에 오피스를 둔 글로벌 IT기업들이 뉴욕도시로 기술인재를 불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4월 NYCREDC(New York C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NYC Seed, 그리고 VC기업들과 컨소시엄하여 Seed단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NYC SeedStart Enterprise 2013"를 발표했다.¹⁹⁰⁾ NYC SeedStart는 12주(6회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며 EDS(Empire State Development)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 \$550,000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189) NICK BEIM, 2014, 'The Rise and Future of the New York Startup Ecosystem'

190) New York City Regional Councils, 2013, 'New York C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and NYC Seedstart Announce Enterprise 2013 Startup Accelerator Program'

NYC SeedStart는 소프트웨어 분야 유명 VC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어 NYC SeedStart 프로그램의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YC SeedStart가 지원하는 대상으로는 B2B 소프트웨어 분야이며 벤처창출을 목표로 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 코스로 진행되고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투자자들과 언론사를 불러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유치를 유도한다. NYC SeedStart는 접수된 지원서 중 최소 10개 창업가/팀을 선발하여 각각 \$20,000의 초기자금과 작업 공간 그리고 자문을 지원하고 그에 대해 5%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 6월, NYCEDC는 NYU School of Engineering과 함께 스타트업을 배양하는 Urban Future Lab Incubator 계획을 발표하여 다음해인 2014년 3월, NYU School of Engineering's Downtown Brooklyn campus에 오픈했다. Urban Future Lab Incubator는 10,000평방피트의 시설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술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게 되며 유치원~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STEM 교육 분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젊은 뉴요커를 위한 기술 트레이닝까지 제공한다. Urban Future Lab Incubator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 외에도 Brooklyn Chamber of Commerce, Urban Green Council, Green Light New York 등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클린에너지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하거나 해커톤과 데모데이 장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벤트를 제공한다. Urban Future Lab Incubator는 위와 같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서 에너지 효율, 기후 적응 등 스마트하고 지속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기술 분야 20개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2025년까지 9,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¹⁹¹⁾

뉴욕 Bloomberg 행정부는 뉴욕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보완하고 젊은 인재를 지원하고자 여러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소유의 빈 건물을 연구시설로 변화시킬 예정이며 EDC는 콜롬비아 대학과 NYU Poly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기업들과 연구자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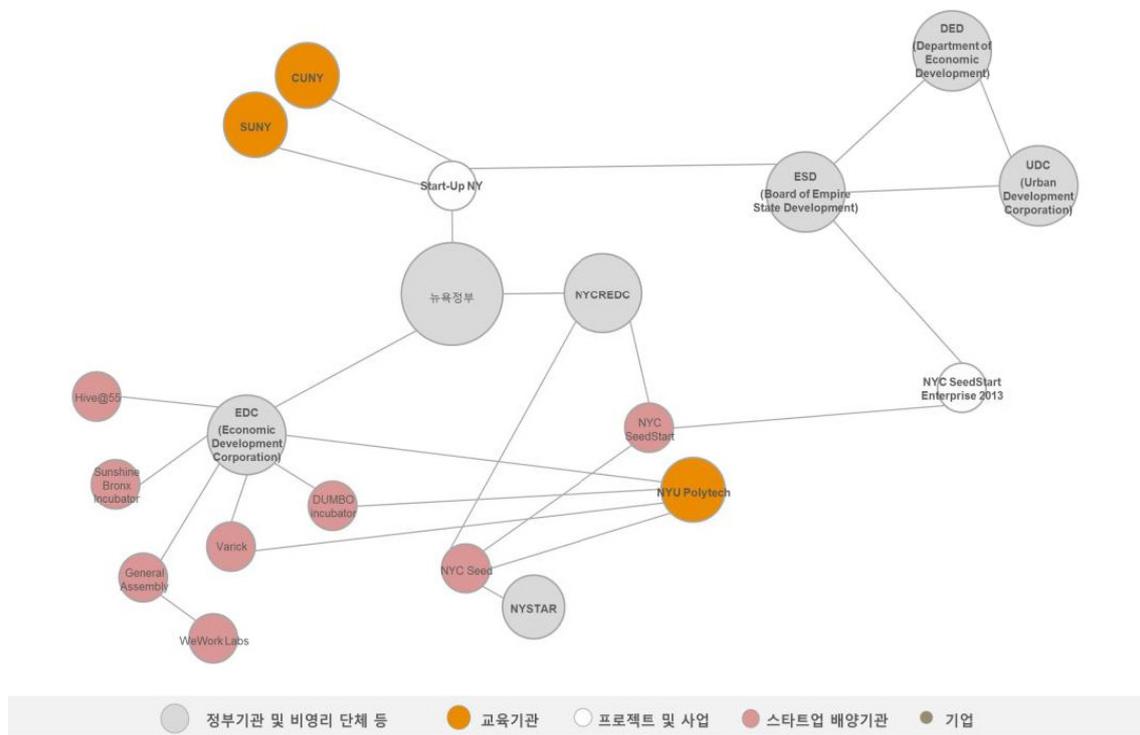
2) 자금 지원조직들과의 연결

뉴욕의 경제개발을 위해 설립된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EDC)은 인큐베이터 및 공동작업 공간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191) www.nycedc.com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EDC는 기업가들과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NYU Polytech 대학에서 운영하는 Varick 인큐베이터와 DUMBO 인큐베이터, 그리고 뉴욕의 인큐베이터로 잘 알려진 Hive@55와 the Sunshine Bronx Incubator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을 위한 각종 이벤트들을 추진하는 General Assembly, 이렇게 총 5개의 기술 분야 인큐베이터 및 공동작업 공간에 금융 지원을 실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EDC는 지난 몇 년간 창업활성을 위해 \$50,000의 상금이 주어지는 ‘BigApps Competition’과 \$35,000의 상금이 주어지는 ‘Next Idea’ 대회를 주최하였다.

금전적인 자금지원 이외에도 뉴욕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10월, Governor Andrew M. Cuomo는 뉴욕 지역 성장계획 이니셔티브 ‘Start-Up NY’를 런칭하며 세금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사례이다.¹⁹²⁾ 이후 Governor Cuomo는 모건 스탠리의 모건스탠리 이사회 전CEO이자 회장인 John J. Mack를 뉴욕경제 개발(EDC)의 고문이자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DED)과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UDC)를 포함하는 Board of Empire State Development(ESD)의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그림 111] 뉴욕의 자금지원 조직들과의 연결

192) New York State, 2013, ‘Governor Cuomo Launches Start-Up NY Program a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New York City’

<표 109> 뉴욕 지역 성장계획 이니셔티브 'Start-Up NY'

"In a tax free environment, no one can match what New York has to offer. Businesses that are looking to startup or expand, and most importantly create jobs, should look no further. We are leveraging our world-class SUNY system and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ies to partner with new businesses, providing direct access to advanced research, development resources, experts in high-tech and other industries and all with zero taxes for ten whole years. With an opportunity like that, its no wonder that companies are lining up for the launch of START-UP NY."BY Governor Cuomo

이에 따라 Start-Up NY의 기업들은 최대 10년간 세금면제 혜택을 갖게 되며 (no income tax; no business, corporate state or local taxes; no sales tax; no property tax; and no franchise fees) Start-Up NY로 선발된 기업의 직원들 또한 첫 5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5년간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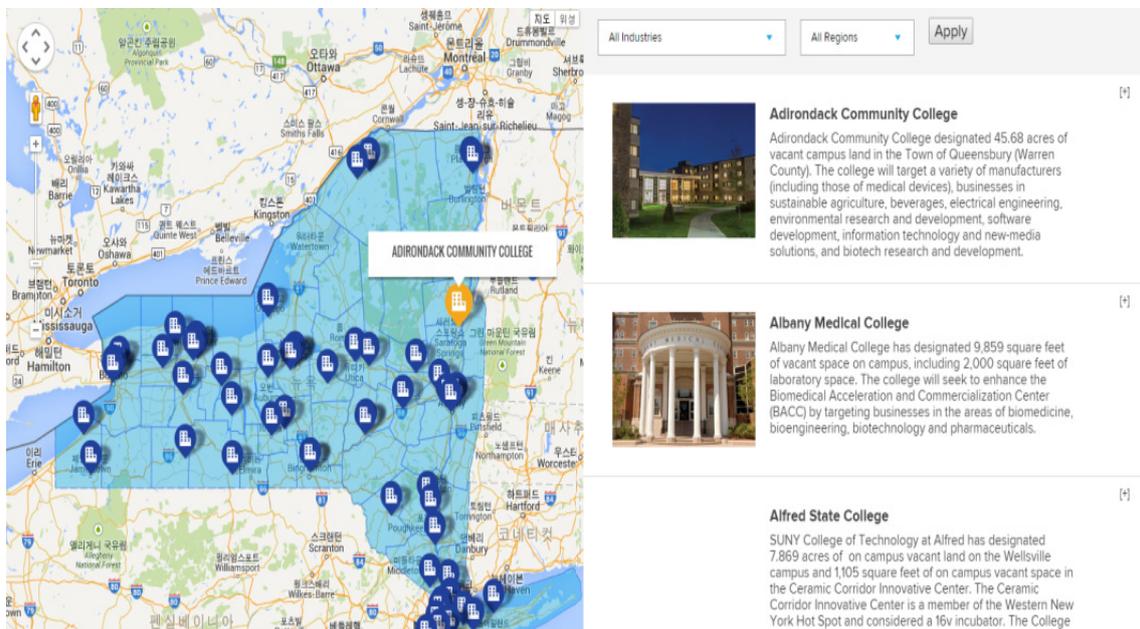


[그림 112] 뉴욕주의 10개 세금면제 지역

자료: Inside Higher ED, 'The New York Tax Advantage', 2013년 8월 14일자

Start-Up NY는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기에 앞서 여러 지원조건을 내걸었는데 첫째, 기업은 'tax-free community'를 후원하는 캠퍼스, 대학의 학문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인력의 유지 혹은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둘째, 기업은 신생기업, 외부지역에서 뉴욕으로 이동한 기업, 혹은 확장한 뉴욕의 기업(기업에 새로운 라인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제조시설을 갖추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스타트업 혹은 첨단기술 기반 기업이어야만 한다. 셋째, 기업은 2020년까지 자격을 갖게 되며 이후 Board of Empire State Development(ESD)에서 자격이 연장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현재 SUNY, CUNY를 포함한 뉴욕의 사립대학과 주립대학들이 'tax-free community'를 개발하고 기업의 연구와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뉴욕 내 tax-free community'를 후원하는 모든 대학은 커뮤니티를 위해 뉴욕지역 내·외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Start-Up NY는 온라인 메인 홈페이지 상에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뉴욕의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Start-Up NY지원서에 희망대학을 기입하지 않은 기업은 기업 특성 및 환경에 따라 Start-Up NY에서 직접 매칭해주고 있다.



[그림 113] Start-Up NY의 tax-free community 정보제공

자료: www.startup-ny.com/

3)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공동작업 공간과의 연결¹⁹³⁾

2008년 실리콘벨리와 보스턴지역과는 달리 뉴욕에는 액셀러레이터가 전혀 위치해 있지 않았다. 이후 SeedStart가 처음으로 뉴욕에 오픈하였고 1년 사이 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 DreamIt NYC, FinTech Innovation Lab, First Growth Venture Network, Women Innovate Mobile, Founder Institute, Founder Labs, Blueprint Health, Startup Health Academy, Startl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뉴욕에 오픈하며 2011년 여름 9개, 2012년에는 12개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뉴욕지역 스타트업 지원 액셀러레이터는 약22개에 이르렀다.

2011년 Boulder, Boston, Seattle에 이어 3번째로 뉴욕에 오픈한 TechStars는 오픈 후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600명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2011년 7월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1,100명, 그리고 2012년 3월,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 1,600명으로 급증하며 뉴욕 스타트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뉴욕은 민간 기업이 설립한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등 스타트업 배양기관들 외에도 대학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대학과 정부기관이 컨소시엄하여 설립한 스타트업 배양기관들을 찾아볼 수 있다. Varick인큐베이터와 DUMBO 인큐베이터는 NYU Poly대학과 NYCEDC가 컨소시엄하여 설립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2009년 오픈한 Varick인큐베이터와 2012년 오픈한 Dumbo 인큐베이터를 통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총 38개 기업이 배양되어 12개 기업이 졸업하였다. 이 외에도 Downstate Medical Center Incubator는 SUNY대학에서, Center for Social Innovation은 Parsons대학에서, NYDesign은 CUNY대학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NYDesign의 경우 대학으로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뉴욕의 Parsons대학, 그리고 Pratt대학과, 정부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SBA), 경제개발관리기관(EDA), NYCEDC, Industrial+Technology Assistance Corporation (ITAC)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글로벌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스타트업 배양기관으로는 Fintech Innovation Lab, Entrepreneur's Space, Urban Future Lab Incubator, New York Tech Meetup, Friends of eBay 등으로 Fintech Innovation Lab은 뉴욕의 펀드 기업인 Partnership Fund for New York City와 Accenture에 의해 설립되어 여러 금융기업 및 스타트업배양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되고 있으며 Entrepreneur's Space, Urban Future Lab Incubator, NYC ACRE는 NYCEDC의 지원을 받고 New York Tech Meetup은 구글, HBO, IBM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Friends

193) new york tech city, nycfuture.org, 5.2012

of eBay은 eBay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인큐베이터들이 액셀러레이터에 이어 뉴욕에 오픈하고 있으며 VC기업들까지 스타트업 생태계를 쫓아 이동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 위치한 약 400여개의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배양기관 이외 공동작업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루 이용 시 \$30, 1달(4회 이용)이용 시 \$100 정도의 일정 금액을 받고 공동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NewWorkCity'가 2008년 오픈하였다. 'NewWorkCity'는 초기 17명의 멤버가 사용하였으나 2012년 133명으로 급증하며 오늘날 뉴욕도시 내에서 공동작업공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이후 기업가들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동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General Assembly가 2011년 뉴욕에 설립되게 되었는데, General Assembly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풀타임, 파트타임, 장기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워크숍을 제공한다. General Assembly의 주요 목표는 뉴욕이 보유한 Thinker들이 기술, 비즈니스, 디자인 등의 교육을 통해 Creator로 진화되는 것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홍콩, 영국, 호주에 걸쳐 총 14개의 캠퍼스가 설립되어있다.



[그림 114] General Assembly

자료: General Assembly 홈페이지

General Assembly는 뉴욕에 설립한지 2년이 채 안되어 350명의 멤버를 확보했고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100개의 스타트업들이 작업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회원 수와 대기자명단으로 맞은편에 공간을 확장하여 더 많은 회원들을 받는 중이다.

General Assembly외에도 공동 작업공간을 통해 커뮤니티의 형성을 유도하는 교류공간들이 속속들이 뉴욕에 오픈하게 되었는데 Projective Space와 WeWork Labs가 그 예이다. Projective Space는 공동 작업공간의 이용을 통한 교류와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서로의 잠재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혁신이 창출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2월 Soho와 Lower에 오픈하였고, WeWork Labs은 2011년 4월에 오픈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며 초기 3,000평방미터이던 공간규모가 17,000평방미터로 확장, 멤버 또한 47명에서 200명으로 급증하였다.

4) 커뮤니티들과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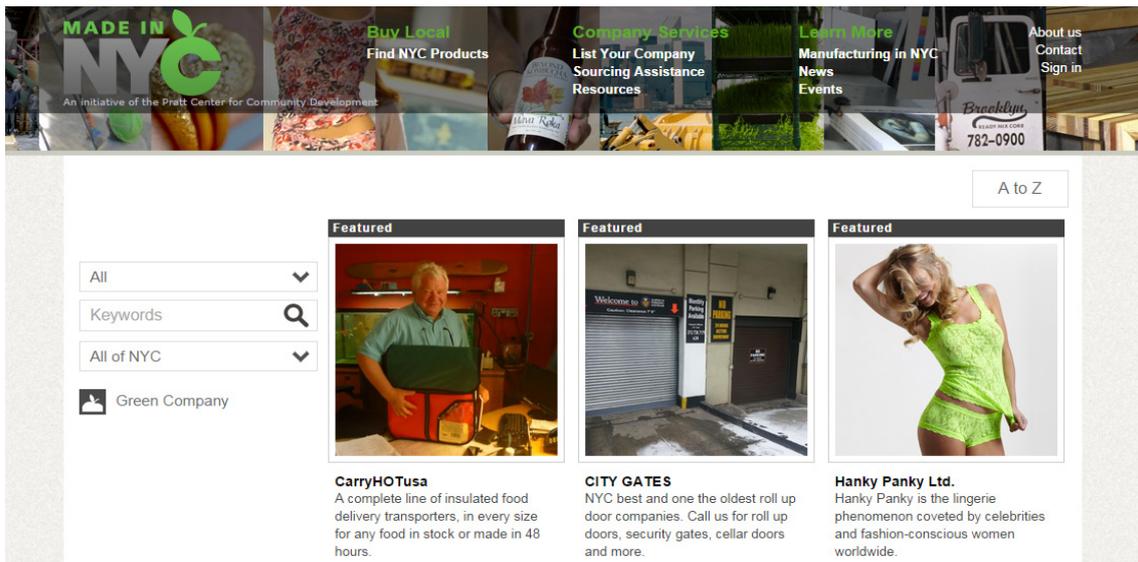
2004년 Scott Heiferman가 설립한 New York Tech Meetup은 2010년, 비영리단체가 되어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교류 그룹으로 성장했다.¹⁹⁴⁾ 그룹의 운영지휘관인 Jessica Lawrence에 따르면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15,000명이었던 회원이 2012년 26,000명으로 증가했고 850명의 인원이 수용가능한 행사장에서 진행하는 월간 미팅의 표가(\$10) 1분도 되지 않아 매진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New York Tech Meetup의 주요 역할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MONTHLY MEETUPS'으로 매월 기술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데모데이를 열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러 분야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연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Women in Tech NYC'로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커리어 개발을 통해 여성이 기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Economic Impact Study'로 뉴욕의 경제 생태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 'Made in NYC'은 2011년 런칭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뉴욕 제조기업들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뉴욕에는 약 7,000개 제조기업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자리는 65,000여개에 해당된다. 'Made in NYC'은 온라인에서 뉴욕의 제조기업들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및 제품 등 찾고자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기업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욕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¹⁹⁵⁾

194) Mashable, 'Why Startups Choose New York City Over Silicon Valley', 2012년 8월 21일자

195) madeinnyc.org



[그림 115] Made in NYC의 온라인 플랫폼

자료: madeinnyc.org

‘Made in NYC’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신형 디자이너의 제품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의 혜택으로는 시장 및 소비자 그룹의 확장이 가능하고, 현지 공급 업체 및 보급업자의 검색이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공급 체인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Made in NYC’은 기업을 선발하여 제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선정된 기업의 제품은 Made In NYC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브랜드화 할 수 있다.

‘Made in NYC’의 기업 조건은 산업 혹은 상업 공간, 1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보유한 제조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체, 소재 및 재료, 제품 디자인 및 프로토타입 자원, 공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금융지원, 기술지원, 에너지 효율 및 녹색 제조 기사, 산업 및 제조 기업을 위한 폐기물 감축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Made in NYC’가 런칭된 이후 NYC Mayor’s Office에서는 그 뜻을 함께 하여 도시의 기술 분야를 촉진하고 기업가 및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We Are Made in NY” 이니셔티브를 런칭하였고 New York Tech Meetup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뉴욕의 기술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3. 영국 런던의 Tech City

테크시티 지역은 비교적 낮은 임대료, 동부 이외 지역으로의 진입가능성, 문화 오락시설을 갖춘 입지조건으로 자금의 여유가 없는 창업가와 예술가들이 이동하며 조성되기 시작하여 'Silicon Roundabout(테크시티)'로 불려졌다. 초기 Old Street지역에서 시작된 테크시티는 Shoreditch, Hoxton, Spitalfields를 넘어 Stratford와 Hackney Wick지역의 올림픽 공원까지 확장되어 현재 유럽국가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허브로 발전하였다.¹⁹⁶⁾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업발전을 위한 오피스의 센터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쇼핑 및 레저기반 지역으로도 발전하고 있는데 BoxPark는 Shoreditch지역에 2011년 오픈한 'Pop-up Mall'로 세계 최초로 약 40여개의 패션브랜드와 식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창업지원을 위한 경연대회 및 이벤트를 열거나 창업기업의 제품판매를 위해 단기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Strettons,2012).

테크시티의 성공적 성장에는 테크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파트너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조직들은 다음 <표 110>과 같다.

<표 110> 테크시티의 파트너십 현황

공공	Technology Strategy Board, Government Digital Service, Tech City Advisory Board, UK Tech and Business Alliance, Local Boroyghs, Greater London Authority, No 10 Downing Street, Future fifty
교육	Entrepreneur First, Code Club, Edtech Incubator, Tech Mix
국제	UKTI Tel Aviv, Techstars, UKTI San Francisco, UKTI New York
기업	Google, Open Data Istitute, Central Working Network, EE
단체	Digital Shoreditch, Shoreditch Works, Independent Shoreditch, 3 Beards
대학	UCL, Imperial College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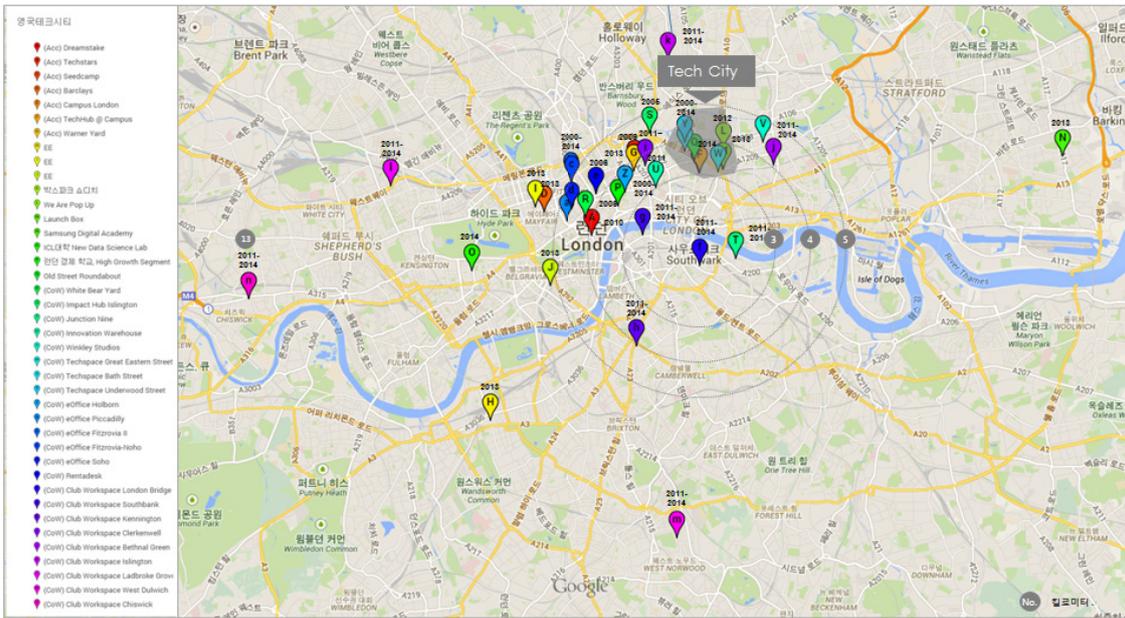
런던의 경우 테크시티가 조성되면서부터 런던 내 엑셀러레이터, 교류·협업공간 등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들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은 다음 <표 11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96) "This is Tech City", March 2012, Issue: 66, Strettons, www.stretteons.co.uk

<표 111> 테크시티의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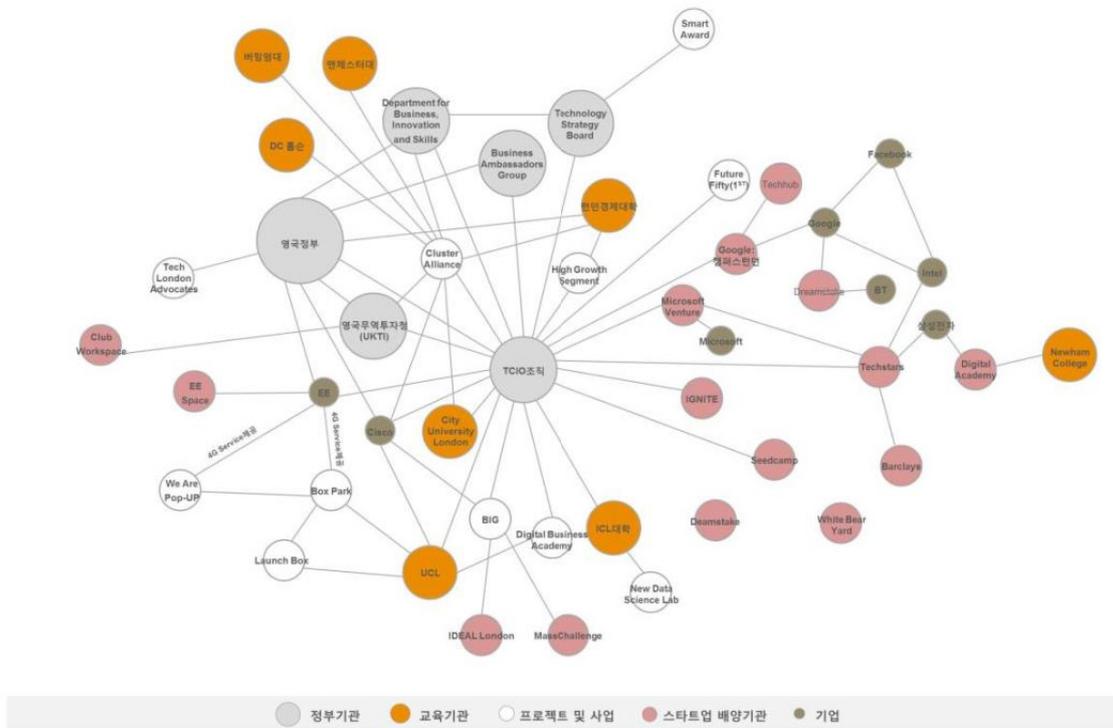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2000~2014	교류·협업공간	eOffice Holborn	사무공간 및 교류·협업공간 제공
		eOffice Piccadilly	
		eOffice Fitzrovia II	
		eOffice Fitzrovia-Noho	
		eOffice Soho	
2005	교류·협업공간	Impact Hub Islington	사무공간 및 교류·협업공간 제공
2006	교류·협업공간	Rentadesk	
2009	복합문화공간	박스파크 쇼디치	공간제공
	교류·협업공간	White Bear Yard	사무공간 및 교류·협업공간 제공
2010	액셀러레이터	Deamstake	워크샵, 기업가정신교육, 세미나, 포럼 등을 제공
2011	교류·협업공간	Junction Nine	사무공간 및 교류·협업공간 제공
	교류·협업공간	Innovation Warehouse	
2011~2014	교류·협업공간	Techspace Great Eastern Street	
		Techspace Bath Street	
		Techspace Underwood Street	
2011~2014	교류·협업공간	Club Workspace London Bridge	
		Club Workspace Southbank	
		Club Workspace Kennington	
		Club Workspace Clerkenwell	
		Club Workspace Bethnal Green	
		Club Workspace Islington	
		Club Workspace Ladbroke Grove, Westbourne Park	
		Club Workspace West Dulwich	
Club Workspace Chiswick			
2012	액셀러레이터	Campus London	스타트업 배양
	기업	We Are Pop Up	팝업샵 추진
2013	액셀러레이터	Techstars	스타트업 배양
	액셀러레이터	Barclays	스타트업 배양
	기업	EE	인터넷 서비스 제공
	대학	Launch Box	팝업샵 추진
	교육	Samsung Digital Academy	워크샵 제공
	대학	런던경제대학	기업가정신교육 제공 및 산학프로젝트진행
	액셀러레이터	Warner Yard	스타트업 배양
2014	대학	임페리얼대학	기업가정신교육 제공 및 산학프로젝트진행
	액셀러레이터	TechHub @ Campus	스타트업 배양

상기 <표 111>과 같은 런던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도상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11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6] Tech city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이들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17]과 같다.



[그림 117] 테크시티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1)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테크시티는 현재 전 세계에서 기술 분야 스타트업 클러스터 중 San Francisco와 New York City를 이어 3번째로 큰 규모¹⁹⁷⁾에 해당되는데 이렇듯 테크시티에 클러스터가 조성되기까지는 여러 대학 및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지원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테크시티의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공공, 교육, 국제, 기업, 단체, 대학으로 파트너십을 구분하여 연계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테크시티는 주변지역에 City University London, Imperial College London, Loughborough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London과 같은 우수 대학들이 위치해 아카데미 파트너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국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High Growth Segment'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 기업에게 대중시장에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 제공하고 있으며 테크시티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ICL대학은 2014년, New Data Science Lab을 오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New Data Science Lab은 기술, 대학, 기업가를 연결하는 주요 허브로 작용하며 추후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분야 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⁹⁸⁾

2)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결

영국정부, 우수 대학들과 기관들이 테크시티 지역의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밑거름을 제공하였다면 클러스터의 조성 이후 Cisco, Facebook, Google, Intel and McKinsey & Company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테크시티 지역에 투자가 시작되었고,¹⁹⁹⁾ 그로 인해 2013년을 기준으로 약 30개가 넘는 협업 및 교류공간 및 액셀러레이터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테크시티 리포트) 구글, 페이스북, 인텔은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개발단지를 테크시티 내에 설립하였으며 구글의 지원으로 설립된 캠퍼스런던을 통해 2013년 한해 274개 스타트업에 평균 7만 5,000파운드의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삼성 전자 또한 페이스북과 구글에 이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혁신제품을 위해 런던에 혁신센터를 열며 기술 대기업의 함대에 합류하였다(Computer Weekly. com, 2013.12.06.일자). 영국 삼성전자는 영국 Newham College와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였고 이후 런던 동부 'Digital Academy'에 £ 500,000투자하여 젊은이들에게

197) Wikipedia, 2014, "Silicon Roundabout is alive and well=Tech City News". Retrieved 17 March 2014.

198) GOV.UK, 2013, 'Tech City celebrates third anniversary as new figures show economic success story'

199) Wikipedia, 2014, "PM announces East London 'tech city'". Number 10. Retrieved 4 November 2010.

정보&창조경제에서 일자리 마련에 필요한 기술 및 훈련을 삼성전체 제품을 통해(모바일, 태블릿 피씨 등)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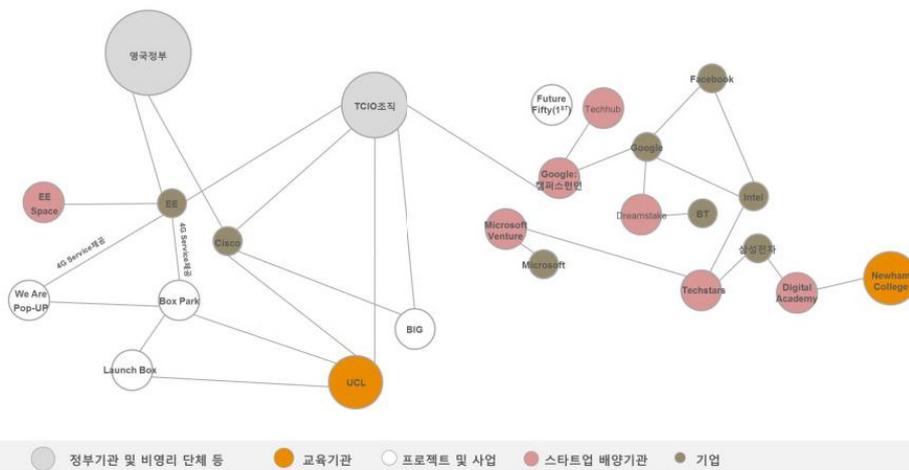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이자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MassChallenge도 2014년 런던에 프로그램을 런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MassChallenge의 프로그램은 자금지원과 함께 펀딩 및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월드 클래스의 멘토링 서비스 및 트레이닝, 무료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MassChallenge는 지분획득 없이 모든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2010년을 기준으로 MassChallenge의 졸업자는 총 \$475M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약 4,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인바 있다(gov.uk.2013).

<표 112> 2012년도 테크시티지역의 투자유치 현황

Investment deals made in Tech City UK since March 2012:

- Yahoo! acquired Tech City UK start-up Summly for about \$30m (March 2013)
- Mobcast co-founder Andy McNab, sells stake to Tesco (Sept 2012)
- \$2m invested in The Currency Cloud by Notion Capital (July 2012)
- £400,000 seed funding secured by MOVE Guides (July 2012)
- \$1.4m seed funding secured by Makielab (June 2012)
- £2m invested in Cloud.IQ by Bridges Ventures (May 2012)
- \$24m invested in Huddle by US investors (May 2012)
- \$2.8m raised by Tribesports in Series A funding round (March 2012)
- Unruly Media raised \$25m in March 2012 and now has nine offices overseas
- \$10m funding secured by Songkick from Sequoia Ventures; this was Sequoia's first UK investment (March 2012)

자료출처 : 'Tech Powers the London Economy', The Tech City 3rd Anniversary Report, Tech City, 2013, 'A Tale of Tech City: The Future of Inner East London's Digital Economy, Centre for London, 2012,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A new growth opportunity for London', Accenture, 2014



[그림 118] 글로벌 기업의 참여와 지원조직들과의 연결

3) 아이디어 이벤트를 통한 연결

테크시티는 파트너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성격의 각종 아이디어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테크시티와 아카데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UCL은 UCL의 교직원, 학생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잠재적 성공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상품을 대중에게 홍보 및 판매로 연결해 주는 팝업 스토어 'Launchbox'를 Shoreditch지역에 위치한 Box Park에서 운영 중이며 'Future Fifty'의 경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50개 핵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East London Tech City의 공공부문 파트너십인 Technology Strategy Board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인 'Smart Award'으로 스타트업의 재정적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서 가능성 있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시장 진입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Smart Award는 R&D분야 Pre-Startup 혹은 중소기업이며(SMEs기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한 주제 및 분야에 상관없이 창업 및 기업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표 113> Smart Award의 내용

Proof of Market	시장조사, 시장성테스트 및 경쟁사분석, 지적재산의 포지션, 가상의 사업계획을 통하여 상업화 가능성을 높임
	(수행기간) 최대 9개월간 (지원 자금) 최대 £25k, 프로젝트비용의 60%까지
Proof of Concept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기술적 실현의 가능 및 신기술, 제품 및 공정의 상업화 실현가능성을 높임
	(수행기간) 최대 18개월간 (지원 자금) 최대 £100k, 프로젝트비용의 60%까지
Prototype Development	시장성테스트, 마케팅전략, 제품디자인, 데모를 통하여 혁신적 기술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을 높임
	(수행기간) 최대 2년간 (지원 자금) 최대 £250k, 기업규모에 따라 프로젝트비용의 35%-45

자료: Technology Strategy Board 홈페이지

4. 독일 베를린의 Silicon Allee

최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창업도시 중 하나인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부터 저렴한 아파트 및 오피스 임대료로 Mitte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모여면서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²⁰⁰⁾ 최근 Twitter의 성공 이후 독일 내 스타트업 열풍이 일어나면서 교류·협업공간, 액셀러레이터 등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베를린 지역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살펴보면 현재 다음 <표 11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베를린은 교류공간 및 협업공간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발굴·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06년 UNESCO 디자인 창조도시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시제품제작이 가능한 공동작업공간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런던을 이어 유럽의 스타트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베를린의 스타트업 지원조직들은 다음 <표 11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정부조직에서 스타트업배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스타트업배양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액셀러레이터들과의 협력(행사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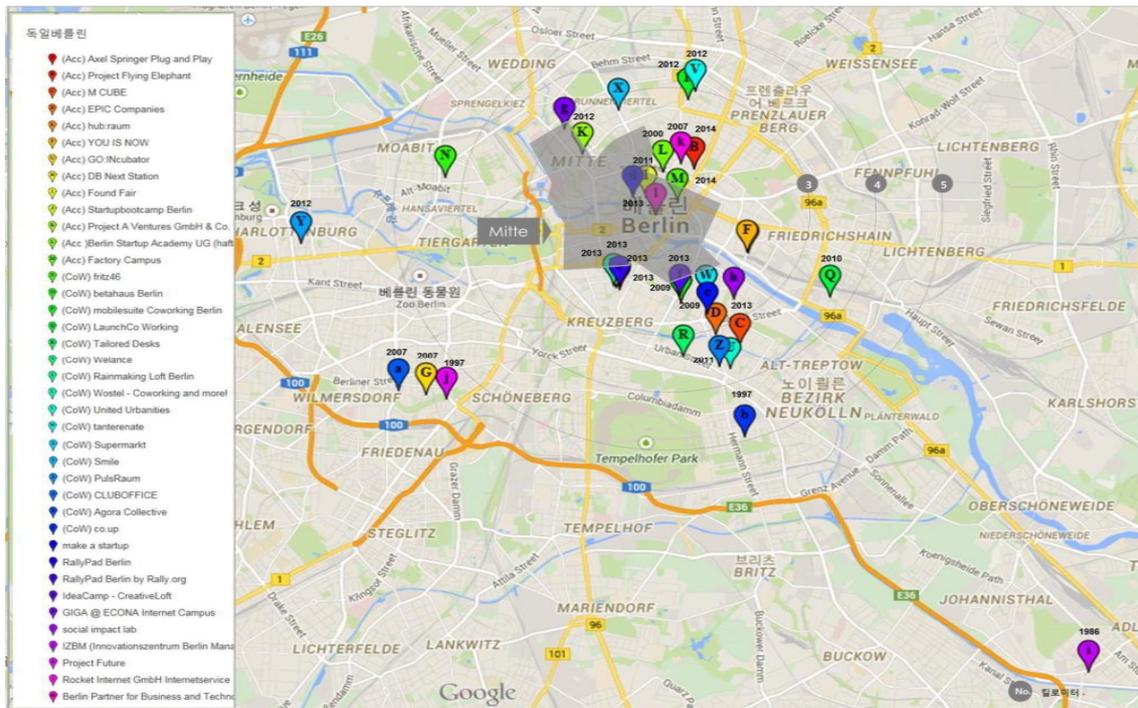
<표 114> 베를린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2013	액셀러레이터	Axel Springer Plug and Play	유럽과 실리콘벨리에 네트워킹을 보유하며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을 지원
2014	액셀러레이터	Project Flying Elephant	IBM과 함께 스타트업을 배양
	액셀러레이터	M CUBE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13	액셀러레이터	EPIC Companies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액셀러레이터	hub:raum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10. 2012	액셀러레이터	YOU IS NOW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07	액셀러레이터	GO:Incubator	스타트업 배양을 위해 자금지원
2014	액셀러레이터	DB Next Station	기차역을 활용하여 피치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2011	액셀러레이터	Found Fair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10	액셀러레이터	Startupbootcamp Berlin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12	액셀러레이터	Project A Ventures GmbH & Co. KG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00	액셀러레이터	Berlin Startup Academy UG (haftungsbeschränkt)	스타트업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4	액셀러레이터	Factory Campus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교류·협업 공간	(CoW) fritz46	교류 및 사무공간
2009	교류·협업 공간	(CoW) betahaus Berlin	프로토타입 작업공간 및 사무공간
2012	교류·협업 공간	(CoW) mobilesuite Coworking Berlin	교류 및 사무공간
2010	교류·협업 공간	(CoW) Launch Co Working	교류 및 사무공간
2010	교류·협업 공간	(CoW) Tailored Desks	교류 및 사무공간

200) THE GLOBE AND MAIL, 'Canada Competes Startup city: Berlin as tech magnet', 2013년 5월 30일자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교류·협업 공간	(CoW) Welance	교류 및 사무공간,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13	교류·협업 공간	(CoW) Rainmaking Loft Berlin	교류 및 사무공간,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교류·협업 공간	(CoW) Wostel	사무공간 및 세미나공간 제공
2012	교류·협업 공간	(CoW) United Urbanities	교류 및 사무공간
	교류·협업 공간	(CoW) tanterenate	교류 및 사무공간
	교류·협업 공간	(CoW) Supermarkt	교류 및 사무공간
2012	교류·협업 공간	(CoW) Smile	교류 및 사무공간
2011	교류·협업 공간	(CoW) PulsRaum	교류 및 사무공간
2007	교류·협업 공간	(CoW) CLUBOFFICE	교류 및 사무공간
	교류·협업 공간	(CoW) Agora Collective	교류 및 사무공간
2009	교류·협업 공간	(CoW) co.up	교류 및 사무공간
	커뮤니케이션	make a startup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정보 조달
2013	클라우드 펀딩	RallyPad Berlin	자금조달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2013	교류·협업 공간	IdeaCamp - CreativeLoft	교류 및 사무공간 및 이벤트제공
	교육기관	GIGA @ ECONA Internet Campus	교육프로그램 제공
	경영 컨설팅 기업	social impact lab	클라우드펀딩 및 컨설팅 제공
1986	창업지원센터	IZBM	연구수행 및 창업지원
1997	정부지원조직	Project Future	ICT, 미디어, 창조산업관련 이니셔티브 수행
2007	엑셀러레이터	Rocket Internet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13	정부기관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	기술기업 지원

상기 <표 114>와 같은 베를린 지역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도상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11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9] 베를린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작업공간은 개인사무공간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창업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작업공간은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동작업 공간과 개인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으로 나뉘는데 공동작업 공간의 경우 카페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베를린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있고,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사무공간의 경우 1일, 1주일, 1달의 단위로 임대 및 대여가 가능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회의 공간을 포함 전화기, 복사기, 프린터, 커피머신 등 다양한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있다. Prenzlauer Berg에 위치한 Mobilesuite은 공동작업 공간으로 회의실, 소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Mobilesuite의 경우 개인회사를 차릴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을 고려하여 기업의 주소 및 모바일 비서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공동작업 공간 및 교류공간은 창업가뿐 아니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작가,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교류가 일어나며 커뮤니티를 형성되기도 하고 스타트업의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을 이루기도 한다.

베를린에는 사무공간 및 교류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공동작업공간 이외에도 Open Design City, Fab Lab Berlin, Betahaus, Maker Weekends와 같이 시제품제작을 위한 공동작업공간들이 위치해있다. 이러한 작업공간에는 첨단기술기계(3D프린터, Laser Cutter, 재봉틀 등), 소재(나무, 금속, 패브릭), 각종 소프트웨어 및 전자기기들이 구비되어 있어 사용자가 여러 기기들의 사용을 통해 개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음에 따라 창업가들은 창업초기 첨단기술기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자료: IZBM 홈페이지

이러한 민간운영 공동작업공간 이외에도 베를린은 지역 내 기술, 혁신, 기업을 배양하는 IZBM(Innovations-Zentrum Berlin Management GmbH)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베를린은 1986년 베를린기업개발기업이었던 IZBM을 2006년 100% 국가운영으로 변환하였고 TIB(Technology and Innovation Park Berlin)의 부분으로 독일의 첫 번째 인큐베이션 센터인 BIG과 IGZ, OWZ, CHIC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BIG은 ‘Berlin Innovation and Business Incubation Centre’를 줄인 말로 52,000평방미터 규모의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Berlin University of Technology를 포함한 우수 대학들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신생기업에게 서비스 및 기술을 지원한다.

베를린지역의 기업들은 2012년을 기준으로 BIG를 통하여 약 395개 기업이 지원 받았으며 270개 기업이 BIG/TIB를 통해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GZ는 ‘Innovation and Business Incubation Centre’를 줄인 말로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신생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IGZ는 14,000평방미터 규모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1평방미터당 7.70유로(1달)의 임대요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며, 전기세 등의 관리비용은 1평방미터당 약 2.6유로(1달) 정도이다. 또한 IGZ는 대학 및 교육기관으로부터 시작한 스타트업, 혁신프로젝트로 인한 신흥기업, 기간프로젝트로 인해 설립한 신생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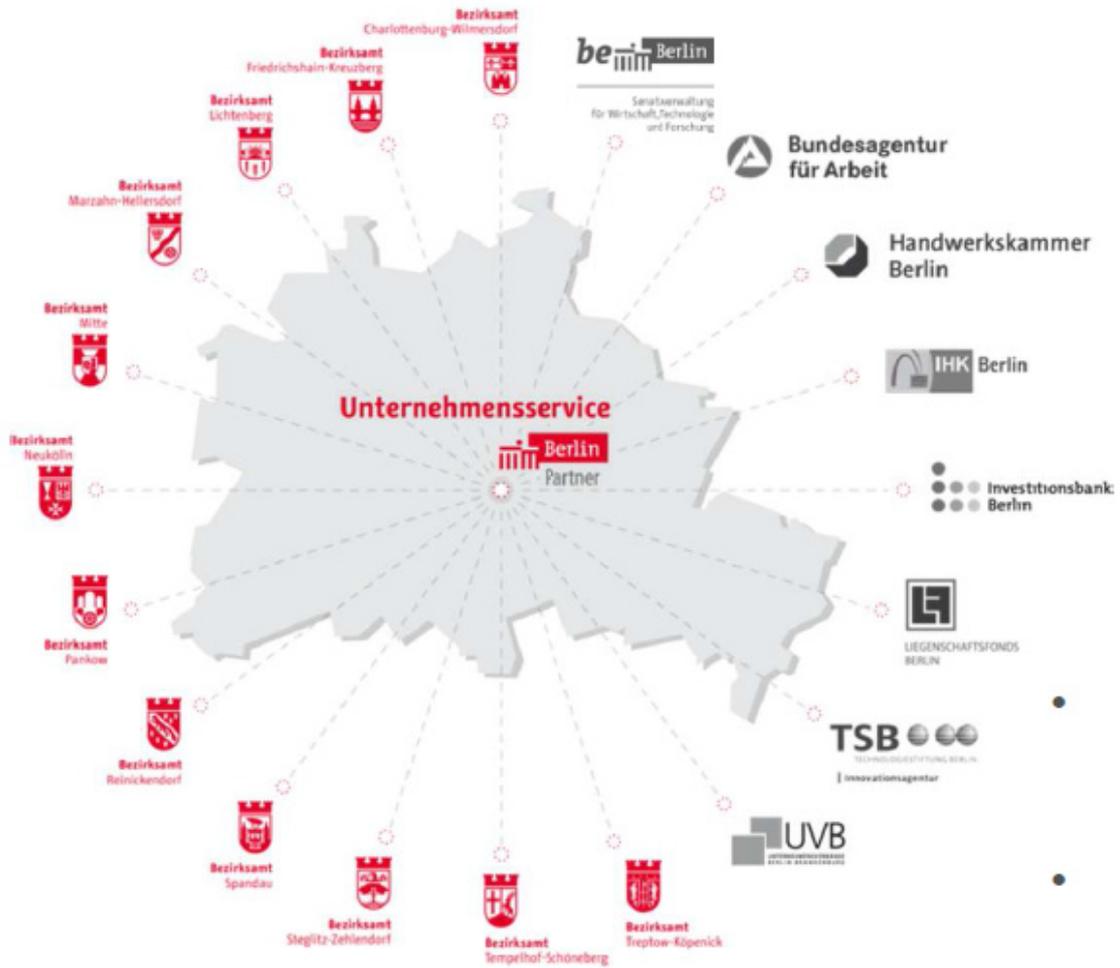
자료: IZBM 홈페이지

OWZ는 ‘International Business Incubator’를 줄인 말로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신생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OWZ는 4,000평방미터 규모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1평방미터당 7.70유로(1달)의 임대요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며, 전기세 등의 관리비용은 1평방미터당 약 2.6유로(1달) 정도이다. 또한 해외에서 온 스타트업 및 혁신적 신생기업, 기간프로젝트로 인한 Existing Companies, 해외에 기반 한 국내/외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HIC ‘Charlottenburg Innovation-Centre’는 대학캠퍼스인 Campus Charlottenburg의 일부로 베를린대학과 근접해 있으며 스타트업 혹은 혁신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창조경제분야 신생기업, 기간 프로젝트로 인해 설립한 기업, 신흥 기업을 대상으로 1,500평방미터 규모의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4,000평방미터 규모 작업공간이 Marie-Elisabeth-Lüders-Straße 1위치에 추가 건설 중이다.

이와 같이 베를린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및 교육기관들의 활용을 통해 투자유치와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으며²⁰²⁾ 베를린의 파트너는 통합적 자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서비스들을 구성하고 있다.

202) Dr. Philip Steden / Sebastian Holtgrewe, Berlin Partner, 2013, “Berlin Partner GmbH &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A Presentation for the UBC Business Commission” 2013.05.22



[그림 121] Berlin Partner의 파트너

자료: Dr. Philip Steden / Sebastian Holtgrewe, Berlin Partner, 2013, "Berlin Partner GmbH &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A Presentation for the UBC Business Commission"

5.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Silicon Wadi

이스라엘은 현재 글로벌 경쟁에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 자산을 인식하고 지역의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역들 중에서도 지속적인 투자, 신기술의 창출, 기업 및 창조적 재능의 개발 등 지역의 능력이 높은 텔아비브의 자산과 자원은 5개의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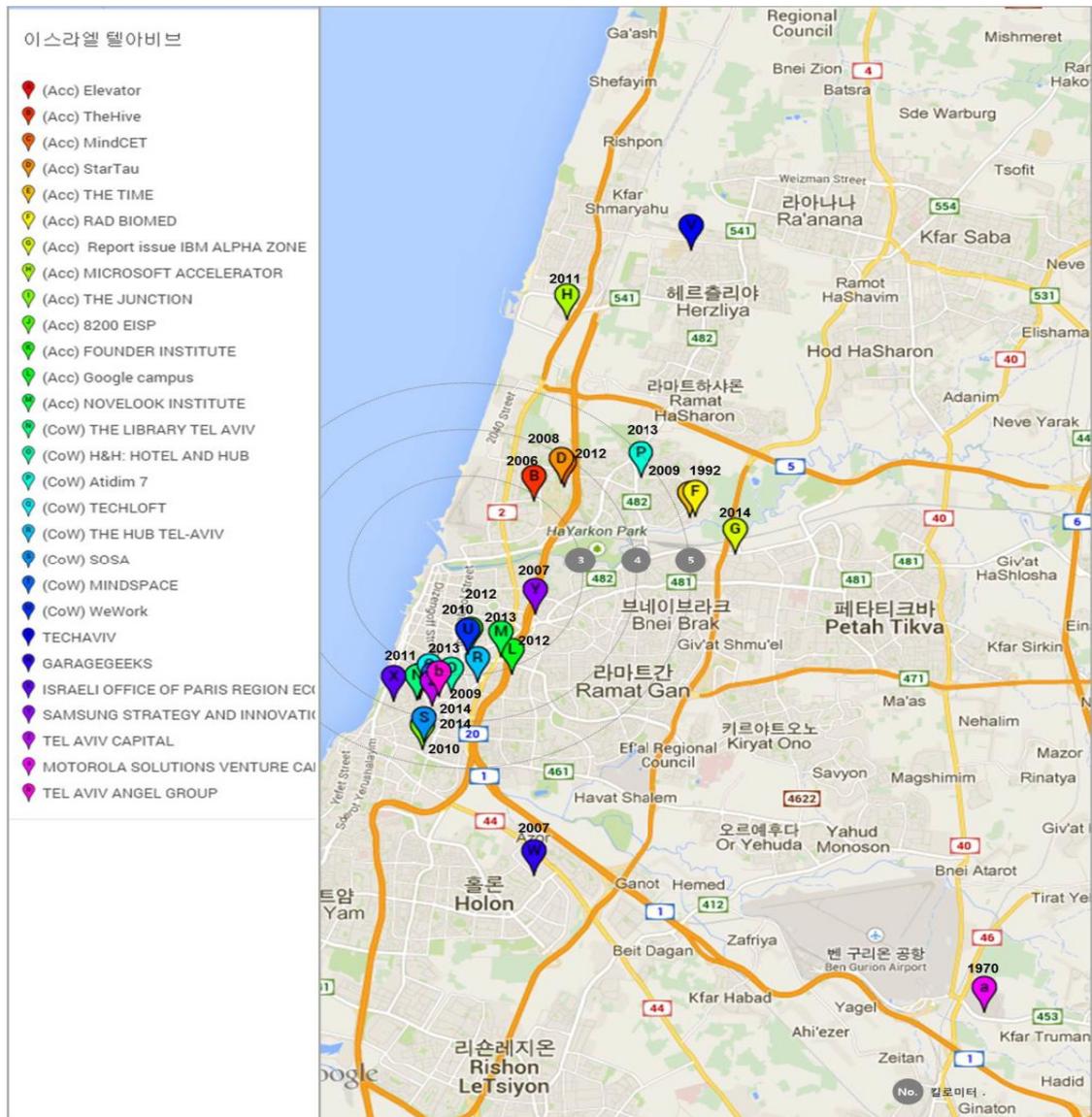
첫 번째는 '삶의 질'로 텔아비브가 가진 생활수준, 환경적 특성,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거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 두 번째는 '육성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이다. 텔아비브는 도시의 1/3이 18~35세 연령으로 이스라엘 젊은 인구의 50%가 Tel Aviv에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시 인적자원의 혁신을 장려한다. 세 번째는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도시브랜드의 구현은 거주민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네 번째는 경제 환경의 조성이다. 텔아비브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더욱 수월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외적인 연결성(Connectivity)이다. 텔아비브는 국내 비행장, 도시 내 혹은 도시 간의 대중교통시스템, 도로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등 타 지역과의 접근성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전통적으로 하이테크 기반 기술혁신형 벤처의 성공 사례를 갖고 있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들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텔아비브 지역의 경우에도 최근 수많은 교류·협업공간, 엑셀러레이터 등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들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은 다음 <표 11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115> 텔아비브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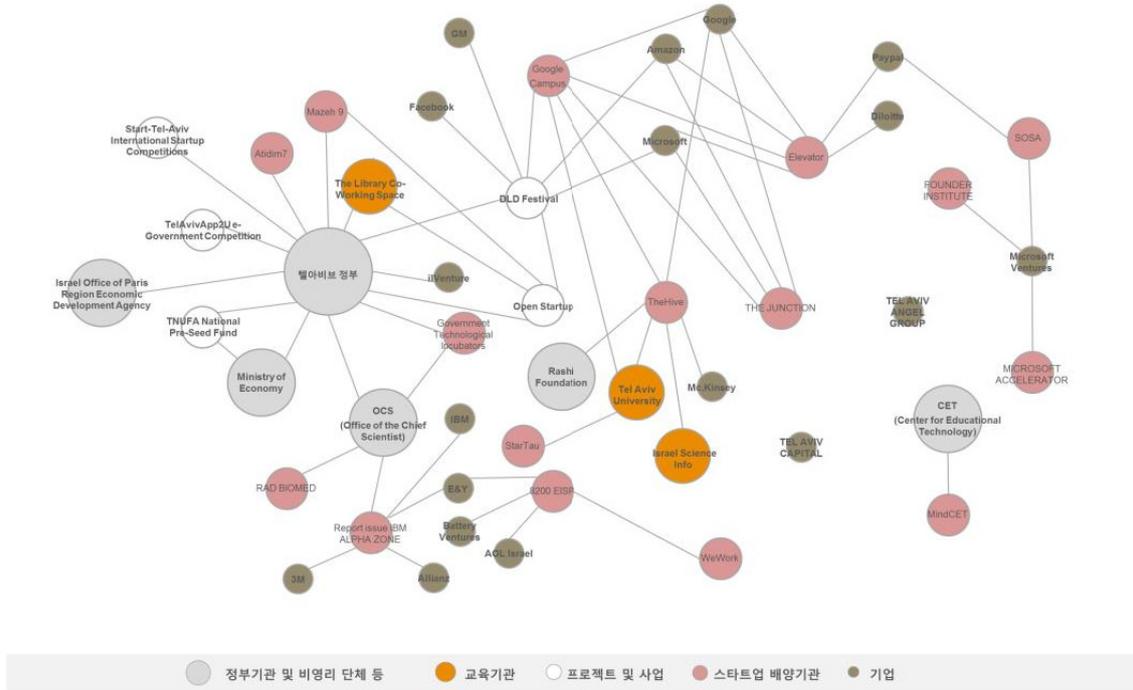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1970	기업	MOTOROLA SOLUTIONS VENTURE CAPITAL	자금 지원
1992	엑셀러레이터	RAD BIOMED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와 컨소시엄을 진행
2006	엑셀러레이터	TheHive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007	커뮤니티	GARAGEGEEKS	스타트업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Physical & virtual space
2007	인큐베이터	SAMSUNG STRATEGY AND INNOVATION CENTER	스타트업 배양 프로그램 및 투자금 지원
2008	기업가정신 센터	StarTau	텔아비브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센터
2008	교류·협업공간	TECHLOFT	교류·협업장소 제공
2009	기업	TEL AVIV ANGEL GROUP	자금 지원
2009	엑셀러레이터	THE TIME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010	엑셀러레이터	THE JUNCTION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010	엑셀러레이터	8200 EISP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010	교류·협업공간	WeWork	교류·협업장소 제공
2011	엑셀러레이터	MICROSOFT ACCELERATOR	Microsoft Venturesml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011	공공기관	THE LIBRARY TEL AVIV	교류·협업장소 제공
2012	연구기관	FOUNDER INSTITUTE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012	엑셀러레이터	Google campus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012	엑셀러레이터	MindCET	EdTech innovation center 로 Center for Educational Technology (CET)으로부터 설립된 독립 기관
2013	연구기관	NOVELOOK INSTITUTE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013	호텔	H&H: HOTEL AND HUB	교류·협업장소 제공
2013	교류·협업공간	Atidim 7	교류·협업장소 제공
2013	교류·협업공간	MINDSPACE	교류·협업장소 제공
2014	엑셀러레이터	Report issue IBM ALPHA ZONE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IBM과의 Joint Business기회 제공
2014	교류·협업공간	SOSA	교류·협업장소 제공
2014	기업	TEL AVIV CAPITAL	자금 지원
-	엑셀러레이터	Elevator	5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분야 기업을 지원
-	교류·협업공간	THE HUB TEL-AVIV	교류·협업장소 제공
-	커뮤니티	TECHAVIV	텔아비브 스타트업들 간의 커뮤니티
-	정부기관	ISRAELI OFFICE OF PARIS REG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텔아비브 스타트업들 간의 커뮤니티 및 행사를 주최

상기 <표 115>와 같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역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도상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12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22] 텔아비브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이들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역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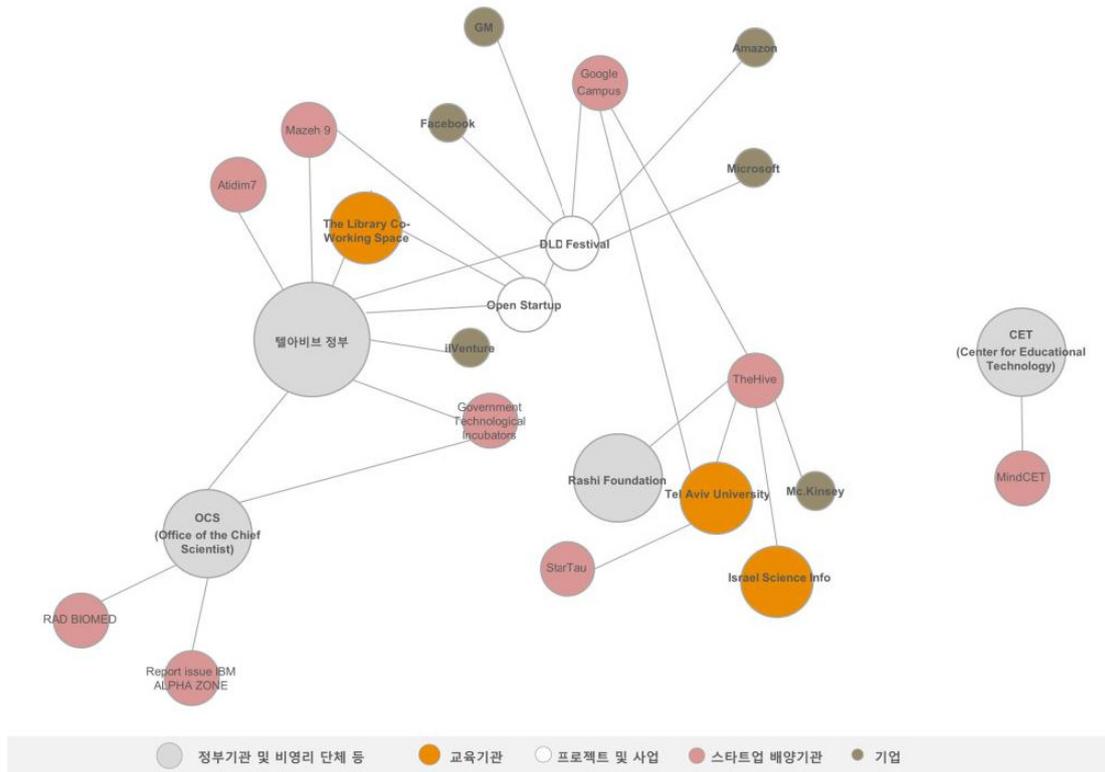


[그림 123] 텔아비브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

1) 이니셔티브 파트너십과의 연결

텔아비브는 다른 글로벌 도시들에 비해 지역 예산과 지역의 크기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작고 열악하다. 이에 따라 인적자본은 텔아비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텔아비브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이 보유한 교육 기관, 문화 센터, 지방 자치 단체, 호텔, 업무 시설 등이 서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음으로써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텔아비브 정부는 텔아비브 지역을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로서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Global City initiative'를 2010년 발표하였는데, 이니셔티브는 Tel Aviv-Yafo Municipality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Global Administration으로서 도시의 인재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또한 영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림 124]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의 산하기관으로 R&D연구 및 개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OCS(Office of the Chief Scientist)는 생물의학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인 RAD BioMed와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IBM에서 2014년 설립하여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인 Report issue IBM ALPHA ZONE의 파트너로서 지원하고 있다.

텔아비브 정부는 2010년 ‘Startup City’사업 발표 이후 교류·협업공간이 마련된 도서관을 설립하고 텔아비브 지역에 위치한 교류·협업공간 Atidim7과 Mazeh9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Open Startup’은 ‘DLD Festival’의 행사 중 하나로 DLD Festival은 국내외 VC, 스타트업, 엔젤투자자 등이 참석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디지털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다. 텔아비브 정부가 지원하고 DLD Festival이 운영하는 Open Startup은 일반인들 혹은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텔아비브 지역 스타트업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스타트업들은 방문객에서 개발 중인 제품을 소개하고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텔아비브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위와 같이 정부기관과의 연결성 외에도 교육기관과의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다. 1984년 설립된 Rashi 재단은 교육과

복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재단이 보유한 협회 및 자회사들을 통해 유아부터 고등교육,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Rashi 재단은 이후 2006년 새로운 이주민을 위한 지원과 이스라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가와 연계되어 있던 프랑스 대학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조직인 Gvahim을 설립하게 되었고 Gvahim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 TheHive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TheHive는 6개월의 프로그램으로 현지(이스라엘 혹은 텔아비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스라엘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여러 기관들, 투자기업, 법률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멘토, 투자자, 졸업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형성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연결다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TheHive는 Tel Aviv University와 Israel Science Info 등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을 지원해주고 있다.

1971년 정부의 통치 아래 Rothschild재단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CET(The Center for Educational Technology)는 이후 독립형태의 비영리 조직으로 변화되어 자체 수익 창출 프로젝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CET는 오늘날 가장 전문적인 교과서의 게시자 및 개발자이며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교육시스템에서의 전문지식과 명성을 쌓고 있다.

6.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St. Louis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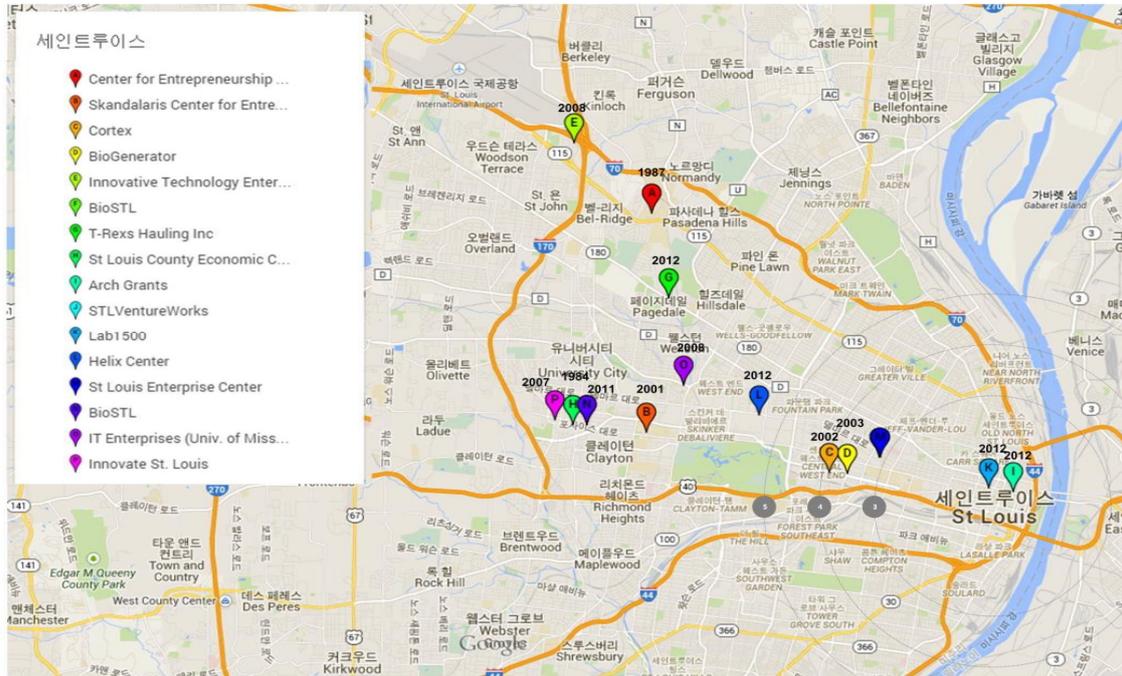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학, 지역개발조직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이 지역의 경우에도 ICT,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업공간, 액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들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은 다음 <표 11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으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활발한 투자이다. 테크시티나 뉴욕 등과 같은 메트로시티의 경우 해외 기업의 참여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두드러지나 세인트 루이스의 경우 로컬 펀딩 및 로컬 스타트업지원조직으로 부터의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다.²⁰³⁾ 스타트업지원기관들 간의 연결성 부분에서도 세인트루이스 지역내 다양한 지원조직들이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116> 세인트루이스지역의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1984	정부지원조직	Sain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스타트업 지원 및 지역사회 개발
1987	대학 창업 센터	Center for Entrepreneurship (St. Louis Univ.)	스타트업 지원
2001	대학 창업 센터	Skandalaris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 (Washington Univ. in St. Louis)	스타트업 지원
2002	기업	CORTEX (Life sciences)	스타트업 지원
2003	비영리 조직	BioGenerator (Life sciences)	기술사업화 및 기술배양
2007	액셀러레이터	INNOVATE/VMS2	스타트업 지원
2007	인큐베이터	Innovate St. Louis	스타트업 지원
2008	기업가정신센터	IT Enterprises (Univ. of Missouri, St. Louis) (Life sciences, IT)	스타트업 지원
2008	커뮤니티	Build Guild	네트워킹의 장 마련
2008	액셀러레이터	ITEN	스타트업 지원
2011	기업	BioSTL(Life sciences)	스타트업 지원
2011	교류·협업공간	T-REX	사무공간·공동작업공간 지원
2011	액셀러레이터	Capital Innovators	스타트업 지원
2012	인큐베이터	Helix Center (Biotech)	스타트업 지원
2012	교류·협업공간	Lab1500	스타트업 지원
2012	지원조직	STLVentureWorks	스타트업 지원
2012	자금지원	Arch Grants	스타트업 지원
2013	경연대회	1 Million Cups	스타트업 아이디어사업화
2011	커뮤니티	Start Louis	네트워킹의 장 마련
2011	커뮤니티	Code Until Dawn	네트워킹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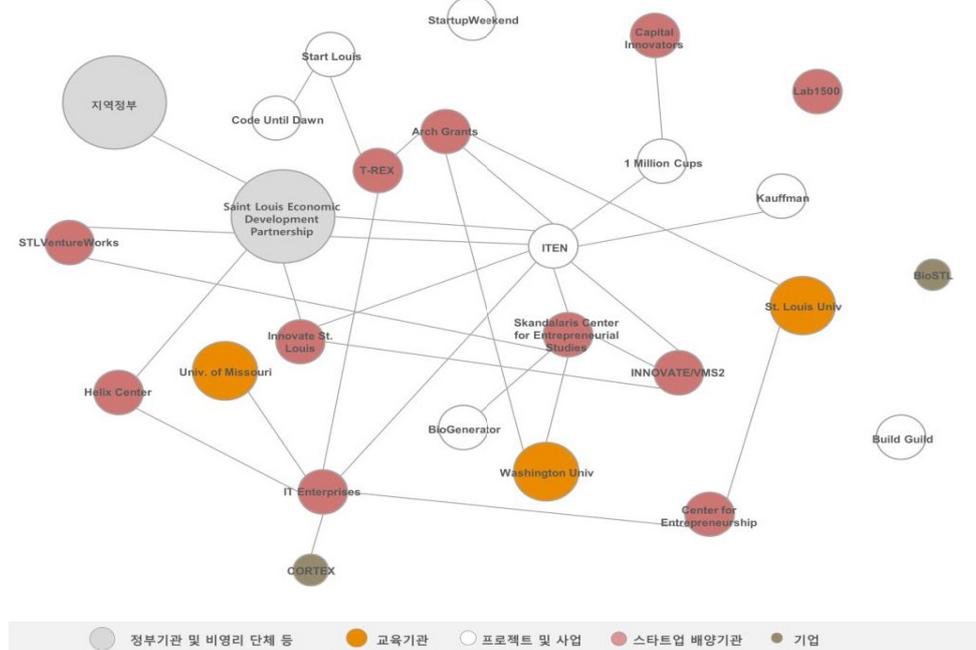
203) 'St. Louis Tech Startup Report 2013 Year in Review', ITEN, 2013

상기 <표 116>과 같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도상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12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25] St. Louis Region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이들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세인트루이스 지역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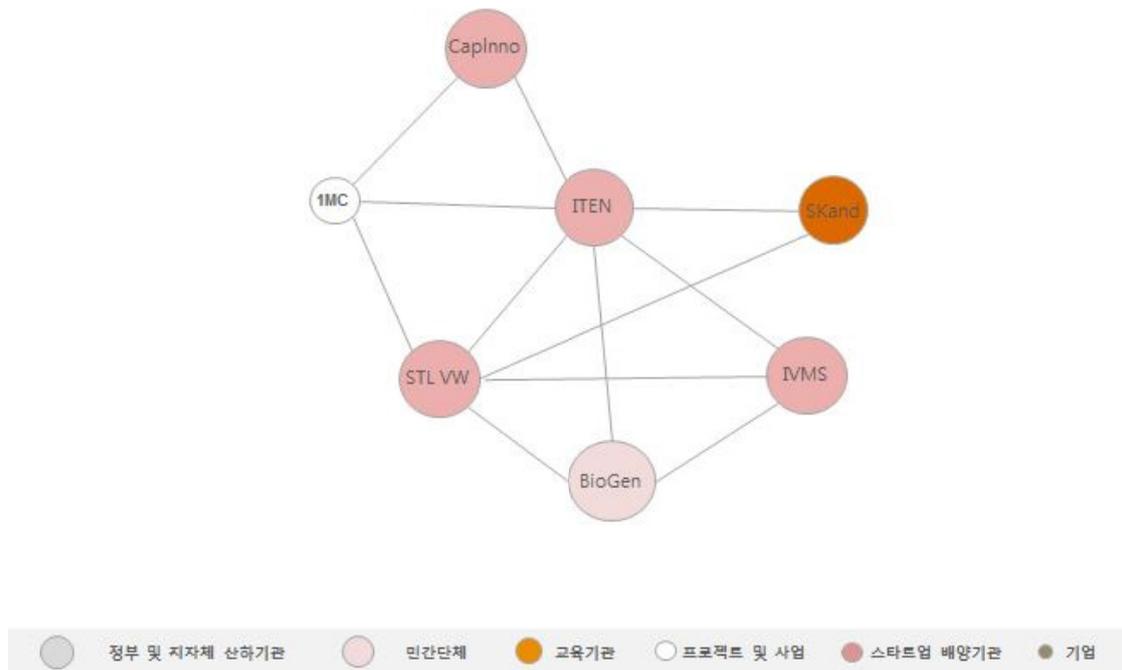


[그림 126] 세인트루이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1) 지원조직들과의 연결

세인트루이스 지역 지원조직들 간의 전략 및 기능에 따른 공식적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정보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직인 ITEN, 바이오테크와 약학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직인 BioGenerator, 스타트업 배양 공간을 보유한 지원 조직 STL VentureWorks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 3가지 조직의 상호작용은 STL VentureWorks, Cultivation Capital, ITEN의 관계와 같이 각 조직 위원들 간의 교차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InnovateVMSd의 이사회에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사회 임원은 현재 카우프만 재단은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워싱턴 대학의 Skandalaris Center에서 업무를 맡으며 두 조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멘토들 간의 네트워킹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인 Capital Innovators의 두 설립자는 ITEN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의 멘토로서 기업을 지원하였고 이외 지원조직들 간의 연결성은 각 지원조직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여 혹은 패널참석으로 연결성을 갖는다.



[그림 127] 세인트루이스 지역 지원조직들 간의 연결

자료: 'Examini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T. Louis', 카우프만재단, 2014

세인트루이스 지역 주요 지원조직들의 보유 자원과 기능적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표 117> 주요 지원조직별 기능 유형

Organizations	Broad				Functional			
	Mentor	People finding	Connecting	Financial	Refine business model	Practice pitching	Due diligence	Space / Incubation
ITEN	o	o	o		o	o		
Skandalaris Ctr.		o			o			
BioGenerator	o			o			o	o
INNOVATE/VMS	o		o					
Cap. Innovators	o		o	o	o	o		o
STLVentureWorks	o							o
CET	o				o			o

자료: 'Examini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T. Louis', 카우프만재단, 2014

2) 커뮤니티 및 행사를 통한 연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여러 지원조직들과 기업들 이외 기관들과의(miscellaneous actors)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 세인트루이스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연결성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Arch Grants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 간의 연결성 부분에서 어느 기업들과 연결성을 갖지 못한 5개의 기업이 주요 지원조직들 간의 연결성에서는 하나 이상의 연결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데모데이와 같은 투자유치 행사를 통해 투자기관들과의 연결성을 갖거나 사업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여러 스타트업 배양기관들과 접촉하며 연결성을 갖게 된다.

스타트업들은 스타트업 배양기관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 같은 해에 선발되어 여러 스타트업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업을 개발하게 됨에 따라 그들만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스타트업 배양기관을 거친 스타트업들은 동일한 스타트업 배양기관을 이전에 졸업한 선배 스타트업들과도 관계형성을 맺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rch Grant의 경우 2012년, 15개의 스타트업을 배양했고 이후 2013년 20개의 스타트업을 추가로 배출했는데 2012년도에 졸업한 집단이 2013년도에 졸업한 멤버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이유는 스타트업 배양기관들이 '선배 기업인과의 만남 행사'를 마련하며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료학습효과(peer

learning effect) 비즈니스 개발에 영향을 준다. 경험이 풍부한 졸업자 및 선배 기업가로부터 배우는 학습은 공식적인 멘토링은 아니지만 선배와 동료로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비공식적인 멘토링 학습으로 발전될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주로 Startup Weekend, Start Louis, Build Guild, Code Until Dawn과 같은 기업가정신 행사, 스타트업배양기관 및 여러 지원조직들을 통해 멘토링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경험이 풍부한 멘토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지원조직, 투자자, 또 다른 스타트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멘토와의 관계형성은 멘토가 보유한 네트워킹 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8> 세인트루이스의 기업가 행사

Event Name	Description
Startup Weekend	A weekend activity in which instant teams work on business plans and present by Sunday afternoon
Start Louis	A monthly meetup of solo entrepreneurs and startup enthusiasts for learning and collaboration
Build Guild	A monthly meetup of web professionals
Code Until Dawn	A monthly all-night coding event

자료: 'Examini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T. Louis', 카우프만재단, 2014

기술기반 기업은 종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연관성을 보이는데 카우프만재단은 Arch Grant가 배출한 스타트업들 중 5개의 바이오테크분야 스타트업이 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Mizzou), University of Missouri at St. Louis,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과 같은 지역 대학과 연결성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카우프만, 2014) 위와 같이 5개 기업의 설립자는 각 대학 대학원의 학생 혹은 Postdoctoral 연구원으로 대학에서 연구 중이었던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개발했다. 반면 기업가들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학을 찾지 않고 기술 상용화를 위해 교수들과 협력하지 않음을 발견하며 세인트루이스에서 교수의 역할은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기업의 자문이 아닌 연관된 연구자 및 연구를 소개하는 자문위원의 역할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Missouri Technology Corporation(MTC)은 새로운 첨단 기술 기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준공공기관(semi-public state organization)이다.(MTC 2013) 카우프만의 연구에 따르면 Arch Grant가 배출한 스타트업들 중 3개의 스타트업이 MTC's Venture Capital Co-Investment Program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투자결정이 지역 액셀러레이터, VC, 그리고 MTC의 자료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MTC는 간접적으로 스타트업의 투자에 개입하게 된다.

7.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네덜란드의 기술 및 혁신을 담당하는 The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는 지난 몇 년간 기업가정신을 경제정책 아젠다의 상위에 두고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속도와 두 번째로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접근성과 열린 기업의 문화는 기업의 설립자, 해커, VC 간의 커뮤니티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성장은 주로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일부인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 대학, 지역개발조직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네덜란드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도시, 아인트호벤이 ‘2011년 Intelligent Community Forum’에서 네덜란드의 지역 중 가장 스마트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아인트호벤은 하이테크 캠퍼스 및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어 필립스와 ASML 같은 기업에게 있어 핫 스팟으로 불리고 있으며 현재 아인트호벤의 하이테크 캠퍼스는 기술 벤처 기업의 증가에 기여, 인터넷 기반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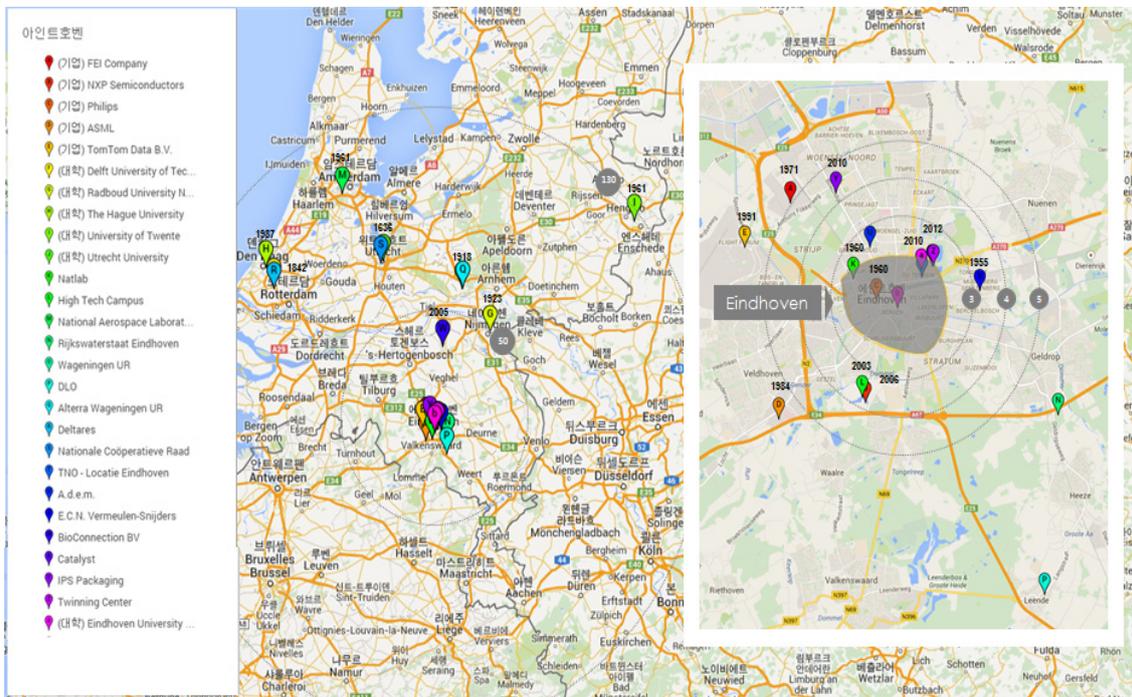
이들 지역의 경우 하이테크 기반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오고 있는데, 최근 이 지역의 경우에도 ICT,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업공간, 액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들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은 다음 <표 119>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119> 아인트호벤의 주요 스타트업지원 조직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1636	대학	Utrecht University	기술사업화 지원 / 협력연구 수행
1760	협동조합	Nationale Coöperatieve Raad	협력연구 수행
1960	연구기관	Natlab	연구프로젝트를 수행
1971	기업	FEI Company	협력연구 수행
1976	기업	IPS Packaging	협력 연구소 설립 및 운영
1842	대학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기술사업화 지원 / 협력연구 수행
1891	기업	Philips	기술사업화 지원
1918	대학 연구소	Wageningen UR	협력연구 수행
1923	대학	Radboud University Nijmegen	기술사업화 지원 / 협력연구 수행
1932	비영리조직	TNO - Locatie Eindhoven	지역개발 미션수행
1955	연구소	ECN	협력연구 수행
1961	대학	University of Twente	기술사업화 지원 / 협력연구 수행
1961	연구기관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협력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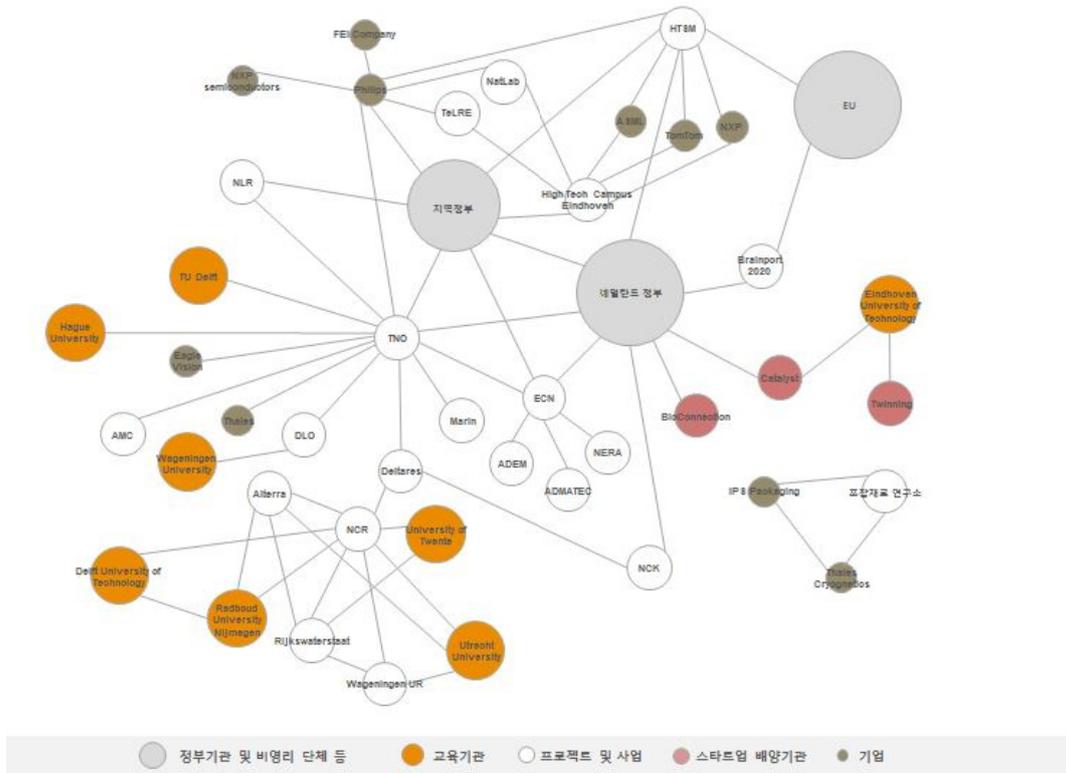
년도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내용
1984	기업	ASML	협력연구 수행
1987	대학	The Hague University	기술사업화 지원 / 협력연구 수행
1991	기업	TomTom	협력연구 수행
2003	-	High Tech Campus	기술사업화 지원
2005	인큐베이터	BioConnection	생명공학분야 자문지원
2006	기업	NXP Semiconductors	협력연구 수행
2010	연구소	IPS Packaging	기술개발
2012	액셀러레이터	Catalyst	기술사업화 지원
-	액셀러레이터	Catalyst	스타트업 배양
-	액셀러레이터	Twinning Center	스타트업 배양
-	액셀러레이터	Helmond	스타트업 배양
-	연구기관	Rijkswaterstaat Eindhoven	협력연구 수행
-	대학 연구소	DLO	협력연구 수행
-	미간연구기관	Deltares	협력연구 수행
-	연구소	ADEM	협력연구 수행

상기 <표 119>와 같은 아인트호벤 지역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도상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128]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28] Eindhoven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이들 스타트업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아인트호벤 지역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의 연결성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29]와 같다.



[그림 129] 아인트호벤의 스타트업 생태계

1) 기업과의 연결

19세기 아인트호벤 지역은 필립스와 DAF의 설립과 함께 제조업이 번성하기 시작하며 ‘Company Town’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필립스의 여러 계열사가 네덜란드 남동부지역에 들어서고 NXP, ASML와 같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이끌며 지식 및 스마트 혁신을 주도해 나갔다.



[그림 130] 아인트호벤의 R&D Hot Spot과 네덜란드 Top10 R&D기업

출처: Brainport Development, 2011, Technisch Weekblad by Brainport Development

현재 아인트호벤은 연구기관과 산업 사이에서 협력의 중심이 되어 경제발전을 이끌어어나가고 있다. 아인트호벤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20> 아인트호벤의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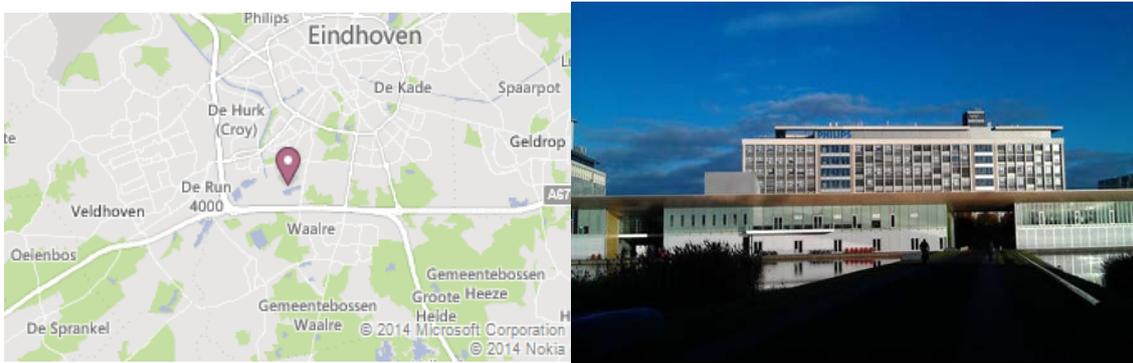
기관명	역할
필립스	2002년, Catharina hospital, Philips Medical, University of Maastricht이 협력하여 바이오메디컬,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연구를 시작, 이후 아인트호벤은 유럽 및 네덜란드 내 바이오메디컬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
필립스의 NatLab	High Tech Campus Eindhoven로 발전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Twinning Center	기술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TN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응용과학연구관련 비영리기업인 TVO는 대학캠퍼스 내에 지점을 열어 확산
포장재료 연구소	IPS Packaging과 Thales Cryogenetics의 협력을 통해 2010년 설립
필립스 전구 공장	도서관, 디자인 아카데미, 중소기업을 위한 오피스빌딩으로 개조
High Tech Campus Eindhoven	각종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지식 및 혁신 커뮤니티 주관(Innoenergy (Sustainable Energy), EIT ICT Lab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Design Academy, The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Eindhoven branch), The Regionaal Opleidingen Centrum Eindhoven(ROC Eindhoven)	고등교육기관

각종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가 위치해있는 High Tech Campus Eindhoven의 시초는 1963년 필립스 사(社)의 R&D센터가 설립된 이후 회사 간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동하며 기술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생태계(Digital/Business ecosystem)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필립스는 1960년대 물리학 연구소인 NatLab(Philips Natuurkundig Laboratorium: Philips Physics Laboratory)를 설립하였는데 1975년 NatLab의 직원들은 총 2,000여명이었으며 그 중 연구원들은 600여명으로 전자, 물리, 화학,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등 특정 제품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에서부터 기초과학연구까지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²⁰⁴⁾

이후 2001년 원래의 NatLab이 해산되고 2003년 아인트호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4만 유로의 리노베이션 비용을 지원받아 예전의 필립스 공장을 도서관, 디자인 아카데미, 중소기업을 위한 오피스빌딩으로 개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다른 기업의 연구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오늘날의 ‘하이테크 캠퍼스 아인트호벤(High Tech Campus Eindhoven)’이 형성되었다. 오늘날의 NatLab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오픈 캠퍼스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필립스의 리서치 캠퍼스는 여전히 특허보유량이 가장 많은 캠퍼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필립스의

204) 위키패디아, 2015

연구소는 독일, 영국, 미국, 인디아, 중국 등 네덜란드 이외지역에도 현지 연구소들(branches)을 두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TeLRE라는 펀드를 만들어 신생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지원하며 작은 기업들도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131] High Tech Campus Eindhoven

자료 : 위키패디아

필립스는 위와 같은 연구기관의 설립 및 연구캠퍼스로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아인트호벤 지역경제발전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기술 및 ICT분야 기업인 FEI Company는 필립스 전자광학에서 파생된 기업이며 NXP Semiconductors는 필립스 반도체로부터 파생된 기업이다.

또한 필립스는 연구기관과 산업사이에서 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필립스는 2002년 Catharina 병원, 필립스 메디컬, University of Maastricht와 협력하여 바이오메디컬, 기술, 공학 분야 연구를 시작하여 이후 아인트호벤이 유럽 및 네덜란드 내 바이오메디컬 기술 허브로 자리매기는 데에 기여하였다. 필립스 이외에도 포장관련 기업인 IPS Packaging과 감지기 및 레이더관련 기업인 Thales Crygnetics가 협력을 통해 2010년 포장재료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The High Tech Automotive Campus(HTAC)는 EU,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금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연구 캠퍼스로 스타트업부터 OEM까지 여러 단계의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정부조직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열린 혁신, 지식 공유 및 협업을 장려한다.

HTAC가 주로 협력하는 기업으로는 Philips, ASML, NXP, TomTom이 있으며 더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 그리고 고품질을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2) 비영리 조직과의 연결

The Netherlands Centre for River studies(NCR)는 '강'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정부, 민간연구기관, 대학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 지식을 연결한다. NCR의 주요기능은 2가지로 첫째, NCR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조장하고 둘째, '강'연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워크숍과 회의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NCR의 위원회는 1년에 4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Alterra, TU Delft, Deltares, Radboud University Nijmegen, Rijkswaterstaat, UNESCO-IHE, University of Twente, Utrecht University, Wageningen UR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파트너들 간 협동연구에 대한 협력을 조정하고 있다.

ECN(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으로 5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및 정부 기관과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ECN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효율성, 환경영향평가, 공학&재료, 정책 분야이며 ECN의 파트너인 에너지연구소 ADEM, 첨가제 제조 공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ADMATEC(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NERA(The Netherlands Energy Research Alliance) 등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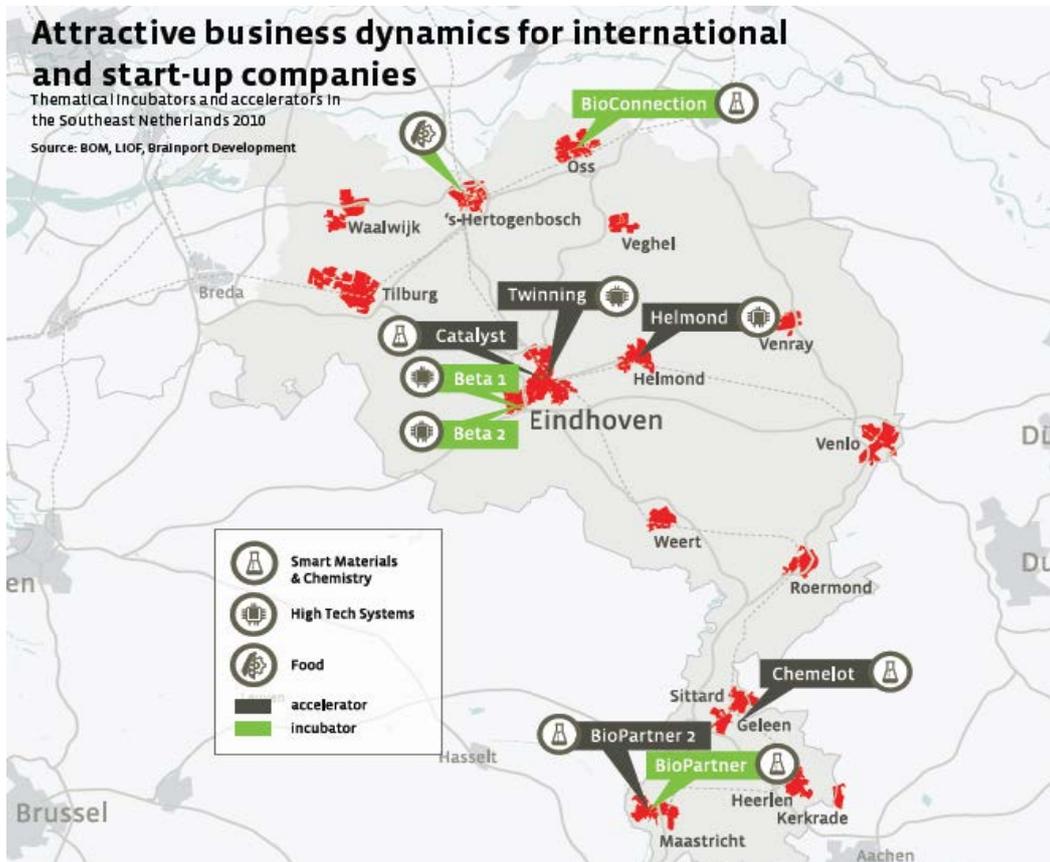
3) 교육기관 및 스타트업 배양기관과의 연결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스타트업 배양기관들은 주로 스마트재료 및 화학,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식품과 관련한 기관들이 많다. 그중 스타트업배양 기관인 Twinning과 Beta1은 미국 인큐베이션관련 조직인 NBIA(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공립 대학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에게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 개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인큐베이터 Twinning을 운영한다. Twinning은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사이언스 파크에 위치해 있어 컴퓨터 과학, 수학, 공학, 혁신과학 및 전기공학 분야의 모든 시설 및 지식인재와 인접해 있으며 비즈니스센터는 사무공간, ICT시설,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한다. 이후 2012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Catalyst 또한 정부에 의해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캠퍼스 내에 설립하여 스마트재료 및 화학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TNO는 석유회사인 Shell, 그리고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TU Delft)와 함께 석유 및 가스 생산기술 공동연구에 투자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기술운영을 통해 탄화수소회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ISAPP(Integrated System Approach Petroleum Produc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SAPPsms 2004년부터 5년간 40여명이 넘는 TU Delft 박사과정 학생과 교수진, Shell과 TNO의 직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외에도 TNO는 필립스, Hague University, AMC(Academic Medical Center), Thales, Eagle Vision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다.

이외에도 2005년 네덜란드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설립된 BioConnection은 생명공학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위해 생산시설 및 생명공학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32] 아인트호벤의 스타트업 배양기관

출처 : Brainport Development, 2011, Technish Weekblad by Brainport Development

제3절 해외 주요 도시기반 창업지원 생태계의 주요 중심 조직

1. Bay Area의 Bay Area Council

Bay Area Council은 경제 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 더 나아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이는 것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조직으로 베이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고, 공공 정책을 지지한다.

Bay Area Council은 베이지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시민, 정치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지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와 기회에 대해 알리고 기업, 정부, 노동자, 과학 및 교육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며 지역으로부터의 지지와 헌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비전을 실현시킨다.



[그림 133] Bay Area Council의 조직도

1944년 이후, 베이지역은 현대 산업 강국으로의 지역변화를 위해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위원회는 지역 경제 개발의 좌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조정했다. 초기 위원회 멤버로 Wells Fargo, Bank of America, Transamerica, Standard Oil of California, Pacific Gas and Electric, Bechtel, Kaiser Industries, Clorox 등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약 250개사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의 Bay Area Council은 급속한 산업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가져오게 되는 주택부족, 교통정체, 고기 및 수질오염에 대해 예견했다. 1940년대의 위원회는 지역 환경 감시단체의 Watchdog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1965년에는 베이 보존 및 개발위원회(BCDC) 법안 후원했고, 1970년에는 도시 교통위원회(MTC)를 생성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으며 1962년, 처음 개최한

“Bay Area Outlook Conference”는 연례행사로 발전하여 오늘날 많은 기업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Bay Area Council은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High Speed Rail’을 추진하고 실리콘벨리에는 2020 World Expo 개최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외에도 베이지역은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연구원이 존재하는데 1990년부터 운영된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원(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정보와 분석을 제공했다.

<표 121>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의 업적

- Water Emergency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설립과 지역 페리시스템 확장을 선도
- 지역 에너지의 상태를 자문, 2003년 정부의 인수위원회를 공동 주관하여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마련에 이바지함
- 2007년 국가 재정 위기의 여파로 인한 연방 정부의 베이지역 할당 자금 상태를 자문
- 캘리포니아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무역 및 투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자문
- 공공 및 민간영역과의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그림 134] 기관별 주요 이슈 및 관계

이후 베이지역 경제연구원은 2008년 1월 Bay Area Council과 합병되어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가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소의 주요 기관 파트너가 되었다. 이외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소는 캘리포니아와 베이지역의 기업, 노동, 정부, 고등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소가 주로 다루는 이슈들은 지역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헬스케어, 과학&혁신, 경제 개발, 무역&세계화, 정부, 그리고 에너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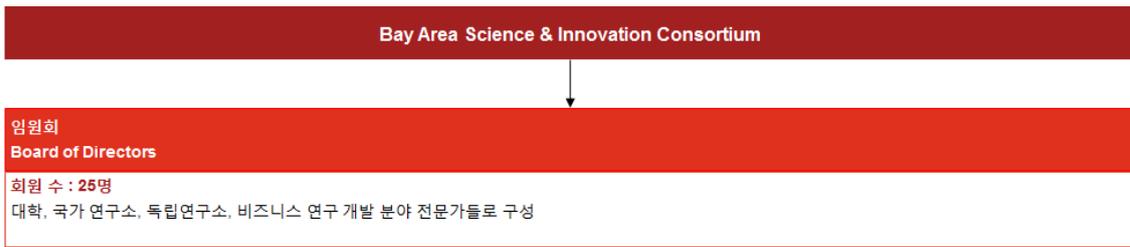
이외에도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원은 Bay Area Science and Innovation Consortium(BASIC)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는데 BASIC의 주요 업무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의 주요 과학연구 기관 및 연구소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지도자들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다.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원의 강점은 경제연구원의 이사회와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파트너 기관에 있다.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원의 이사회는 베이지역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파트너 및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경제 및 정책분석을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연구위원회는 지역의 우수대학, 기업 경제 분석가(Business Economic Analysts)로 구성하여 제품분석 및 연구개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그림 135]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의 조직도

BASIC은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연구소, 국가 연구소, 비즈니스를 연구 및 개발하는 독립 연구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그림 136] Bay Area Science & Innovation Consortium의 조직도

앞서 언급한 베이지역위원회,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소, 그리고 BASIC까지 3개 기관은 모두 각각 개별 운영위원회 및 개별 중점주제(Focus)가 있으며 모두 베이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BASIC의 미션은 베이지역 및 국가의 혁신, 과학 기술을 리드하는 것이며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소(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의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실행자(Arm)역할을 맡고 있다.

BASIC은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역 및 국가 R&D과제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포럼을 제공하며 지역 혹은 연방 단계에서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과 글로벌 커뮤니티를 베이 지역에 불러들임으로써 지역의 과학 및 기술의 성과가 증진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성과가 사회적 이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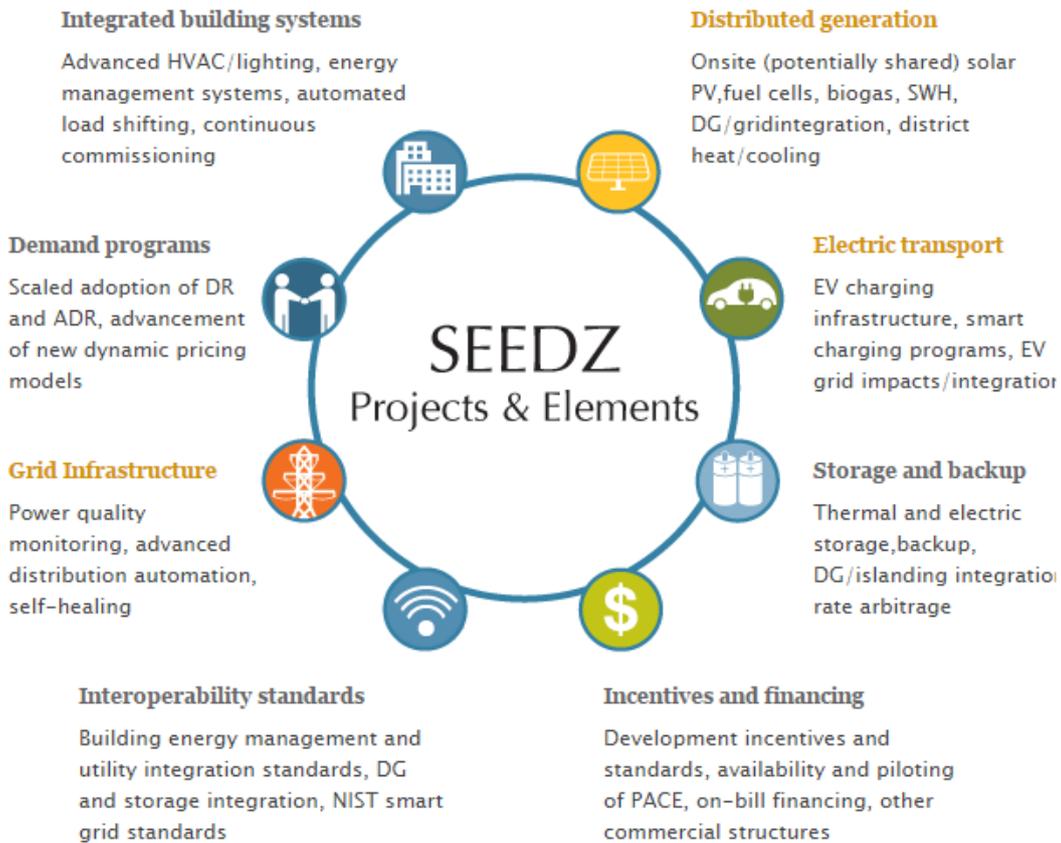
2. Bay Area의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민간 무역 협회인 조인트벤처 실리콘벨리는 1993년, 실리콘벨리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단의 비즈니스맨들이 설립한 조직으로 지역 경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분석한다. 조직은 비즈니스, 정부, 학문분야,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이슈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조인트벤처의 이사회는 50여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지역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노동조합 및 이외 커뮤니티에서의 시니어 레벨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있다. 조인트벤처는 민간과 정부로부터 각각 한명씩, 총 두명을 대표로 선임하고 있으며 여러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현재 조인트벤처에서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에 대한 'Climate Prosperity',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Economic Development', 지역 도로를 위한 'Grand Boulevard', 그리고 무선인터넷과 관련된 'Wireless Communication', 4가지로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Climate Prosperity'는 기후변화문제와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Smart Energy Enterprise Development Zone(SEEDZ), Public Sector Climate Task Forc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Projects(SV-REP, R-REP), 이 세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SEEDZ는 201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미래 실리콘벨리 지역의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8가지 요소들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의 선도적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닌다. 첫째, 클린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둘째, 실리콘벨리의 기업들이 스마트 에너지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마켓을 확장시킨다. 셋째, 개발 및 배포의 허브로서 스마트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기업이 투자 및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다른 지역사회를 위한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한다.



[그림 137] SEEDZ Project & Elements

자료출처 :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홈페이지

Public Sector Climate Task Force는 공공 기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가속화하고, 공공자원을 절약하며, 청정 기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Public Sector Climate Task Force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은 50명의 실리콘벨리 여러 지역의 대표들과 이외 공공 기관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협력을 통해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배우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매년 5~6회 정도의 회의를 갖는다.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Projects는 2008년 County of Santa Clara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런칭되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의 건물 및 시설에 태양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시청, 경찰서, 도서관, 지역사회센터 등 산타 클라라와 산 마테오 지역 건물 및 시설에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제개발 이니셔티브인 ‘Economic Development’는 개인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지방 정부의 정책과 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Grand Boulevard'는 19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체증 감소, 도로공사 등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ireless Communication'은 무선 및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인터넷관련 기업과 사업, 정부기관이 컨소시엄을 추진한다. 조인트벤처는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 Anritsu, AT&T, Comcast, Crown Castle, Extenet Systems, Intero Real Estate, Santa Clara County Office of Asset and Economic Development, Verizon, 그리고 Wireless Communications Allianc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3. 뉴욕의 NYCEDC

NYCEDC는 1991년 경제개발 서비스와 관련된 2개의 비영리 기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NYCEDC는 민간 투자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도시에 불러들였으며 여러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이후 2012년 NYCEDC는 비영리 민간기업인 New York City Economic Growth Corporation과의 합병에 의해 재탄생되었다.²⁰⁵⁾ NYCEDC는 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Board of Directors는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21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7명은 뉴욕시장이 직접 임명했고 10명은 Borough Presidents와 City Council에 의해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현재 NYCEDC를 이끌고 있는 대표는 Kyle Kimball로 시장 Bill de Blasio에 의해 2014년 1월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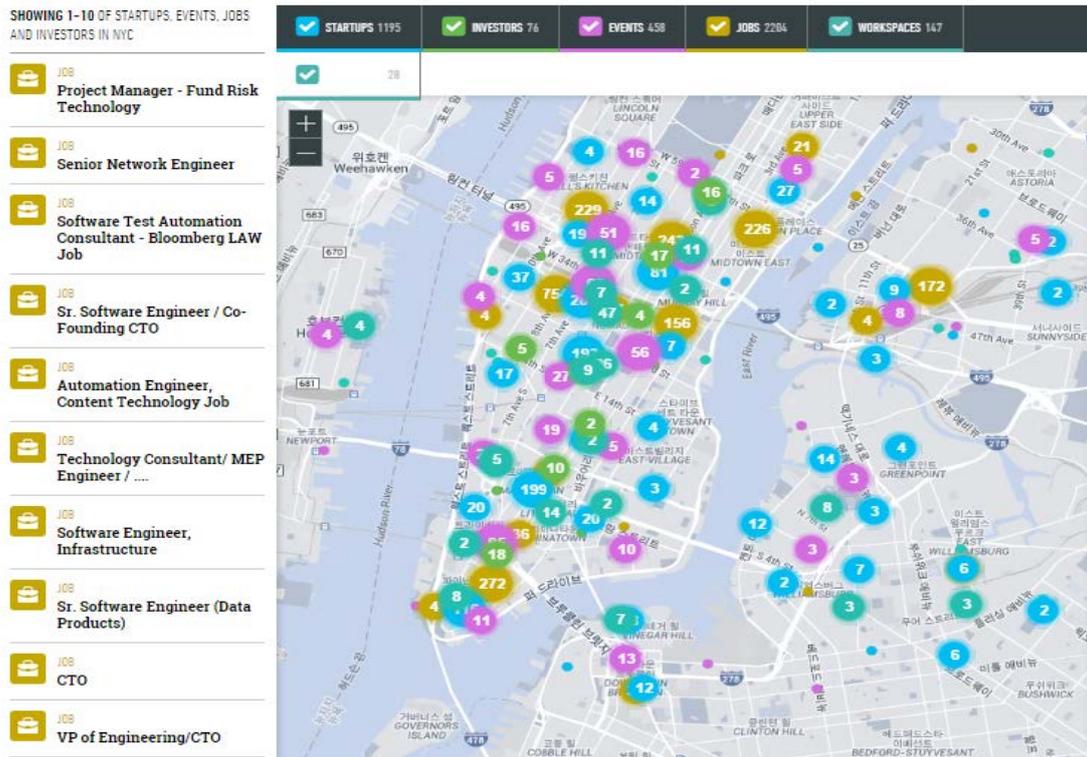
NYCEDC의 미션은 뉴욕시의 경쟁력 강화, 경제적 기회 생성,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뉴욕시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인프라·교통, 주거환경 개발, NYC 마켓, 공원·공공장소, 해안가에 대한 것들로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n Island, Citywide 지역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뉴욕시와 함께 진행하기도 하지만 NYU Poly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Urban Future Lab Incubator를 설립하거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NYC Seed를 지원하는 등 뉴욕에 위치한 대학 및 여러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NYCEDC는 경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종 경연대회 및 행사, 스타트업 배양프로그램과 기업가 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뉴욕시 정부는 NYC's Open Data Law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DoITT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Telecommunication)는 개발자와 시민단체에게 필요자원이 될 수 있는 도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뉴욕의 경제개발을 위해 설립된 NYCEDC의 경우 2014년 10월,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기술 및 스타트업 온라인 허브 'Digital.NYC'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Digital.NYC'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라인을 통해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의 코스, 최근 설립한 스타트업 정보, 네트워킹을 위한 각종 이벤트, 일자리(구인구직), 작업 및 교류공간, 인큐베이터 등 스타트업 및 투자자들이 필요한 각종

205) www.digital.nyc

정보를 제공한다. 'Digital.NYC'는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부분의 파트너로는 뉴욕시장 Bill de Blasio와 NYCDEDC이 있고 민간부분의 파트너로는 IBM와 Gust 등 뉴욕의 여러 기술 및 미디어 기업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까지의 'Digital.NYC'정보에 따르면 뉴욕지역에 총5,984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었으며 투자기업이 162개, 이벤트(Upcoming)가 606개, 일자리가 2,966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138] 온라인을 통한 Digital.NYC의 정보제공

자료: <http://www.digital.nyc/>

4. Tech City의 TCIO

1) 투자활성을 위한 지원

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2010년 신생기업이 캐피털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가 쉽고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약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1년 TCIO(The Tech City Investment Organisation)를 결성하게 되었다. TCIO는 영국무역투자청(UKTI)이 테크시티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정부 조직으로 유럽국가 내에서 기술&디지털 분야 기업에게 있어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테크시티에 투자자와 신생기업을 유인, 지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TCIO는 40명이 넘는 전문 멘토를 보유해 멘토링 서비스 제공하며 연간 국내외에서 25회가 넘는 스타트업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TCIO의 전략은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로인해 대기업 그리고 벤처투자자 등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보다 산업 관계자들을 물리적으로 모이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클러스터 효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²⁰⁶⁾

2013년 1월 영국정부는 TCIO의 수행을 위해 최근 페이스북 유럽의 부사장이었던 Joanna Shield를 고용하고 TCIO의 최고경영자 외에도 디지털산업에 대한 기업 대사로서(Business Ambassadors) 활동할 것임을 발표하였다.²⁰⁷⁾ 여기서 Business Ambassadors Group은 대기업에 비해 글로벌 진출의 진입장벽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학 및 기업의 대표들로 영국기업 기업대사들로 구성된 그룹을 말한다.²⁰⁸⁾ Business Ambassadors Group은 2008년 10월 영국정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영국무역투자청이(UKTI)의 요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²⁰⁹⁾

TCIO는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인도, 중국 등 26개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개최, 1200개가 넘는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돼 37건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200개가 넘는 기업들과 접촉한 결과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230개가 넘는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6) etnews, '글로벌 창업현장을 가다 <4>영국, 유럽의 창업 허브', 2012년 8월 27일자

207) GOV.UK, 2012, 'Joanna Shields to lead Tech City Investment Organisation'

208) GOV.UK, 'UKTI Business Ambassadors'

209) GOV.UK, 2010, 'PM announces new Business Ambassadors'

<표 122> TCIO의 성과

사용처	마케팅	스타트업 이벤트	운영비	계
금액	29만파운드	53만파운드	128만파운드	210만파운드
비중	14%	25%	61%	100%

시기	2008	2010	2011	2012.8
스타트업 수	15	200	600	1250

자료: etnews, 영국 테크시티 "고기잡는 법을 가르친다", 2012년 9월 18일자

영국정부는 테크시티 지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을 위한 세 금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 중에 있는데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는 투자자들의 창업가/신생기업의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장려하 는 것을 목적으로 '12년 4월 영국 정부에 의해 형성되었으며²¹⁰⁾ Startup 투자에 한 하여 처음 5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100,000 한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는 사업 확장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Business Expansion Scheme)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유도를 목적을 위해 '94년 영국 정부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여 '12-'13년 사이 EIS를 통해 4,075개의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였다.

	SEIS	EIS
Overall total investment allowed	£150,000 cumulatively	£5m in any 12 months
Max employees before share issue	Under 25 employees	Under 250 employees
Max gross assets before share issue	£200,000	£15m

자료: Tech City News, 'How can I make my company eligible for EIS/SEIS?'

이외에도 The Technology Strategy Board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15.5m 규모의 Funding Package를 발표하여 최대 £12.5m 규모의 자금이 디 지털 및 컴퓨터 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펀드, 경연대회운영에 쓰일 예정이며 추후 헬스케어 기술과 North East지역의 제조 기업을 지원할 전문 클러스터의 장려를 위해 3개의 경연대회를 구성하여 각 대회당 £1m 자금이 쓰일 예정²¹¹⁾이 다. 또한 2012년, 창업가의 기업설립을 위한 자금마련 통로로 Start-up Loan 을 발표하여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약 £51m 규모의 자금이 10,000개 창업가 에게 유입되었다.

210) Forbes, '7 Ways Startups Get Tagged as Too Risky by Investors', 2011sus 11월 30일자

211) Computer Weekly, 'Tech City: 27% of London job growth comes from technology', 2013sus 12월 6일자

2) 외부자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

영국정부는 테크시티가 3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 테크시티 리포트 발간과 함께 추진계획을 발표²¹²⁾하였고 2013년 발표한 추진계획에서 외부자원을 위한 마련한 비자제도인 Exceptional Talent Visa와 Entrepreneur Visa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는데 Exceptional Talent Visa는 스위스 혹은 유럽국 이외 지역 European Economic Area(EEA)에 거주하는 재능 있는 전문가들을 유도하기 위한 비자 제도로 지원 분야는 Science, Humanities, Engineering, Medicine, Digital technology, Arts분야이며 각 해당분야의 리더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1차적인 승인을 거친 후 비자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매년 4월 6일에서 10월1일 사이 500건으로 제한하였다. 신청자는 희망 입국일 3개월 전에 신청할 시 3주 이내에 결과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단계에 따른 요금은 아래와 같다.

<표 123> Exceptional Talent visa

Who you're applying for	Stage 1 - endorsement application	Stage 2 - visa application
You	£437	£437
You if you're from Turkey or Macedonia	£437	£382
All dependants	-	£874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

Entrepreneur Visa는 2011년 4월 외부로부터 최고기업가가 영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성공한 기업가가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 혹은 사업운영으로부터 £5m 소득이 있을 경우 영국에서의 기반을 더욱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제도이다. 이 외에도 영국은 전 세계 13개 기술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식정보 및 리소스 공유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Cluster Alliance를 발표하였다.

212) GOV.UK, 2013, 'Tech City celebrates third anniversary as new figures show economic success story'

3) 기업 활동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2013년도 테크시티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유럽국의 평균인터넷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테크시티의 경우 테크시티 입주기업들의 과반수가 기술 및 디지털 분야 기업들임에 따라 영국정부는 기술 및 디지털분야 기업이 기업 활동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터넷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광대역 인터넷 연결망 구축을 위해 Urban Broadband Fund에 2011년 £100m을 지원, 다음해인 2012년 £50m를 추가지원 하였고 2013년도 테크시티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테크시티의 기업이 가장 빠른 모바일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G에 £830m를 투자하여 2015년 전 유럽으로 확장할 예정에 있다.

이외에도 영국정부는 테크시티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하이테크 산업 개발의 요충지인 London, Cambridge, Oxford를 연결하는 철도건설계획을 제안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우수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주변지역 인프라가 흡수되어 하이테크 클러스터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베를린의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

1) 아이디어 이벤트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베를린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s, Technology and Research는 1997년부터 베를린지역에 있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능력의 향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베를린이 국제적으로 창조적, 혁신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대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s, Technology and Research는 200여개 기업들과 30여개의 과학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각 파트너들의 투자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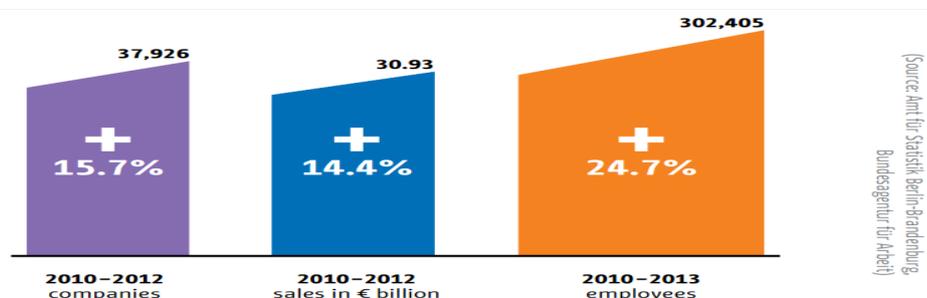
<표 124> 운영을 위한 각 파트너들의 투자지분율

구분	기관명	비율
은행	Investitionsbank Berlin	31.5%
법인재단	Technologiestiftung Berlin	30.0%
상공회의소	Handwerkskammer Berlin	3.5%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 zu Berlin	3.5%
협회	Vereinigung der Unternehmensverbände Berlin und Brandenburg(UVB)	3.5%

출처 : "Berlin Partner GmbH &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A Presentation for the UBC Business Commission" 2013.05.22.

또한 2015년을 기준으로 9명으로 구성된 감사회와 6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로 이루어져 각종 이니셔티브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은 ICT, 미디어, 창조산업분야에서 38,000개 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 30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연간 30.9B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2012/2013 기준)



[그림 139] 베를린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성과

자료: 'PROJEKT ZUKUNFT: STATE INITIATIVE FOR THE BERLIN ICT, MEDIA AND CREATIVE INDUSTRIES',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 Affairs, Technology and Research Branch Office Projekt Zukunft

이에 따라 베를린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s, Technology and Research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Project Future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미디어, 창조경제의 활성을 목적으로 각종 이벤트 및 경연대회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및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새로운 지원체계를 개발, 경제와 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다.

<표 125> ProjectFuture의 지난경연대회 개요

이름	내용
First-we-take-Berlin	'09년 "24H Berlin"이란 주제로 도시의 라이프를 필름에 담에 지원하는 영상경연대회로 1등 5,000유로, 2등 3,000유로, 3등 1,000유로를 수상
Competition Design & Healthcare Sector	'12년 "Design&Healthcare"를 주제로 제품의 콘셉트,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경연대회로 1등 30,000유로, 2등 20,000유로, 3등 10,000유로를 수상
Be Wireless	'12년 "Made to create"를 주제로 Wireless Technology에 기반을 두는 우수 제품,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경연대회로 1등 10,000유로, 2등 6,000유로, 3등 4,000유로를 수상

자료출처: www.berlin.de/projektzukun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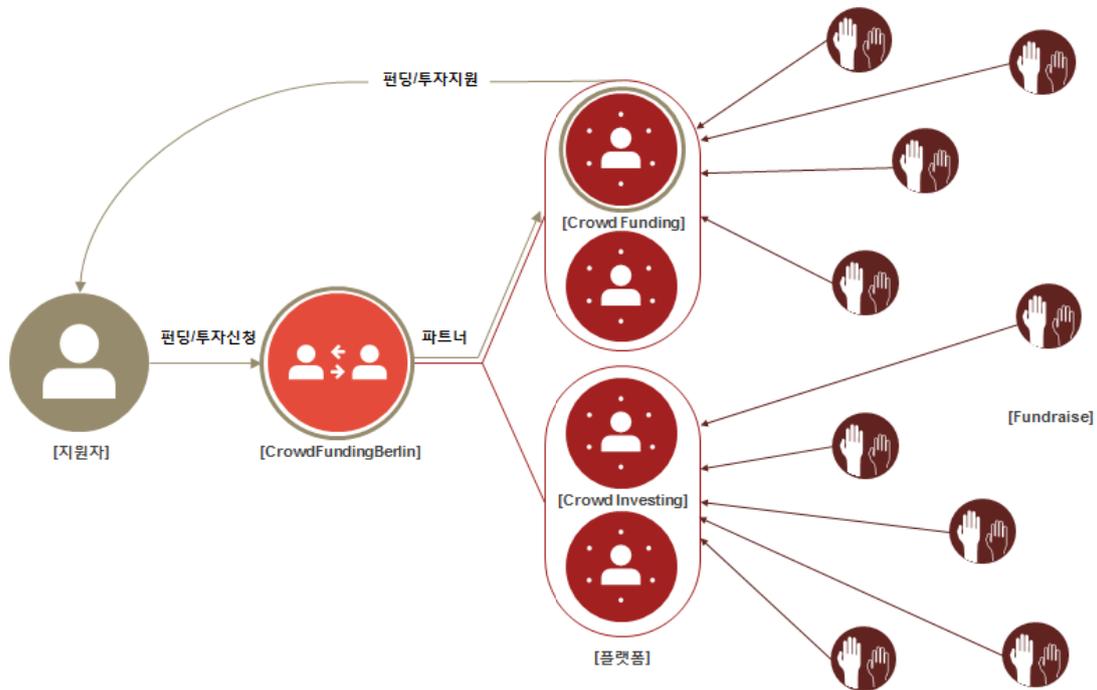
베를린에서 추진 중인 'Projekt Zukunft'는 이외에도 Creative City Berlin, Kubinaut - Navigation Kulturelle Bildung, cultural education platform operated by Kulturprojekte Berlin GmbH.와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Kulturprojekte Berlin Ltd와 함께 현재의 산업동향 및 최신시장의 트렌드, 각종 이벤트와 포럼을 제공한다.

2) 자금 접근성의 확대

베를린 지역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유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베를린의 크라우드투자에 관하여 '2013년도 크라우드펀딩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전 세계적으로 백만개가 넘는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으로부터 약\$2.7B달러 규모의 자금을 형성했으며 독일 내 43개 스타트업에 대한 크라우드투자 규모는 약 €4.3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3년도에는 €8.3m 규모의 자금 형성이²¹³⁾ 되었으며 독일 크라우드투자 플랫폼인 'SeedMatch'가 6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독일 크라우드투자 포털을 통해 발표되었다.

213) crowdinvesting-Monitor for Q3 2013 at Für-Gründer.de

이에 따라 베를린정부는 지역 신생기업들이 창업초기단계에서 엔젤투자자 및 Promotor 등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자하였고, 2014년 베를린시의 'Projekt Zukunft(Project Future)'의 일환으로 CrowdFundingBerlin을 런칭하게 되었다. CrowdFundingBerlin은 온라인에서 크라우드펀딩 및 크라우드투자를 홍보하고 베를린에 기반한 창의적, 미디어 및 ICT산업 등 프로젝트들을 알림으로써 펀딩 및 투자를 유도하며 신생기업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140] CrowdFundBerlin 운영방식

<표 126> CrowdFundingBerlin의 펀딩/투자 파트너 플랫폼

CROWDFUNDING PLATFORMS				CROWDINVESTING PLATFORMS			
INDIEGOGO	INKUBATO	KRAUTREPORTER	PLEDGE MUSIC	STARTNEXT	BERGFÜRST	BERLIN CROWD	COMPANISTO
STARTNEXT	SELLABAND	VISIONBAKERY	WEMAKET	DEUTSCHE MIKROINVEST	INNOVEMENT	SEEDMATCH	WELCOME INVESTMENT
CROWDFANS				FINMAR	BANKLESS24	FUNDSTERS	

자료: www.crowdfunding-berlin.com

CrowdFundingBerlin은 우수투자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과제 및 전략을 크라우드펀딩과 크라우드투자, 각 항목에 지원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다. ‘CrowdFunding’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투자유치를 하고자하는 지원자는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달성시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로 투자자금의 5~15%를 지불한다. 또한 ‘CrowdInvesting’은 ‘CrowdFunding’의 서브 콘셉트의 개념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주식으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CrowdInvesting’에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2년 이하의 프로젝트이어야 하며 ‘CrowdInvesting’은 스타트업 또는 신생기업에게 있어 미래의 잠재 고객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제품을 테스트하고 시장진입결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

현재 프로젝트 Urbanara가 ‘CrowdInvesting’을 통해 약 €3m의 자금을 모금하며 최근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CrowdFundingBerlin은 61%의 투자유치 성공률을 자랑하며 201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총 4,452개 프로젝트가 14.1M 유로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외에도 베를린의 기업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부흥을 목적으로 여러 파트너십 기관들과 자금 및 기업 컨설팅, 기업홍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IBB은 베를린 정부의 중앙기업홍보기관으로서 혁신적인 연구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하거나,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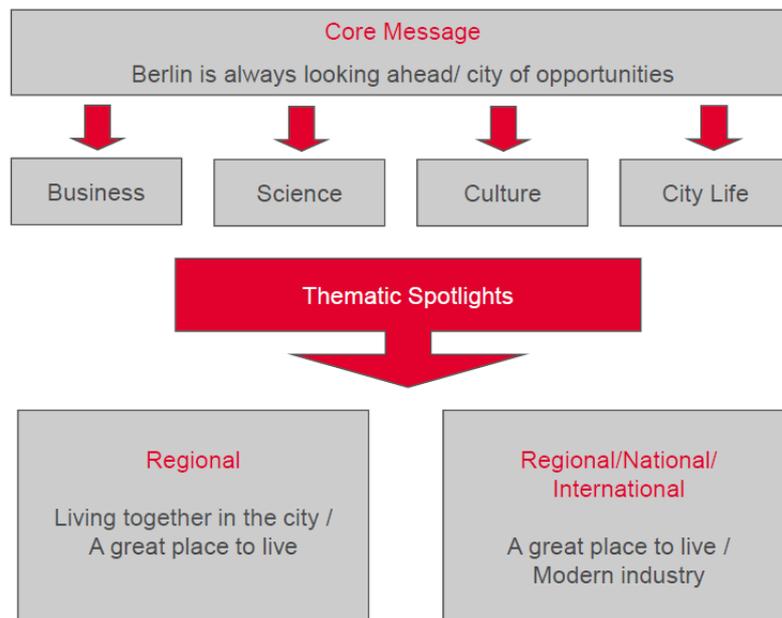
<표 127> IBB의 활동 내용

이름	내용
IBB's ProFIT	(목적) 혁신적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조금 및 대출지원 (대상) 이전까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최근 젊은 창업가를 위한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이 추가
IBB-Bet	(구성) IBB-Bet은 52M유로 규모 "VC Fonds Technologie Berlin"와 30M유로 규모 "VC Fonds Kreativwirtschaft Berlin" (역사) IBB-Bet은 1998년부터 베를린의 창의적, 기술기반 기업에 총 116M유로 투자지원 (대상) 베를린에 소지한 창의적이고 기술기반 제품 및 서비스분야 스타트업 (내용)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개발에서의 Early Stage에서 Early Expansion단계 까지 지원

출처: www.ibt.de 참고

3) 도시홍보 조직 구성을 통한 지역개발

베를린은 베를린지역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를 홍보하는 조직인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를 결성했다. 2013년 9월 Berlin Partner GmbH는 TSB Innovationsagentur GmbH와의 합병을 통해 베를린 기업, 투자자, 과학기관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정보통신, 의료, 교통, 이동, 물류 및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베를린의 공식 성장 분야에서 비즈니스 및 기술의 진흥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중앙 접점이 되었다.



[그림 141] Berlin Partner의 마케팅 캠페인

출처 : “Berlin Partner GmbH &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A Presentation for the UBC Business Commission” 2013.05.22.

Berlin Partner GmbH의 직원 수는 125명이며 연간 20M유로의 예산(베를린 캠페인 활동비 포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²¹⁴⁾ 전 세계에 베를린을 알림으로서 지역기업 및 인재의 성장을 유도하는 여러 도시마케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14) “Berlin Partner GmbH &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A Presentation for the UBC Business Commission” 2013.05.22



[그림 142] Organizational Structure Behind Berlin Partner

자료: "Berlin Partner GmbH &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 A Presentation for the UBC Business Commission" 2013.05.22.

Berlin State Senate(베를린주상원의원)은 200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베를린 도시를 홍보하고 Berlin Partner GmbH는 'Be Berlin', 'Berlin Weeks'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며 독일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²¹⁵⁾ 'Be Berlin'은 2008년 Berlin Senate의 캠페인으로 시작되어 도시의 트레이드마크 가 된 'sei Berlin - be Berlin' 이후 2009년부터 "the place to be"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캠페인이며 'Berlin Weeks'는 베를린 패션 위크, 베를린 음악 위크와 베를린 예술 위크와 같이 경제와 관련 있는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으로 국제무대에 광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림 143] Be Berlin 캠페인

215) www.berlin-partner.de

6. 이스라엘 Tel Aviv의 Tel Aviv – Yafo municipality

2010년, 이스라엘은 Tel Aviv를 Startup City로 개발함으로써 창업, 투자, 첨단 기술의 국제적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Startup City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텔아비브 지방자치단체는 ‘Startup City Action Plan’ 수행의 중심이 되어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28> Yafo municipality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세부내용
The Library Co-Working Space	도서관에 공동작업, 이벤트, 네트워크형성을 할 수 있는 교류협업 및 공동작업공간을 마련
Atidim7 Startup Co-working and Office Space	공동작업공간 및 사무공간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에게 공간을 제공
Mazeh 9 – The Social Lab	
Start-Tel-Aviv International Startup Competitions	전 세계 스타트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 경연대회로 5일간 진행하며 다른 스타트업들로부터 비즈니스개발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
TelAvivApp2U e-Government Competition	연1회 열리는 정부주도 경연대회로 개발자들이 모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
Free City Wide WiFi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Open Startup	도시의 벤처기업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행사

출처 : Be Berlin 홈페이지

텔아비브 지방자치제는 \$1.6 million의 자금을 투자하여 80개 지역에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제의 경연대회인 ‘TelAvivApp2U Competition’을 열어 프로그래머, 창업가, 개발자, 디자이너들을 통해 공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권장하며, 소프트웨어 R&D사업의 육성을 위한 세금규제를 완화하는 등 혁신 및 디지털 접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i-Fi hotspots은 거리를 따라 여러 지점에 배치하고, 5메가바이트의 속도를 제공한다. 대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파일 공유 사이트를 입력할시 인터넷은 차단된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개인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업무진행 및 공동작업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2011년, 기업가활동 및 혁신활동을 위한 도서관 설립하여 공간 내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제공하거나 텔아비브 지역에 위치한 교류·협업공간

및 사무공간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창업을 권장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텔아비브는 도시강점을 외부로 노출함으로서 투자자, 기업인, 관광객 등 해외 방문객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Startup Visa를 통해 Tel Aviv지역에 국제기업 설립 및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유도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해외 VC들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학생을 위해 텔아비브의 대학은 기업가정신 및 기술관련 교육을 포함한 여러 교육과정, 창업센터 및 액셀러레이터에서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DLD Festival에서 개최하는 'International Conference'와 각종 국제 경연대회를 통해 해외 인재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에서 추진하는 국제경연대회는 여러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경연대회를 진행, 각국의 우승자에게 이스라엘 여행 기회와 기술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텔아비브 'Startup City' 홈페이지는 여행정보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정보를 제공하며 지방자치제 당국은 정부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 기업의 설립 및 폐쇄, 성장분야 분석 등 지역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텔아비브 지역의 강점이 도시의 1/3이 18~35세 연령이며 이스라엘 젊은 인구의 50%가 텔아비브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의 방문객들이 밀집되었음에 따라 텔아비브 정부는 지역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추진하며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7. Saint Louis의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1984년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정부는 지역 경제 개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제협의회를 형성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공공과 민간분야로부터 구성하였고 이후 2013년 세인트루이스 시장인 Francis G. Slay와 세인트루이스 County Executive Charlie A. Dooley는 공식적으로 두지역의 경제개발협의회를 합병한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formerly St. Louis County Economic Council)를 설립하였고 지역자원의 협력을 통해 사업개발, 기업금융 및 국제무역서비스를 지원한다.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은 미주리주의 첫 번째 경제개발조직으로 조직의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사회 중 11명은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서 임명하며 나머지 4명은 세인트루이스주에서 임명한다.

현재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에서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5가지로 '비즈니스 개발', '부동산 및 커뮤니티 개발', 'WORLD TRADE CENTER ST. LOUIS', 'STLVentureWorks', '비즈니스 자금', '비즈니스 개발 콜라보레이션'이다. 첫째, 비즈니스 개발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통한 혁신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로 기업가가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부동산 및 커뮤니티 개발은 세인트루이스는 토지이용 및 개발, 그리고 지역커뮤니티의 개발을 통해 기업투자를 장려한다. 셋째, WORLD TRADE CENTER ST. LOUIS는 연구가 비즈니스로 비즈니스가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세계무역센터 세인트루이스는 국제무역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개발하며 국제시장분석연구,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커넥션, 무역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 넷째, STLVentureWorks는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물리적 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다섯째, 비즈니스 자금은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융경로, 서류작업, 대출 신청 및 프로세스에 대해 조언하고 소기업들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개발 콜라보레이션은 2006년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치적 경계를 넘어 산업, 지역경제발전의 주요 구성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의 노력으로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지역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던 스타트업 중 한명(현 Mercury사 설립자) 인큐베이터에서 졸업한 후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STLVentureWorks의 도움을 받았고 현재 연

간수의 \$12m를 달성한 미주리주의 성공 여성 사업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2014년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직이 설립된 이후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8,520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민간으로부터 총 \$1.8B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은 2013~2014년 동안 Cortex, IKEA, Cambridge Innovation Center, TREX, BioSTL, ITEN, Arch Grants, Mosaic Project, LaunchCode, Accelerate St. Louis와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아인트호반의 TNO(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1) 정부의 이니셔티브

아인트호벤은 2011년 'Intelligent Community Award'에 선정되었으며 EU가 관장하는 EIT(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의 지식 및 혁신 커뮤니티(12개국 20개 기관) 중 2개가 아인트호벤에 위치(네덜란드 전체 4개)해 있는데 KIC Innoenergy Benelux(Sustainable Energy)와 EIT ICT Lab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이에 해당된다.

<표 129> Winners of the Intelligent Community Award

2014	Toronto, Ontario, Canada
2013	Taichung City, Taiwan
2012	Riverside, California, USA
2011	Brainport Eindhoven Region, Netherlands
2010	Suwon, South Korea
2009	Stockholm, Sweden
2008	Gangnam District, Seoul, South Korea
2007	Waterloo, Ontario, Canada
2006	Taipei, Taiwan
2005	Mitaka, Japan
2004	Glasgow, Scotland, UK
2002	Calgary, Alberta, Canada
2002	Seoul, South Korea
2001	New York, NY, USA
2000	LaGrange, Georgia, USA
1999	Singapore

자료: ICF 웹사이트, 2011

아인트호벤은 하이테크환경을 구축하고 지식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 Brainport2020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아인트호벤에서 수행중인 이니셔티브로는 Brainport2020의 일환이자 지방정부, 산업, 아인트호벤 기술 대학(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과의 협력을 통해 아인트호벤 지역 지식경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Brainport Top Technology Region' 이니셔티브, 기술영역의 확장 및 지역을 홍보하는 'Brainport Development' 이니셔티브, 아인트호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경제 협정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Samenwerkingsverband Regio Eindhoven’ 이니셔티브, 대학 및 주변 지역으로 협력계약의 영역을 확장하는 ‘The Eindhoven-Leuven- Aachen triangle’ 이니셔티브가 있다.

Brainport2020 이니셔티브는 국제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유러피언 펀드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펀드는 아인트호벤 지역의 브랜딩 혹은 아인트호벤의 혁신정책을 위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혁신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Brainport Development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산학연(triple helix)을 연결한다.

Triple helix는 기업가, 지식단체 및 기관, 그리고 정부와의 연결을 뜻하며 지역 쪽으로는 네덜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농식품의 수도 Brabant, 브레인포트 아인트호벤의 Brabant, Greenport Venlo, Keyport, Limburg Economic Development(LED), 그리고 Midpoint Brabant를 연결한다. Brainport2020의 전략은 이와 같은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하이테크 시스템 및 재료, 화학공학 및 재료, 농식품 등 기존의 클러스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바일, 스마트 재료, 홈 케어, 산업디자인, 태양에너지 등의 새로운 클러스터의 수를 개발 하고 기존의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남동부지역의 교육기관들은 다른 유럽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연결성을 갖는데 ELAt(The Eindhoven-Leuven- Aachen triangle) 이니셔티브는 아인트호벤 지역의 대학들이 주변 지역 혹은 다른 국가의 대학들과 협력 계약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LAt는 ‘Top 200 of the Times World Universities Ranking’에 소개된 우수대학들로 구성되어있다.²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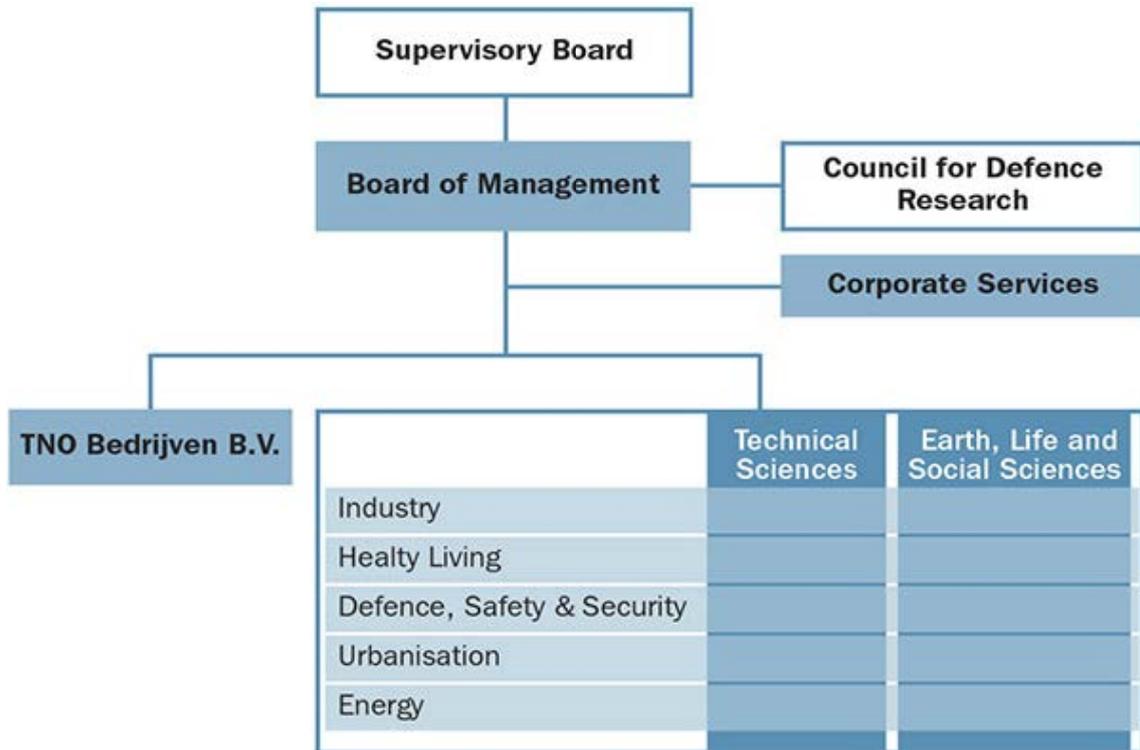
2) TNO(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TNO(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는 응용과학 연구 관련 비영리조직으로 1932년 기업과 정부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개정되면서 설립되었다. TNO는 어떠한 정부조직, 대학 혹은 기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독립조직으로 총 23개 지역에 위치해 있다.

TNO는 TNO가 보유한 3,000여명의 전문가들 그리고 TNO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건강한 생활, 국방 안전 및 보안, 도시화, 에너지에 관련된 미션을 수행한다. 4년마다 TNO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미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며 지식개발은 여러 사람들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만

216) Talent topspot & Technology hotspot, Brainport Development NV, Eindhoven, 2011

들어짐에 따라 TNO는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조직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TNO는 국방부, 경제부, 교육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들로부터 연구수행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으며 연간 정부로부터 194m유로, 그리고 이외 사업프로젝트로부터 297m유로의 편당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림 144] TNO의 조직도

출처 : TNO 홈페이지

<표 130> TNO의 미션 및 전략

미션	전략
산업	경기 침체에서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 성장으로
건강한 생활	질병과 치료에서 건강한 행동으로
국방 안전 및 보안	넓은 범주에서의 제어를 통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도시화	도시화 병목현상에서 도시 활력으로
에너지	기존의 자원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TNO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소속된 기업, 공공기관 혹은 재단 등을 위해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길 원한다면 TNO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TNO는 의뢰를 받은 연구주제를 검토한 후 작업, 비용, 그리고 추후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계약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TNO는 조직이 보유한 광범위한 전문가들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품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거나 생산공정에 대한 조언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연구자는 미래 사회 및 경제개발을 위해 TNO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Early Research Programmes'에 지원할 수도 있다.

TNO는 중소기업, 대학, 공공 및 민간분야 조직으로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데 대학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은 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각각의 파트너들은 서로 다른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다. TNO의 파트너들 중 지식응용분야 조직 파트너로는 DLO(Wageningen University 연계조직), NLR(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ECN(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 Deltares, 그리고 Marin(Maritime Research Institute Netherlands)이 있다.

제4절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도시기반 지역 창업 생태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31> 해외 모범 창업생태계의 특징

사례	영국 Tech City	독일 Silicon Allee	미국 Silicon Alley	미국 Silicon Valley	이스라엘 Silicon Wadi	미국 Saint Lois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지역	런던	Mitte	맨해튼	실리콘벨리	텔아비브	세인트루이스	아인트호벤
산업 분야	디지털 ICT	디지털	뉴미디어 결합 콘텐츠	하이테크	하이테크	-	하이테크
지원 기관	TCIO (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	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Bay Area Council	지자체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TN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발전 과정	기업가, 예술가 밀집지역 > 디지털허브 > 레저기반 지역	기업가, 예술가 밀집지역 > 디지털허브	금융산업의 중심지 > 패션, 디자인, 정보기술인재를 통한 뉴미디어 결합 > 콘텐츠 창업허브	지난 60년간 혁신센터의 역할을 이끔	기업가들의 이주지역 > 글로벌 창업허브	-	기업 밀집지역 > 기술 분야 창업허브
파트너쉽	공공, 교육, 국제, 기업, 단체, 대학과의 파트너쉽	공공, 교육	공공, 교육, 국제, 기업, 단체, 대학과의 파트너쉽	공공, 교육, 국제, 기업, 단체, 대학과의 파트너쉽	공공, 교육, 국제, 공동작업공간	교육, 지원조직	기술기업, 공공, 민간연구기관, 대학
Active Player	정부, 대학, 글로벌 기업	대학 및 정부	글로벌 기업 및 커뮤니티 (New York Tech Meetup)	연구중심 대학 및 연구기관, 스타트업 배양기관, 글로벌 기술기업	지역 정부	지원조직 및 커뮤니티	기술기업, 비영리 조직
강점	유수대학을 통한 인재보유와 글로벌기업의 지원,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많은 공동작업공간의 보유	뉴욕도시의 환경적 여건, 글로벌기업의 이주, 글로벌 로펌, 금융기업 등을 보유	기술분야 연구중심 유수대학을 통한 인재보유와 글로벌 기술기업의 지원	글로벌 인재 및 기업보유 젊은 도시지역 인구	비교적 저렴한 임지조건	기술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이들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있어 혁신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성공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혁신지역으로의 최초 계기는 지역의 경제적 위기와 이에 따른 지역 내 고급두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지도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Silicon Valley의 단초를 마련한 스탠포드대학의 터만 공대학장이 동부로 떠나는 자신의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를 구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산업의 중심지였던 Silicon Alley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금융산업 이외에도 패션, 디자인, 뉴미디어 등의 문화산업으로 인한 창업가 및 예술인재의 보유와 뉴욕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 관광, 뉴욕 문화 등의 지역적 여건으로 글로벌기업들과 더 많은 인재들이 이주하였다. 이에 따라 Silicon Alley는 뉴미디어를 결합한 콘텐츠분야의 창업허브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방 정부는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해 'Made in NYC' 브랜딩을 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Silicon Allee와 이스라엘의 Silicon Wadi 또한 초기 저렴했던 입지조건으로 기업가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며 혁신지역으로 발전하기 시작되었고 이후 지역 정부의 노력으로 글로벌기업 및 인재들을 유치하게 되며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의 경우도 현재 다른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우수대학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혁신지역들의 태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혁신지역의 조성은 침체된 지방경제의 회생과 지방대학 출신의 졸업생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혁신 클러스터가 지역과 산업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와 발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혁신 클러스터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주체들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제도 모색,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우수사례의 이면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연구중심대학, 기업체,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와 상호학습 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을 단위로 다양한 혁신주체들 사이의 긴밀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는 각기 지역개발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Tech City는 영국정부, TCIO, Cisco 기업, 그리고 UCL 대학이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교류 및 협업공간제공, 멘토링,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영국정부, TCIO, EE 기업이 협력하여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함으로써 ICT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에도 뉴욕지방정부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NYCEDC이 뉴욕에 위치한 대학인 NYU, NYU Polytech와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뉴욕지역경제개발기관인 NYCRED, 스타트업 자금지원기업인 NYC Seed와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NYC SeedStart를 설립하였는데 NYC Seed는 지난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NYC Seed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조직은 더욱 효과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발 및 성장에 경험이 많은 민간 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중심 대학들과는 기술연구의 사업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연구 중심대학에서의 기술연구 사업화 전략으로는 연구중심대학에 스타트업 배양기관을 유치하거나 대학인재들과 기술기반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Silicon Valley 버클리대학의 AMPLab은 Google, SAP, Amazon, HP, Oracle, Cisco, Microsoft, Intel 등 18개의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The Energy Biosciences Institute(EBI)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사의 지원에 의해 2007년 설립되었다.

EBI는 전 세계 처음으로 설립된 바이오-에너지 분야 연구소이며 가장 큰 규모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연구소로 버클리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의 교직원 120명, 그리고 200명의 Post-Doc 학생들로 이루어진 60개의 리서치 그룹에 의해 운영되며 연구원들은 바이오연료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베를린의 Silicon Allee의 경우에는 Deutshe Telekom이 Deutshe Telekom Lab을 설립하여 Berlin University, 그리고 TUBerlin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과 대학 혹은 연구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도 있으나 다가올 미래를 위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고 대학의 박사과정 혹은 Post-Doc 과정의 인재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기업의 소속이 되거나 기업의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 간의 공유에 있어서는 Silicon Valley의 CISI 참여대학인 UC계열 3개 캠퍼스가 각 대학 캠퍼스가 갖고 있는 강점을 공유하는데, 의과대학이 없는 UC버클리는 공학대학에서 컴퓨터능력으로 보완함으로써 UCSF와

함께 임상실무작업을 진행하고 UC산타 크루즈는 그 대학의 강점인 정보과 학분야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우수사례의 성공배경에는 지역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문화 구조와 지역번영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기업가적 리더십과 행위주체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의 Tech City가 있기까지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갖춘 TCIO 대표의 강력한 기업가적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TCIO의 대표는 영국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현재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의 부사장이었던 Joanna Shield로 디지털산업에 대한 기업대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Silicon Allee는 베를린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로부터 도시를 홍보하고 각종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민간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지도자들의 상호 협력은 지역의 기술연구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혁신지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수 있는 혁신기술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지역 내 앵커기업(anchor company) 또는 종자 기업(seeding company)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Tech City의 경우 글로벌 기술회사로 성장 발전한 Cisco, Silicon Valley는 세계적 컴퓨터 제조업체인 Apple사와 Google 및 Facebook, 아인트호벤은 필립스사 독일은 Merceds Benz 등이 있다. 혁신 지역으로의 형성과정에서 지역 내 앵커기업의 존재는 관련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앵커기업의 경제적 성공과 이윤의 지역 재투자 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아인트호벤의 필립스는 기업연구기관 및 종자 기업들과 스피노프(spin-off) 기업을 낳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이윤창출로 지역경제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다섯째, 혁신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성공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Silicon Wadi의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은 글로벌인재 및 기업유치와 지역인재배양을 위한 지역개발 리더로 스타트업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공동작업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창업허브로 거듭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방정부도 창업허브 초기에 시장과 County Executive가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을 결성하여 산·학·연을 연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노력했으며 뉴욕지방정부도 뉴욕지역대학과의 학문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Start-up NY'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132> 해외 모범 창업지원 조직 및 기관의 특징

사례	영국 Tech City	독일 Silicon Allee	미국 Silicon Alley	미국 Silicon Valley(Bay Area)	이스라엘 Silicon Wadi	미국 Saint Lois	네덜란드 아인트호번
조직	TCIO (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	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Yafu municipality	St. Louis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TN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구분	정부투자지원 조직	정부 기관	시장부에서 운영하는 운영 기업체 (public benefit corporation)	비영리 단체 (민간)	지자체	정부 단체	독립기관
개요	지역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영국 총리에 의해 설립	1997년부터 지역 기업의 성장과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임무를 수행	경제개발 서비스와 관련된 2개의 비영리 기관에 의해 1991년 설립, 2012년NYCEGC와 합병	실리콘벨리 경기침체 극복을 목표로 1993년 비즈니스맨들에 의해 설립	도시개발을 통해 창업 투자, 첨단기술의 국제적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10년 이니셔티브 발표	지역자원의 협력을 통해 사업개발, 기업금융 및 국제 무역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	지식인재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을 위해 1932년 설립
구성	대표 1명 (경영, 경제계 인사, 2년 계약직) Future Fifty와 Digital Business Academy 프로그래밍 대표 2명, 이사, 운영단 대표, 마케팅지원담당자 1명으로 구성	지자체 (감사회, 집행위원회)	대표 1명 (뉴욕시장이 임명)	대표 1명, 인턴을 포함한 직원 21명	지자체	운영직원 14명 (회장 포함)	- Supervisory Board 7명 외 비서 1명 - Council for Defence Research 10명, 전문가 3명 외 비서 1명
예산 (년간)	정부로부터 £1.7m	민간 55% 정부 45% €20m	중앙 정부로부터 \$1.5b (뉴욕시 예산: \$60b)(217)	8명의 시니어자문위원, 약 50여명의 이사회 (비즈니스, 지역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노동조합)	-	위원회 및 회원 126명	100여명 (23개 지역에 총 2,000여명의 회계 1,000여명의 석사 이상의 연구원)
이니셔티브	Tech City Initiative	Founder Initiative	Start-Up NY Initiative	공공, 민간, 재단, 준회원으로부터 운영자금지원 - Climate Prosperity - Economic Development - Grand Boulevard - Wireless Communication	중앙정부로부터 2.32b NIS	정부로부터 \$28.6m	정부로부터 €194m, 사업 프로젝트: €297m
				- 21 st Century Infrastructure - China - Cybersecurity -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tion - Government Relations - Healthcare -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Transportation - Water	Global City initiative		Brainport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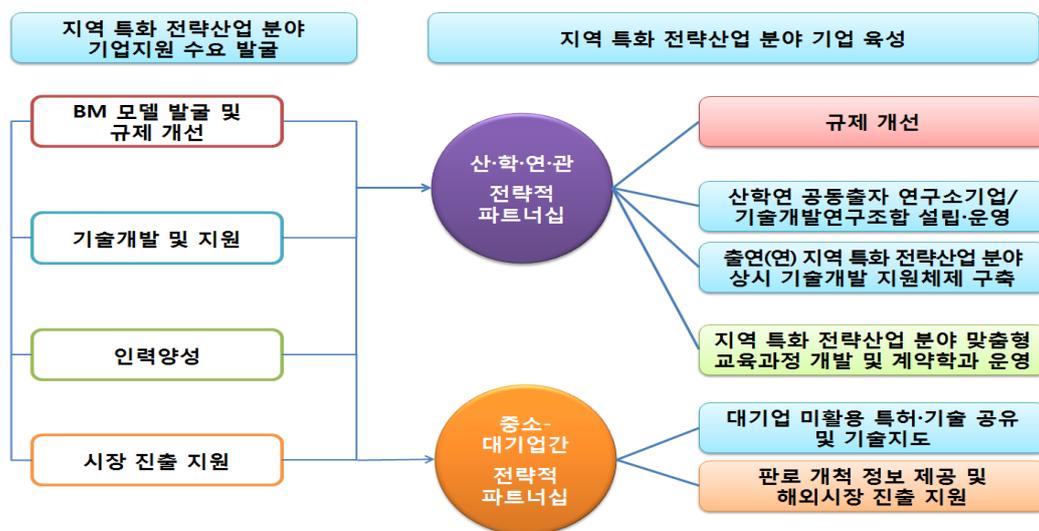
사례	영국 Tech City	독일 Silicon Allee	미국 Silicon Alley	미국 Silicon Valley(Bay Area)	이스라엘 Silicon Wadi	미국 Saint Lois	네덜란드 아인트호반
지역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 우수대학들 간의 연결성을 위한 철도 건설계획중 인터넷 연결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방문 시 도시 홍보를 통한 투자 및 글로벌기업 유입 투자기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배양기관 등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MADE in NYC' 브랜딩) 투자기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배양기관 등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된 키퍼인스 및 포럼을 통한 협력의 장 마련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방문객을 위한 지역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건강생활, 국방안전 및 보안, 도시화, 에너지
도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홍보조직 구성 패션위크 등의 도시 행사 추진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기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배양기관 등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정보 제공
기업 가정 신고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을 통한 창업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을 통한 창업프로그램 지원 					
배양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양기관들과의 파트너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배양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작업공간에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작업공간에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작업공간에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을 통해 지문 사무공간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조언 및 컨설팅 제공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연대회 및 각종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 포럼 추진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라우드펀딩 런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 지원 	
세금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세제혜택 		
네트 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킹 행사의 파트너 및 스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멤버 기업 혹은 과학, 기술, 정치, 미디어 등의 분야 간의 네트워킹 행사 					
글로벌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인재 유치를 위한 경연대회 주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학연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 구축 및 권리 			

제6장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모델 개선 방안

제1절 지역 창조경제협의체 운영 · 강화 방안

1. 지역 창조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14.3.7)’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허브와 혁신거점이라는 2가지 기능중 하나인 혁신 거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의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의 관련 프로그램 등을 연계·총괄하고 지역 내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선 사항 등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 관계 기관 및 지원 사업의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 및 성장 사다리 확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5]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 기업 육성 추진 체계

자료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14.3.7)’

‘15.2.5일 현재 개소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6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창조경제협의체는 아래 <표 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 대전, 전북 3개 지역에서만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경북, 광주, 충북의 경우는 구성 및 운영을 할 계획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4년도 9월 대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관심과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지역별로 지역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반 사항의 준비하는 과정이며, 지난 해 관련 예산의 부족, 조직 설립 및 인원 선발, 채용 등 조직적 차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설립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 여겨진다. 개소된 3개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협의회는 24명에서 38명까지의 지역의 혁신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산·학·연의 참여가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계·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지역 내 혁신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문 분야별 실무 워킹 그룹으로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시범 운영 모델로서 추진된 대전의 경우 초기 대전창조경제협의회의 산하에 운영된 전문 실무 분과가 3개에서 현재는 7개 분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전창조경제협의회의 경우는 2회 가량 개최되었는데, 운영 내용을 보면 지역 혁신조직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의 경우도 개소 1개월 후인 ‘14년 12월 말에 전북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통해 지역 혁신조직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생태계의 연결성 제고 노력에 있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전의 경우에도 지역 혁신생태계의 연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엔젤의 액셀러레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1개의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발굴하여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표 133> 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15.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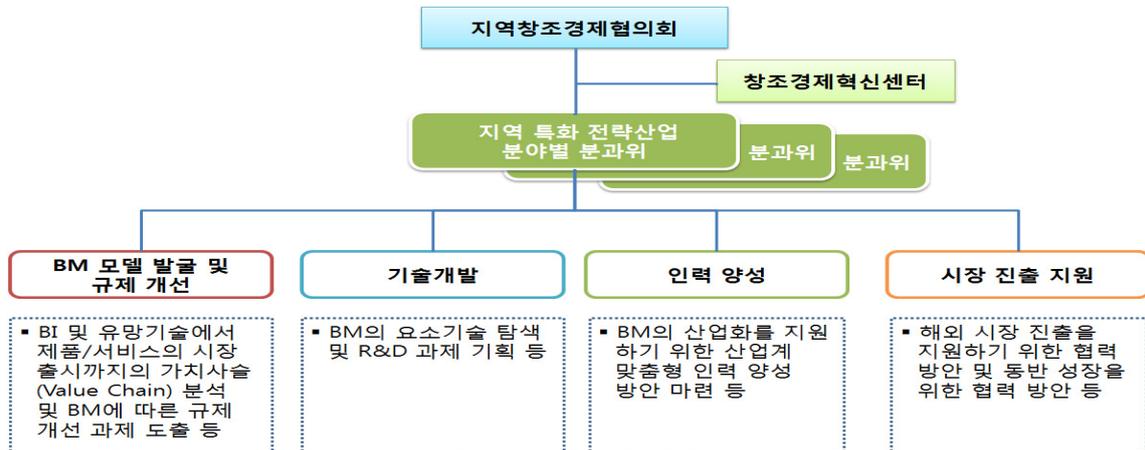
	대구	대전	전북	경북	광주	충북
협의회 구성여부	○	○	○	× (구성 예정)	× (구성 예정)	× (구성 예정)
총 인원	24명	30명	38명	-	-	-
산학연 비중	산 : 12명 학 : 6명 연 : 2명 기타 : 4명	산 : 5명 학 : 4명 연 : 4명 기타 : 17명	산 : 5명 학 : 5명 연 : 13명 기타 : 15명	-	-	-
구성(예정) 시기	'14.3.27 '15.1월	'14.3.10	'14.12.29	'15년 3월말	'15년 3월말 ~4월초	'15년 3월말
개최 회수	2	2	1	-	-	-
워킹그룹 운영 여부	3개 분과 운영	7개 분과 운영	3개 분과 운영	계획 중	계획 중	계획 중
센터 개소일	'14.4.28 '14.9.17	'14.3.26 '14.10.10	'14.11.27	'14.12.17	'15.1.26	'15.2.4

대구창조경제협의회의 경우 '15년 1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실질적 연계·협력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경북 중기청, 테크노파크, DIP, 연구개발특구,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6개 혁신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24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대구 지역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²¹⁸⁾.

그간의 구성·운영에 있어 평가를 논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지역 혁신조직간 보유 자원의 연계·활용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된 지역의 특화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간의 연계에만 그치고 있어, 중앙과 지역, 지역과 대기업, 지역과 지역간의 연결성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점도 보인다. 지역 창조경제협의체라는 지역 창조경제협의회의 구성·운영 초기로서 향후 운영 방향과 과제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운영 체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 지역 특화전략산업을

218) 대구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어 연계·협력 방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우수 창업자 발굴 및 보육지원 등에서 협력을 이끌어내었으며,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신기술사업화 100 육성사업의 연계 지원 등이 있으며, 대구상공회의소와 특허·브랜드·디자인 지원 등,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창조경제형 창업기업 연계 지원 등,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는 C-Lab 연계 창업지원 등, 대구연구개발특구본보와는 '아이디어 창업 Re스타트' 등에서 협력을 연계·협력을 해나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등 지역 혁신조직간에 혁신 자원에 대한 연계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안의 체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 및 운영 안정화 단계 이후에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기로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6]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별 혁신 커뮤니티 체계(안)

자료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14.3.7)'

2.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모델의 개선 방안

가.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운영 기본 방향

지역창조경제협의회는 그 목적에 맞게 지역 주도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의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의 관련 프로그램 등을 연계·총괄하고 지역 내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선 사항 등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면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가 창출 및 기업 유지 전략이다. 기존의 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신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정책적 목표와 배치되며,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점을 알 수 있듯이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기업가 창출 및 기업가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지역 인재를 기업가로 유인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 협력의 지역 특화전략산업 발굴·육성 전략의 강

화이다. 기업의 투자를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지역산업정책이 이제 지자체 주도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나온 HOPE 프로젝트와 더불어 지역특화전략산업을 발굴·육성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의 역량과 전략적 사업 분야가 지역의 특화전략산업 분야와 결합될 수 있을 때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화전략산업 발굴·육성에 있어 민관 협력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와 결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생적 스타트업 커뮤니티 및 강력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이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지역의 혁신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들여다 보면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혁신생태계에 필요한 구성 요인들이 부족한 면들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엔젤, VC 등 자금 공급원과 공급망 가치사슬 또는 신사업 및 신산업 분야의 벤처 투자를 비롯한 기업 벤처링 등의 지역 혁신생태계의 주요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대기업, 지역의 자생적 기업가 커뮤니티 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주요 선진 도시기반 창업 생태계처럼 강력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관심과 결심, 준비 과정을 돕는데 있어,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가적 문화 형성과 기업가와의 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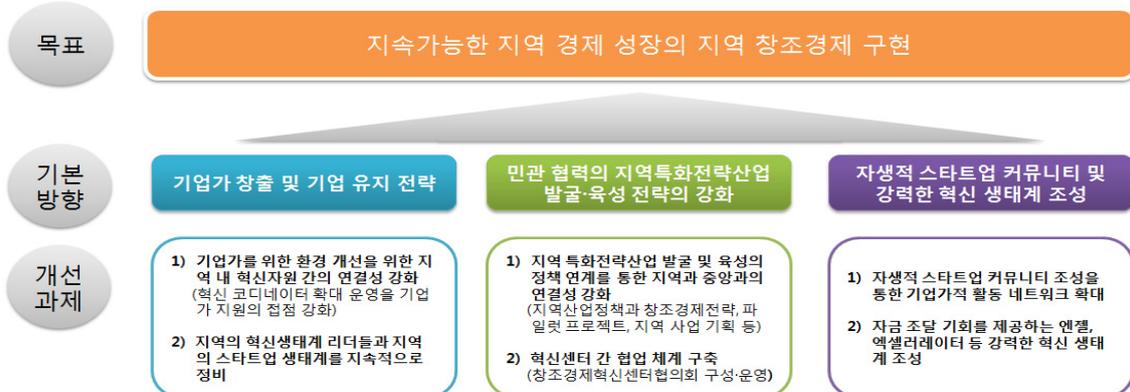


[그림 147]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기본 방향

나. 지역 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모델의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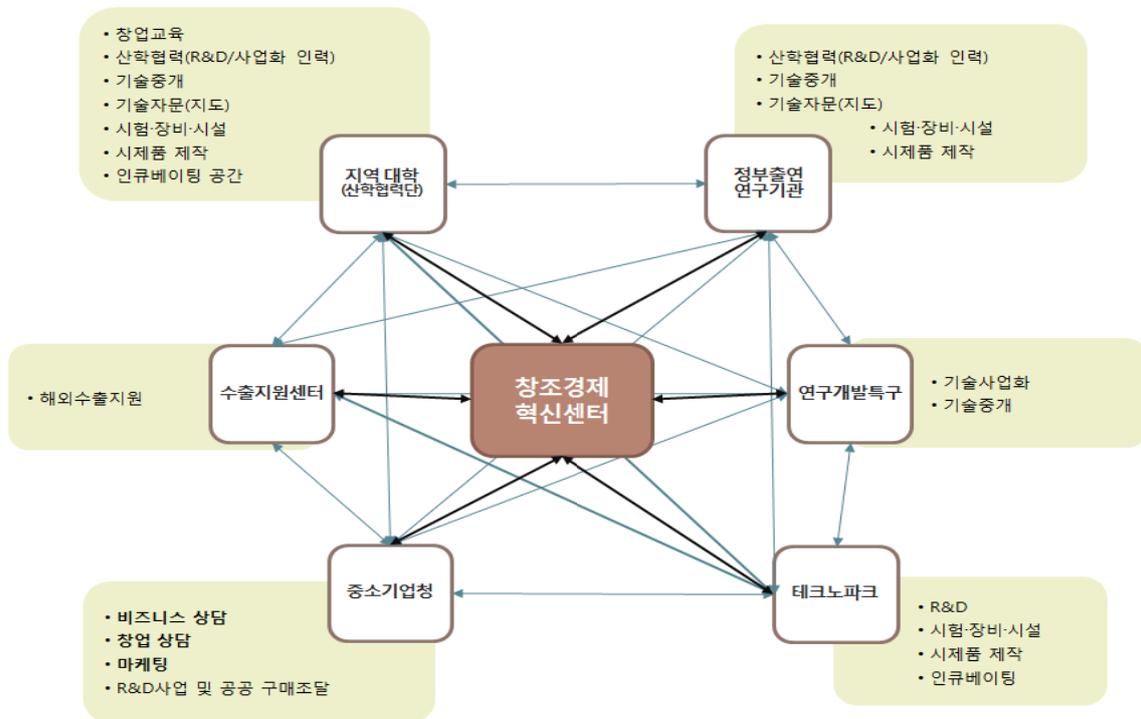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 및 지역 혁신거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구축된 혁신 인프라 등 지역의 자원 및 조직 등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 제고에 있어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과제로서는 2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창업 허브 기능에 있어 기업가 창출을 위한 지원조직 및 자원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 혁신 거점 기능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의 신산업·신사업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는 기업가의 지역 내 유지와 관련된 지원 조직 및 자원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2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혁신 자원간의 연결성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인 how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화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있어 전략 수립과 시행에 있어 기존의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협력에 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와 관련된 제도적 이슈가 존재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전략산업분야와 타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간에 연계·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기업가 창출 및 기업가 유지에 있어 기업가적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지역의 자생적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및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지역의 산학연 리더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충돌을 방지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148] 지역 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모델의 개선 방향과 과제

첫 번째인 기업가 창출 및 기업가 유지에 있어 지역의 지원조직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조직간 연결성의 강화는 지역의 기업가적 인재를 창출하고 유인하며, 기업가를 위한 혁신 자원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4년 3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에서의 종합안내 데스크 기능에 이어 이를 '14년 10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에서 구체화하여 밝힌 바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내 혁신 코디네이터를 지역의 혁신조직간 모두 확대할 수 있는 형태의 혁신코디네이터라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포함 기업가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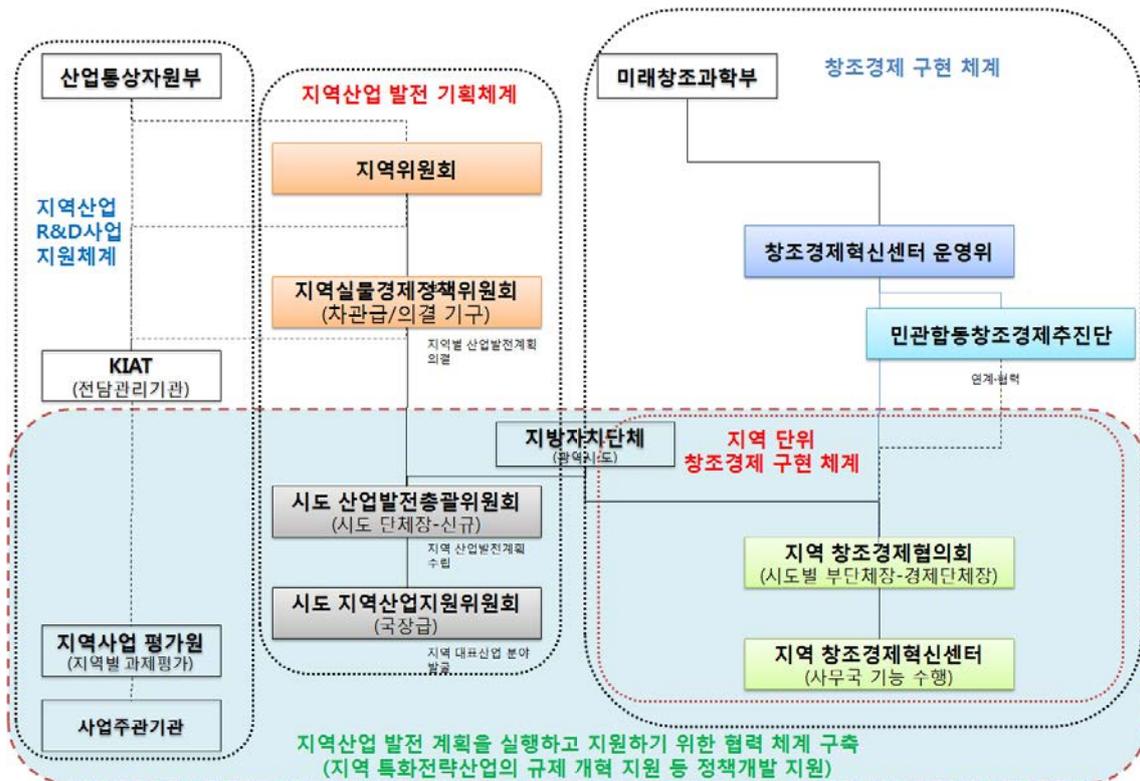


[그림 149]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연결성 강화 개념도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산학연관 리더들과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혁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가의 기업가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정비는 물론 필요한 경우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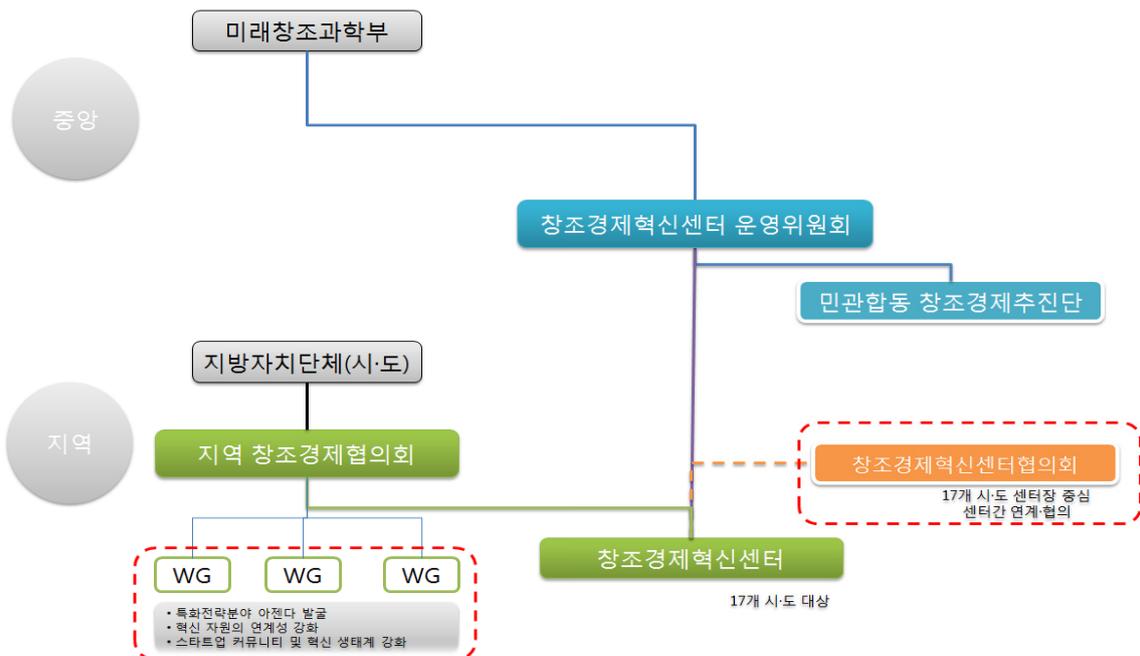
두 번째인 지역의 특화 전략 산업 발굴에 있어 논의와 지역 자원과 중앙, 민간, 지역 간의 연결성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자원과 중앙간의 연결성 확

대는 지난 '14년 10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에서 구체화된 내용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관련 시·도 자체 또는 국가계획의 시·도 부문 계획 수립 등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며, 기존 사업의 개선 또는 신규 지역 창조경제사업 관련 발굴·기획은 물론 지역별 맞춤형 미래 먹거리 및 주력 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등의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 특히 산업부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지역의 주요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 자치단체는 기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창조경제 계획을 포함하고 시·도 발전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시·도 산업발전총괄위원회와 지역창조경제협의회간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지역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요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는 지역혁신개발 계획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의 발굴까지 제안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예로는 제3절의 제안 사례와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림 150] 지역산업 발전 협의체와의 관계 설정 개념도

현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추진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과거 지역 개발 및 산업 정책에 있어 보기 어려웠던 민관협의체가 조직되어 있다는 점과 지역 혁신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대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향후 지역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지역과 민간의 연결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전략산업을 발굴·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내 민간과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해나가야 하는데, 지역의 혁신 커뮤니티 조성은 물론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는 지역 간 연결성의 확대이다. 지역별로 특화전략산업 분야에 따라서는 산업 구조상 여타 지역과의 가치사슬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가치사슬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출하는 기업 및 지역의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에 있어서도 연계·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연계·협력을 지원할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체 형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워킹 그룹 운영도 지역별 특화전략산업의 특성 및 범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버넌스와 혁신센터간 연계 강화 개념도

세 번째인 지역의 자생적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및 강력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이다.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기술, 인력 등 지역의 자원을 지역 내 스타트업과 연결시켜주고 지역의 자생적 풀뿌리 리더십을 통한 기업가적 문화 확산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 기업 연구원 등 기술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과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혁신조직 리더들과 기업이 협력할 경우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스타트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가적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도 있으며, 기업가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의 성공 사례를 들기에 앞서 먼저 지역의 자생적 창업 커뮤니티와 강력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하는 지역의 자원, 역량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17개 시도의 환경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구 10만 규모의 중소도시의 창업 커뮤니티 조성 성공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생적 창업 커뮤니티 및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갖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Boulder)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볼더는 인구 자체 인구 10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이지만 최근 미국 내 하이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창출 성과와 더불어 이를 가능하게 해 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²¹⁹⁾. 특히,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여 스타트업으로 이끄는 데 있어 기업가적 학습과 기업가와 연계를 목표로 지역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지역 자원을 모으고 협력하고 있다. Boulder지역에는 ‘스타트업 워크엔드’, ‘New Tech Meetup’ 등과 같은 지역 기술 전문가와 스타트업간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들 커뮤니티들이 매월 1~2회 이상의 대형 교류 이벤트가 개최되는 등 기업가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류 및 기업가적 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19) Boulder에서 시작한 세계 2위 규모의 엑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의 공동 창업자인 Brad Feld가 ‘(Startup Community, 2012)’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Boulder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99년에 설립된 CU-Boulder의 Silicon Flatirons Center를 비롯하여 2000년 대 중반부터 테크스타 등 스타트업 지원조직 및 기업과 관련된 리더들이 지역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형성,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표 134> Boulder의 주요 스타트업 커뮤니티

주요 커뮤니티	개요	비고
Startup Weekend CU Boulder	주말 54h 동안 개최되는 피드백 이벤트로 아이디어의 발현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팀 결성 및 네트워킹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벤트 후 참가자의 80%가 이벤트에서 결성된 팀이나 스타트업과 사업을 계획하고 30% 정도가 3개월 후에도 스타트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Startup Weekend는 '07년 볼더 지역에서 시작된 모델로 이 아이디어는 매각되어 2011년에 비영리기관으로 발전, 현재 본사는 시애틀에 두고 있으며, 초기에 카우프만재단, MS가 후원하였으나 현재 메인 스폰서는 Google임 / CU Boulder는 구글, 코카콜라, 아마존, 포스트잇 등이 후원하며, 볼더 지역의 경우 연 2~3회 개최되며, 2014년까지 24회가 개최됨)	오프라인 이벤트인 Startup Weekend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의 지부 조직이며,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 및 팀 결성을 지원하고 이들의 네트워킹을 지원
House of Genius	20명 이하의 소규모 피드백 포럼으로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기업가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공유 및 해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의 커뮤니티로 시작시 발표자는 이름만 공개(매월 2째주 화요일, '12년부터 볼더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미국의 주요 대도시,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중국, 싱가포르, 터키 등으로 확산 중)	오프라인 이벤트인 House of Genius를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의 본부로 이벤트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
Ignite Boulder	Ignite는 2006년에 Brady Forrestd와 Bre Pettis의 아이디어로 시애틀에서 시작, O'Reilly 미디어가 후원하는 이벤트로 괴짜(Geek)를 발굴하는 기회의 장,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프리젠테이션의 밤(다양한 주제로 장당 15초 이내, 총 20장 분량) 행사임 볼더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 Ignite 행사 중 최대이며, 6~8주마다 개최되고 있음	오프라인 이벤트인 Ignite를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의 지부조직이며,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괴짜들을 발굴
New Tech Meetup Boulder	지역성에 기반한 오프라인 그룹 미팅을 촉진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포털인 Meetup(앱)을 활용하여 지역별 오프라인 커뮤니티 조성 및 교류에 활용(수시, 미국 및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	온라인 커뮤니티로 오프라인 만남 및 정보 교환 등 교류를 지원
Boulder Beta	2011년에 설립된 중개회사로 스타트업 및 아이디어의 쇼케이싱 류의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	리쿠르팅 및 중개업자 이자 오프라인 이벤트
Boulder Open Coffee Club	격주 단위로 목요일에 개최되는 포럼으로 지역 및 국가적 기술기업의 활동 사례를 소개	오프라인 이벤트
Startup Women	격주 단위로 목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네트워킹 포럼(Boulder Open Coffee Club와 겹치지 않게 격주로 운영)	오프라인 이벤트이며 지역 여성 스타트업을 지원
built in Colorado	창업자, 해커, 제조업 창조를 위해 8,360명의 가입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고용, 기업, 이벤트 정보를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Tech Stars	2007년에 설립된 민간 엑셀러레이터로 Boulder에 본부를 두고 있음 (테크스타 공동 창업자인 Brad Feld가 'Startup Community'의 공저자임)	세계 2위의 엑셀러레이터로 지역 내 주요 커뮤니티에 주요 인사 및 멘토로 참여
Boulder Startup Digest	매주 단위로 이메일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Up Global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임)	지역 스타트업 소개 온라인 미디어(전국 단위)
Boulder.me	스타트업 소개 웹 사이트	지역 온라인 미디어
Digital Colorado Technology News	콜로라도 기술 협회(Colorado Technology Association)가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기업 소개 사이트	지역 온라인 포털

또한 볼더 지역이 풍성한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추게 된 데에는 지역 리더들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그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Boulder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그림 1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 Boulder의 법과대학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법·기술·기업가정신

센터인 Silicon Flatirons를 중심으로 지역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들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52] 볼더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성

이 처럼 기업가정신의 촉진, 풀뿌리 리더십과 커뮤니티 구성에 기여하는 조직을 통해 기업가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촉매적 이벤트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학습과 연계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기업가에게 있어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성장에 있어 투자자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차도 자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노력이 이러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앞서 대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창조경제협의회가 지역의 엔젤을 발굴하여 엑셀러레이터로써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도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개선 방향과 실천 과제

제3장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에서 보완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과제로는 지역 혁신자원의 연계·활용성 제고에 대한 문제이다. 지역 혁신자원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기업가에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의 공유 및 협업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기업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업 지원 체계 구축의 문제이다. 본 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바 있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혁신자원간에 자원의 공유 및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객은 지역의 인재 및 기존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효율적인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지역 내 혁신 자원 간 협업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과제로는 혁신센터의 성과관리의 문제이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정책적 추진 성과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지역의 기업가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참여자의 확대를 견인하여 지역 혁신 생태계를 번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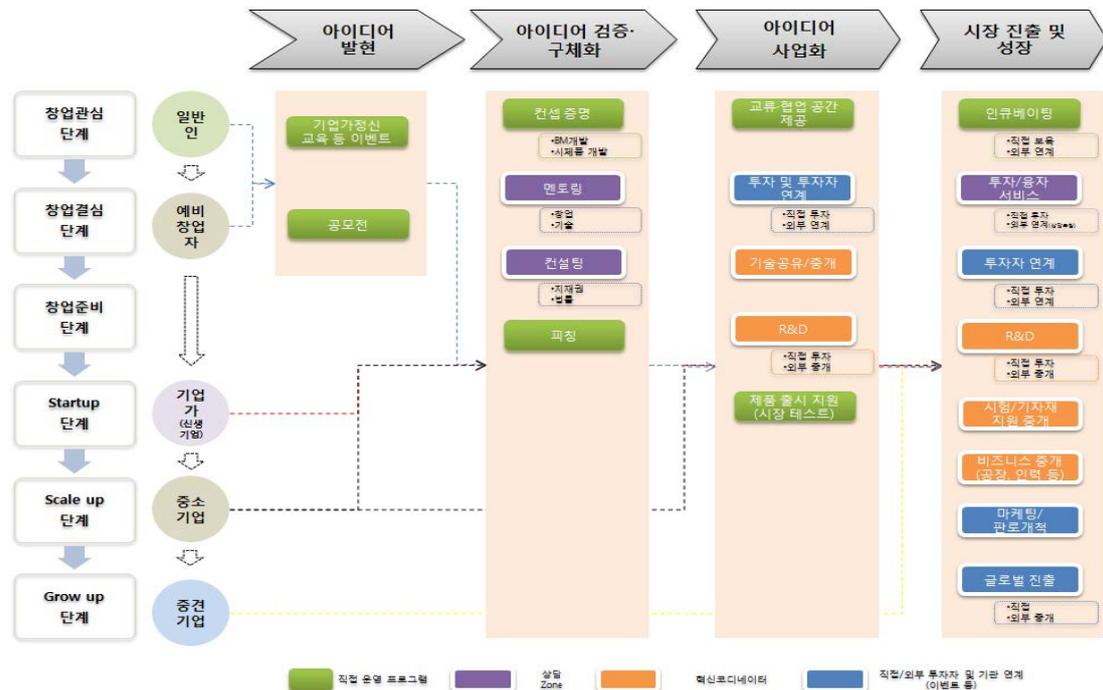


[그림 15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목표 및 개선 방향

1. 혁신센터 기업가적 활동 서비스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범위가 지역의 기업가를 창출하는 창업 허브 기능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광범위하다보니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목표 고객(Target)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인재의 기업가적 관심과 결심 단계를 거쳐 기업가적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허브 기능은 물론, 이들의 성장 및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발현에서 사업화까지는 물론 시장 진출과 성장 과정을 도와주는데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지역의 기업가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고객은 물론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지로서 지역민의 지지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혁신센터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지역 혁신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이끌어 나가야만 한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지역별 계획과 여건에 맞게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며, 지역의 하이테크기업의 성장을 지원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혁신센터를 찾는 모든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개방형 서비스와 지역의 혁신 조직들과 연계하여 혁신 자원의 공유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중개 서비스, 그리고 지역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업가적 활동에 필요한 촉매적 이벤트나 연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혁신센터의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기본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 개소된 혁신센터는 물론 새롭게 개소할 혁신센터를 포함하여 혁신센터 모두의 공통적 서비스 모델로서 지역의 기업가적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4]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서비스 공통 모델 개념도

2. 혁신센터의 협업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어 지역의 혁신 조직간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조직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든 분야 또는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기존 지역의 혁신조직들도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지역의 기업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 유사 중복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기관간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혁신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에서 부터 특허 등 기술 중개, 산학연 협력 중개, 시제품제작 등 시험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투자자 연계 등의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의 인재와 기업가의 측면에서도 지역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혁신조직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기업의 창출 및 성장 지원에 충분한 지원을 못하는 경우 상호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재 및 기업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 미국 샌디에고주립대학의 커넥트(UCSD CONNECT) 사례를 참고해 볼만하다고 할 수 있다. CONNECT는 '85년 첨단유망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이 설립한 비영리 자립조직(non-profit, linking, self sustaining, membership organization)으로 현재는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83년 국립연구소인 Micr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MCC) 유치 실패를 계기로 산학협력을 통한 샌디에고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UCSD의 Richard Atkinson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 CONNECT는 Know-how와 Know-who를 가지고 연구자, 기업가, 투자자,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지자체 등 “사람-기술-자금”을 연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기 UCSD CONNECT 사례는 산학협력의 성공사례로도 많이 소개된 바 있는데, 대학과 기업간 관계형성에 주력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면 개입하지 않은 유연한 구조가 특징으로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촉매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액셀러레이터 활동은 물론 샌디에고 혁신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 혁신 성과를 조사 분석 등 샌디에고 지역의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의 클러스터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CONNECT는 스프링보드 프로그램(Springboard Program), 기술 및 생명공학분야 금융포럼(Technology and Life Science Financial Forum), 우수혁신 신제품상(Most Innovative New Products Award), 글로벌 CONNEC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혁신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간 경쟁과 협력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정책적 당위성 측면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이 갖고 있거나 갖고자 하는 특화된 분야로 인한 협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공통의 운영 모델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기업가적 촉매적 이벤트 개최, 멘토 및 전문가 풀의 구축 및 활용 등에 있어 연계·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혁신센터간 협력을 이끌고 조정해 줄 조정 협의체의 신설이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또는 미래부가 그 조정자 역할을 맡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관리 강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책 추진의 당위성 및 성과에 대한 설명 책임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에 대한 노력과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인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성과와 그 의미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책적 지지는 물론 기업가적 문화 형성과 참여자는 물론 지지자를 확대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출된 성과의 적절한 홍보 및 설명은 국민적 지지와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적절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센터별 한정된 인원이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각 센터를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적극적인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 따라 창출된 성과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담 관리인력 부족, 잦은 변경 및 인수인계 미흡, 적극적인 성과 발굴 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정책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전주기적 성과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전주기적 성과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업무 및 비용이 부담되나 재정투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주기적 성과 모니터링의 사례로 미국의 SUAP의 홈페이지를 통한 성과 공개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2011년 멘토 및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을 통해 차세대 창업가를 양성하고 민간스폰서로부터 재원조달을 받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였으며 이니셔티브의(3년) 일환으로 지역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SUAP(Startup America Partnership)를 설립하였다. SUAP의 주요목표는 크게 교육, 사업화, 그리고 창업지원 이 세 가지로 고등학교, 지역 전문대학, 종합대학 등에 효과적인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생태계 개발, 교수 참여 확대, 기술 라이선싱 부여 및 프로세스 간소화 등 대학으로부터 개발되는 원천 연구가 시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원하며 더 많은 도시와 대학에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통해 기업가정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것이다.

초기 SUAP는 The Case Foundation과 The Kauffman Foundation의 지원으로 설립하여 지역의 창업가에게 자본, 인력, 지식 등의 창업 생태계 각 요

소로의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인 지역기반 전초기지(Outpost)역할을 맡고 있으며 2013년 5월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팀인 Startup Weekend와 합병하여 글로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UP Global로 재출범하였다. 현재 SUAP는 정부지원 이외에도 American Airlines, American Express Open, Intuit, Microsoft 등의 민간 스폰서로부터 재원을 조달 받아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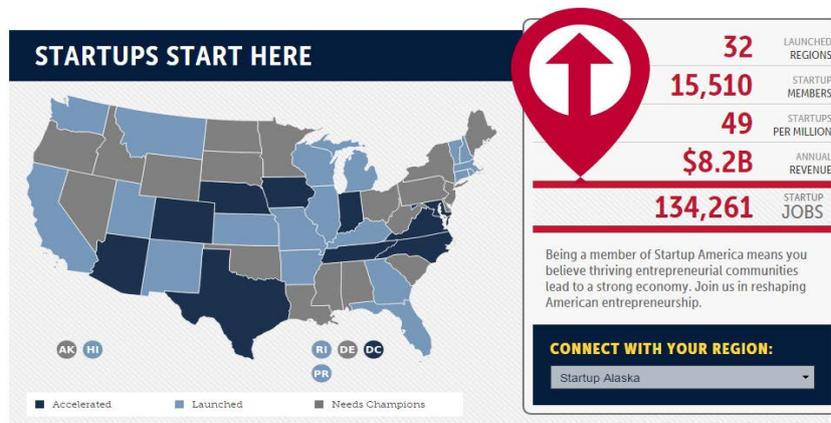
SUAP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지역별 지역 기업가들 간의 네트워킹 형성 및 기회, 그리고 기업성장에 도움을 줄 교육을 지원하고 SUAP 지역 대표자들은 지역 간의 단절을 막고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정기적인 전국 컨퍼런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표 135> SUAP의 기업 분류 현황 및 지원 대상

(Idea)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아직 창업하지 못한 경우
(Startup)	지원시점 기준 설립한지 5년을 넘지 않으며, 최소 2명의 직원보유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혹은 창설자와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Rampup)	직원5명 이상의 기업으로 적어도 2곳 이상의 고객 확보, 지원시점 기준, 설립한지 10년을 넘지 않은 경우
(Speedup)	직원25명 이상의 기업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며, 지원시점 기준 설립한지 10년을 넘지 않은 경우

출처 : SUAP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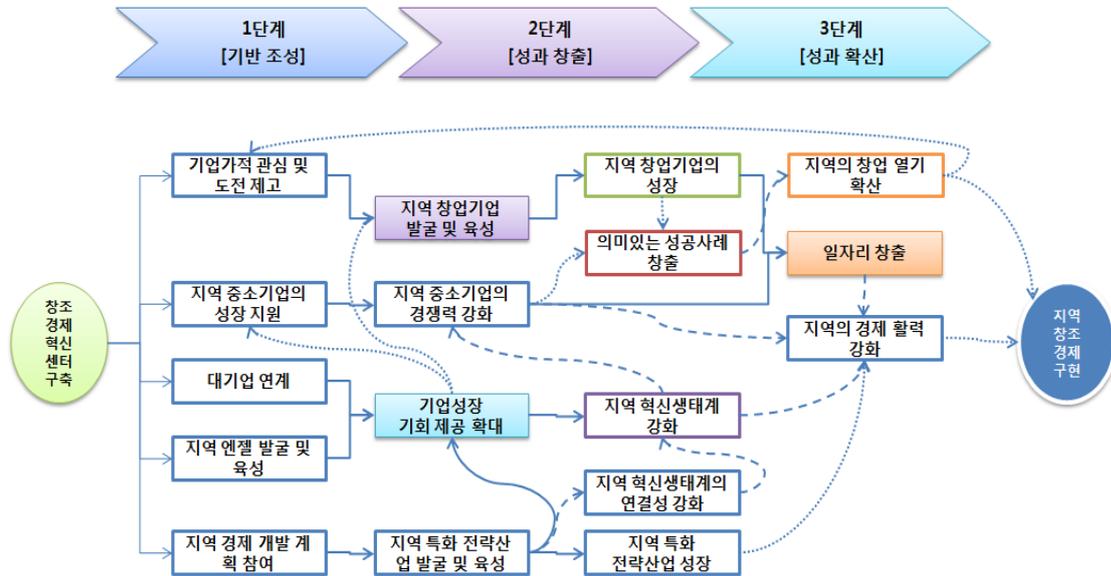
SUAP는 회원이 된 창업기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립자, 고용인, 현재 매출 등에 대한 자료를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할 것을 요하며 SUAP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별 업데이트된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SUAP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2월 기준으로 미국 내 32개주, 15,510개의 창업기업이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 연차수익 82억 달러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5] SUAP 가입 회원 현황

출처: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홈페이지

위와 같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함으로써 재정투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6]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성과 논리모형 개념도

또한 전주기적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지역 센터별 특성·대기업 역량 등을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도출이라 할 수 있다. 센터별 기본 운영모델을 고려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공통지표와 함께 센터별 특화된 모델을 고려한 자율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과지표 내 공통지표와 자율지표간의 가중치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 및 운영 모델에 있어 지역적 상황이 고려된 차이를 가중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적절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도시 인구규모, 산업기반 구조, 도시 내 혁신주체간의 근접성 및 연결성 등의 특성은 물론 및 지역 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산업분야, CVC 경험 등 역량이 다른 점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혁신센터별 특화된 프로그램 및 운영 내용을 고려한 성과관리 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제안 사례²²⁰⁾

본 절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지역 특화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비롯한 시·도 지역발전 전략 수립 등에 참여함에 있어 고민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례로 경기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의 각 혁신주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너지와 기술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였다.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형 경제시대가 지나고, 양적 성장이 아닌 혁신과 창조적 발상이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2004년부터 추진된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은 산업단지를 생산 중심의 제조업 집적지를 넘어서 아이디어와 정보, 지식이 선순환되는 혁신 창출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략에서 추진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도입으로 과거 가발, 섬유·봉제 산업 등을 중심으로 60~70년대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구로공단은 이제 G밸리라는 명칭의 첨단 IT 클러스터로 변모하였다. 그밖에도 구미 전기전자클러스터, 창원 기계클러스터, 광주 광산업클러스터,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등 산업단지별 특화산업 중심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인 미니클러스터가 전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70여 개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업·대학·연구소·유관기관 등 산-학-연 종사자 7,2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 수출, 고용 성과가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2~6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중소기업 간 지식과 정보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산업단지는 지식과 정보,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지역 단위 클러스터를 수직·수평으로 연결하여 연관산업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전국 단위의 테마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키워드를 융복합, 네트워크, 순환형 경제로 요약한다면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과거의 공간에서 탈피하여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룰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제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풀어내야 할 문제도 적지

220) 본 고 부분은 경기도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위탁연구과제(단국대학교 방성일)로 수행한 결과이며, 이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췌 요약하였음

않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하드웨어를 리모델링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은 물론 혁신지원 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업, 연구소, 대학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공조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R&D 역량과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전반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신규시장에 진출하도록 혁신적 육성하는 신개념의 기업혁신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연구소, 금융 및 기술 지원기관 간의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또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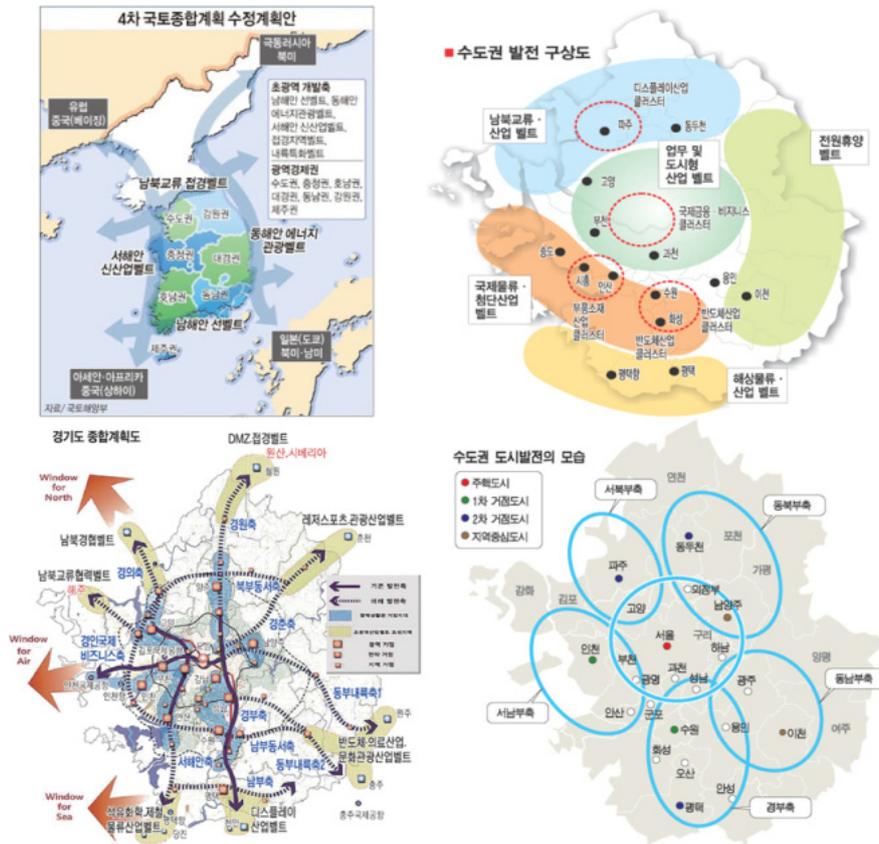
[그림 157] 경기도 동남부 권역의 지리적 현황

경기도 남부 권역은 다양한 지리적 산업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경기 남부 권역은 국내 최대 광역 노동시장(Job Market)의 배후지역이며, 서울의 최대 노동시장은 강북에서 강남 위주로 재편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인적자원과 물류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이라는 국내 최대 광역 노동시장의 막대한 제품 및 서비스수요를 감당하기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의 젓줄인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 R&D 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평택·당진항 등에 접근성이 뛰어나 글로벌 R&D 및 제품 유통측면에서 유리하며 최적의 교통·물류 입지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남부 권역은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죽전디지털밸리, 경기남부미니 TP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 핵심거점이 될 첨단산업 R&D 자원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거점지역이다. 그리고 국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현장밀착형 최우수 선도대학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관광분야에 강점이 있는 경기대 등 다양한 학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혁신 R&D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하다.

경기 남부권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도 충분하다. 우선,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경기도에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권역별 혁신거점 조성'과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지식기반의 강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집적하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수도권 남부가 지역전략사업과 지역 선도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158] 경기도 공공부문 개발 정책 현황

자료: 정부기관 및 경기도 발전계획 발췌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서는 '경기도 내 지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기반 산업육성'과 '지식기반 산업집적지 조성'을 전략으로 설정한 바 있다.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도시인 용인시의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거점별 첨단산업 및 연구중심 클러스터 형성'과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연계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산업 계획(2010)에 따르면 IT/SW융합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 R&D 특성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제약, 첨단의료사업, 첨단 융복합사업 특성화, 유기농 농축수산 가공식품 개발, 조류독감 구제역 예방, 생명과학, 친환경 자원/그린에너지, 천연자원, 친환경 소재, 부품/재료, 정보/산업, 보안 특성화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신산업의 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남부 및 동남부 권역은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죽전 디지털밸리 등의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기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및 첨단분야의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광역 노동시장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어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기술의 활용도가 높고 필요성도 충분하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학-연의 구성요소가 갖춰진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남부 지역은 IT 산업 및 타산업 분야와 신산업을 창출하여 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경기 남부의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의 주력 도입업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세대 성장 동력들을 선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한류를 주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차세대 성장 동력들과 결합할 경우, 향후 부가가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조경제의 주력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개념은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이다. 디자인적 사고는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이다. 즉, 디자인적 사고는 남들과 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적 사고는 직관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이 둘 간의 융합과 균형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통합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적 사고를 체득한 개인이나 기업조직은 예술과 과학, 직관과 분석, 창조와 논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로부터 결실을 맺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등 세계 최고의 혁신가들이 바로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서 성공에 이른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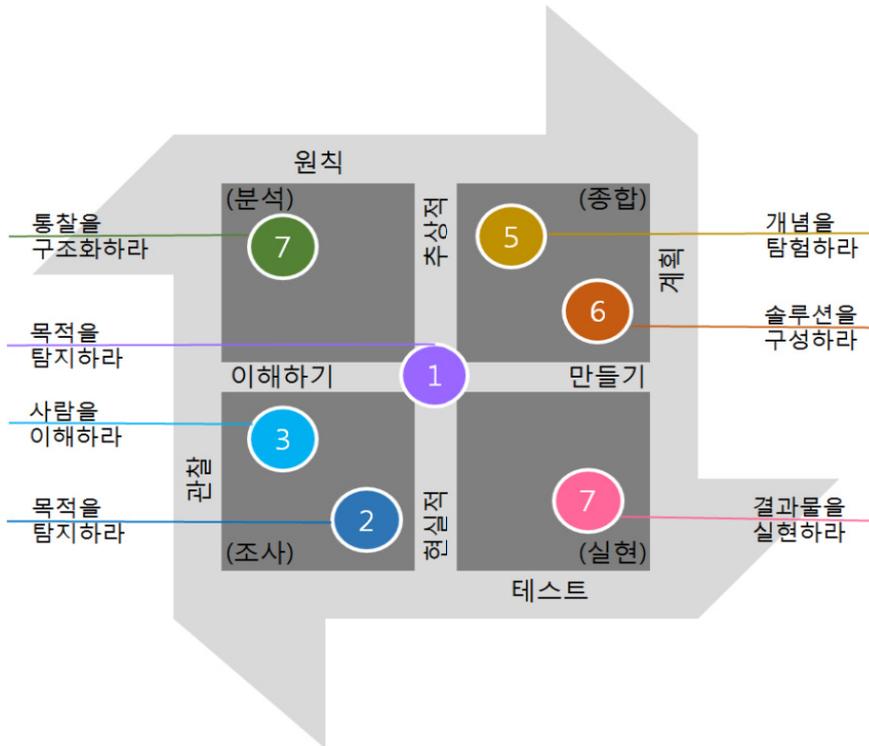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저자 로저 마틴은 위기관리에 민감한 대부분 기업들은 기존 경험이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이 현재의 성공에 빠져서 ‘안전’이라는 유혹에 빠져 드는 순간, 디자인적으로 사고하는 일을 멈추게 되고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은 좀 더 열린 자세로 창조적이고도 직관적 사고를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디자인 본능과 경영자의 분석적 두뇌’를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이 곧 ‘기업의 살 길’인 것이다.

IDEO의 CEO인 팀 브라운은 ‘디자인적 사고란 사람 중심의 혁신 활동을 고취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곧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사고란 한 마디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을 유도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적 사고는 세 영역을 거치게 된다. 첫째 영역은 ‘영감(inspiration)’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을 말한다. 그 환경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영역은 ‘아이디어화(ideation)’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 개발,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셋째 영역은 ‘실행(implementation)’으로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진로를 계획하는 것이다. 각 프로젝트에는 이 세 영역 중 앞의 두 영역이 포함돼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최소한 한 번 이상이 세 영역을 통과하게 된다.

디자인 혁신 프로세스는 현재 존재하는 가시적인 요소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관념과 개념적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구성함으로써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추상적 용어로 새로운 개념을 탐구할 수 있고, 개념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평가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과 추상적 관념 사이를 오가는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디자인 혁신 프로세스는 현실과 추상, 이해와 실행이라는 양극단을 오가며 행동 방식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 디자인 혁신 프로세스에서 ‘조사’는 현실을 알아가는 단계이며, ‘분석’은 현실에 대한 정보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꾸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심리상태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종합'은 분석에 기반한 추상적 모델을 만드는 단계이며, '실현'은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조사, 분석, 종합, 실현이라는 4가지 영역을 하나로 결합하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세스 모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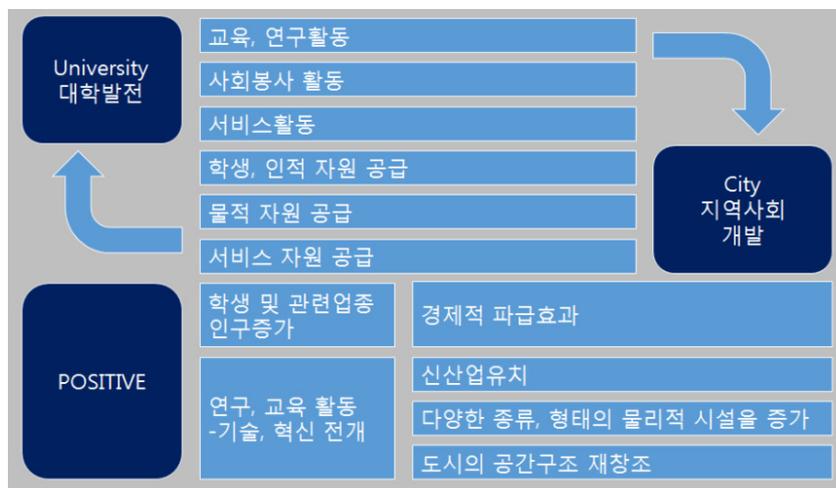


[그림 159] 디자인 혁신 프로세스

기업 혁신 클러스터는 디자인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인재와 창의적 지식의 생산으로 글로벌 마켓과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교육기관,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Glocal Initiative Educational Institution)이 핵심이 될 것이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대학,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인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첨단지식의 생산역량과 창조형 인재육성 역량을 갖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산업과 창조도시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은 세계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면서, 지식생산과 창조형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이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의 핵심은 지식생산과 창조형 인재육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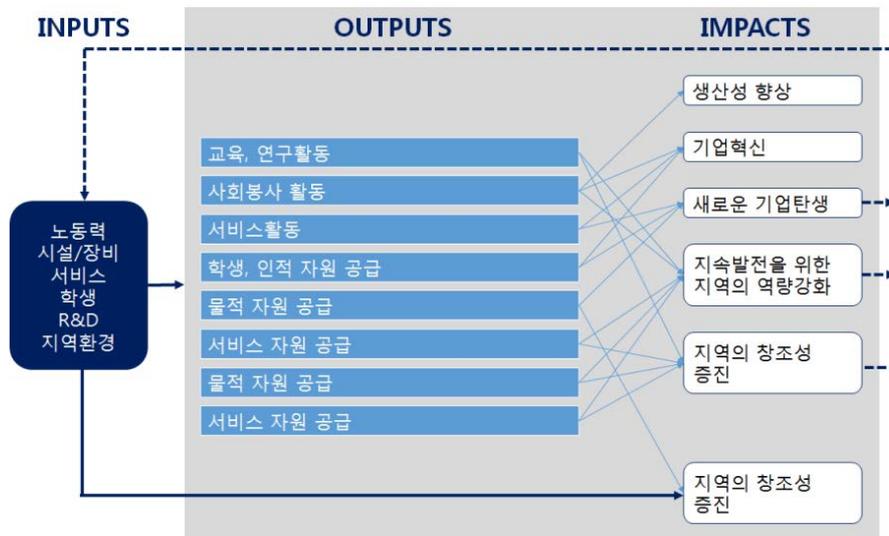
스탠퍼드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글로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창업을 지원했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탠퍼드 테크놀로지 벤처 프로그램(STVP, Stanford Technology Ventures Program)'을 운영하고, '스탠퍼드 특허팀(OTL,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을 설립해 특허등록에서 투자유치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컴퓨터 과학과 대학원생 시절에 대학으로부터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을 받았다. 이 때문에 스탠퍼드대학교는 구글의 주식뿐 아니라 구글의 핵심기술 특허권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이 단순히 학생을 배출해 실리콘밸리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고 그 신생기업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이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지식 및 지식재산의 생산능력과 창조형 인재육성 패러다임,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을 중시하는 학풍, 산-학-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창조도시의 허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학부중심대학, 대학원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을 육성하는 전략을 펴왔지만,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을 육성하는 전략을 가지지 못하였다. 대학원중심대학 교수, 연구원 등 전문인력 양성에만 초점이 있고,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첨단지식의 창출보다는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이나 실무협력에 치중되어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과는 차이가 있다.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을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160]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Goldstein & Renault는 대학의 R&D활동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했으며, Adams는 대학에 의한 파급효과는 타 산업 활동과 비교할 때, 그 영향이 지역에 귀속되는 정도가 커지게 되며, 그 정도는 R&D기반에 의해 더욱 증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남부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R&D 활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효과가 가속화되고, 타 산업활동과 비교해 파급효과의 지역귀속 정도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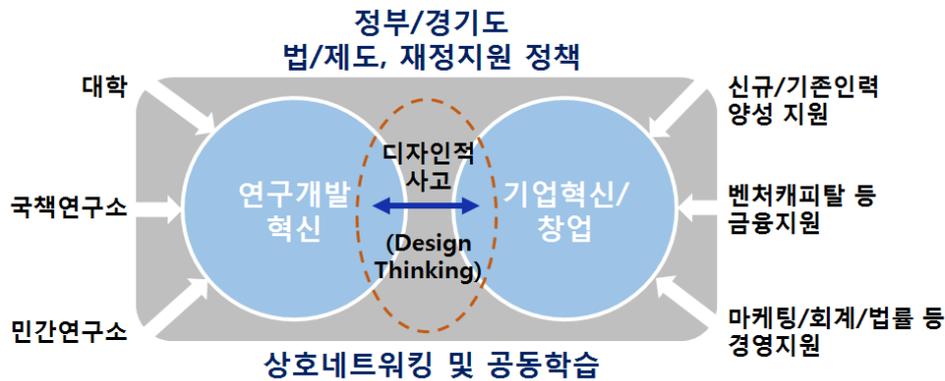


[그림 161] 대학을 통한 지역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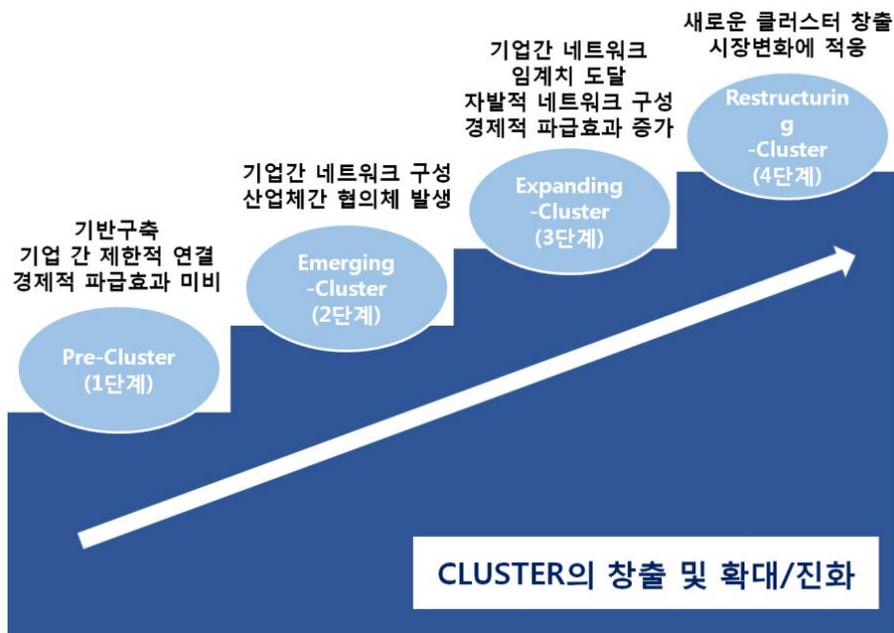
자료: University outputs and expected economic impacts, 1995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는 과학기술(software)과 아이디어·상상력으로 디자인한 신산업 창출과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경기·수도권에서의 역할은 경기 남부의 판교 테크노밸리, 광고 테크노밸리, 죽전 디지털밸리와 같은 허브 등을 잇는 창조과학루트(Creative Science Route)의 산학연 연계 중심축 역할은 물론, 경기 남부권의 학술지원 및 공동연구체계 구축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ICT 핵심기술과 지식기반 산업에 필요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빅데이터, 고속 컴퓨팅 및 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을 갖춘 맞춤형 인재개발을 지향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핵심분야인 빅데이터, 초고성능 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통하여 창조경제혁신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대학, 연구소 및 지식기반산업단지에 디자인적 사고를 접목시켜 기업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노동이 아닌 일과 즐거움이 결합된 일(operational)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보고(寶庫)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CT 융합기술' 등의 핵심기술이 Matrix 방식으로 향후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설정한다. 창조경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술의 실현/실증 공간으로 국외 R&D 기관, 국내 R&D 기관, 기업체 부설 R&D기관, S/W 기업관, 경기도 통합집적센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2]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 개념



[그림 163]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 발전 단계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전략의 단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수 있다.

- Step 1 : 친환경 천연자원 및 전통산업의 첨단 융복합화
- Step 2 : 특성화 산업군 자원의 소프트웨어 기반 인재양성 및 관련 산업체 집중지원
- Step 3 : ICT 융합, SW융합, 콘텐츠 융합산업 등 창조과학의 전략적 육성
- Step 4 : 법률, 경영, 마케팅, 지적재산권, 디자인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접목을 통해 R&D 결과물의 상품화 및 시장개척 추진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 발전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1단계는 클러스터의 기반을 구축하는 '클러스터 준비 단계(Pre-Cluster)'이다. 초기 형성 단계이므로 기업간 연결이 제한적이므로, 소프트웨어 기반 R&D 자원의 창조과학융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성화 사업 발굴과 협력체계 확립을 하여야 한다. 2단계는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클러스터 부흥 단계(Emerging Cluster)'이다. 1단계의 인프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및 연구소 협력방안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자재 및 공간집적화를 완료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기관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1~2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공통 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일정기간 안정화를 위한 운영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부문별 특화 산업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선별하고, 타 지역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3단계는 산-학-연-관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시작하는 '클러스터 확장 단계(Expanding Cluster)'이다. 혁신 클러스터 협의체와 특성화 산업군의 유기적인 활동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성화 산업군의 연구개발과 우수한 연구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연계 사업의 글로벌 특성화를 확대 추진한다. 마지막 4단계는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재편(Restructuring Cluster) 단계'이다. 지역간, 산업간, 수직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 사업모델을 극대화하고 판로개척을 통한 신 산업군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모바일 혁명이후의 초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적 사고를 가지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가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 소프

트웨어 기반 디자인 중심의 융합 프로세스는 논리와 직관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의 경쟁이 역동으로 변해가는 초경쟁력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는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와 같은 혁신방법론으로 모든 전공 및 산업분야에 융합이 가능하므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은 물론 IT/SW 융합 기반의 시너지 창출이 활성화가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는 기존 산업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법률, 경영/마케팅, 지적 재산권, 디자인 등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접목시켜 창조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를 산-학-연 연계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기술력이 있으나 시설투자 및 R&D활동 등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의 인큐베이팅과 창조적 문화코드와 ICT 융합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의 리쿠르팅 등 일자리창출의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남부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지역투입산출모형(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면, 클러스터 조성에 약 4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시설투자 측면에서 생산유발효과는 1,417억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2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180명으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후 연구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는 2015년에서 2024년까지 10년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조성완료에 따른 본격 운영시점을 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혁신 클러스터 조성 후 전체 매출이 매년 10%씩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제외한 영업비용을 재투자비용으로 가정하면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재투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6>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혁신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재투자비용

(억원)

성장률	'18	'19	'20	'21	'22	'23	'24
10%적용	773	935	1,245	1,823	2,935	5,200	10,134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를 사용하여 최종수요 10억원 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7> 수요 10억원당 경제적 파급효과

성장률	'15~'17	'18
부가가치 유발효과(억원)	8.0	5.2
취업 유발효과(명)	12.8	8.8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107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2,971명으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IT 융합기술 연구개발과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합, 문화 콘텐츠, 디자인적 사고,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률, 경영/마케팅, 지적 재산권, 디자인 등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접목시켜 창조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지원의 거시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 정책방향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 동남부권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허브 조성에 기여하고, 용인, 성남, 수원 등의 경제활성화, 자본 집적 및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미시적 측면은 대학의 산학연 연계기능, 법률, 경영, 마케팅, 지적재산권, 디자인 등 전문지식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적 환경을 활용하여 디자인적 사고를 갖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클러스터에 지속적으로 공급가능 할 것이다. 또한, 집적화된 연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기술 산업분야의 기술력 및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과 1인 창조기업들의 연구활동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의 산-학-연-관 협의체를 통하여 엔젤, 벤처캐피탈 등 투자연계지원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상품화 및 마켓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죽전 디지털밸리 등의 Golden Triangle의 산-학-연 체계의 구심점으로 발전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대학들의 학술적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IT·SW 융합 기반의 혁신 클러스터의 메카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식기반 사회 속에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 시대,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주요국들 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새로운 신산업·신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핵심적 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기업가 창출 및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지역 개발 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지역적 차원에 있어서도 지역 경제 개발 및 성장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구축하면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경제 개발의 단계와 전략에 있어 정책적 초점은 기업가의 창출 및 기업의 유지·성장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방향도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가의 창출 및 기존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비즈니스 개발 수단과 비교할 때 단순한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교류협업 공간(co-working, networking place)이나 중소기업 지원 센터와 같은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의 혁신센터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물론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등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의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지향하는 지역 경제성장의 정책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리콘밸리, 실리콘앨리, 테크시티, 실리콘알레, 실리콘와디 등과 같이 도시 기반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 기존 기업의 성장과 지역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있어 지역 혁신자원의 연계·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요

한 고려요인이 기업가와 연관성을 갖는 요소로 연결성(connectivity)을 두고 있다. 지원조직간의 관계는 조직들 간의 융합 활동을 통한 관계형성과 기업가들과 주요조직들과의 관계는 기업의 지원 유형에 따른 유형과 다양한 지원 요소들간의 연결성으로 나타난다. Leigh & Blakely(2013)은 지역 개발은 해당 지역의 역량과 자원의 곱이라고 한 부분과 지역 경제 개발의 구성요인인 지역성, 경제적 기반, 고용 자원, 커뮤니티 자원의 재형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기초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혁신자원 및 스타트업의 생태계의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모델을 자국 내 이식하고자 하는 해외 주요국의 스타트업 우수 도시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시·도는 이들 도시에 비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결성이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해외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은 일정한 규모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리콘와디와 아인트호벤과 같은 도시들에 비해 혁신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물론 연결성은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결성이 우수한 생태계 조성에는 고급 두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지도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와 상호학습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업가적 리더쉽과 지역 혁신 주체들간의 긴밀한 파트너쉽이 존재하며,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혁신 기술과 지역 내 앵커기업이나 종자기업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혁신을 형성하는 과정에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역할도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창조경제를 이끌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이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역창조경제협의회라는 창조경제 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는 지역 혁신생태계 내 혁신 조직 및 자원 간 연결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5년 2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6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상반기 중으로 전국적으로 개소될 계획이 있는 시점에서 이 협의체의 운영 성과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이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모델을 고민한 점은 올바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창조경제협의회의 운영 방안으로는 첫째, 기업가 창출 및 기업가 유지에 있어 지역의 지원조직간 연결성을 강화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자원간 혁신코디네이터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업가적 활동 및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특화 전략 산업 발굴에 있어 논의와 지역 자원과

중앙, 민간, 지역 간의 연결성의 확대이다. 기존 산업부의 지역산업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계획을 결합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의 지역 내 연결성 확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지역의 발전 계획과 창조경제 추진 체계에 참여하는 민간의 협력,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간에도 연계·협력을 통한 연결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 지역창조경제협의체내의 워킹 그룹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 혁신센터간 협력에 있어 조정자 역할을 할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체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자생적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및 강력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이다. 지역내 기술, 인재 등의 풀뿌리 기업가정신을 형성하고 이플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확대 및 이들과의 협력은 물론 그동안 부족한 지역 내 자금 조달 채널인 엔젤의 발굴 및 엑셀러레이터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창조경제협의체 운영 모델의 개선 과제로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창업 허브 및 혁신 거점으로써의 역할에 두고 있다 보니 현재의 한정된 자원에 비해 그 서비스 지원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할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혁신자원과 혁신센터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기관간의 연결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 인재와 기업가의 측면에서도 지역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혁신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에서부터 특허 등 기술 중개, 산학연 협력 중개, 시제품제작 등 시험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투자자 연계 등의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적 성과와 그 의미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책적 지지는 물론 기업가적 문화 형성과 참여자는 물론 지지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의 전주기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 추진에 있어 고려해 봐야 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향하는 지역

창조경제 구현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자원은 물론 중앙과 민간의 강력한 혁신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스타트업 창출의 협업·공간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혁신 자원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원 및 예산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허브와 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의 자원과 인원으로는 충분한 임무 수행에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 전담 기업은 물론 장기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혁신센터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 최근의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등 패스트 팩토리(fast factory)를 추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신 방법론을 비롯하여 충분한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추고 열정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창조경제혁신센터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 전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기업 벤처링(CVC)의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다. 기업 벤처링(CVC)은 특히 현재 부족한 지역의 엔젤, 벤처캐피탈 등 자금조달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에 있어 유용한 자금 조달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벤처캐피탈은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 벤처링을 통해 기업가적 활동의 지원과 벤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Exits)의 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지역의 기업가 창출과 재창출을 활발히 이끌 수 있는 길이라 보인다.

참고문헌

- 미래부, 2014.3.7.,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구축 방안'
- 미래부, 보도자료, 2014.12.18., '경북 창조경제 트라이앵글(대구-경북(구미)-포항) 구축, 경북지역 창조경제생태계 구성에 박차!'
- 미래부, 산업부, 보도자료, 2014.12.26.,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형 실리콘벨리를 목표로'
- 청와대, 보도자료, 2014.12.17., '경북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재도약 이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11, 지역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안), 제정, 2014.11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지역산업정책 백서 1권'
- 강영수, KOTRA, 동향/연구보고서, 2002, '기술강국 이스라엘 벤처기업 성공비결'
- 카우프만재단, 2014, 'Examini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T. Louis'
- From Malizia and Feser, 1999, "Understand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1999,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 Bogart, William Thomas, 1998, "Economics of Cities and Suburbs", 1st Edition
- Leigh & Blakely, 2013, 'Plann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
- GOV.UK, 2013, 'Tech City celebrates third anniversary as new figures show economic success story'
- GOV.UK, 2012, 'Joanna Shields to lead Tech City Investment Organisation'
- GOV.UK, 'UKTI Business Ambassadors'

-
- GOV.UK, 2010, 'PM announces new Business Ambassadors'
- New York City Regional Councils, 2013, 'New York C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and NYC Seedstart Announce Enterprise 2013 Startup Accelerator Program'
- New York State, 2013, 'Governor Cuomo Launches Start-Up NY Program a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New York City'
- National Report, November 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The Netherlands 2012'
- Endeavor Insight, November 2014, 'THE POWER OF ENTREPRENEUR NETWORKS: How New York City Became the Role Model for Other Urban Tech Hubs'
- University of California Technology Transfer Annual Report, 2011
-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2012
-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2012, 'The Bay Area Innovation System: Its Elements and Linkages'
- Eindhoven, 2011, 'Talent topspot & Technology hotspot, Brainport Development NV'
- California Institute for Quantitative Biosciences, "About," <http://qb3.org/about> (accessed June 1, 2012).
- Washington D.C.: Council on Jobs and Competitiveness, 2011, 'Council on Jobs and Competitiveness, Road Map to Renewal'
-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s, Technology and Research, 2013, 'Berlin's Digital Economy - Starting up. Growing. Investing'
- Senate Department for Economic Affairs, Technology and Research Branch Office Projekt Zukunft, 'PROJEKT ZUKUNFT: STATE INITIATIVE FOR THE BERLIN ICT, MEDIA AND CREATIVE INDUSTRIES'
- PWC, 2012,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McKinsey & Company, 2013, McKinsey study: Berlin can become Europe's leading startup hub
- World Economic Forum, '2012-2013 report'

Thomas P. DiNapoli, April, 2014, New York State Comptroller, 'New York City's Growing High-Tech Industry'

Max Nathan, Emma Vandore, Rob Whitehead. Centre for London 2012, BSD/ Secure Data Service, "A Tale of Tech City: The Future of Inner East London's Digital Economy"

Berlin aktuell, Juli 2013, 'Digitale Wirtschaft - Standortanalyse im Städtevergleich'

Ryan Garner, Julian Blake, May, 2013, "Tech City Future Report: FOREWORD"

Brainport Development, 2011, Technish Weekblad by Brainport Development

Slide Share, 2014.01.08., 'Berlin City Beat - A Handy Guide for Startups in Berlin'

NICK BEIM, 2014, 'The Rise and Future of the New York Startup Ecosystem'

Dr. Philip Steden / Sebastian Holtgrewe, Berlin Partner, 2013, "Berlin Partner GmbH & Business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A Presentation for the UBC Business Commission"

CB insight, 'The Next Silicon Valley is Probably Going to be...Silicon Valley', 2013년 8월 13일자

Inside Higher ED, 'The New York Tax Advantage', 2013년 8월 14일자

Mashable, 'Why Startups Choose New York City Over Silicon Valley', 2012년 8월 21일자

computerweekly.com, 'Tech City: 27% of London job growth comes from technology', 2013년 12월 6일자

The Global and Mail, 'Startup city: Berlin as tech magnet', 2013년 5월 30일자

Venture Village, "Poor but sexy? We'll just take sexy, thanks..." Berlin's digital economy booms, 2013년 7월 2일자

Venture Village, "Make Tempelhof Airport a startup hub - and other McKinsey tips for the Berlin Senate, 2013년 10월 8일자

entrepreneurial-insights, 'Startup Hubs Around The World: New York', 2014년 7월 7일자

Landing Standing, 'Berlin's Startup Scene - Great For The Traveling Entrepreneur'

Wikipedia, 2014, "Silicon Roundabout is alive and well=Tech City News". Retrieved 17 March 2014.

Wikipedia, 2014, "PM announces East London 'tech city'". Number 10. Retrieved 4 November 2010.

Tech City News, 'How can I make my company eligible for EIS/SEIS?'

Forbes, '7 Ways Startups Get Tagged as Too Risky by Investors', 2011sus 11월 30일자

정책브리핑, '제1회 대전창조경제협의회 개최', 2014년 03월 10일자

정책브리핑, '제1회 대구창조경제협의회 개최', 2014년 03월 17일자

아시아경제,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 1:1 매칭', 2014년 9월 3일자

아시아경제, '정부-SK, 대전에 '창조경제 커넥트' 가동', 2014.10.10.일자

뉴스타운, '대구 중구청,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2015.01.23일자

뉴스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본부, 8개 대학과 창업 활성화 협약', 2013.03.20. 일자

문화경제신문, '우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대기업은 어디?', 2014년 9월 16일자

해럴드경제뉴스, 'SK와 손잡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두달만에 투자·매출 쑥쑥', 2014년 12월 29일자

대전일보,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완료 FTA 활용도 높여 무역 강화', 2015년 1월 16일자

중앙일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의미와 전망] 宋 지사, 민선6기 주요 도정 추진 '날개', 2014년 11월 24일자

청와대 블로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 '자동차 산업'부터 '서민 경제'까지 육성 지원, 2015년 1월 27일자

청와대 블로그, '박근혜 대통령,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 충북 창조 경제의 희망찬 내일을 열다!', 2015년 2월 4일자

중앙일보, '전북테크노파크-한국산업은행 호남본부, 창업 활성화·벤처 지원 업무 협약', 2014년 6월 19일자

연합뉴스, '전북테크노파크-한국조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4년 7월 29일자

충북일보, '충북 예비창업자·중소기업지원위해 산·학·관 협약', 2014년 06월 19일자
충청일보, '충북지식재산센터 IP 허브구축 창조경제활성화 앞장', 2015-02-25일자
인천일보, 'SW 융합 클러스터' 사업지역 송도·제물포 '경제자유구역·JST' 강점,
2014년 7월 4일자
tvreport,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2013년
10월 9일자
매일일보, 인하대"인천 기업가 축제 한마당", 2014년 11월 27일자
시민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 한국폴리텍 II 대와 협력체계 구축',
2013년 10월 16일자
국제뉴스,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하공전과 업무협약', 2014년 4월 29일자
기호일보, '인천대 창업지원단-중기진흥공, 일자리 지원 협약', 2013년 6월 18일자
머니투데이뉴스, '인천대-인천경제통상진흥원 "창업 제품 판매 지원"', 2013년 2월
15일자
경인일보, '인천대 창업지원단등 '엔젤투자생태계' 조성', 2014년 4월 18일
etnews, '글로벌 창업현장을 가다 <4>영국, 유럽의 창업 허브', 2012년 8월 27일자

e지표나라, 국가통계포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cbinsights.com

www.nycfuture.org

www.nyctecheconomy.com

www.nickbeim.com

www.futurefifty.com

Für-Gründer.de

www.berlin-partner.de

www.tel-aviv.gov.il

www.boelien.com

www.nycedc.com

www.startup-ny.com/

www.generalassembly.com

www.gov.uk

www.madeinnyc.org

www.stretteons.co.uk

www.digital.nyc

www.izbm.de

www.crowdfunding-berlin.com

ICF 웹사이트, 2011

City Feet 홈페이지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홈페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